

01. ④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6. ③ 07. ④ 08. ⑤ 09. ② 10. ⑤
 11. ② 12. ① 13. ② 14. ⑤ 15. ③ 16. ③ 17. ④ 18. ④ 19. ⑤ 20. ③
 21. ② 22. ⑤ 23. ⑤ 24. ① 25. ② 26. ③ 27. ② 28. ⑤ 29. ④ 30. ①
 31. ③ 32. ③ 33. ① 34. ⑤ 35. ① 36. ③ 37. ⑤ 38. ① 39. ⑤ 40. ②
 41. ④ 42. ⑤ 43. ③ 44. ① 45. ④

[1~3]

1. 협상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모의 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과 시청 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장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협상 참여자인 회사 측과 시청 측은 ‘직원 수’와 ‘하수 처리’, ‘지역 농산물 구입’이라는 협상 안건에 대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② 회사 측과 시청 측은 회사의 지역 주민 ‘채용 인원’ 수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며,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아가고 있다. 즉,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회사 측의 발언과 시청 측의 ‘알겠습니다~수용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대비책부터 듣고 싶습니다.’에서 요구 수용의 조건이 제시되고 있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처리를 하겠습니다.’에서 의견이 절충되고 있다. ⑤ 회사 측과 시청 측 각각의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2. 협상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 참여자의 발화 의도나 발화 전략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은 회사 측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은 회사 측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회사 측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지만,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가 아니다.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가 아니며, ‘㉡’도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가 아니다.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가 아니며,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가 아니다.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가 아니고, ‘㉡’도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로 볼 수 없다.

3. 화법 참여자의 공통점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협상 참여자들의 공통점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와 ‘㉡’는 모두 제안하는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다. 즉, ‘㉠’의 경우, 회사 측은 공장을 확장 이전하는 상황에서 10%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므로 10% 충원은 손실로 보기 어려우며, 시청 측도 지역 주민이 회사에 채용됨으로써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 경우, 제안하는 시청 측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회사 측도 ‘운송비 절감’이라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과 ‘㉡’ 모두 제안하는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제안하는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손실을 감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은 아니다. 가령, ‘㉡’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상대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이라 볼 수 없다. ⑤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제안은 아니다. 가령, ‘㉡’의 경우, 상대방인 회사 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이익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5]

4.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자의 말하기 계획이 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 중, ‘그림 1’과 ‘그림 2’를 한 캔버스에 작가가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발표 앞부분인 ‘이 인물화는 고흐가~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발표 뒷부분인 ‘이 인물화가 그려진~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라는 발언에서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 학교 미술 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5. 말하기 효과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효과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아마 그럴 것입니다.’라는 발언이나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청중의 응답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들이 갖는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공식적 호칭인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부분은 없다. ⑤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6~7]

6. 자료 해석과 활용의 적절성 비판

정답해설: (나)의 1에서는 관광객들이 희망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문제적 실태를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의 자료에서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 실태를 이끌어내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자료에서 생태 보전 관광 프로그램의 부족에 관한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생태 관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첫째 문장), 관광지의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가 훼손되는 등 그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셋째 문장)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생태 관광을 위한 개발 사업 ~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 내용으로 ‘생태계 훼손’ 문제를 다룰 수 있다. ② ‘지역 주민의 참여도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의 태도’가 언급되어 있고, (나)의 2에서는 ‘주민 참여 유도의 어려움’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다)의 첫째 사례에서는 생태 관광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지역 이미지가 제고되었다는 내용을, 둘째 사례에서는 주민들의 가게 소득이 증대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이 생태 관광에서 얻는 ‘이득’의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참여 유도 방안에 관한 글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⑤ (나)의 1에서는 관광객이 원하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첫째, 둘째 유형으로, ‘지역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 걷기 프로그램’, ‘지역의 전설, 문화, 자연 이야기 듣기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지역의 자연 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고유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기 2>의 ㉔(프로그램 운영 측면의 개선 방안)에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7. 조건에 따른 표현

정답해설: 첫째 조건 ‘본론-2-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는 것은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서술하라는 것이다. 둘째 조건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제시된 순서에 따라 내용 요소를 배열하라는 것이다. ④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경우, 우선 둘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데, 자연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는 표현은 ‘근거’에 해당하고, (유산을 잘 물려주기 위해)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해당하며,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이 관광객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내용이므로,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서술하도록 한 첫째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관광객의 태도 측면을 다루고 있고(첫째 조건 충족), 그 근거나 주장, 실천 방안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이들의 순서도 적절하지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② ‘근거-주장-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순서로 전개하고 있으나(둘째 조건 충족), 그 내용이 프로그램 운영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다(첫째 조건 미충족). ③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첫째 조건 미충족), 원론적인 내용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⑤ 관광객의 태도 측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주장이기는 하나(첫째 조건 충족), 주장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순서에 어긋나며 주장과 실천 방안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둘째 조건 미충족).

8.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2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인 ‘소쇄원’의 유래와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부분에서 참고 자료의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기> ㄹ의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의 계획은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3문단의 첫째 문장에서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로 볼 때 <보기> ㄹ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진술한다’의 계획은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ㄱ의 ‘답사의 목적을 제시한다’는 1문단 마지막 문장의 ‘전통 정자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ㄴ의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는 2문단의 ‘처음 방문한 곳은 식영정이다’,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환벽당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한 곳은 제월당과 광풍각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ㄷ의 ‘답사지에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2문단의 ‘문화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나)의 글에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있지 않다. ‘보고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읽은 책을 집에 쌓아 두고만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도서관의 긍정적인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나) 글의 서두에 도서관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의 의의를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겠다는 필자의 전략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 글의 필자는 ‘책값이 부담되어 ~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독자들에게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④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책을 나눔, 물건을 나눔, 노인들을 위한 ‘듣는 책 교실’), (나)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가)에 소개된 첫째, 둘째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 독자가 대상이라 보기 어려운 ‘듣는 책 교실’에 관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⑤ (나) 글이 쓰인 매체는 인터넷(게시판)이며, (나) 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 다음의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에서는 이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 내용의 문단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앞에 쓰일 접속 표현으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러나’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 ‘강화되어진’에는 피동 표현 ‘-되-’, ‘-어지-’가 이중으로 쓰였으므로, ‘강화되어진’을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자리에는 시민들로부터 책을 무료로 받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기여(寄與,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보다는 ‘기부(寄附,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가 적절하다. ③ ㉢의 ‘그 동전’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언급하는 ‘나눔 동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요청(要請)’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또는 그런 청(請)’이며, ‘청(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에게 부탁을 함. 또는 그 부탁.’이다. ㉣의 문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이며 남에게 하는 부탁의 상황이 아니므로, ㉣을 ‘필요(必要,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한글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 해설 : ‘파생어/합성어’,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밝히어 적지 않지’를 기준

으로 하여 네 유형을 제시한 후 각각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②이다. ‘무덤’과 ‘지붕’은 각각 ‘묻- + -엄’, ‘집 + -옹’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지만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있다. 원형을 밝히어 적었다면 “‘묻음’, ‘집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뒤뜰’, ‘쌀알’은 각각 ‘뒤 + 뜰’, ‘쌀 + 알’의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②에 제시된 ‘무덤, 지붕, 뒤뜰, 쌀알’ 이외에 제시된 단어는 ‘마중’과 ‘길이’인데, ‘마중’은 ‘맞- + -옹’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이며, ‘길이’는 ‘길- + -이’의 파생어(명사 또는 부사)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이다.

12.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나)에 적용하여 제시된 사례(가)의 표준 발음을 묻고 있다. 제시된 사례는 ‘꽃이랑(㉠)’과 ‘꽃오목(㉡)’인데, 전자는 제29항과 후자는 제15항과 관련된다. 먼저, ‘꽃이랑’은 해당 단어의 뜻풀이를 참조할 때 ‘꽃 + 이랑’의 합성어이다. 또한,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 음절이 ‘이’이다. 따라서 ‘ㄴ’ 소리를 첨가하여 [꼴니랑]으로 발음해야 한다. 다음으로, ‘꽃오목’은 ‘꽃 + 오목’의 구조로, 이때 ‘오목’은 ‘ㄴ’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부사)이다. 따라서 ‘꽃’의 받침 ‘ㄷ’을 대표음 [ㄷ]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 [꼬도목]이 표준 발음이다.

정답 ①

13.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

정답 해설 : <보기>에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문장에 대해 설명한 후, 같은 유형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②로, 주어인 ‘특징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된 경우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구매’와 ‘구입’의 의미가 중복되어 잘못된 문장이다.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나 “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③ ‘여간하다’는 부정어 앞에 쓰여 ‘이만저만하거나 어지간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로 수정해야 한다. ④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여 잘못된 문장이다. 이 문장의 목적어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인데 ‘연료 효율을 높여 준다.’는 성립하지만 ‘유해 물질을 높여 준다.’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⑤ ‘형언하다’는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형용하여 말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따라서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14.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⑤로, ㉠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15. 높임 표현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먹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이다. ②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과 '댁'인데, 전자는 '묻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댁'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이다. ④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⑤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다.

16.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15세기 국어의 음운과 표기의 특징을 제시한 후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에서는 종성의 'ㄷ'과 'ㅅ'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해 ③에서는 ‘어엿비’의 ‘ㅅ’이 ‘ㄷ’으로 발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수비’에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인 ‘ㅼ’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의 진술에 의하면, ‘ㅼ’들의 ‘ㅼ’은 ‘ㄴ’과 ‘ㄷ’의 두 개의 자음 모두 발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에서 방점을 찍어 성조를 구분하였다고 했는데, ‘히예’의 ‘히’에는 방점 ‘:’가, ‘예’에는 방점 ‘.’가 쓰인 것으로 보아 두 음절의 성조가 서로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연철 표기는 이어 적기를, 분철 표기는 끊어 적기를 의미하는데, ‘뿌메’에서는 이어 적기(연철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17-18] 독서 이론의 적용, 이덕무, ‘사소절(士小節)’

지문해설 : 이 글은 선비들의 독서법에 대한 조언을 담은 이덕무의 글로, 바람직한 독서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어떤 수준의 책을 어떤 단계별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여 그런 단계적 독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친절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책을 읽는 바람직한 방법을 오곡을 가꾸는 농부에 비유하며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며 독서에 관해 본받을 만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것과 여러 의견을 수용하면서 각 의견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읽는 것, 의심이 나는 것을 해결하는 독서법,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글의 끝부분에 ‘용춘 이광지’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바람직한 독서법으로 삶을 가꾼 모범적인 사람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독서를 큰 가치로 여겼던 당대 선비들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올바른 독서를 하기 위한 노력은 선비들이 거쳐야 하는 수양의 필수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본받아야 할 선인의 올바른 독서 방법

17.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쓴이가 제시한 독서법 중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두 참고’하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독을 배제하고 다독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글쓴이는 ‘정밀히 생각하여 의심나는 것을 풀여 가며’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읽는 것(다독)에 중점을 두기 위해 세밀하게 읽는 것을 분류하는 것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글의 첫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글쓴이는 ‘사서’는 배움의 첫 단계에서 읽고 ‘후사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읽어야, 얕은 데서 깊은 데로 들어가는 독서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② ‘의심나는 것을 풀여 가며 읽’이라는 내용은 의문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가며 책을 읽으라는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그릇된 것을 버리면서 읽’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생각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며 읽고, 그 중 그른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⑤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학식에 대해 겸손할 것과 판단에 대해 신중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18. 독서 방법의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수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뽑아내고 수용하기 위해 어떤 독서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즉, 제목이나 차례, 서문 등을 살핀 후에 책을 결정하는 방법, 필요한 정보의 유무를 파악하며 훑어 읽는 방법, 책의 내용과 관련된 여러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며 읽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선비들의 독서법에 대한 내용과 <보기>에서 제시한 방대한 정보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의 독서법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독서 방법은 책의 내용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건주어 가며 읽으라는 것이다. 이는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독서법이기도 하고 포용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독서법이기도 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책의 내용을 요약하며 읽으라는 것은 선인의 독서법이나 <보기>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다. ②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해 가며 읽는 것은, 현대의 독서법 중에서 책의 서문이나 차례 등을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많은 양의 책을 읽을 때 훑어 읽기를 하는 것은 현대의 독서법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차례나 서문을 먼저 읽고,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을 골라 읽는 것은 정보를 선별해야 할 필요가 많은 현대에서 활용되는 독서법이다.

[19~21] 인문,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심신 이원론’과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심신 일원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상호 작용론’, ‘평행론’, ‘부수 현상론’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입장이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심신 이원론은 각자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상호 작용론’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정신이 어떻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평행론’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수 현상론’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기된 것이 심신 일원론인데, 심신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주제】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의 관계에 대한 심신 이원론과 심신 일원론의 입장

1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언급된 두 가지 상식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은 구분된다는 생각’과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동일론(심신 일원론)’은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육체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론’이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상식이 모두 성립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심신 이원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 이원론’에서는 두 사건이 구분된다는 상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상호 작용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서로에게 인과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작용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평행론’은 두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이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평행론’에서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④ 4문단에서 ‘부수 현상론’은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부수 현상론’에서는 육체적 사건이 정신적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20.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평행론’은 모든 물질적 사건은 다른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라고 알려진 것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고, 인과 관계는 오로지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물질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론’과 ‘동일론’은 모두 물질적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적 사건들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부수 현상론’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정신적 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육체적 사건도 평행하게 항상 일어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이 사실은 육체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육체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은 서로 대응되며 별개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진술은 ‘평행론’의 입장일 뿐 ‘동일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④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과 육체적 사건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상호 작용론’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평행론’은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대로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고, ‘동일론’은 정신적 사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떠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사건이 존재한다는 진술은 정신적 사건이 육체적 사건에 동반되는 부수적 현상이라고 보는 ‘부수 현상론’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부수 현상론’에 따르면 모든 정신적 사건은 육체적 사건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되지만 정신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이든 육체적 사건이든 어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에서 ㉠(지구, 달,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는 조수 간만과 달의 모양 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므로 ‘육체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조수 간만)는 ㉠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면서 개펄의 형성이라는 또 다른 육체적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육체적 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달의 모양)은 ㉠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지만 ㉢에 의해 ㉡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어떤 인과적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즉 ㉡가 ㉢의 원인이 되지만, 역으로 ㉢가 ㉡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22~25] 사회, ‘간접 광고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배치 방식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를 밝히며,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한 글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광고에 비해 광고 효과가 크다. 간접 광고는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는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되며, 상품 활용이 프로그램의 맥락과 잘 부합하면 맥락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협찬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10년부터 간접 광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접 광고는 은연중에 시청자의 인식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주제] 간접 광고의 특성 및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3문단과 4문단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나,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간접 광고의 개념을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밝히고 있고,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에서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4문단에서는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신설된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간접 광고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23.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요즘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맥락 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는 간접 광고가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든다고 하였으므로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에서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미디어 이론가들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다. ④ 1문단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4.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찬 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③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되어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방식의 간접광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의 간접 광고는 금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맥락 효과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협찬 제도(㉠)와 간접 광고 제도(㉡)는 모두 간접 광고에 해당하므로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여자가 의상을 입고 있으므로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가 아니라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착용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다. <보기>의 남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한다. <보기>에서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프로그램 내에서는 알아볼 수 없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으므로 커피 전문점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보기>의 휴대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휴대 전화 제조업체는 간접 광고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남자가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한 것은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맥락 효과란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후 <보기>의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한 것은 연인이 함께하는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의 광고 효과가 컸음을 의미하므로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6~27] 과학, ‘지구 상의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

지문해설 : 이 글은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전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향력은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할 때 위도에 따라 그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 이에 따라 적도 상의 특정 지점(자전 속도 1,600 km/h)에서 동일한 경도 상에 있는 북위 30도 지점(자전 속도 1,400 km/h)을 목표로 어떤 물체를 발사했을 때, 물체는 겨냥했던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 지점(북위 30도)은 발사 지점(적도)보다 약 200 km/h가 더 느리게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위 30도(1,400 km/h)에서 북위 60도(800 km/h)의 동일 경도 상에 있는 지점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두 지점의 자전 속도 차이만큼 발사된 물체가 동쪽으로 떨어지는 정도가 더 커질 뿐이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 이러한 편향 현상은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쪽뿐 아니라 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주제] 지구 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편향되는 이유와 그 양상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므로 자전하는 속력은 적도에서 가장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속력이 느려져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위 50도 지점은 남위 40도 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위 40도 지점보다 자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력이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위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북위 30도 지점과 북위 60도 지점의 자전 주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지표 상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장에 정지해 있는 축구공에는 위도와 상관없이 전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지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고 있고, 3문단에서 북쪽으로 발사된 물체가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갖게 되면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30도에서 정남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한 물체 또한 북쪽의 목표 지점으로 발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 방향에 따라 동쪽으로 진행하는 속력을 갖게 되면서 목표 지점보다 더 동쪽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편향 현상은 북쪽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고, 5문단에서 지표를 기준으로 한 이동 속력이 빠를수록 전향력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야구장에서 타자가 쳐서 날아가는 공은 이동 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 방향이 전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전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푸코의 진자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진자의 진동면은 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 나타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진자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는 전향력에 의해 진자의 진동면이 C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고, B에서 A로 다시 돌아올 때는 D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이동하면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지문과 연결하여 이해해 보면, ②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문단에서 위도에 따른 자전 속력의 차이가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더 커져 북극과 남극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보다 고위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전향력이 더 커짐에 따라 진자의 진동면이 더 빠르게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반구에서 이 실험을 할 경우에는 북반구와 반대로 진자의 진동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남극과 북극의 자전 속력은 동일하게 0이고, 4문단에서 운동 방향이 좌우로 편향되는 정도는 북극과 남극에서 동일하게 최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남극과 북극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전향력이 작용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극과 남극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진자의 진동면의 회전 주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편향 현상은 위도가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든 물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0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도의 변화가 없이 적도 상에서 지구의 자전 방향과 같은 축에 해당하는 동서 방향으로 진자를 진동시킬 경우 진자의 진동면은 회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편향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남위 60도에서 이 진자 실험을 할 경우 움직이는 추는 이동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8-30] 예술, ‘베토벤 교향곡의 음악사적 의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베토벤과 그의 교향곡에 대한 평가를 소재로 하고 있다. 베토벤 교향곡이 서양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성이라는 내적인 원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1800년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청중들의 음악관,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적 담론 등이 담당한 역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 음악에 대해 열광하였는데 이는 순수 기악 음악이 언어로 해석되지 않는 지고지순의 음악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기악곡 음악은 언어로 해석될 수 없는 숭고미의 상징으로까지 받아들여졌고, 철학적인 것으로 청중들에게 인식되었다. 여기에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순수 기악의 정수라는 독일 비평가들의 평가가 청중들에게 수용되었고, 베토벤이 기존의 관습을 벗어나 자기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천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의 교향곡은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이다.

[주제] 베토벤 교향곡을 통해 바라본 베토벤 신화

2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는 베토벤 신화에 영향을 미친 베토벤의 천재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베토벤은 이전의 교향곡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여겨졌다.’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베토벤이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 교향곡의 새로운 장을 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베토벤이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하고 교향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글쓰이는 베토벤 신화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②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토벤이 만들어낸 새로운 창작 방식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지만, 유례없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후대 작곡가들에게 과제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③ 1문단에 제시된 교향곡 3번 ‘영웅’의 예로 볼 때, 베토벤의 음악이 단순한 모티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채롭게 들리는 것은 단순한 모티프를 다양하게 가공함으로써 ‘복잡성’을 성취해냈기 때문이다. ④ 베토벤은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프로 하면서도 이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변형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29. 글쓴이의 의도 관점 평가

정답해설 : ㉠은 순수 기악에 열광했던 1800년 전후의 빈의 청중들이다. 이들은 언어가 순수 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목이나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이 원한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곧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음악 그 자체였던 것이다. 즉, 당시 빈의 청중들에게 있어 음악은 언어가 표현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예술이었다. 이는 음악을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기를 바랐던 당대 빈 청중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는 베토벤이 단순한 모티프를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변주·변형함으로써 청중의 귀에 다채롭게 들리도록 하는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 음악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무한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구체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 글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볼 수 없다. ③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은 ‘음악 그 자체’를 바랄 뿐 가사 등의 음악 외적 요소를 원하지 않았다. ⑤ 창작 당시의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될 수는 있으나, ㉠이 음악 외적 상황을 음악 이해에 중요한 단서라고 여겼다고 볼 수는 없다.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에 열광하면서 가사 등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보기>는 오페라 작곡가인 로시니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다. 음악의 중심이 ‘순수 기악이나, 오페라나’에 따라 음악가에 대한 청중의 평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는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그 지역에서 어떤 음악을 중심에 놓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호평과 더불어 그를 최고의 작곡가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런 <보기>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판단해 보면, 4문단에 나오는 ‘슐레겔’은 ‘모든 순수 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본 사람이므로 1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빈의 청중들과 유사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빈의 청중들은 ‘순수 기악’에 열광하며 제목, 가사 등의 음악 외적 단서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슐레겔은 빈의 청중들이 그랬듯이 베토벤을 높이 평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호프만은 4문단에 나와있듯이 베토벤의 교향곡을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평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 즉 오페라가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③음악을 ‘읽의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라고 보지 않고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여겼다. 4문단의 정보에 제시되어 있듯이 이들은 순수 기악에 대해 열광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오페라를 교향곡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스탕달은 로시니를 극찬하는 반면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본문에 제시된 베토벤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로시니가 베토벤의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에 따르면, 당시의 오페라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향유된 것이었는데, 음악을 ‘능동적 이해의 대상’으로 여긴 것은 빈의 청중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31~34] 고전소설 - 남영로, ‘옥루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평생 은거한 남영로가 1840년경에 지은 소설로서, 자신이 쓴 소설 ‘옥련몽’을 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몽자 소설(夢字小說)의 계보를 집대성한 작품이자 군담계 영웅 소설이다. 또한, 이 소설은 처첩 간의 갈등이라는 요소를 보면 가정 소설로서의 면모를 지녔고,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뤄 나가는 애정 소설의 특성도 띠고 있어서, 대중적인 재미와 문학적인 품격을 겸비한 고전 소설의 백미로 꼽히던 작품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과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

3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처음에는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잠시 잠이 드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 이후는 꿈의 장면으로, 휘황한 천상계의 백옥루가 나타난다. 강남홍은 자신을 인도한 보살을 통해 자신들이 천상계에서 적당한 인물들임을 알게 된 후 꿈에서 깨어난다. 꿈을 꾸고 깨는 사건을 통해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데, 특히 천상계라는 환상적 공간에 진입하고 그곳에서 나가는 장면은 보살이 던지는 석장에 의해 순식간에 장면 전환이 일어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주로 전지적 서술자의 설명이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은 없으며 미래 사건에 대한 예고도 없다. ② 이 글은 꿈을 통해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적당하였음을 보여준 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음을 드러내는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인물 간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꿈의 장면, 꿈 이후 인물들의 대화, 후일담 등이 나타나지만, 인물의 내적 독백은 없으며 난관 극복 의지 또한 인용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⑤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짊고 있다가’라는 보살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보살에 대한 외양 묘사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3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강남홍은 꿈에서 한 명산에 이르러 보살을 만나 남천문에 오게 된다. 그곳에서 백옥루를 바라보다가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취하여 자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보살은 그중의 한 선녀(홍란성)가 바로 강남홍의 전신이라 말하며 그들이 천상계의 인물이었으나 하계로 적당하였음을 알 수 준다. 강남홍은 선관과 선녀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 그들과 재회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라는 강남홍의 물음을 통해, 강남홍이 보살을 명산에서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닿았거늘~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웠는지라.’를 통해 보살이 인도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이니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허 부인의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양창곡)을 낳았으니”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옥루몽’의 환몽 구조를 설명한 글이다. ‘옥루몽’은 다른 환몽 구조와 달리 속세에서 천상계에 대한 꿈을 다시 꾸는 중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을 꾸는 것은, 인간계에 적합한 인물이 꿈을 통해 다시 천상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속세에서 천상계로의 입몽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남홍은 꿈에서 보살의 도움으로 백옥루를 보게 되고, 백옥루에서 취해 자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자신임을 알게 된다. 이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천상계에 진입한 것이며 강남홍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다. ③ 강남홍은 천상계를 경험하는 꿈에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보살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보살이 강남홍을 다시 인간계로 보내는 각몽을 유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허 부인은 연왕을 낳게 해준 돌부처가 강남홍의 꿈에 나타난 보살임을 말하면서 암자를 창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 이후 속세에서의 보답이라 할 수 있다. ⑤ 속세에서 천상계로 돌아가는 것은 <보기>를 보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양창곡 일가가 천수를 누리며 영화롭게 살았음이 드러나므로, 이 작품은 속세에서의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배회하며’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라는 뜻으로, 이 글의 문맥으로 볼 때는 ‘돌아다니며’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어울리며’는 ‘함께 사귀어 잘 지내거나 일정한 분위기에 끼여들어 같이 뒹뒹하며’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지하여’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어’의 의미이다. ② ‘망연히’는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한 태도로’의 의미이므로 ‘멍하니’는 적절하다. ③ ‘인도’는 ‘이끌어 지도함’ 또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함’의 의미이기에, ‘이끌어’가 적절하다. ④ ‘휘황한데’는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이는데’의 의미이다.

[35~37] 현대소설 - 이청준, ‘소문의 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삶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설이다. 소설가 박준은 억압된 상황과 작가의 사명 의식 사이에서 절망한 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의식의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이 주인공의 정신적인 병리 현상을 분석해 들어가면서 그러한 현상의 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인물의 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전쟁 당시의 충격에서 비롯된 공포증의 원인을 밝혀낸다. 이 소설은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바로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다시 발견하고 있다. 지문은 김 박사와 ‘나’가 박준의 전깃불에 대한 병적인 증세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측하는 부분과, ‘나’가 박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깃불의 실체에 대해 단서를 찾고 있는 부분이다. 김 박사는 박준의 비밀을 직접적으로 털어 놓게 하려는 방법을 세우고 있는 반면, ‘나’는 그의 소설들을 단서로 비밀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주제] 진실한 말을 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비판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김 박사’는 ‘박준’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깃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깐요.”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박준’의 소설들과 ‘전깃불’ 사이에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김 박사’의 해결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라는 ‘김 박사’의 말을 통해 김 박사도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다. ④ 어머니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⑤ ‘나’는 ‘전깃불’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는데, 신문지 조각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나’가 실망한 것은 신문 기사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36.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특정 부분이 가지는 서사적 기능은 다른 부분과의 연결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A] 부분은 앞부분에서 의문으로 남겨 두었던 문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어둠 속에서 전깃불을 보고 발작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과거에 전깃불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음을 [A]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A]부분은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게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우리 고향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곳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서사의 흐름으로 볼 때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는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인물이 자기 자신의 일을 고백하는 내용으므로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한 것은 아니다. ④ [A] 부분은 주인공의 시점에서 서술된 것으로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한 것은 아니다. ⑤ [A] 부분에는 이질적인 시선이 없으며, 역사적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다.

37.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박준’은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깃불의 공포와 자기가 현재 소설을 쓰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통해 ‘위험한 질문’의 의미를 추론해 보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적 외상을 건드리는 질문이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 박사’는 ‘박준’이 전깃불의 실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을 털어 놓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김 박사’가 시도하려는 방법은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질문’을 통해 말문 트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깃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박준의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② ‘박준’은 소설을 쓰면서 전깃불 앞에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자기 진술을 한다. 이 과정은 <보기>에서 말한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박준은 ‘자기 진술’을 하면서도 전깃불의 공포에 시달리는데, 이것은 <보기>에서 말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공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박준’의 외상이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의 대결, 즉 분단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8~40] 고전시가 -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히’ /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가)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폐위된 단종을 강원도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자신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어린 임금 단종을 유배지로 호송해야 했던 신하 왕방연의 죄책감과 안타까움, 슬픔 등의 감정이 넷물에 이입되어 처연한 시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주제] 유배된 임금에 대한 슬픔

(나)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임제가 35세 때 평안도 도사(都事)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개성 황진이의 묘에 들러 제를 올리며 쓴 시라고 한다. 사대부가 기생의 묘에 잔을 올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 행동이었으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름난 미인이기도 했던 여인에 대해 절절한 애도의 심정을 담아 질문과 영탄의 기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인생 무상

(다) 원천석, ‘홍망이 유수하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고려의 유신인 시인이 잡초가 우거진 옛 궁궐의 터를 바라보며 고려의 멸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하고 있으며, ‘추초’, ‘목적’과 같이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려 왕조 회고와 무상감

38.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은 님’과 이별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에서는 ‘백골’로 묻힌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에서는 멸망해 버린 ‘오백 년 왕업’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시적 화자의 궁핍한 처지와 그로 인한 좌절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③ 화자가 호송의 임무를 담당 한 (가), 화자가 죽은 이의 묘를 찾아간 (나), 이전 왕조의 멸망을 유수(有數, 정하여진 운수나 순서가 있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화자의 (다)는 모두,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서러움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④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가)의 경우는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세 작품의 주된 정서는 모두 ‘경외감’과 거리가 멀다. ⑤ 세 작품 모두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나, 자신의 이념과 사회 현실의 대립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서 비롯하는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잔 자바 권홀 이 업스니’라고 한 것은 잔을 권하는 상대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박한 세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상실감,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별한 임과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 자신이 울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화자 자신을 ‘(울면서 밤길을 가는) 저 물’에 빗대어(‘니 은 곳허여’)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어두운 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암담한 심경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④ 생전의 생기 있던 얼굴과 사후의 백골을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다)에 제시된 공간은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 왕궁터이며,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홍진(속세)’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숲)’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대비적으로 공간을 제시하고 <보기>가 그렇지 않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음격을 사용하고 있다. ③ (다)의 ‘눈물계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심정을, 봄을 맞이하여 자신을 ‘풍월주인(자연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다)의 ‘석양’은 이전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보기>의 석양은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다)의 시조에서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홍진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 엇 더흔고’와 같이 부르고 질문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1~43] 현대시 - 조지훈, ‘파초우’/ 박재구, ‘사평역에서’

(가) 조지훈, 파초우

작품해설 : 이 시는 자연과 마주 대하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화자는 여기저기 떠돌며 자연과 교감하는 존재로, ‘구름’은 이러한 화자 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저녁 어스름’, ‘푸른 산’ 등의 시각 이미지와 ‘후두기는’, ‘물소리’ 등의 청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가 마주하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1연과 5연은 수미 상관의 기법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2~4연에서는 ‘싫지 않은’,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자연을 그리고 있다. 어디에서도 편안히 쉴 곳 없는 현실에 지친 화자는 자연 앞에서,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소망

(나) 박재구, 사평역에서

작품해설 : 이 시는 눈 내리는 추운 겨울 대합실 안의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허름한 공간 안에는 툭툭 난로가 지퍼져 있고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기침을 하거나 졸면서 막차를 기다리는 그들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이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주변부 인생이 겪는 서러움과 절망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합실의 풍경에 대한 뛰어난 묘사와 자연스러운 서술, 반복적 변주의 시상 전개 방식 등으로 주변부 사람들의 고단하고 서러운 삶과 그들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호소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41. 작품의 특징 파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구름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어디서 쉴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화자의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세계는 화자로 하여금 마주 앉아 귀를 기울이게 하는 모습이다. 빗방울이 넓은 파초잎에 떨어져 후두기는, 매번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를 내는 언제나 그리운 자연인 것이다. 한편 (나)의 화자는 막차를 기다리는 매우 늦은 시골 대합실에서 툇밥 난로에 불을 켜며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삶이 눈물로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구름’에게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구름’을 사람에게 비유하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에서도 ‘흰 보라 수수꽃’, ‘그믐처럼’, ‘단풍잎 같은’ 등의 비유가 나타난다. ② (가)와 (나) 모두에서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의 의미를 지닌 역동적 분위기를 찾을 수 없다. ③ (가)에서는 ‘후두둑 떨어지는’의 의미를 지닌 ‘후두기는’이라는 시어가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시어이지만, 이를 통해 현실의 관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파초잎에 떨어지는 성긴 빗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나)에는 상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시어나 시구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구름에게 묻는 것이지만, 이 시에서 ‘구름’은 화자 자신이기도 하기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에는 그러한 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4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떠돌고 있다. 화자의 발 닿는 곳은 산과 물, 파초가 있는 자연이지 현실은 아니다. 그러한 화자가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라고 묻고 있다. 여기에서 ‘어디메’는 화자가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정처 없이 자연을 떠도는 사람으로,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고.’는 ‘구름’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만 그 내면엔 자신에 대한 물음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저녁 어스름 무렵 파초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그러한 배경에서 자연과의 교감을 소망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것임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산에 대해 창을 열고 마주 앉아 날마다 바라다 그리운 대상이라 말하고 있다. ④ ‘들어도 싫지 않은’은 화자가 자연과의 교감을 계속하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교감이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에서 ‘눈꽃의 화음’은 힘겨운 삶에 지친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소재이다. 지치고 피곤한 삶이지만 지금은 모두 그 화음에 귀를 기울이며 잠시 얼은 몸을 톱밥 난로의 열기로 녹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줌의 눈물’은 <보기>에 나와 있듯 고단한 삶을 견디어 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와 선물이다. 따라서 이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톱밥은 난로의 연료로 추위를 녹이게 하며, ‘눈물’은 <보기>에서 보듯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②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를 통해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④ 화자는 불을 쪼면서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한 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힘이 ‘그리웠던’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자신의 눈물을 톱밥 난로에 던지는 것은 그 눈물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기는 바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보기>와 관련해 볼 때 힘든 삶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44~45] 수필, 이상, ‘권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 글쓰이가 일제 강점하의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갔던 일본 동경에서 쓴 작품이다. 그곳에서 글쓰이는 식민지인으로서 설움을 당하였고, 현실과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이 작품은 평안도 성천에서 글쓰이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글쓰이가 일본에서 이를 떠올린 것은 일본에서의 자기 처지가 성천에서의 자기 처지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도시인으로 살았던 글쓰이에게 시골 성천에서의 삶과 식민지인으로서 살고 있던 동경에서의 삶은 모두 무기력하고 권태로웠던 것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자신과 농민의 권태로운 삶, 풍경과 자연의 한없는 권태를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어, 수필이 교양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의 진지한 문학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제] 단조로운 농촌에서 느끼는 극도의 권태

4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주인공 ‘나’는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나’는 자신이 느끼는 ‘사소한 고독’을 ‘세균’에 비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자신의 상념인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는지 불가능할는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일’을 ‘마치 흥명한 형리(刑吏)’라고 비유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우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화를 통해 글쓰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든 불이 있느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과거의 삶도 드러나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과거의 삶과 대비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쓰이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4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탐색 대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은 글쓴이가 탐색한 대상이며, 글쓴이는 ㉠~㉢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는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즉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 하며, 자신의 ‘반추’가 가능할는지 불가능할지를 몰래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불나비’를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저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라며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풀밭’은 글쓴이가 ‘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감을 확인하고 있는 공간으로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좁은 방’은 자신의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도피처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글쓴이는 ‘좁은 방’에 불빛에 달려들어 불을 끈 ‘불나비’를 통해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풀밭’은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는 공간이 아니며, 그 원인을 ‘소’에서 찾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③ 글쓴이는 ‘좁은 방’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불나비’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소’, ‘불나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를 통해서는 ‘식욕의 즐거움조차를 내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색의 반추’의 가능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불나비’를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자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고 있다.

01. ④ 02. ② 03. ① 04. ④ 05. ① 06. ① 07. ③ 08. ③ 09. ② 10. ⑤
 11. ③ 12. ③ 13. ④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② 20. ⑤
 21. ④ 22. ① 23. ③ 24. ⑤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④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① 35. ④ 36. ⑤ 37. ③ 38. ① 39. ⑤ 40. ②
 41. ④ 42. ② 43. ③ 44. ① 45. ④

[1~2]

1.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화법의 성격과 요소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대화에서 ‘재은’의 발언은 ‘문화적 배경 차이’를 드러내는 것도,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는 것도 아니다. ‘문화적 배경’에서 ‘문화’는 지역, 계층, 세대 등 집단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재은’의 발언은 집단의 성격이나 세대 차이 등으로 형성된 문화적 배경의 차이라기보다 ‘성아’의 평소 행동에 관한 공유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재은’은 상대방인 ‘성아’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인 ‘점심 먹을 때부터~했지.’라는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② ‘(엄지를 치켜들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김성아’를 한껏 치켜세우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③ ‘너니까 하는 애기인데.’라는 발언을 통해 대화 참여자 간의 친밀한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성아’의 ‘(잠시 침묵)’에 대해 대화 참여자인 ‘재은’의 ‘그리고? 계속해 봐.’라는 협력적 반응이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고 있다.

2.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의 내용과 흐름을 고려하여 이어질 대화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화 참여자인 ‘재은’은 ‘㉠’에 대한 발화 이전에, ‘훌륭한 성품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하여 대중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에서는 ‘성은’의 ‘훌륭한 성품(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그동안~도와줬던 이야기)’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생 회장’의 책임자가 ‘성은’이라는 점을 청중에게 부각시켜 대중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임자’라는 발화는 ‘재은’의 평소 조심스러운 재은의 성품과 거리가 멀어 적절하지 않다. ③ ‘내가 항상 앞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학급 일을 주도해 왔다.’라는 발화는 대화의 내용(‘앞에 나서면 건져리지 않았어?’)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성은’이 ‘임시 반장을 하며 만든 프로그램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친구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야기’는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발언은 대화의 문맥을 고려할 때, ‘재은’이 제시한 의미 있는 경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3. 말하기 방식 추론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담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담에서 전문가는 진행자의 생각, ‘그러니까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구조라는 말씀이지요?’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동조하기는 하였으나, 진행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진행자의 두 번째 발화 즉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라는 발언과 전문가의 두 번째 발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진행자의 ‘그러니까 섬이 많고~말씀이지요?’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진행자의 ‘선생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의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설명해 주시겠습니까?’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4.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자의 말하기 계획이 발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학생의 발표 내용 중, ‘그림 1’과 ‘그림 2’를 한 캔버스에 작가가 겹쳐 그린 이유를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림 1’을 전시회에서 보기 어렵다는 점은 발표 앞부분인 ‘이 인물화는 고흐가~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발표 뒷부분인 ‘이 인물화가 그려진~볼 수 있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과학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인데’라는 발언에서 ‘그림 2’의 분석에 엑스선이 이용되었다는 과학 선생님의 말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 학교 미술 실에도 사진으로 걸려 있는’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림 2’가 미술실에 사진으로 걸려 있다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⑤ ‘(화면으로 ‘그림 1’을 다시 보여 주며)~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림 1’이 ‘그림 2’와 달리 컴퓨터로 복원한 이미지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5. 말하기 효과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효과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혹시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아마 그럴 것입니다.’라는 발언이나 ‘(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적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등의 행위를 통하여 청중의 응답을 이끌어 내고 반응을 확인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그림들이 갖는 예술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공식적 호칭인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적인 상황에 걸맞은 호칭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도입부에서 화면을 통해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부분은 없다. ⑤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발표의 핵심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6~7]

6. 작문의 목적 추론

정답해설: 제시된 글은 청소년인 글쓴이가 방송국 담당자에게 특정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작문 행위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글쓴이의 요구를 전달하는 표현 행위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필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 작품의 경우와는 달리, 제시된 글은 필자의 정서는 거의 드러내지 않는 글이므로, 이 글이 필자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는 작문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시된 글이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라는 특정 독자를 설정하기는 하고는 있으나, 글의 내용이 청소년 집단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글이 ‘개별 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표현 행위라는 작문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제시된 글의 요구가 수용되었을 때 청소년들이 받게 될 도움이 진솔되어 있기는 하나, 그 도움의 내용이 사회적 갈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필자가 속한 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개인에 관한 정보가 제시된 것은 아니며, 글의 내용상 이 글이 인간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에 관한 친교적 목적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자료 수집·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다)의 자료에는 UCC 제작 활동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해당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해석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 자료에서는 상당수(72%) 학생들이 UCC 제작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가)의 2 자료에서는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 상당수(89%) 학생들이 향후 UCC 제작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나)의 그래프에서는 청소년의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중 ‘제작 기술을 모름’이 가장 큰 요인(68%)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UCC 제작을 안 해 본 청소년 중에서 향후 제작을 희망하는 이가 많다는 내용의 (가) 자료와, UCC 제작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제작 기

술을 모름'이라는 내용의 (나) 자료는, 'UCC 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⑤ 제시된 글의 셋째 문단은 청소년 UCC 제작 활동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UCC 제작을 못 해 본 청소년이 많다는 (가)의 내용과 UCC 제작 활동이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다)의 내용을 활용한다면, 글의 셋째 단락에 ' ~한 학생들이 향후 UCC를 제작하게 된다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8. 조건에 따른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자료는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과 독서 습관 형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들에게 권장할 만하다는 내용이다. 조건 1은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여 글을 시작하라는 것으로 글의 첫째 내용 요소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학습 만화를 전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여 표현하여 글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조건 2는 글의 둘째, 셋째 내용 요소로 '학습 만화 읽기'의 문제점 제기과 그 해결 방향 제안이다. 조건 1과 2를 결합하면, 글을 쓸 때, 학습 만화 읽기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한 다음 문제를 제기한 후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안해야 한다. ③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 '학습 만화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라고 하여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 긍정하여 글을 시작했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에서 학습 만화의 문제점을 제기한 다음, '같은 주제를 다룬 참고 도서를 폭넓게 읽도록 한다'에서 문제점의 해결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다양한 어휘 습득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을 뿐, 그 해결 방향이 제안되지 않았다. ②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장면이 많다'라는 문제 제기과 그 해결 방향 제안만 있을 뿐,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학습 만화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으나, 그에 대한 해결 방향이 제안되어 있지 않다. ⑤ 학습 만화의 긍정적인 측면만 진술되어 있을 뿐, 학습 만화에 대한 문제 제기과 해결 방향 제안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나)의 글에는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되어 있지 않다. '보고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읽은 책을 집에 쌓아 두고만 있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도서관의 긍정적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 글의 서두에 도서관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정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도서관의 의의를 간략하게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겠다는 필자의 전락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 글의 필자는 ‘책값이 부담되어 ~ 고민하던 때도 있지 않았나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나요?’와 같은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학교 누리집 게시판의 독자들에게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④ (가)의 신문 기사에서는 나눔 도서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책을 나눔, 물건을 나눔, 노인들을 위한 ‘듣는 책 교실’), (나)의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가)에 소개된 첫째, 둘째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 독자가 대상이라 보기 어려운 ‘듣는 책 교실’에 관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있다. ⑤ (나) 글이 쓰인 매체는 인터넷(게시판)이며, (나) 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가능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나눔 도서관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 다음의 ‘나눔 도서관은 책은 물론 여러 물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에서는 이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 내용의 문단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문장 앞에 쓰일 접속 표현으로,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주로 쓰이는 ‘그러나’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 ‘강화되어진’에는 피동 표현 ‘-되-’, ‘-어지-’가 이중으로 쓰였으므로, ‘강화되어진’을 ‘강화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자리에는 시민들로부터 책을 무료로 받는다의 의미의 단어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므로, ‘기여(寄與,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보다는 ‘기부(寄附,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가 적절하다. ③ ㉢의 ‘그 동전’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언급하는 ‘나눔 동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는 두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④ ‘요청(要請)’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또는 그런 청(請)’이며, ‘청(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남에게 부탁을 함. 또는 그 부탁.’이다. ㉣의 문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황이며 남에게 하는 부탁의 상황이 아니므로, ㉡을 ‘필요(必要,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세 가지 음운 변동 현상을 제시한 뒤, 각각에 대해 분석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은 각각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경음화),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이다. 정답은 ③으로, ‘따뜻하다’는 ‘따뜻 → [따똥]’의 과정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며, ‘따뜻하다 → [따뜨타다]’의 과정에서 ㉢거센소리되기(유기음화)가 일어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음절 종성의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중 하나로 바뀌는 변동이지만, ㉡은 음절 초성의 자음 중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다. ② ㉠에서 ‘앞 → [앞]’의 사례에서는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바뀌었지만 다른 사례들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은 거센소리로 변동되는 현상이지, 거센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변동이 아니다. ④ ㉠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현상이지만, ㉢은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동화 현상이 아니다. ⑤ ㉢이 음운의 축약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은 음운의 첨가에 속하지 않는다. 음운의 첨가는 원래 없던 소리가 추가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은 음운의 수에는 변함이 없이 교체만 이루어진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조사 ‘에’, ‘에서’의 국어사전 뜻풀이 및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에서③’은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주격 조사로 쓰일 때의 뜻풀이임에 비해 ③에서 제시한 문장은 ‘에서’가 처소의 부사어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이는 ‘에서①’의 용례에 해당한다. ‘에서③’의 용례로는 “이번 대회는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도를 들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뜻풀이를 보면 ‘에’는 ㉡에서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음에 비해, ‘에서’는 격 조사로 쓰이는 뜻풀이만 제시되어 있다. ② ‘에㉡’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의 뜻풀이라는 점에서 제시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는 타당한 용례이다. ④ ‘에㉢①’의 용례,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에서 ‘집에’를 ‘집에서’로 바꾸어 쓸 수 없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형은 방금 집에 왔다.”와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를 비교해 보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에’가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것이고, 후자는 ‘에서’가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것이다.

13. 문장 성분 분석,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현상과 각각의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에서 명사절 ‘겨울이 오기’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명사절이 명사 ‘전(前)’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 역할을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명사절 ‘색깔이 희기’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② 명사절 ‘비가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③ 명사절 ‘자식이 행복하기’가 문장에서 목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목적격 조사 ‘를’은 생략되었다. ⑤ 명사절 ‘우리가 학교에 가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14.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은 ⑤로, ㉠의 ‘저희’는 1인칭 복수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재귀) 3인칭 대명사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집 아이들’, 즉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리킨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② ㉢의 ‘그것’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의 ‘당신’은 2인칭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인 ‘자기’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자기’와 “선생님께서도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에 쓰인 ‘당신’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의 ‘우리’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학생)를 포함하지 않는다.

15. 높임 표현 파악

정답 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③으로, ‘먹다-잡수시다’의 관계를 볼 때 주체(할머니)를 높이는 용언(㉠)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이-연세’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나이)을 높이는 명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그분’과 ‘성함’인데, 전자는 ‘그 사람-그분’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을 직접 높이는 명사(그분, 대명사)이고, 후자는 ‘이름-성함’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그 사람)과 관련된 것(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명사(㉢)이다. ②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여쭙다’와 ‘댁’인데, 전자는 ‘묻다-여쭙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물음을 받는 대상)를 높이는 용언이며, 후자는 ‘집-댁’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할머니)과 관련된 것(할머니의 집)을 높이는 명사(㉣)이다. ④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부모님’과 ‘모시고’인데, 전자는 ‘부모-부모님’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부모)을 직접 높이는 명사(부모님)이고, 후자는 ‘데리다-모시다’의 관계를 볼 때 객체(부모님)를 높이는 용언이다. ⑤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주무시다’인데, ‘자다-주무시다’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어머니)를 높이는 용언(㉤)이다.

[16~18] 과학,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지문해설 : 이 글은 분젠과 키르히호프가 창안한 분광 분석법의 원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분광 분석법이 인접 과학 영역인 천문학에 활용됨으로써 과학사에 남긴 업적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분젠과 키르히호프는 불꽃 반응에서 나온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후 이러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화합물 속에 포함된 금속 원소를 판별해 내는 분광 분석법을 창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광 분석법은 키르히호프에 의해 천문학의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키르히호프는 불꽃 반응 실험에서 나온 금속 원소의 스펙트럼을 태양빛의 스펙트럼과 비교·분석함으로써 태양과 같은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히는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

[주제] 분광 분석법의 창안과 과학적 성과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는 분광 분석법이 천문학 분야로 확장되어 태양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는 이러한 분광 분석법이 물리학, 화학, 천문학 등 인접 과학 영역에 적용되어 천체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밝혀내고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연의 원리를 인식하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천체에 가지 않고도 천체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키르히호프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광 분석법은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분석 화학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확하게 화합물의 원소를 판별해 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광 분석법이 분석 화학 방법을 확립했다고 볼 수 없다. ②, ④ 3문단에는, 1810년대 프라운호퍼가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빛 스펙트럼에 있는 검은 선들을 발견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태양빛 스펙트럼에 검은 선이 존재함을 알아낸 것이나 프리즘을 이용해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얻는 방법을 창안한 것은 키르히호프가 아니다. ③ 1문단에서, 분젠은 불꽃 반응에서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버너를 고안하여 물질 고유의 불꽃색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꽃 반응을 통해 물질 고유의 불꽃색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분젠의 연구 이전에 발견된 사실로 볼 수 있다.

1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분젠과 키르히호프는 금속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위치는 금속이 흡원소로 존재하던 화합물로 존재하던 불꽃의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속 원소 스펙트럼에서 밝은 선의 위치는 불꽃의 온도를 높여도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는, 분광 분석법을 통해 새로운 금속 원소인 세슘과 루비듐을 발견함으로써 분광 분석법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루비듐이 분광 분석법 출현 이전에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빛이 떠 모양으로 분산될 때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하는 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키르히호프는 태양빛 스펙트럼의 검은 선들 중에서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들과 같은 파장에서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D선이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하는 나트륨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4문단 처음 부분에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여 철, 헬륨과 같은 원소들도 태양 대기 중에 존재함이 밝혀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트륨의 존재가 철의 존재보다 먼저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분젠은 버너 불꽃의 색을 제거한 버너를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버너를 고안한 이후에도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이 섞인 물질의 불꽃은 색깔이 겹쳐 분간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젠이 금속 화합물의 불꽃색이 겹치는 현상을 막는 버너를 고안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항성 β 의 검은 선들은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언급되어 있고 이 글의 3문단에는 프라운호퍼의 D선이 나트륨 고유의 밝은 선과 겹쳐지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언급되어 있다. 3문단에서 천체의 스펙트럼에서 나온 검은 선들은 특정 원소가 불꽃 반응에서 나타내는 스펙트럼 상의 밝은 선들과 나타나는 위치가 같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태양빛 스펙트럼의 D선과 나트륨의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분광 분석을 통해 태양 대기에 나트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기>에서 항성 α 의 검은 선 중에는 나트륨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항성 α 에는 나트륨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항성 α 는 태양이 아니다. ②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 항성 α 의 검은 선들은 리튬 스펙트럼의 밝은 선들과 겹쳐졌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항성 α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항성 α 의 대기 속에 있는 리튬이 빛을 흡수하여 생긴 검은 선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항성 β 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나트륨 스펙트럼의 선과 겹쳐지는 것은 있지만 리튬의 스펙트럼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항성 β 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태양빛 스펙트럼에는 D선 이외에도 대기 중의 특정 원소에 의해 흡수된 빛의 파장 위치에서 검은 선들이 나타났다고 언급되어 있다. 같은 원리로 항성 β 의 스펙트럼에도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보기>에 제시된 나트륨 스펙트럼과 겹쳐지는 검은 선을 들 수 있다.

[19-21] 예술, '선암사 승선교에 담긴 미의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선암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돌다리인 승선교를 제재로 하여, 승선교의 건축 원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승선교는 계곡으로 끊긴 산길을 이어줌으로써 경건한 세계와 번잡한 속세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 무엇보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번잡함을 안고 산길을 오르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해준다. 승선교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예다리인데, 잘 다듬어진 홍예석과 층의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이 대비되면서 전체적으로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멀리서 승선교를 바라볼 때 승선교 홍예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이는 산자락의 풍경이나,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예 그림자가 홍예와 자연스럽게 원으로 이어지는 풍경, 그리고 승선교 주변 수목들의 그림자가 수면에 아른거리는 풍경 등은 승선교와 어우러지면서 계절마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며 자연 속에서 극적인 합일을 만들어낸다.

[주제] 홍예다리인 승선교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19.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는 멀리서 바라본 승선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 홍예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승선교의 미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홍예를 세우는 과정은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 홍예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때 홍예석들은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아도 견고하게 서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서 홍예가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는 양식임을 언급하고 있다. ④ 홍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목조 가설틀은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반원형이다. 사다리꼴 형태를 띠는 것은 홍예를 만들 때 쓰이는 장대석들이다. ⑤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홍예다리가 구조적 안정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20. 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승선교와 옥천교가 유사한 위치에 장식을 덧붙였다는 유사성은 있지만, 이 장식에 담긴 의미가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승선교의 홍예 천장 용머리 모양의 장식 돌은 사람들이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옥천교의 두 홍예 사이의 석축에 조각되어 있는 도깨비 형상은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승선교는 산사로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건너는 다리이다. 그러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옥천교는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간에서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승선교의 석축은 주위의 막돌을 쌓아 올려 다소 무질서해 보이지만 옥천교의 석축은 홍예와 마찬가지로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으며 다리 난간에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내었다. ③ 옥천교는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禁川) 위에 놓여 있지만, 승선교는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 만들어 설치한 다리이므로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옥천교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인 공간을 잇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승선교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를 잇는다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라 할 수 있다.

2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㉞의 ‘방지한다고’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다고’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막아준다고’로 바뀌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활용되었다’는 ‘이용되었다’, ‘쓰였다’ 등으로 무난하게 바뀌을 수 있다. ② ‘견고하다’가 ‘굳고 튼튼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③ ‘돌출’의 의미가 잘 보이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의미이다. ⑤ ‘선사하다’는 ‘존경·축하·애정의 뜻으로 남에게 선물을 줌.’의 의미이므로 ‘주다’와 바뀌을 수 있다.

[22~23] 인문, ‘토인비’의 역사 연구

지문해설 : 이 글은 ‘토인비’의 역사 연구가 지닌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토인비가 역사 연구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문명 중심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몇 가지 가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토인비의 역사 연구의 가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와 대중의 모방’이라는 개념이다. 토인비는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환경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에 달려 있으며, 이때 도전은 통상적으로 문명이 처한 역경에 해당한다. 한편 토인비는 이러한 도전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아서는 안 되며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성공적인 응전을 통한 문명의 발생과 성장은 창의적 소수의 역량이 발휘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중의 모방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모방은 그 방향이 선조와 구시대가 아닌 창조적 소수에게로 작용할 때, 문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주제] 토인비의 역사 연구가 지닌 특성

22.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의 내용을 살펴보면, 토인비는 자신의 가설을 보완하면서 도전의 강도가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응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문명의 발생과 생존은 최적의 도전에 대한 성공적인 응전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5문단에서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원시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방의 존재 여부가 문명의 발생과 성장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1문단을 살펴보면, 토인비는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를 국가가 아닌 문명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이 성공적일 수 없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환경의 도전이 강력할수록 그에 대한 응전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⑤ 5문단을 살펴보면, 기성세대의 권위가 강화되는 사회는 과거의 인습이 사회를 지배하여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는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급속한 사막화라는 환경의 도전에 대해 응전하는 3가지 양상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응전의 양상 중 둘째 집단은 생활양식만을 변경하여 사막화된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문명의 정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편 4문단에 따르면, 성공적인 응전을 통해 문명이 성장하려면 창조적 소수들이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보기>의 둘째 집단은 문명이 정체되는 결과를 맞이하였으므로 성공적인 응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둘째 집단의 창조적 소수들이 계속된 새로운 도전들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수렵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사막화는 기존의 삶의 방식과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적 도전이자 역경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의 첫째 집단은 환경의 도전에 응전하지 않고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선 집단이다. 그러므로 첫째 집단은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세대와 죽은 선조들을 모방함으로써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④, ⑤ <보기>의 셋째 집단은 수렵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의 도전이 나타나자 기존의 생활 방식과는 달리 농경 생활을 선택하여 창조적으로 응전함으로써 문명의 발생과 성장을 이룩하였다. 한편 4, 5문단에서 문명의 발생과 성장을 이룩한 집단은 환경의 도전에 대해 창조적 소수가 역량을 발휘하고 대중들이 이를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특성은 셋째 집단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24~27] 사회, '간접 광고의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 배치 방식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를 밝히며,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한 글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광고 효과가 크다. 간접 광고는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는데,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되며, 상품 활용이 프로그램의 맥락과 잘 부합하면 맥락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협찬 제도를 운영해 오다가 2010년부터 간접 광고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간접 광고는 은연중에 시청자의 인식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간접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주제] 간접 광고의 특성 및 간접 광고 관련 제도의 변천 과정

24.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3문단과 4문단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나, 간접 광고에 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간접 광고의 개념을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밝히고 있고,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는 특성을 밝히고 있다. ② 3문단에서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4문단에서는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신설된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간접 광고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25.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요즘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맥락 효과가 생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5문단에서는 간접 광고가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 중 파고든다고 하였으므로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미디어 이론가들의 견해가 언급되어 있다. ④ 1문단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 붙어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6.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협찬 제도가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3문단에서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③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작위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졌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되어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기는 하였으나,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방식의 간접 광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의 간접 광고는 금지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맥락 효과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협찬 제도(㉠)와 간접 광고 제도(㉡)는 모두 간접 광고에 해당하므로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여자가 의상을 입고 있으므로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가 아니라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또는 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다. <보기>의 남자는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휴대 전화의 제조 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협찬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는 허용한다. <보기>에서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프로그램 내에서는 알아볼 수 없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으므로 커피 전문점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간접 광고 제도의 도입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 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보기>의 휴대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으므로 휴대 전화 제조업체는 간접 광고에 따른 광고를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따라서 <보기>의 남자가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한 것은 방송법의 '간접 광고'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맥락 효과란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후 <보기>의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한 것은 연인이 함께 하는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의 광고 효과가 컸음을 의미하므로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8-30] 기술, 'CD 드라이브의 정보 판독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CD 드라이브에서 어떻게 정보를 판독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크 모터가 CD를 회전시키면,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광 검출기가 CD에서 반사된 광선을 받아들여 랜드와 피트 정보를 구분한다.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시켜 CD의 정보를 읽어 낸다. 때때로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트랙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움직여 편차를 조정하고, 초점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켜 초점을 맞춘다.

[주제] CD 드라이브의 구동 원리 및 정보 판독시 오류 해결 방법

2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광학계 구동 모터는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照射)될 수 있도록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상이한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편차를 보정한다. ⑤ 2문단에서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을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면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조사된 모양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할 때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가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한다고 하였으므로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된다고 할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흡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고 하였으므로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5문단에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

다고 할 수 있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렌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상태1>은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의 출력값보다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광선이 해당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태2>는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져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졌으므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태1>은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하며, <상태2>는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태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으나, <상태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트랙의 전후좌우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태1>의 출력값의 총합은 8이고, <상태2>의 출력값의 총합은 16이므로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②, ③, ④ <상태1>은 광선이 트랙의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에는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상태2>는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졌으므로, 5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해야 한다.

[31~33] 현대시 - 이형기, '낙화'

지문해설 : 이 시는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별을 꽃이 떨어지는 상황에 비유함으로써 이별을 끝이 아닌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파악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낙화'가 꽃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녹음으로 이어져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이듯이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이별 역시 자아의 내적 성숙을 가져오기 위해 겪어야 하는 고통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긴 안목으로 '낙화'를 바라보면 이제 더 이상 '낙화'가 아픔이나 슬픔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룻하룻' 떨어지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현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1연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연에서 ‘낙화’의 의미를 드러낸 후, 이를 자신의 이별과 관련지으면서 이별이 비록 슬프지만 영혼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됨을 말하고 있다.

[주제] 이별을 통한 내적 성숙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의 화자는 이별과 낙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이별이 내적 성숙을 위한 계기임을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지 않은 채 독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또한 ‘덧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파하기] ① 이 시는 인간사에서 겪게 되는 이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작품으로, 스스로를 조롱하는 자조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의미하는 ‘하룻하룻’이라는 의태어는 사용되었지만 의성어는 쓰이지 않았으며 시의 분위기 또한 진지하고 성찰적인 분위기로 볼 수 있다. ④ ‘분분한 낙화’,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였지만, 이는 꽃이 지는 모습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상의 불변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사랑, 나의 결별’에서 서로 짝을 이루는 구를 찾을 수 있으며, ‘가야 할 때’라는 시구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동일한 문장 형태를 반복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지금 꽃이 지는 것, 청춘이 죽는 것은 여름의 녹음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㉔은 꽃이 지는 것이 열매라는 결실을 가져오듯 이별 역시 인생에서의 충실한 성장, 내적인 충만을 가져오기 위한 것임을 ‘가을’이라는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파하기] ① ㉓은 이별의 의미, 가치에 대해 깨닫고 있는 화자가 이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아름다운가.’로 표현하여 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때 화자는 내적으로 방황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가 아름답다고 감탄하고 있다. ② ㉔은 자신의 이별에 대해 ‘걱정을 인내한’이라 말하면서 이별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화자를 드러내고 있다. ‘지나간 사랑’과 관련된 표현은 찾을 수 없다. ③ ㉔은 꽃이 떨어진 후 여름이 되면 맞이할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낙화’가 끝이 아니고 여름과 가을로 이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화자는 이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으므로, 삶의 목표 상실이나 번민으로 볼 수 없다. ⑤ 이별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샘터에 물 고이듯’이라고 비유한 표현으로, 과거로의 회귀와 연결 지을 수는 없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봄 한철’은 뒤에 이어지는 행을 볼 때, 걱정 of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청춘기의 열정과 걱정으로 읽을 수 있다. 한편 ‘꽃답게 죽는다’는 ‘낙화’와 ‘이별’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그 아름다움은 가을의 열매와 관련되며 이는 자아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자아상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련에 부딪혀 열정을 잃어가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야할 때’는 이별해야 할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전 상황과는 다른 상황으로의 변화이며 이는 ‘열매’나 ‘성숙’과 이어지게 되므로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찾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③ ‘결별’을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별이 더 나은 발전이나 성숙과 이어짐을 드러내는 것이다. ④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는 ‘낙화’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린 것으로,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의 긍정적 자세를 드러냄과 동시에 <보기>와 연관 지으면 ‘이별’이 이전까지의 세계와 헤어지고 새로운 세계와 만나면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임을 인식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눈’을 통해 성찰의 태도를, ‘슬픈’을 통해 시련에 부딪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별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련에 부딪혀 변화를 겪게 하고 새롭게 성숙하게 함을 말하고 있다.

[34~37] 현대소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리게 된 도시 빈민의 생활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가 지닌 모순을 파헤치고 있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다. 난장이 아버지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가난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가야만 했던 난장이 가족의 비극을 통해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소외의 문제를 그리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소설의 앞부분으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철거하라는 철거 게고장을 받은 가족들의 반응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다. 어머니와 영수는 현실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알루미늄 표찰을 떼려고 하는 반면 영호와 영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난장이 아버지는 지섭과 교류하면서 사랑은 없고 물신주의적 욕망만 남아 있는 이 세상을 버리고 달나라로 갈 결심을 한다.

[주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게 된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나’(영수)의 시각에서 서술이 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몰려가서 떠드는 것에 대해서 ‘쓸 데 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며, 어머니가 알루미늄 표찰을 떼는 것을 도와주면서도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볼 때 ‘나’는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인식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아버지가 벽돌 공장의 굴뚝에 올라가는 것을 과장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것이지 반전을 피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현학’이란 학식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 말인데, 서술자가 학식을 과시하는 내용은 없다. ④ 이 글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서술하고 있지만 액자 구조는 아니다. ⑤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은 모두 시간의 선후가 있는 것으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배열한 것은 아니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철거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떼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임을 알고 ㉠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생활의 의미마저 포기한 절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머니가 부엌 바닥과 가슴을 치는 것은 집이 철거되는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으로 비통함이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② 집이 강제로 철거되는 상황과 ‘행복동’이라는 지명은 상반되는 것이다. ③ 어머니를 비롯한 주민들이 모여든 이유가 철거 계고장 때문이므로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그것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가 공장 굴뚝 위에 올라 간 것을 본 어머니의 반응이므로 고조된 음성과 절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지섭과의 대화에서 난장이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를 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난장이’가 주어진 삶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공고문’은 재개발을 통해 빈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가진 자들은 아파트 입주나 입주권 거래로 돈을 버는 상황과 관련되므로 ‘불평등’을 들춰내는 소재가 될 수 있다. ② 성실하게 살아 온 ‘난장이’ 가족의 비극은 ‘욕망’으로 가득 찬 ‘죽은 땅’의 현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달나라’는 현실 세계와 대비되는 것으로, 달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산업 사회의 이면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는 것이다. ④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라는 지섭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7.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은 여러 사람이 질서가 없이 동시에 마구 떠드는 상황이다. 중구난방(衆

口難防)이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로 ㉔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조리가 없이 말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

[38~40] 고전시가 -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가) 왕방연, ‘천만리 머나먼 길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조의 왕위 찬탈로 폐위된 단종을 강원도로 압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자신의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평시조이다. 어린 임금 단종을 유배지로 호송해야 했던 신하 왕방연의 죄책감과 안타까움, 슬픔 등의 감정이 넷물에 이입되어 처연한 시적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주제] 유배된 임금에 대한 슬픔

(나)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임제가 35세 때 평안도 도사(都事)로 부임하러 가는 길에 개성 황진이의 묘에 들러 제를 올리며 쓴 시라고 한다. 사대부가 기생의 묘에 잔을 올리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 행동이었으나,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름난 미인이기도 했던 여인에 대해 절절한 애도의 심정을 담아 질문과 영탄의 기법으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인생 무상

(다) 원천석, ‘흥망이 유수하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고려의 유신인 시인이 잡초가 우거진 옛 궁궐의 터를 바라보며 고려의 멸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하고 있는 시다.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하고 있으며, ‘추초’, ‘목적’과 같이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주제] 고려 왕조 회고와 무상감

38. 화자의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운 님’과 이별한 안타까운 심정을, (나)에서는 ‘백골’로 묻힌 여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에서는 멸망해 버린 ‘오백 년 왕업’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각 작품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시적 화자의 궁핍한 처지와 그로 인한 좌절감은 확인하기 어렵다. ③ 화자가 호송의 임무를 담당

한 (가), 화자가 죽은 이의 묘를 찾아간 (나), 이전 왕조의 멸망을 유수(有數, 정하여진 운수나 순서가 있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화자의 (다)는 모두,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서러움의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④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가)의 경우는 '자연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세 작품의 주된 정서는 모두 '경외감'과 거리가 멀다. ⑤ 세 작품 모두 인간적인 감정을 노래하고 있으나, 자신의 이념과 사회 현실의 대립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에서 비롯하는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라고 한 것은 잔을 권하는 상대방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각박한 세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상실감, 슬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별한 임과의 거리를 '천만리'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 자신이 울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화자 자신을 '(울면서 밤길을 가는) 저 물'에 빗대어 ('내 안 같아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어두운 밤의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암담한 심경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④ 생전의 생기 있던 얼굴과 사후의 백골을 대비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다)에 제시된 공간은 '만월대'를 비롯한 고려 왕궁터이며, 이와 대비되는 다른 공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홍진(속세)'에 묻혀 사는 다른 이들과 '산림(畵)'에 묻혀 사는 자신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 대비적으로 공간을 제시하고 <보기>가 그렇지 않다고 한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와 <보기>는 모두 4음보의 동일한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③ (다)의 '눈물 겨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심정을, 봄을 맞이하여 자신을 '풍월주인(자연의 주인)'으로 묘사하는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④ (다)의 '석양'은 이전 왕조의 멸망과 연관되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으며, <보기>의 석양은 '도화행화(복숭아꽃, 살구꽃)'의 붉은 이미지와 시각적인 조화를 이루어 봄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⑤ (다)의 시조에서는 '-로다', '-노라'의 영탄적 어미를 사용하여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홍진에 묻힌 본네', '이 내 생애 어 떠한고'와 같이 부르고 질문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1~43] 고전소설 - 허균, '홍길동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의 허균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고전 소설로서 최초의 국문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홍길동이 활빈당을 조직하여 조정과 대립하고, 병조판서에 올랐다가 울도국의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 적서 차별로 인해 인재마저 버리는 당시의 신분 제도의 모순과 불의와 비리가 판치는 당대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제된 부분은 조선을 떠난 홍길동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식으로 인정을 받고, 울도국을 정벌하여 왕이 되는 소설의 결말 부분이다.

[주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비판과 이상 사회의 건설 추구

41.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울도국의 태수는 홍길동의 군사가 몰려오자 왕에게 보고하고 홍길동에 맞서 싸웠다. 홍길동의 격서에 놀라 행복한 사람은 태수가 아니라 울도국의 왕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왕은 “선동(仙童)이 어찌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며~”이라고 하며 홍길동을 선동으로 오해하고 있다. ② 인형은 홍길동을 ‘아우야’라고 부르며, 아버지의 장례에 늦은 것에 대해 ‘어찌 자식의 도리이겠느냐?’라고 하며 홍길동을 동생으로 대하고 있다. ③ 홍길동은 남경 땅 제도에서 군사들을 잘 훈련시켰으며, 정예병 오만을 거느리고 울도국을 공격했다. ⑤ 홍길동은 자신의 부하인 마숙과 최철로 각각 좌의정과 우의정을 삼고, 여러 장수에게도 각각 벼슬을 내렸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홍길동은 서자였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호부호형하는 것을 허락 받음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자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A] 부분에서는 자신이 구한 터에 부친의 산소를 정하고, 산소의 관리를 맡게 됨으로써 자식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해지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자신의 부하들(영웅들)과 함께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맞지만 ‘길동이 삼년상을 마치매 모든 영웅들을 모아’라는 부분을 볼 때, 함께 삼년상을 치른 것은 아니며, 길동과 부하들 간의 유대감이 공고해졌다는 내용도 없다. ③ 부친을 운구한 사람들은 홍길동의 부하들로 부친의 평소 인간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④ ‘(인형이) 본국에 이르러 모부인을 뵈옵고 전후 사실을 고하니’라는 부분을 통해 모부인은 산소를 모시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홍길동이 지술을 배운 것에 대해 모친이 염려하는 내용은 없으며, 가족들도 모두 홍길동의 지술을 인정한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왕이 홍길동을 칭찬한 것은 ‘그 재주’이지, 사회 제도의 부당함에 공감을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자신의 능력을 조선에서 펴지 못하고 국외로 가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제도적으로 승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홍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등용되지 못하는 것은 당대 사회가 인재를 등용하는 데 폐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홍길동은 조선을 개혁하지 않고, 왕에게 자신의 행적에 대해 ‘폐를 끼쳤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며 국외에서 이상을 실천하는데 이것은 당대 사회에 타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홍길동은 신분제를 개혁하기 위해 왕에게 건의하지 않고, 병조판서가 되어 본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 원인의 해결에는 일정 정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⑤ 이상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홍길동이 이미 이상적인 사회인 율도국을 정벌하는 데는 개인적 욕망과 명분이 모순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45] 수필, 이상, ‘권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 글쓰기가 일제 강점하의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갔던 일본 동경에서 쓴 작품이다. 그곳에서 글쓰기는 식민지인으로서 설움을 당하였고, 현실과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꼈다. 이 작품은 평안도 성천에서 글쓴이 자신이 겪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글쓰기가 일본에서 이를 떠올린 것은 일본에서의 자기 처지가 성천에서의 자기 처지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도시인으로 살았던 글쓰이에게 시골 성천에서의 삶과 식민지인으로서 살고 있던 동경에서의 삶은 모두 무기력하고 권태로웠던 것이다. 전체 7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자신과 농민의 권태로운 삶, 풍경과 자연의 한없는 권태를 독창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어, 수필이 교양이나 취미에 그치지 않고 자기 성찰의 진지한 문학 양식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주제] 단조로운 농촌에서 느끼는 극도의 권태

44.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주인공 ‘나’는 비유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된 상념을 표현하고 있다. 즉 ‘나’는 자신이 느끼는 ‘사소한 고독’을 ‘세균’에 비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과 관련한 자신의 상념인 ‘사소한 고독을 겸손하면서 나도 사색의 반추는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몰래 좀 생각해 본다.’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내일’을 ‘마치 흥명한 형리(刑吏)’라고 비유함으로써 ‘내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우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우화를 통해 글쓰이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③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여기 어디 불을 찾으려는 정열이 있으며 뛰어들 불이 있느냐.’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④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A형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과거의 삶도 드러나 있지 않으며, 현재의 삶을 과거의 삶과 대비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생각과 비교하여 글쓰기가 삶에서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45.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탐색 대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은 글쓴이가 탐색한 대상이며, 글쓴이는 ㉠~㉢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글쓴이는 '㉠'을 통해 자신이 권태에 빠진 고독한 존재임을, ㉡을 통해서는 열정 없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즉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 하며, 자신의 '반추'가 가능할는지 불가능할지를 몰래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불나비'를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그저 '내일 그것이 또 창밖에 등대(等待)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뿐'이라며 권태가 지속될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풀밭'은 글쓴이가 '소'를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감을 확인하고 있는 공간으로 충족감을 주는 안식처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좁은 방'은 자신의 나태한 삶을 피해 은신한 도피처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글쓴이는 '좁은 방'에 불빛에 달려들어 불을 끈 '불나비'를 통해 권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욕마저 갖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② '풀밭'은 글쓴이가 무기력한 삶의 원인을 찾아 고뇌하는 공간이 아니며, 그 원인을 '소'에서 찾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지도 않다. ③ 글쓴이는 '좁은 방'이라는 삶의 공간에서 '불나비'에 주목하고 있지만 자신의 현실 대응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지는 않는다. ⑤ 글쓴이는 의미 없는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이 '소', '불나비'와 다를 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소'를 통해서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라고 하며, 자신의 '사색의 반추'의 가능 여부를 생각하게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대조적으로 '불나비'를 '사는 방법을 아는 놈'이자 '정열의 생물'로 바라보고 있다.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① 09. ① 10. ⑤
 11. ④ 12. ① 13. ③ 14. ① 15. ③ 16. ⑤ 17. ④ 18. ④ 19. ⑤ 20. ①
 21. ① 22. ③ 23. ① 24. ① 25. ② 26. ④ 27. ② 28. ④ 29. ⑤ 30. ⑤
 31. ③ 32. ④ 33. ⑤ 34. ③ 35. ⑤ 36. ② 37. ① 38. ④ 39. ③ 40. ③
 41. ② 42. ③ 43. ② 44. ⑤ 45. ④

[1~3]

1. 사회자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사회자는 토론자 간의 감정적인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은 하고 있으나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회자는 “교내 음악 방송~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토론 배경과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첫 번째 발언에서 말하고 있다. ④ 사회자의 세 번째 발언인 “잠깐만요,~삼가 주십시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입론에서 ‘반대자 2’의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연구도 많습니다.”라는 발언은 음악의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반대자 1’의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을 위해 교내 음악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론을 보강하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입론에서 ‘찬성자 2’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내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됨을 말하고 있다. ③ 반론에서 ‘반대자 1’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고 말하고 있다. ④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장르의 음악만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⑤ 반론에서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간 이동의 불편함을 말하고 있다.

3. 협상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을 바탕으로 협상 참여자의 교섭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를 묻는 문항이다. 반론에서 ‘찬성자 1’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라는 발언을 통해 볼 때, <보기2>의 ‘ㄱ’은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반론에서 ‘반대자 2’가 제안한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찬성자 2’가 수용하고 있으므로, <보기 2>의 ‘ㄴ’도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보기 2>의 ‘ㄷ’은 반론에서 ‘반대자 2’가 제안했으나 ‘찬성자 2’가 반대했으므로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ㄹ’의 ‘교내 음악 방송 시간의 연장’은 찬성자나 반대자 모두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4~5]

4. 의사소통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성민은 강사의 말이 자신에게도 인상이 깊었다고 말하여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성민의 견해에 대해 혜경도 ‘정말 좋았어’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혜경의 물음에 대해 병수가 분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혜경과는 생각이 다를 것을 생각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병수의 말을 요약한 성민의 말이지만 병수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⑤ ㉣은 병수의 말에 대한 혜경의 비판적 태도가 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상대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조언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후에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⑤를 볼 때, ‘요즘 너 삶에 대한~힘들었겠구나.’는 상대를 이해한 말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는~쉽지 않을 거야.’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 경험이~어떨까?’는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상대의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외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상대가 하려는 ‘행동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6~7]

6. 자료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나)-1을 참고하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이유와 관련되지만 도시 농업의 문제점이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 농업 활동의 부진'과는 관련성이 적으므로 'Ⅱ-1-다'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가)를 참고하면, 도시 농업은 도시민의 여가 활동으로서 도시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귀농 인구의 증가'는 도시 농업의 '현황'을 보여주기에 부적합하며,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가)에는 '도시 농업'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Ⅱ-2-라'에서는 '인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 이므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Ⅱ-2-라'는 '도시 농업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2에는 도시 농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재배 기술 지식 부족'이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에는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한 쿠바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도시 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가)에는 도시의 농지 감소와 경작 공간 부족 문제가 나타나 있으며, 'Ⅱ-2-가'에서 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 ㉡은 모두 도시 농업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므로, 이들을 묶어 '도시 농업 공간 확보'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7.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도심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며, '국내 도시 농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는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지 않았다. ② '도시 농부'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으나 '도시 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지 않았다. ③ '이웃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나,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도시 농부로서의 행복을 누린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나,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8. 요약하기의 전략과 실제

정답해설 : 첫째 문장은 1문단의 중심 내용이고, 둘째 문장은 2문단의 중심 내용이다. '긴장과 두려움을 즐기며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나 '매우 위험한 의식이지만 소년들은 기꺼이 도전' 등과 같이 반복되거나 부가적인 내용은 '자유'나 '용맹성' 등으로 압축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이 추가되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의 중심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1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③ '번지점프는 ~ 매우 위험하며 가혹한 것'이라는 내용은 <보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이 추가된 것이다. ④ 'बाट줄을 몸에 고정하고'나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점프하는 소년들' 등에는 반복되거나 부가되는 내용이 압축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 있다. ⑤ 첫째 문장에는 1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둘째와 셋째 문장에는 <보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자신의 생각이 추가되어 있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작문 일지'를 보면, 문화유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민하던 필자는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을 떠올리고 아리랑을 소재로 글을 쓰기로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글'에서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의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둘째 문단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등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⑥: 문화유산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⑦: 아리랑 연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이나 구체적으로 추가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준' 것이나 필자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모두 과거의 사실이므로 '되었다'를 현재형 '된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그러자'가 적절하다. ② '정도를 더 높이다'의 뜻으로는 '돋우다'가 표준어이다. ③ '으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

적절하다. ④ ‘무관심하다’는 ‘에/에게’와 함께 쓰이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조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한 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④이다. ‘장마비’는 ‘장마+비’의 합성어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만족한다. 그러나 그 발음은 [장마뻘] 혹은 [장말뻘]이므로, 3-2단계가 아닌 3-1단계를 만족한다. 즉,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장맛비’로 적는 것은 맞지만,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개살구’의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개살구’는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개살구’로 적어야 한다. ② ‘총무과’는 ‘총무(總務)+과(課)’, 즉 ‘한자어+한자어’의 구조이므로 2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총무과’로 적어야 한다. ③ ‘만둣국’은 ‘만두(饅頭)+국’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만두꾸] 혹은 [만둔꾸]이므로, 3-1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만둣국’으로 적어야 한다. ⑤ ‘허드렛일’은 ‘허드레+일’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허드렌닐]이므로, 3-3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허드렛일’로 적어야 한다.

12.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 제13항과 제15항의 내용에 대해 ‘앞앞이[아바피]’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선 제13항에서는 흘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 등과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앞이’의 ‘-이’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이’는 [아피]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앞’은 [아밥]으로 발음해야 한다. 즉,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해야 한다. 정답은 ①로, ‘무릎이야’에서 ‘이야’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무르피야]로 발음하며, ‘무릎 아래’의 ‘아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무르바래]로 발음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넛이나’와 ‘서넛에서의’의 ‘이나’와 ‘에서’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

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서녀키나]와 [서녀케서]로 발음한다. ③ ‘겉으로’의 ‘으로’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거트로]로 발음한다. ‘겉아가미’의 ‘아가미’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거다가미]로 발음한다. ④ ‘배꽃이’의 ‘이’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배꼬치]로 발음한다. ‘배꽃 위’의 ‘위’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배꼬뒤]로 발음한다. ⑤ ‘빛에’와 ‘빛이며’의 ‘에’와 ‘이며’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비제]와 [비지며]로 발음한다.

13. 문장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비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여전히’와 같은 부사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해결책인지를 드러내는 문장 성분이다. 예를 들어, ‘그 사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그 사태의 해결책’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에는 ‘대하지’와 호응하는 ‘누구에게’의 부사어나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에는 ‘지내기도’와 호응하는 ‘누구와’의 부사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④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에는 ‘존경했다’와 호응하는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⑤ “이이의 호는 울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에는 서술어 ‘유학자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14.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은 설명 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로,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

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은 ‘일어나지 못하겠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은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은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15. 의미의 중의성 파악.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③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첨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내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16. 훈민정음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순경음과 초성 합용 병서에 대해 설명한 뒤, 그 형태를 <보기 2>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가)는 순경음(脣輕音)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ㄹ’, ‘ㄴ’, ‘ㄷ’, ‘ㅂ’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 ‘수빈의’ ‘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초성 글자를 나란히 쓰는 초성 합용 병서(合用並書)에 대한 설명으로, ‘ㄱ’, ‘ㄷ’, ‘ㅂ/ㅃ’, ‘ㄴ’, ‘ㄷ/ㄸ’, ‘ㄹ’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쑤르미니라의’ ‘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모춤과 ㉣ 밧노니를 통해서는 ‘아래 아(’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순경음이나 초성 합용 병서와는 관계가 없다.

[17~20] 인문,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해석

지문해설 : 이 글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훈고의 차이와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름에서 비롯되는데, 주희는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인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하는 것, 정약용은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인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명명덕’의 의미라 하였다. 그리고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백성을 가르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친민(親民)’을,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잘 표현하는 ‘신민(新民)’으로 고쳤는데, 정약용은 이에 대해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지만,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정약용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교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주제]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 차이

17.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의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와 4문단의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에서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1문단의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의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에서 글자의 혼고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정약용은 당대의 ~관심이 있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명명덕을 주희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으로, 정약용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①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주희와 정약용은 ㉠는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으로, ㉡는 백성을 가르쳐 인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를 ㉠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다. ③ 2문단의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는 명명덕에 대한 정약용의 해석이다. ⑤ 3문단에서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 '신민'이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19.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주희는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하지만 왕양명은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신'보다는 '친'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왕양명은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한정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것은 정약용이 아니라 주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③ <보기>에서 정약용은 왕양명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왕양명과 정약용의 '친민'에 대한 해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보기>에서 왕양명은 당시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친민'으로 고쳤으므로,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정약용은 주희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았다.

2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인도(引導)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다', '이끌어 지도하다'는 의미를 지니

고 있다. ㉠은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다’는 의미와 ‘사람, 단체, 사물, 현상 따위를 인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시(指示)는 ‘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은 상대방이 아직 모르는 일을 알도록 알려준다는 의미이므로 지도(指導)가 더 적절하다. ③ 개편(改編)은 ‘책이나 과정 따위를 고쳐 다시 엮다’,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하다’는 의미이다. ㉡은 글이나 글자의 잘못된 점을 고친다는 ‘수정(修訂)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도착(到着)은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는 의미이다. ㉢은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의 의미이므로,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는 의미인 도달(到達)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쇄신(刷新)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다’는 의미이고, ㉣은 ‘그릇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는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21-23] 예술, ‘20세기 미술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단토의 ‘미술 종말론’을 바탕으로 20세기 미술의 특징을 예술가의 주체성에 따른 ‘무한한 다원성’으로 설명한 글이다.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르네상스 미술,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에서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예술가의 정신적 저작권에 대한 선언이었으며 이는 ‘형식의 자율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흐름은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19세기 낭만주의 화가들이 내면을 무한하게 표출하게 되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20세기 미술은 이와 같은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지만 이와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이 종래에는 ‘전시적 요소’에 의존한 반면 20세기 미술은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미술은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주제] 20세기 미술의 연속성과 질적 차별성

21.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 둘째 문장에서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권은 화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는 내용을 통해 화가들의 서명이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서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려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는 내용을 통해 르네상스 때 예술가들이 자율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율성의 표출이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던지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3문단 첫 문장을 통해 ‘형식의 자율화’는 르네상스 때 이미 이루어졌으며,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은 ‘내용의 자기 중심화’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 셋째, 넷째 문장에서 현대 미술에서 작품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가 아니라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 넷째, 다섯째 문장에서 현대 미술에서 비평이 중요시되는 까닭이 작품에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22.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단토에 따르면 ‘20세기 미술’에서는 미술을 정의하는 (종래의) 기준이 해체된 것은 맞지만 이와 같은 기준의 해체로 인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단토가 말하는 미술의 ‘종말’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0세기 미술’은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적 주제성과 자율성의 발회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으로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②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세기 미술’에서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된다. ④ 4문단 첫 문장에서 ‘단토’는 ‘20세기 미술’과 과거의 미술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질적 차별성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0세기 미술’은 더 이상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를 통해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해도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은 작품이 아니라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에 의존하여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은 예로는 이론적 해석에 따라 일상품인 ‘소변기’가 미술 작품으로 인정받은 뒤샹의 <샘>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는 했으나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미술 작품의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된 예이다. ③ 플록의 <1950년 32번>은 즉흥적 이미지로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를 표현하였으나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된 예이다. ④ 칸딘스키의 <컴퍼지션 VII>은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지적인 행위인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니다. 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으로 음악적 리듬감을 추구하였으나 지적인 행위인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24~27] 사회, ‘소송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소송 제도에는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 등이 있는데, ‘공동 소송’은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으로 소송 진행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배상을 받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초기 소송 비용이 고액이라는 단점이 있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가 소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성격을 지니지만 손해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소송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최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징

24.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피해를 입은 갑이 A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로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소개하면서, 이들 소송 제도의 특징과 한계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파하기] ② 이 글은 원칙이 아닌 해결의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방법들 간의 관계 역시 대립적이지 않다. 또한 각각의 제도가 지닌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소송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소송과 관계된 몇몇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통합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가설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이 글이 집단적 피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소송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집단 소송이고,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은 단체 소송으로 공동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의 일종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소송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단체 소송의 진행 주체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로, 이때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함을 알 수 있다. ④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송 방식은 아니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집단 소송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6.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A회사의 잘못된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지 개인 정보를 A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갑이 진행한 소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은 A회사에게 사이트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였는데, A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는 한 링크 파일을 통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계속될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에 개인 정보 침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포함된다. ② A회사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의 목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포함된다. ③ 소송을 통해 갑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에 피해의 배상이 포함되므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은 소송의 목적이 된다. ⑤ 갑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배상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므로, 공동 소송의 목적에 비용 절감은 포함될 수 있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은 증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②는 집단 소송의 제한적 도

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단체 소송은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지만 소송의 주체는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이므로 가입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③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분쟁과 연관된 것이므로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단체 소송만 가능하다. ⑤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28~29] 과학, '각운동량'

지문해설 : 이 글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인 각운동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운동량은 질량(m),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r), 속도(v)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m \times v \times r$ 로 표현된다.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각운동량은 보존된다.(각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은 '각속도 $\times$ 회전 관성'의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며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회전 관성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이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피겨 선수의 움직임을 예로 들으로써 글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원리)

28.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는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을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 회전하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속도, 회전 관성 등의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 보면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는 진술이 있다. 답지에 제시된 쇠공과 플라스틱 공은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지만, 플라스틱 공은 속이 차 있고 쇠공은 속이 비어 있다.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 공은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과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배열되어 있으나, 쇠공은 질량 요소들이 모두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쇠공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쇠공의 회전 관성이 더 크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

화시키는 힘이 돌림힘이다. 팽이가 회전을 멈추는 것은 곧 각운동량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는 없다. ③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회전 관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이다. 따라서 마찰이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든다는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1문단에 의하면,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변화하게 하는 것은 각운동량이고, 이에 따라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질량이나 회전축과의 거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두 점이 있다면 중앙의 동일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두 점은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있으므로, 동일한 시간에 두 점이 회전하는 각도는 동일하게 된다. 2문단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라고 했으므로,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에 있는 두 점의 각속도는 동일하다. 회전축과의 거리는 각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문단에 따르면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지는 것은 회전 관성이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윗글에서 각운동량을 표현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멀면 회전 관성이 커지고 각속도는 작아진다. 반대로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가까우면 회전 관성이 작아지고 각속도는 커진다. <보기>의 상황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변화가 없다. <보기>에서는 B단계에서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따라서 회전 관성은 작고 각속도는 크다. 그러므로 B 단계의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 하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A~E 단계의 자세보다 회전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A~E 단계를 거칠 때 회전하게 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4문단의 피겨 선수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겨 선수는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다고 했는데, 이는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E의 각 단계는 각운동량이 모두 같다. ② A~E의 단계는 같은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할 때 자세가 변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질량 요소들의 합은 늘 같다. D 단계에서는 B 단계보다 회전축과 질량 요소들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속도가 작은 것이다. ③ B 단계는 질량 요소들과 회전축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회전 관성이 가장 작다.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보존될 것이고, 회전 관성이 가장 작으므로 각속도는 가장 크다. ④ C에서 E로 진행되면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는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회전 관성은 커진다.

[30]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

지문해설 : 이 글은 그 이전과 구별되는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12세기 이전의 독서는 종교적 목적에 의해 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2세기에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과 절의 구분, 주요 구절 표시, 차례와 찾아보기 같은 보조 장치 마련 등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참고 도서의 발행이 성행하였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방식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를 논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게 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주제]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와 그 장단점

3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전 부분에서 12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책의 종류, 12세기 독서법의 장단점, 12세기 독서의 목적, 12세기 독서법과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 등은 드러나 있으나 12세기 유럽에서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파하기] ① 2문단 둘째 문장에서 이 시기에는 주로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 도서가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 첫째, 둘째 문장에서 이 시기의 독서법인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맞볼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2세기 독서의 주된 목적이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에 있었음을 2문단 첫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 첫째 문장에서 이전 시기의 독서는 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문단의 편집 방식의 변화와 3문단 둘째 문장에서 12세기 독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방식이었음을 추론,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31~33] 고전시가 - 안민영, ‘매화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영매가’라고도 불리며 작자인 안민영이 스승인 박효관의 산방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책상에 있는 매화를 보며 노래한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매화와 화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운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화자는 전체적으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한편 매화가 지닌 우아함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은 추운 겨울에 핀 매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치고절(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로 표현되는 매화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6수의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에서 시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시 전체적으로 매화의 대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화의 형식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시적 대상인 매화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며, 화자의 애상감 또한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제6수의 ‘바람’과 ‘눈’이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면 이들이 매화에게서 ‘봄뜻’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명령형 어조는 찾아볼 수 없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8수에서 화자는 사방이 눈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철쭉’과 ‘두견화’가 아닌 매화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매화와 다른 자연물의 공통된 특성이 아닌 대조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에서 두세 명의 노인과 함께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고 있다. 이때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는 낭만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② 제3수에서는 제1수와 달리 ‘매화’를 ‘너’로 칭하며 의인화하고 있으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는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제6수에서는 ‘찬 기운’이 ‘매화를 침노’하는, 매화가 시련을 겪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봄뜻’을 잃지 않는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 앓을쏘냐’, 제8수에서 ‘~있으리’의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매화가 지닌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할 때 당대의 이념과 관련지으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봄뜻’이라는 시어 또한 당대 이념과 관련지으면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서만 감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영이 부딪힌 창’을 보며 ‘거문고와 노래’를 하는 행위에서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잔 들어 권할 적에’에서 화자가 술잔을 들어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화로 인해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풍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매화를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감상할 때, '황혼월'로 인해 조성되는 낭만적 분위기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매화를 '아치고절'로 예찬하고 있는데 매화가 나타내는 '우아한 풍치'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심미적 가치를, '높은 절개'에서 당대의 규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34~37] 고전소설 - 임춘, '국순전'

지문해설 : '국순전'은 고려 고종 때 임춘이 지은 작품으로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의인화한 술(국순)의 일대기적 구성을 바탕으로 술에 탐닉하여 국정을 소홀히 하는 임금, 본분을 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관리들, 임금의 눈을 가리는 간신배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전체의 전기(傳記) 형식과 허구적 성격은 후대 고전 소설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제] 술에 탐닉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간사한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국순이 섭법사와의 담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계기, 산도의 국순에 대한 평가, 청주종사(높은 벼슬)에서 평원독우(낮은 벼슬)로 강등되었을 때의 국순의 반응, 관상가가 국순의 미래를 예언한 일 등을 열거하며 국순의 인물 됃됨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윗글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윗글에서는 대화를 통해 작중 정황을 드러낼 뿐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윗글에서는 시간적 순서대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윗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인물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㉞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이지만, 국순은 '선조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도,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국순은 임금이 자신을 꺼려하는데도 벼슬에 연연해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 ㉞**

[오답피하기] ① ㉞은 '국순의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만경창파’는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뜻하고 이는 곧 국순의 마음이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의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에서 국순이 장래에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에서 국순이 자신의 벼슬이 강등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강등된 벼슬을 거절하고 차후에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이라는 포부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의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손님을 대접하고,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에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정답해설 : [B]에는 국순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와 국순에 대한 산도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C]에는 국순의 관직 입문, 국순에 대한 임금의 총애, 국순의 입신양명, 국순의 국정 문란, 퇴임과 사망이 시간적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B]에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국순의 조상 ‘모’가 공이 있음에도 벼슬을 마다한 일, 임금이 그 후손을 후대하고 교분을 맺은 일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순의 가문 내력’과 ‘국순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는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부정 축재를 일삼는 국순(간신)을 비판·풍자하고 있고, 이를 다시 [E]에서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라고 하며 재차 강조하고 있으므로 ‘[C]에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D]의 ‘자식은 없고’, 먼 친척인 ‘청(淸)이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에서 ‘후대의 가문 내력’과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E]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계-행적-논평’ 중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논평은 사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속에는 순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간의 세태를 풍자하고자 한 작가의 견해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7. 인물의 태도를 한자성어와 관련짓기

정답해설 : ㉠(입을 굳게 다문 채)는 술에 탐닉하여 국정을 외면하는 임금의 태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국순의 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한 것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함구무언(緘口無言)’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사실 그대로 고함.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38~40] 현대시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지문해설 : 이 시는 고민, 좌절, 절망의 끝에서 허무 의식을 떨치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생명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삶의 가치에 대한 회의와 번민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대결의 공간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설정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열렬한 고독'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의 세계에 자신을 바치겠노라는 비장한 의지를 드러낸다. 여기서 참된 '나'란 성취하고자 하는 '근원적 생명과 순수성으로서의 자아'라 할 수 있다.

[주제] 본연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현대시 - 신경림, '농무'

지문해설 : 이 시는 1970년대 농민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울분과 한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농무'는 농민들에게 신명과 흥겨움을 주는 놀이지만, 이 시에서는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장치가 된다.

[주제]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한과 고뇌

3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대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 고개 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강한 인상을 주면서 시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다. 특히 '~꺼나'라는 의문형 어미가 대구를 통해 반복됨으로써 여운이 강화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 있지만, '보름달은 밝아' 등으로 볼 때 시간적 배경이 밤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다른 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아라비아 사막'은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에는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화자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울로 서면’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오히려 화자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화자가 ‘원시 본연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추구하는 대상인데 반해, ‘병든 나무’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 화자 자신의 모습을 표상한다. ② ‘영겁의 허적’은 아무 것도 없이 적막한 ‘아라비아의 사막’의 극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나’와 대면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조건에 해당한다. ④ ‘나’란 ‘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래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회한 없는 백골’은 ‘나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화자의 강한 생명 회복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는 오히려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 ‘농무’가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농무가 역설적으로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 준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가 농무를 추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A]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에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①은 농민들이 처한 상황을, ④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정서를 보여 주는 것으로, 1970년 전후의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와 시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⑤는 비참한 농촌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은 화자가 자조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냉소적인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1~43] 최인훈, ‘광장’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해방 이후 6.25 전쟁까지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 등에 대한 모색을 그리고 있다. 다른 전후 소설이 대체로 전쟁의 참상 및 그 속에서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그리며 이념적 편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이 소설은 그런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 소설의 주인공 ‘명준’은 아버지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고난을 겪고 개인적 공간인 ‘밀실’만 존재하고 ‘광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남한 사회에서 환멸을 느껴 밀입북을 감행한다. 외부에서 봤을 때 ‘밀실’과 ‘광장’이 균형 잡힌 것처럼 보였던 북한 사회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명준은 또 다시 환멸을 느낀다. 북한은 남한과 반대로 ‘광장’만이 존재하고 ‘밀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남한과 북한 양쪽의 체제와 실상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양쪽에서 환멸을 느낀 명준은 포로수용소에서 중립국을 택하여 인도로 향한다. 인도로 향하던 중, 자신을 따라 오던 갈매기 두 마리를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뱃속에 있던 아이로 여기게 된 명준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푸른 바다가 광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바다로 뛰어든다.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4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명준’의 남한과 북한에서의 경험, 인민군 장교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서술한 부분이다. 첫 부분의 큰 따옴표가 붙은 부분도 실제 대화가 아니라 ‘명준’이 혼자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말할 것이다’, ‘돌아볼 것이다’, ‘웃겠지’ 등의 서술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준’이라는 인물의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명준’이 남한과 북한, 한국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판단한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파하기】 ① 제시된 부분은 ‘명준’이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판단한 것을 관념적인 어휘를 이용하여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장면 전환이 거의 없으며 그 분위기도 긴박하지 않다. ③ 공간에 대한 묘사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공간 자체만으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④ ‘명준’이 남한행을 권유받는 장면과 중립국에 가서 사는 장면은 회상이라고 할 수 없다. ‘명준’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 또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았던 공간들에 대한 관념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⑤ 제시된 부분에서는 ‘명준’이 혼자 생각하는 내용들만 제시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4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5면의 네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를 보면 셈할 줄 모르고, 환상에 빠지고, 마술을 믿었으며, 속은 사람들에게 대해 서술이 되어 있다. 열 번째 줄에 ‘난파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본 후 참을 알고 돌아온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난파꾼**은 이명준을 가리킨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서는 존재이다. 「난파꾼」의 네 줄 첫부분을 보면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는 서술도 있다. 따라서 난파꾼은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잊고자 하는 존재이다. ② 「난파꾼」은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달기를’ 바란다. 이는 곧 그 섬이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곳에 달기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며, 혹시 안다고 해도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존재이다. ④ 「난파꾼」이 가기로 결정한 곳은 중립국이며, 그 중립국에서 바라는 삶은 소박한 소시민의 삶이다. 따라서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⑤ 「난파꾼」은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는 아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광장」이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명준’은 이분법적 구도의 희생자에 해당한다. ‘명준’은 그러한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중립국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준’의 선택을 ‘이념’을 택했다고 한 진술이나 ‘행복한 삶’을 마다했다고 하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명준’은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반감과 환멸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립국을 택한 후 상상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고 탈이념적인 소시민적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후 마음껏 웃음을 터뜨리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웃음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한 조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한 후련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마술사를 언급한 부분의 어조는 매우 냉소적이다. ‘허황하고’, ‘철없는’, ‘잘못’, ‘환상’, ‘마술’ 등의 어휘가 이러한 태도를 보여 준다. 마술사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마술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④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때 ‘참’을 안다는 것은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명준’이 중립국을 택한 후 상상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며 탈이념적이다. 이는 마지막 두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4~45] 극, 이근삼, ‘원고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존

재가 되어 버린 대학교수와 그 가족을 통해 돈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정상적 의사소통마저 마비된 한 가정의 일상을 통해 가족마저 파괴해버린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독설적인 대사로 현대인의 기계적 삶의 한 단면을 풍자하며,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한 채 일상에 매몰된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한편 작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소도구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수법을 시도한 작품이다. 그래서 <원고지>는 특정한 줄거리, 혹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반복되는 일상과 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낼 뿐이다.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철쇄’는 교수가 가족의 물질적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이다. 교수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 교수가 허리에 두른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처는 교수 허리에 감긴 ‘철쇄’를 풀어 주지만 소파 뒤에서 또 하나의 ‘굶은 줄’로 다시 감고 있는데, 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정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굶은 줄로 상징되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파하기] ① 장남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벌겋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교수가 등장할 때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루한 느낌의 음악은 아버지가 쾌활하고 가볍다는 장남의 말과 충돌하여 서로 배치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은 그의 삶이 원고지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교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한 ‘칸투성이’이므로 그가 규격화된 틀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③ 교수는 ‘비명’같이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장녀는 ‘달콤한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어낼 의도가 없으므로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수와 처에게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근삼의 희곡에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극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

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한 후, 처가 교수에게 하는 행동(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장녀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무대 공간에 대한 짙막한 정보를 전달한 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극중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이다. ② 장남이 아버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맞지만, 극중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⑤ 장녀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 또한 그녀의 생각은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1. ③	02. ②	03. ②	04. ②	05. ⑤	06. ⑤	07. ⑤	08. ②	09. ①	10. ⑤
11. ④	12. ③	13. ②	14. ①	15. ③	16. ④	17. ③	18. ③	19. ④	20. ②
21. ①	22. ①	23. ②	24. ④	25. ②	26. ③	27. ①	28. ②	29. ⑤	30. ④
31. ①	32. ③	33. ③	34. ③	35. ①	36. ①	37. ⑤	38. ③	39. ④	40. ⑤
41. ⑤	42. ①	43. ①	44. ⑤	45. ④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에 따른 준비성을 확인하는 문항이다. 발표자는 파일을 정리하는 이유가 파일 관리의 효율성과 파일 찾기의 편리성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파일 정리 방법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지만, 학습에 도움이 되는 파일 정리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의 ‘저의 컴퓨터~소개하려고 합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표 시작 부분의 ‘~관리하시나요?’,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발표자의 ‘보시는 것은~도식화한 것입니다.’라는 발언과 시각 자료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발표 끝 부분에서 ‘이와 같이 폴더는 3단계까지~제 파일 정리 방법의 핵심입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발표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항이다. 발표자의 “각 단계별 폴더 수는 5개로~많은 경우에도 파일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라는 발언을 볼 때, 발표자는 폴더 수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발표자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발표하지 않았다. ③ 발표자는 파일을 3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단계가 너무 많으면 파일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자신의 파일 정리 방법이 다른 컴퓨터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주로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3.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대담에서 학생은 무중력 상태인 우주 정거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방법과 관련하여 액체가 아닌 음식물을 먹는 방법을 연구원에게 추가로 질문하고 있으나 자신

이 이해하지 못한 용어에 대한 설명은 요청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의 ‘교내 신문에~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하는군요.’ 등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의 ‘우주인들이 공중에~본 적이 있죠?’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의 ‘지구에서는 보통 빵이나~괜찮잖아요?’ 등의 발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

4. 의사소통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성민은 강사의 말이 자신에게도 인상이 깊었다고 말하여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성민의 견해에 대해 혜경도 ‘정말 좋았어’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혜경의 물음에 대해 병수가 분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혜경과는 생각이 다를 것을 생략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병수의 말을 요약한 성민의 말이지만 병수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⑤ ㉤은 병수의 말에 대한 혜경의 비판적 태도가 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상대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조언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후에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⑤를 볼 때, ‘요즘 너 삶에 대한~힘들었겠구나.’는 상대를 이해한 말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는~쉽지 않을 거야.’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 경험이~어떨까?’는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상대의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외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상대가 하려는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6~8]

6.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나)의 2문단에는 학생들이 특정 분야, 즉 판타지 소설과 자기 계발서를 주로 읽는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만, 왜 그 분야의 책들을 읽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 ‘청소년에게 독서란 지적인 성장과 인성 계발의 밑거름’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하여, 청소년기에 독서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라는 독서 실태 조사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② 2문단에 ‘학생들의 독서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1년간 읽은 책의 권수와 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조사한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독서량이 적은 이유로 학생들은 ~이라고 답했다.’에서 독서량이 적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④ 2문단에 ‘학생들은 주로 판타지 소설과 자기 계발서 등을’ 읽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독서 경향 실태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자료 수집·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㉔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독서량의 차이가 나타나 있고, ㉕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동기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종합하여 성별에 따른 동기의 차이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㉔에는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의 독서량에 관한 실태’에 해당하므로 (가)의 ‘중간-1’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다. 또한 (나)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독서량이 적다는 내용의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동기’는 ‘중간’부분의 내용인 ‘학생들의 독서 실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중간’의 새로운 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하면, 학생들의 독서 실태로 ‘독서량’과 ‘독서 경향’만 다루던 것보다 내용이 풍부해진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적다고 판단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㉔에 나타난 전국 고등학생들과의 비교로써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④ ㉕에서 독서 동기로 책 읽기 자체의 즐거움에 대한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나)의 끝 부분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8.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넉넉하고’에서 독서량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균형 잡힌’에서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풍성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사를 하듯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졸리면 틈틈이 자듯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에서 독서량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음식을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책을 적게 읽으면 생각이 여물지 않는답니다'에서 독서량 부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시들어 축 처진 풀에 물을 흠뻑 주면 되살아나듯'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서량 부족이나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⑤ '골고루 그리고 많이 읽어'에서 독서량 부족과 특정 분야에 치우친 독서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작문 일지'를 보면, 문화유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민하던 필자는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을 떠올리고 아리랑을 소재로 글을 쓰기로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글'에서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의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둘째 문단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등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⑥: 문화유산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⑦: 아리랑 연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이나 구체적으로 추가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준' 것이나 필자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모두 과거의 사실이므로 '되었다'를 현재형 '된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그러자'가 적절하다. ② '정도를 더 높다'의 뜻으로는 '돌우다'가 표준어이다. ③ '으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가 적절하다. ④ '무관심하다'는 '에/에게'와 함께 쓰이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음운의 변동을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음운의 변동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정답은 ④로, ‘급행열차’가 [그팽널차]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급행’의 ‘ㅂ’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ㅍ’으로 ‘축약(㉔)’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열’이 [널]로 발음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음운 ‘ㄴ’이 ‘첨가(㉕)’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랑잎’이 [가랑닙]으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ㄴ’이 ‘첨가(㉕)’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ㅍ’이 [ㅂ]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㉗)’ 현상에 해당한다. ② ‘값지다’가 [갑찌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값’이 [갑]으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㉙)’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가 [찌]로 발음되는 과정은, ‘ㄱ, ㄷ, ㅂ’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하는 ‘된소리되기’에 의한 것인데, ‘교체(㉗)’ 현상에 해당한다. ③ ‘술하다’가 [수타다]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먼저 ‘술’의 ‘ㅌ’이 [ㄷ]으로 발음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㉗)’ 현상에 해당한다. 또한, ‘ㄷ’과 ‘ㅎ’이 하나의 음운 ‘ㅌ’으로 ‘축약(㉔)’되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다. ⑤ ‘서른여덟’이 [서른녀덧]로 발음되는 과정에서는, 우선 ‘ㄴ’이 ‘첨가(㉕)’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덧’이 [덧]로 발음되어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탈락(㉙)’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2. 문장 성분 분석·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에서 어말 어미를 종결 어미(㉑), 연결 어미(㉒), 전성 어미(㉓)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로 그 종류에 따라 평서형 종결 어미, 감탄형 종결 어미, 의문형 종결 어미, 명령형 종결 어미, 청유형 종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㉑ ‘읽었다’의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연결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 끝으로,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명사 전성 어미, 관형사 전성 어미와 부사 전성 어미로 나뉘며 <보기>에 제시된 ㉓ ‘읽을’의 ‘-을’은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으로, ‘가는’의 ‘-는’은 ㉒의 연결 어미가 아닌 ㉓의 전성 어미, 그중에서도 관형사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흔히 감탄의 뜻을 지니며,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② ‘오시지?’의 ‘-지’는 어떤 사실을 물을 때 쓰이는 어말 어미로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맥락에 따라 ‘-지’가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등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경우에도 모두 종결 어미(㉠)에 해당한다. ④ ‘먹었으나’의 ‘-으나’는 앞 절의 내용과 뒤 절의 내용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어말 어미로,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에 해당한다. ⑤ ‘운동하기에’의 ‘-기’는 용언의 어간 ‘운동하-’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말 어미로, 전성 어미(㉢)에 해당한다.

13. 피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피동사와 능동사의 의미 관계에 대해 국어사전을 통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갈-리다¹’과 ‘갈-리다²’의 품사가 모두 동사라는 점, ‘갈-리다¹’과 ‘갈-리다²’가 모두 동작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그것에 대응되는 능동사 ‘갈다¹’과 ‘갈다²’의 품사는 동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갈-리다¹’의 의미를 고려할 때, ‘갈다¹’에는 ①과 ②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갈다¹’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인 다의어(多義語)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③ ‘갈-리다¹’과 ‘갈다¹’은 피동사와 능동사의 관계로 ‘갈리다’는 ‘갈- + -리- + -다’로 분석되어 피동 접미사 ‘-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갈-리다¹’ ①이 ‘갈다¹’ ①의 피동사적 의미를 지님을 고려하면, ‘갈다¹’ ①은 ‘갈-리다¹’ ①과 비교하여 능동사적 의미를 지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갈-리다²’와 ‘갈다²’가 피동사와 능동사의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면, ‘갈다²’의 의미로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를 추론할 수 있다.

14.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은 설명 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로,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

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㉔는 ‘일어나지 못하겠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㉔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㉕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15. 의미의 중의성 파악.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㉔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③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㉔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첨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㉔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㉔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㉔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16~18] 과학, '동물의 길찾기'

지문해설 : 이 글은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길을 찾는 동물들의 다양한 길찾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는 '장소기억', '재정위', '경로적분' 등이 있는데, '장소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에 대한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법으로 곤충과 포유류 등이 주로 활용한다. '재정위'는 공간적 정보와 같은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식이며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동물의 현재 위치와 돌아갈 장소에 대한 방향 정보를 바탕으로 길을 찾는 방법이다. '경로적분'에 있어 방향 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이 함께 사용된다.

[주제] 동물의 다양한 길찾기 방법

1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원숭이는 길찾기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기억도 함께 활용한다고 했는데, 같은 문단에 앞서 설명된 내용이 '재정위'에 대한 것이고, '재정위'의 핵심이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는 데 있으므로, 원숭이는 장소기억과 함께 장소의 기하학적 정보를 활용하여 길을 찾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을 보면 곤충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이 '경로적분'이므로 곤충이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새가 장소기억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③ 산란된 햇빛 정보는 '경로적분'에서 방향 결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흰쥐는 길찾기의 방식으로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는 '재정위'를 사용하므로 산란된 햇빛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꿀벌이 사용하는 길찾기 방법은 '장소기억'으로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서 그 영상을 바탕으로 길을 찾아가므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7. 새로운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사막 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사막에는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지형지물이 많은 곳에서는 사막개미가 장소기억을 활용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막개미가 '경로적분'을 통해 방향을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 '태양의 위치와 산란된 햇빛'이므로 햇빛을 사용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는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 '경로적분'을 활용하는 능력은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사막개미는 먹이를 찾은 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신이 온 경로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집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는 경로를 따라 집으로 되돌아간다. ⑤ 사막개미가 이동하면서 매 순간 계산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집까지의 직선 ‘거리’가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파악되는 집 ‘방향’이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상황에서 먹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병아리가 활용하는 기하학적 정보는 먹이가 있는 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벽의 길이이다. 이에 따라 먹이가 있는 A 주변의 벽은 긴 벽이 먹이의 왼쪽, 짧은 벽이 오른쪽이라는 기하학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 병아리가 높은 빈도로 찾아가는 장소는 이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A와 C이고, 긴 벽이 오른쪽, 짧은 벽이 왼쪽에 있는 B와 D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탐색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A와 대각선에 위치한 C의 기하학적 정보는 A와 같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으므로 A와 C의 탐색 빈도는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추론된다. ② A는 C와, B는 D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A와 B, C와 D를 비슷한 빈도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A는 C와, B는 D와 동일한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A와 D, B와 C를 비슷한 빈도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와 C가 지닌 기하학적 정보와 B와 D가 지닌 기하학적 정보는 상반되므로 A, B, C, D에 대한 탐색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19-21] 기술,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

지문해설 : 이 글은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를 통해 인체 조직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X선이 인체를 투과할 때 조직에 따라 투과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X선 사진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은 구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한 것이 CT(컴퓨터 단층촬영장치)이다.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 흡수되거나 산란되면서 감쇄되는데, 이렇게 감쇄된 총량을 환산값이라고 한다.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서의 환산값을 활용하면 단면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고, 이런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면 입체 영상을 얻을 수도 있다.

[주제] CT로 인체의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원리

19.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X선을 인체에 조사하면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 산란되고 나머지

는 조직을 투과한다. 이것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할 때 조직에서 흡수·산란되는 것이 많을수록 조직을 투과하는 X선의 세기는 약해지고, 흡수·산란되는 것이 적을수록 조직을 투과하는 X선의 세기는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직에서 흡수·산란된 X선의 세기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기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의 'CT 촬영기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와 4문단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의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의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역투사 결괏값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이기 때문에, 환산값이 클수록 역투사 결괏값은 커진다. 그런데 환산값은 X선이 조직에 흡수·산란되면서 감쇄된 총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직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환산값은 커진다. 이것은 조직이 없거나 공기만 있는 부분은 환산값이 가장 작아 역투사 결괏값도 가장 작다는 의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의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 방법이 이용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역투사는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이 아니라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하다. ③ 6문단의 '역투사 결괏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감쇄되는 X선도 많아 환산값도 커질 것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괏값이다.'라고 했으므로 X선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역투사 결괏값도 커질 것이다. ⑤ 5문단에서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며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결괏값이다.'라고 했으므로 CT 촬영기에서 구한 환산값을 컴퓨터로 처리하면 역투사 결괏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B는  같은 모양의 물체를 45° 방향에서 비추게 되므로, B에 투과되는 물체는  모양이 된다. ㉠의 X선 투과율은 ㉡의 2배라고 하였으므로, ㉠의  부분을 투과하는 X선 환산값은 물체 ㉡의  모양( 모양을 반으로 접은 모양)을 통

과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때, ㉓는 정사각형이고 ㉔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이며 맞닿아 있는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모양의 크기와 높이는 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즉,

㉓와 ㉔가 합쳐진  모양의 물체를 투과하는 X선의 환산값은 물체 ㉔의  모양을 투과하는 것과 같게 된다. 따라서, B 방향에서 해당 도형의 환산값을 구하면 0에서 시작하여 점차 상승하다가 일정한 값을 유지한 후 점차 감소하여 다시 0이 되는 ㉑번 그래프가 된다.

정답 ①

[22~25] 사회, ‘소송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소송 제도에는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 등이 있는데, ‘공동 소송’은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으로 소송 진행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배상을 받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초기 소송 비용이 고액이라는 단점이 있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가 소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성격을 지니지만 손해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소송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최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징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피해를 입은 갑이 A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로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소개하면서, 이들 소송 제도의 특징과 한계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글은 원칙이 아닌 해결의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방법들 간의 관계 역시 대립적이지 않다. 또한 각각의 제도가 지닌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소송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소송과 관계된 몇몇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통합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가설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이 글이 집단적 피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소송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

을 뿐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23. 세부 정보,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집단 소송이고,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은 단체 소송으로 공동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의 일종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소송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단체 소송의 진행 주체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로, 이때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함을 알 수 있다. ④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송 방식은 아니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집단 소송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4.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A회사의 잘못된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지 개인 정보를 A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갑이 진행한 소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은 A회사에게 사이트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였는데, A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는 한 링크 파일을 통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계속될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에 개인 정보 침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포함된다. ② A회사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의 목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포함된다. ③ 소송을 통해 갑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에 피해의 배상이 포함되므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은 소송의 목적이 된다. ⑤ 갑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배상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므로, 공동 소송의 목적에 비용 절감은 포함될 수 있다.

2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은 증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②는 집단 소송의 제한적 도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단체 소송은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지만 소송의 주체는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이므로 가입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③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분쟁과 연관된 것이므로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단체 소송만 가능하다. ⑤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26~27] 인문,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실재론의 도전'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반실재론의 도전을 다루고 있다. 세계관은 다양한 신념들의 체계인데, 그 근본적인 수준의 신념은 '세계는 존재한다.'이다.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명한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버클리의 주장은 우리의 통념과 충돌하지만, 그의 주장은 타성에 젖은 실재론적 세계관의 토대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해 준다.

[주제] 실재론적 세계관에 대한 버클리의 반박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근본적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반실재론자인 버클리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하였는데, 이는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일 뿐이다. 버클리가 '세계는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신념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최근까지도 새로운 형태의 반실재론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세계관은 세계의 존재와 본성, 가치 등에 관한 신념들의 체계이며,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준거로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토대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이 성립해야만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든가 불변한다든가 하는 등의 신념이 성립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실재론은 '세계는 존재한다.'는 신념에 덧붙여 세계가 '우

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7. 자료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버클리는 '우리가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함, 딱딱함, 운동 등의 성질도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런 속성으로 구성되는 세계 속의 대상이나 현상으로 가득한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될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번개가 치는 현상으로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 것(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둘기가 존재한다.'는 '비둘기가 지각된다.'와 같은 뜻(ㄴ)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우리에게 지각되는 책상은 우리의 인식 이전에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세계가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재론의 견해와 부합한다.

ㄹ. 버클리는 맛뿐 아니라 형태도 주관적 속성이라고 하였으므로 사과와 단맛뿐 아니라 사과와 둥근 모양도 주관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28-30] 예술, '한옥의 창호'

지문해설 : 이 글은 한국 전통 건축인 한옥에서의 창호(窓戶)의 의미와 역할, 심미적 기능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창과 문의 기능과 미를 공유하는 창호는 공간의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옥에서 공간의 연결, 분리, 실내 공간 구획의 변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한옥에서 창호는 건축의 심미성을 잘 드러내는 요소이다. 열린 창호는 안과 밖,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된 심미적 공간이며,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도 창살 문양과 창호지가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려 사람과 자연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한옥에서 창호(窓戶)의 의미와 역할 및 심미적 기능

28.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의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에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4문단의 '한옥에서 창호지는 방 쪽의 창살에 바른다'에서 창살이 방 안쪽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방 안에서 보았을 때 창호지에 어리는 햇빛은 이른 아침에 청회색을 띠고, 대낮의 햇빛이 들어올 때는 뽕안 우윳빛,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이면 석양의 붉은색으로 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머름은 창 아래 설치된 낮은 창턱으로, 팔을 얹고 기대어 앉기에 편안한 높이로 하였다'에서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의

‘그러나 한국 전통 건축, 곧 한옥에서 창과 문은 그 크기와 형태가 비슷해서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서는 ‘여러 짝으로 된 큰 창호가 한쪽 벽면 전체를 대체하기도’한다고 하였으나, 4문단에서 창호가 닫혀 있을 때에도 ‘창호지가 얇기 때문에 창호가 닫혀 있더라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하다. 방 안에서 바깥의 바람과 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화창한 날과 흐린 날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을 내려 닫았을 때,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교감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 2문단의 ‘창호의 개폐에 의해 안과 밖의 공간이 연결되거나 분리되고 실내 공간의 구획이 변화되기도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방 안의 사람이 방 밖의 자연과 완전한 소통을 하여 인공의 미가 아닌 자연의 미를 직접 받아들임으로써 한옥의 실내 공간은 자연과 하나 된 심미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열린 창호가 안과 밖, 사람과 자연 사이의 경계를 없앴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의 ‘방 밖에서 보았을 때 대칭적으로 배열된 여러 창살들이 서로 어울려 만들어내는 창살 문양은 단정한 선의 미를 창출한다. 창살로 구현된 다양한 문양에 따라 집의 표정을 읽을 수 있고 집주인의 품격도 알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사람의 표정이나 행위 따위를 보고 뜻이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의미이다. **정답 ㉡**

[오답피하기] ㉠은 글을 보고 그 음대로 소리 내어 말로써 나타낸다, ㉡는 (작가의 이름을 목적으로 하여)작가의 작품을 보다, ㉢은 글자의 음대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디스크 따위에 든 정보를 가져와 그 내용을 파악하라는 의미이다.

[31~33] 현대시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지문해설 : 이 시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가려는 강인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든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존재든지 간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자세라는 것이다. 화자의 이러한 믿음은 뿌리가 깊으면 밑동이 잘려도 새순이 돋는 갈대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지만 물 고이면 꽃은 피더라는 자연 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이 자연

의 이치이므로 ‘고통’은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충분히 흔들리자고 말한다. 심지어 고통과 살을 맞대며 가자고 말한다. 외로움을 걱정하며 목숨을 거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면 고통과 설움의 땅을 벗어나 ‘뿌리 깊은 별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원한 슬픔은 없다는 생각과 고통을 함께 극복할 존재(‘손 하나’)를 통해 자신의 이러한 낙관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다.

[주제] 어려운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다짐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대구’란 비슷한 어조를 가진 구절을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 시에서는 2연의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이나 ‘외롭기로 걱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3연의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슷한 어조를 가진 두 행이 짝 지어져 있기 때문에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새순’이나 ‘꽃’이라는 시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의인화로 잘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자는 냉소적 태도가 아니라 낙관적 믿음을 바탕으로 한 강인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한 영혼이여’나 ‘고통에게로 가자’ 등에서 ‘영혼’, ‘고통’ 등의 관념적 대상을 찾아낼 수 있는 있다. 하지만 추상적 관념어들이 구체적인 대상인 양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지, 이들이 공감각적인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작품은 과거 회상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나 인간 세상의 이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조는 화자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거리가 멀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새순’은 ‘밑둥 잘리어도’ 돋는 것이며, ‘등불’은 ‘이 세상 어디서나’ 켜지는 것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갈대의 밑둥이 잘리는 것은 갈대에게 일종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잘려도 ‘새순’이 돋는 것은 갈대가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인데, 세상 어디에서도 ‘등불’은 켜진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워지더라도 밝은 빛은 존재한다는 뜻이다. 어둠은 고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불’은 고난 극복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밑둥’은 밑둥을 가리키는 말로 나무줄기에서 뿌리에 가까운 부분이므로 ‘밑둥 잘리어도’가 바로 실존적 위기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개울’은 ‘등불’과 마찬가지로 세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고난 극복

복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② ‘한 계절’ 동안 ‘넉넉히’ 흔들린다고 했으므로 상한 갈대가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극한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A]와 [B] 모두에서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하고자 하는 어조를 찾을 수 없다. ⑤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낙관적 믿음과 의지적 태도가 반복적으로 변주되고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3연의 ‘바람’은 막을 수 없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3연은 계속해서 ‘영원한 눈물’과 ‘영원한 비탄’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고난을 막기 어렵다고 해서, 이러한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 ‘고통과 설움의 땅’을 지나서 도달하는 공간이므로 긍정적 공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을 영원한 운명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연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도 ‘뿌리 깊으면야’ 새순이 돋는다고 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튼튼하고 굳건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 역시 굳건한 이미지를 가진다. ② ㉠의 ‘벌판’은 갈대가 뿌리를 박은 채 자라야 하는 지상의 공간이므로 ‘하늘’에 대응하는 현실적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3연에서 화자는 고통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은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서야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⑤ ‘손’은 ‘감감한 밤’과 대비되고 ‘오고 있’는 것이므로, 희망을 암시하는 존재이다. 또한 ‘벌판’에 서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므로 ㉠은 희망이 예비된 공간이다.

[34~37] 현대소설 - 전광용, ‘꺼삐딴 리’

지문해설 : 이 작품에서는 식민지 시대와 해방 그리고 전쟁 등의 역사적 경험을 겪은 이인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오직 자신의 출세와 부를 위해 친일파에서 친소파로, 다시 친미파로 재빨리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인물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이인국 박사는 일제 강점기에 제국대학에서 명예의 시계를 탄 수재로서 평양에서 개업하여, 일본인과의 교제를 넓게 트고 일본말만 하는 철저한 친일파이다. 그는 광복 직후 소련군이 평양에 진군한 후에 친일파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 감방에 갇히게 된다. 감방 안에서 러시아어를 익혀 소련군 스텐코프 소좌의 혹 수술을 성공리에 마쳐 감옥에서 풀려나 오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소련으로 유학 보낼 정도로 철저한 친소파로 변신한다. 그 후 1·4후퇴 때 서울로 오게 되고 미군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미 국무청 초청 케이스를 할당받기 위해 대사관 직원 브라운 씨에게 고려청자를 선물한다. 이러한 이인국 박사의 삶을 통해 작가는, 권력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시대에 따라 약삭빠

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속물근성을 비판하고 있다. 지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인국 박사가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를 만나기 전의 현실 상황과 회중시계를 매개로, 과거 소련군이 입성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주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시류에 따라 변절해가는 기회주의적 인간 비판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인국 박사는 회중시계를 보며, 과거 회상에 잠긴다. ‘중략’이전은 해방 후 소련군이 입성한 북한에서 월남하여 서울에 있는 현재의 행적에 관한 것이고, ‘중략’이후는 월남하기 이전 소련이 입성한 북한에서의 과거에 행적에 관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현재 상황이나 과거 행적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② 등장인물 간의 대결 의식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 ④ 감각적인 수사의 반복적 사용을 통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현학적 표현도 나와 있지 않으며, 이인국 박사를 통해 비판적인 지성인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은 창틀이나 탁자 위에 있는 먼지까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소한 일도 쉽게 지나치지 않는, 결벽성을 지닌 이인국 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인국 박사의 심리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즉, ‘종합 병원의 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영달을 꾀하려는 모습이지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사려 깊은 자세는 아니다. ③ 액자 속의 모조지를 빼내어 찢는 장면을 고려할 때,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 기쁜 마음을 감춘 채 사태를 주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그동안 추구해왔던 친일을 버리려는 행동이므로, 시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인국 박사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까지 동원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왕진 가방’은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이기는 하지만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물건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의미를 형상화한 소재로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계’는 인생의 반역이자 이인국 박사의 삶의 모습이 작품 속에 반영된 소설의 중요한 구성 장치이다. ③ ‘비상용 캐비닛’ 속에 넣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통해 이인국 박사의 주도면밀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④ ‘신사복’은 이인국 박사가 각모(角帽)와 쓰메에리(목단이)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사회생활의 시작 단계에서 가졌던 희망찬 기대 및 감회를 표상하는 소재이다. ⑤ ‘라디오’에서 여러 날째 소련군이 입성한다고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인국 박사가 새롭게 직면하게 된 변화된 정세를 알려 주는 소재이다.

37. 상황에 적절한 속담 적용

정답해설 : ㉠은 이인국 박사가 역사의 질곡 속에서 겪었던 죽음의 고비 즉, 일제 강점기, 소련군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등의 몇 차례의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갈림길’을 의미하는 ‘생사기로(生死岐路)’가 ㉠에 부합하는 한자성어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이다. ②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이인국 박사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죽음의 고비와는 거리가 멀다. ③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죽고 삶을 돌보지 않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 태도로 ‘죽음의 고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38~40] 고전시가 - 안민영, ‘매화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영매가’라고도 불리며 작자인 안민영이 스승인 박효관의 산방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책상에 있는 매화를 보며 노래한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매화와 화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운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화자는 전체적으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한편 매화가 지닌 우아함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3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은 추운 겨울에 핀 매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치고절(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로 표현되는 매화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6수의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에서 시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시 전체적으로 매화의 대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화의 형식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시적 대상인 매화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며, 화자의 애상감 또한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제6수의 ‘바람’과 ‘눈’이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면 이들이 매화에게서 ‘봄뜻’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명령형 어조는 찾아볼 수 없다.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8수에서 화자는 사방이 눈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철쭉’과 ‘두견화’가 아닌 매화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매화와 다른 자연물의 공통된 특성이 아닌 대조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에서 두세 명의 노인과 함께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고 있다. 이때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는 낭만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② 제3수에서는 제1수와 달리 ‘매화’를 ‘너’로 칭하며 의인화하고 있으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는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제6수에서는 ‘찬 기운’이 ‘매화를 침노’하는, 매화가 시련을 겪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봄뜻’을 잃지 않는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 앓을쏘냐’, 제8수에서 ‘~있으리’의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매화가 지닌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할 때 당대의 이념과 관련지으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봄뜻’이라는 시어 또한 당대 이념과 관련지으면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서만 감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영이 부딪힌 창’을 보며 ‘거문고와 노래’를 하는 행위에서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잔 들어 권할 적에’에서 화자가 술잔을 들어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화로 인해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풍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매화를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감상할 때, ‘황혼월’로 인해 조성되는 낭만적 분위기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매화를 ‘아치고절’로 예찬하고 있는데 매화가 나타내는 ‘우아한 풍치’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심미적 가치를, ‘높은 절개’에서 당대의 규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41~43] 고전소설 - 작자미상, ‘속영남자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한 양반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현실적 사건을 소재로 한 애정 소설이다. 전체 내용은 천상의 선녀였던 숙영이 적강하여 백선군과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결하자 백선군이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 살아난 숙영이 선군과 행복한 삶을 살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효를 요구하는 부모에 맞서 자식이 애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는 조선 후기 사회의 가치관의 변모 양상이 작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과 사랑이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가치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현실의 장애를 극복한 남녀의 숭고한 사랑

41. 발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의 마지막 부분에 백선군은 죽어서라도 숙영낭자를 만나겠다는 자기 희생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A]의 마지막 부분에 백선군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준다면 ‘죽은 혼백이라도 깨끗한 귀신이 될까’한다고 말할 뿐, 자신이 희생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숙영낭자가 백선군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원혼을 갚아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② [B]는 백선군이 죽은 숙영낭자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쓴 제문을 읽은 것이다. ③ [A]에는 죽은 숙영낭자가 산 백선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고, [B]에는 산 백선군이 죽은 숙영낭자에게 자신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④ [A]는 ‘낭군이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돌아오시니’로 시작하고 있고, [B]는 ‘성인도~다시 없으리오.’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백선군과 숙영낭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표현이다.

4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매월이 죄를 자백한 것은 ‘매를 견디지 못하여 승복하여 울며 가로되’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선군이 엄하게 매월을 추궁하였기 때문이지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했기 때문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백선군의 매월을 신문한 것은 숙영낭자의 몸에서 칼을 빼자 그 구멍에서 파랑새가 ‘매월’이라고 울면서 나오는 비현실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A]에서 숙영낭자는 억울한 누명을 써 혼백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매월이 스스로 밝혔듯이 ‘간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④ 매월이 간계를 꾸민 것은 스스로 밝혔듯이 ‘마침 원통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⑤ 매월이 돌이를 사주하여 꾸민 일로 인해 숙영낭자는 억울해서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공이 선군의 성혼 문제로 선군과 갈등하고 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고전소설의 주인공은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를 이 작품에 적용하면 과제를 수행하는 주인공은 백선균이고, 과제는 죽은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것이다.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로부터 과제를 부여받게 되는 단계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어, 백선균이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전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로부터 과제를 부여받는 까닭을 의심하는 단계가 맞기는 하지만, 백선균은 숙영남자가 나타난 원인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 ㉢ ㉡은 상공이 과제를 수행하려는 백선균을 방해하기 위해 한 말로 과제 수행이 방해받는 단계는 맞지만, 부자간의 갈등은 상공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외부 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은 아니다. ㉣ ㉡은 백선균이 상공이 과제 수행의 방해자임을 인식하는 부분으로, 백선균은 숙영남자의 죽음을 알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임 진사의 딸과 성례시키려는 아버지의 의도를 간파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 ㉡은 백선균이 숙영남자의 실제 상황을 목격하는 장면으로, 아직까지 숙영남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지 못했으므로 과제 해결이 완수되었다고 할 수 없다.

[44~45] 극, 이근삼, ‘원고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대학교수와 그 가족을 통해 돈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정상적 의사소통마저 마비된 한 가정의 일상을 통해 가족마저 파괴해버린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독설적인 대사로 현대인의 기계적 삶의 한 단면을 풍자하며,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한 채 일상에 매몰된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한편 작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소도구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수법을 시도한 작품이다. 그래서 <원고지>는 특정한 줄거리, 혹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반복되는 일상과 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낼 뿐이다.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철쇄’는 교수가 가족의 물질적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이다. 교수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 교수가 허리에 두른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까닭

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처는 교수 허리에 감긴 ‘철쇄’를 풀어 주지만 소파 뒤에서 또 하나의 ‘굶은 줄’로 다시 감고 있는데, 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장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굶은 줄로 상징되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교수가 등장할 때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루한 느낌의 음악은 아버지가 쾌활하고 가볍다는 장남의 말과 충돌하여 서로 배치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은 그의 삶이 원고지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교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한 ‘칸투성이’이므로 그가 규격화된 틀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③ 교수는 ‘비명’같이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장녀는 ‘달콤한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어낼 의도가 없으므로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수와 처에게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근삼의 희곡에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한 후, 처가 교수에게 하는 행동(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장녀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무대 공간에 대한 짝막한 정보를 전달한 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극중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이다. ② 장남이 아버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맞지만, 극중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⑤ 장녀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 또한 그녀의 생각은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③	10. ②
11. ⑤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②	17. ④	18. ①	19. ④	20. ⑤
21. ⑤	22. ④	23. ④	24. ⑤	25. ②	26. ③	27. ④	28. ④	29. ①	30. ③
31. ②	32. ①	33. ③	34. ①	35. ①	36. ②	37. ①	38. ①	39. ④	40. ③
41. ②	42. ③	43. ②	44. ⑤	45. ④					

[1~5] 화법

[1~3]

1. 토의의 절차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진행된 토의 속에서 토의의 절차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먼저 정 과장은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서 관광객이 줄고 있음을 문제와 관련된 현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김 교수의 제안에 대해 정 과장은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2.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김 교수는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서원을 전통 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다녀온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이끌며 토의를 진행하고 있을 뿐 발언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③ 정 과장은 ‘두 달 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도 인기가 높아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뿐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다.

3. 협상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의 후 진행된 협상에서 참여자들이 조정 단계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토의에서 고택 주인은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라며 이미 정 과장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고택 주인이 토의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협상 조정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협상 전략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정 과장은 고택 주인이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고택 훼손 방지를 위한 관리 지원 방안,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④ 고택 주인은 정과장이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⑤ 고택 주인은 정 과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4~5]

4.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을 묻는 문항이다. ①에서 소연은 창완의 발화에 대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라고 공감을 표현한 후, 창완의 마음에 어떤 장면이 와 닿았는지를 물음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②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연은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는 창완의 발화의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창완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③ 이전 발화에서 창완이 말을 중단하자, 소연은 ㉠‘괜찮아, 말해 봐.’라고 창완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④ ㉠에서 소연은 ‘부자간의 갈등이 ~ 인상적이었어’, ‘영화를 보면서 ~ 자꾸 떠오르더라고.’ 등 창완의 발화를 토대로 창완이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⑤ ㉠에서 소연은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라고 창완의 감정을 파악하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라며 창완에게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인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항이다.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는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밝힌 후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아버지가 우리 세대를 잘 모른다는 것과 아버지에게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는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났다’,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찾으며 아버지에게 더 큰 부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10] 작문

[6~7]

6. 내용 조직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청소년 소비 태도’와 관련한 주장을 담은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④의 경우 ‘Ⅱ-3-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 상품이나 상표에 기대려는 청소년의 부적절한 소비 행태와 관련된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의 경우, 글의 유형이 논설문인 점과 글의 내용이 ‘청소년의 소비 태도’와 관련한 것임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그릇된 소비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경우, ‘Ⅲ. 결론’의 제시 방법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의 경우, 상위 항목인 ‘청소년 소비의 문제점’의 원인 분석에 해당하는 현황이 오는 것이 적절하므로 ‘청소년의 금융 지식’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의 경우, ‘Ⅱ-2-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글의 흐름에 어울리므로 ‘또래 집단 내의 바람직한 관계 맺기’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의 ‘Ⅱ-3-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보기>의 자료를 분석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동조와 모방 심리’로 인해 충동적인 구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청소년이 상품을 구매할 때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그들의 구매 선택에 광고 속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상표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 내용은 ‘Ⅱ-3-다’의 ‘상품 광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 함양’에 접목하면 ⑤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충동 구매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광고와 연관된 내용과 비판적 수용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청소년의 비합리적인 소비에 대한 비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광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

는 ‘Ⅱ-3-다’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광고에 대한 문제점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광고가 비효율적인 광고임을 청소년이 알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개요의 흐름과 거리가 멀다. ④ 청소년의 소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모바일 기기’와 ‘정보 기기 활용 능력 배양’은 개요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이다.

8. 글쓰기의 전략

정답해설 : 개요인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글쓰기의 계획이 실제 글쓰기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를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로 했다’는 답사 취지는 제시되어 있지만, 답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1~2행에는 베개 용암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이 밝혀져 있고, 13행에는 ‘우리 고장의 천연기념물의 소중함을 알려 줄 수 있는 계기’가 밝혀져 있다. ㉢ 11~12행에서 베개 용암의 ‘지질학적 가치’를 알아보기 위한 답사의 목적이 밝혀져 있다. ㉣ 3행에서 ‘베개 용암’이라는 답사 대상을 언급하고 있으며, 8행에서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에서 밝히고 있듯이 답사 전에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1행에서 ○○신문에 언급된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2~4행에서 답사를 계획하게 된 동기 또한 밝히고 있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쓰이는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시험을 치를 때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거나,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잊고 학교에 갔었던 상황 등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숙한 대상에 대한 비유를 찾기 어려우며, ㄴ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간의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쓰이는 단어 수준에서부터 연결 관계와 호응,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고쳐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주어진 ‘전문가들은’을 고려하면 서술어인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그러므로’는 이유나 원인,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에 해당하는 ‘그렇다면’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의 ‘~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므로,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든’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의 ‘저장되어진다고’는 ‘~되다’와 ‘~어지다’의 피동형이 중첩되어 사용된 표현이므로 이를 피하여 ‘저장된다고’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인 기억력 향상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16] 문법

11.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모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의 일부 조항들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의 세 번째 항목인 ‘니’ 모음의 발음에 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항목에서는 첫째 ‘그, 닌’처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기], [니]처럼 []로 발음할 것, 둘째 ‘충의’와 같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로도 발음할 수 있어 ‘충의’는 [충의]나 [충이]로 모두 발음할 수 있는 것, 셋째 관형격 조사 ‘의’는 [키]로도 발음할 수 있어 ‘우리의’는 [우리의]와 [우리에]로 모두 발음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충의의’를 [충의의], [충이의], [충의에],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충의의’를 [충이에]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는 ⑤의 진술은 사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개’의 ‘ㄲ’과 ‘계’의 ‘ㄱ’는 엄연히 다른 단모음으로 이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흔히 사람과 지역에 따라 ‘ㄲ’을 ‘ㄱ’에 가깝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보기>의 두 번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계’와 ‘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② <보기>의 첫 번째 항목을 확인하면, ‘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때 그 발음은 [네]와 같아진다. 따라서 ‘금괴’를 [금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③ <보기>의 두 번째 항목을 확인하면, ‘예, 레’ 이외의 ‘ㄷ’은 [키]로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지혜]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④ <보기>의 첫 번째 항목에서 규정한 것은 ‘비취다’의 ‘ㄱ’을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ㄱ’을 []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따라서 ‘비취다’를 [비치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정확하지 않은 문장 표현의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문장 수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가)에서 원래의 문장과 수정한 문장을 비교하면 부사어 ‘반드시’가 ‘절대로’로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에서 언급한 ‘부사어와 서술어의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부사어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이라는 뜻을 지녀 부정(否定)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사어 ‘절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등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부정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와 호응한다. (나)에서는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이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로 수정되었는데, ‘타인이’라는 주어가 추가되었다. 이는 ‘평등하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을 고려한 수정 결과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의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해당한다. 신정보와 구정보에 따라 조사 ‘이/가’와 ‘은/는’을 잘못 쓰는 경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에 따라 ‘라고’와 ‘고’를 잘못 쓰는 경우, 자격과 수단의 의미에 따라 ‘(으)로서’와 ‘(으)로써’를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데’와 ‘-대’를 잘못 쓰는 경우, ‘아니오’와 ‘아니요’를 잘못 쓰는 경우, ‘-든’과 ‘-던’을 잘못 쓰는 경우 등은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보기 2>에 이러한 수정 사례는 제시되지 않는다.

13. 각 품사의 기능,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아니요’와 ‘아니오’에 대한 탐구를 일반화하여 보조사 ‘요’와 종결 어미(어말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탐구 과정을 확인하면 ‘아니요’는 부정의 대답 ‘아니’에 보조사 ‘요’가 붙어 된 말이고, ‘아니오’는 ‘아니다’의 어간 ‘아니-’에 종결 어미 ‘-오’가 붙어 된 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종결 어미 ‘-오’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진술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은 ③으로, “당신이 와서 기쁘오.”, “건강이 가장 중요하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서문에서도 종결 어미 ‘-오’가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마지막의 ‘적용’ 단계에 제시된 빈칸에는 ‘요’가 아닌 ‘-오’가 와서 ‘안 되오’가 되어야 한다. ‘되다’의 어간 ‘되-’에 종결 어미 ‘-오’가 붙은 형태이기 때문이다. 만일 빈칸에 ‘요’가 올 수 있기 위해서는 ‘되어’의 준말 ‘돼’에 보조사 ‘요’가 붙은 ‘돼요’의 형태가 제시되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오’는 종결 어미이기 때문에 어간에 붙는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아니-’, ‘기쁘-’ 등은 모두 어간이며 여기에 ‘-오’가 붙어 ‘아니오’, ‘기쁘오’로 실현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멈추시오’는 ‘멈추- + -시- + -오’로 분석되어 ‘용언 어간 + 선어말 어미 + 종결 어미’의 구조인데, 이를 통해 ‘-오’가 선어말 어미에 붙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오’를 뺀 상태의 문장을 확인해 보면, “*얼마나 기쁘?”, “*일단 멈추시.”처럼 문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십시오, 가 오, 가게, 가라(가렴, 가려무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는 상대방을 보통 정도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오’는 상대 높임법의 하오체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14. 높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의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특징을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에 쓰인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으로 쓰였는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조사 등을 살려 단순화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 ‘모시다’는 목적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네가) 이제 오는구나.”의 의미인데, 이때의 ‘-는구나’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동생)를 낮추기 위해 쓰인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② ㉢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의 의미인데, 이때의 ‘계시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높임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다. ③ ㉣은 “(우리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얼른 나가자.”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아버지께’가 문장의 부사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이 아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를 상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은 “아버지께서 너(를)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버지께서’가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께서’는 객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이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특정 어휘에 대한 국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의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바래다1㉠이 아닌 바래다1㉡의 용례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다의어(多義語)는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하는데, 바래다1과 바래다1 모두 각각 ㉠과 ㉡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국어사전에서 【 】 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바래다1과 바래다1㉠ 모두 【…을】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바래다1은 ㉠ ‘(누가) 요행을 바래다.’, ㉡ ‘(누가) 돈

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고, 바라다1㉠ 역시 ‘(누가) 이불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에 쓰인 ‘*바래’는 바라다1㉠의 뜻을 지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바라다’의 ‘바라-’에 종결 어미 ‘-아’가 붙어 줄어든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으)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다’의 어간 ‘가-’에 ‘-아’가 어울릴 때 “*집에 가아.”가 아니라 “집에 가.”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 + -아’는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④ 국어사전에서 []는 일반적으로 발음 정보를 나타내는데, 바라다1의 발음이 [바:--]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첫 음절 ‘바’를 장음(:)으로 발음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6. 어휘의 변화 유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모음 ‘ㆍ’의 통시적 변화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②로, ‘사슴’이 ‘사슴’으로 변화한 것은 단어의 둘째 음절에 놓인 ‘ㆍ’가 ‘ㅡ’로 변화한 사례(㉠)이며, ‘가장’이 ‘가장’으로 변화한 것은 첫째 음절에 놓은 모음 ‘ㆍ’가 ‘ㅏ’로 변화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마늘’이 ‘마늘’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흙’이 ‘흙’으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하나’가 ‘하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며, ‘오늘’이 ‘오늘’로 변화한 것은 ㉠이 아닌 ㉡의 사례이다. ④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ㅏ’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리’가 ‘다리’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이다. ⑤ ‘아들’이 ‘아들’로 변화한 것은 ㉡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다섯’이 ‘다섯’으로 변화한 것은 둘째 음절의 ‘ㆍ’가 ‘ㅑ’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과 ㉡에 해당하지 않는다.

[17~30] 독서

[17-20] 인문, ‘대상의 본질’

지문해설 : 이 글은 대상의 본질에 대한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의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한 글이다.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의 존재를 부정하며 사후적으로 구성된 언어 약정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본질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철학적 탐구가 본질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제] 대상의 본질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17.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반본질주의’는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존재하는 본질은 없으며, 다만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 주는 속성인 본질은 어떤 대상에 사후적으로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반본질주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간의 약정이 본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② 개체의 본질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에 본질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주의’의 입장이다. ③ 다른 대상과 구분되는 불변의 고유성인 본질이 어떤 대상에나 있다고 보는 것은 ‘본질주의’의 입장이다. ⑤ ‘반본질주의’는 같은 종류에 속한 개체들이 공유하는 속성인 본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18. 내용 간의 의미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은 ‘사람’에 대한 정의이고, ㉡은 그 정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닌 존재이다. ㉡을 통해 ㉠이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가 될 수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위’에 대한 정의인 ㉢의 ㉠과 그 정의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위’가 아닌 ㉢의 ㉡은 지문 속 ㉠과 ㉡의 관계와 같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은 ㉠의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③ ㉡은 ㉠의 피정의항과 동일한 대상이다. ④ ㉡은 ㉠의 피정의항에 속해 있지만, 정의항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⑤ ㉡은 ㉠으로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이다.

19. 구체적 상황예의 적용

정답해설 : ‘반본질주의’는 대상의 근원적 속성인 본질이 따로 존재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나)에 대해 그 세 가지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을 발견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반본질주의자’의 입장이 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본질주의’는 우리와 무관하게 본질이 대상 속에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본질주의자’는 (가)를 숨겨져 있는 본질을 찾아 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본질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은 ‘반본질주의’이므로, ‘본질주의자’는 (나)를 근거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주의자는 본질이 개체 내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정한 언어 약정인 ‘사바کم’은 본질과 거리가 멀어 널리 쓰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반본질주의’는 사물의 본질이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으로 인간의 가치가 투영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반본질주의

자'는 (가)를 널리 믿어지던 정의가 바뀐 것으로 판단하면서 정의가 약정적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보면, '본질주의자'와 '반본질주의자'는 모두 의사소통에 성공하기 위해서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본질주의자들은 그것이 개체 내에 존재하는 본질이라고 주장하며, 반본질주의자들은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는 것이다.

20. 읽기 방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㉔의 '이른바'는 '반본질주의자'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한 부사어이므로, 이를 통해 글쓴이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는 이 글의 핵심어이므로, 이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② ㉔는 '예를 들자면'이라는 뜻을 지닌 부사이므로, ㉔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부족한 이해를 보완하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㉔는 앞에 나오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말이므로, ㉔를 통해 내용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 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④ ㉔는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상반됨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㉔로 이어진 앞뒤의 내용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적절한 독서 방안이 될 수 있다.

[21~23] 사회,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저작물의 공유'

지문해설 : 이 글은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규정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 제도 및 저작물 공유 캠페인의 개념과 한계

21.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4문단의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작물 공유 캠페인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를 부정하는 '저작물이 모두의 소유'라는 주장과 같이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1문단의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

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공정 이용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공정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도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주장의 확인

정답해설 : 5문단의 ‘저작물 공유 캠페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한다.’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은 이 캠페인이 확산되면 저작물을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동기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용 허락 조건’의 표시가 창작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5문단에서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과 공정 이용 규정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정 이용의 확대를 반대할 것이다. ⑤ ㉠은 저작물의 공유 캠페인으로 인해 활용 가능한 저작물이 줄어들게 되면 이용자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공유가 오히려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23.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A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을 표시하였고, B는 이와 같은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 A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A의 저작권을 존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A는 B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A는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례에 따르면 B는 침해된 자신의 저작권을 근거로 A에게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더군다나 ‘공정 이용 규정’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이 없었다면, A는 공정 이용을 근거로 저작권자인 B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 이용 규정이 없었다면 A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④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저작물 공유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B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용료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 A가 B의 허락 없이 그의 저작물을 사용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자의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A의 저작물 이용이 이 규정을 준수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용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⑤ A는 자신의 미술 평론에 자유 이용 허락 조건 ⓘ을 표시하고 블로그에 올렸으므로, B가 A의 출처를 표시한 미술 평론의 일부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면, A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24~27] 예술, 캄피돌리오 광장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광장의 타원형 공간 구성이 신성한 돌 옴팔로스를 본뜬 것으로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기마상으로 인해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제]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의 의미

24.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장의 중심인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의 별 장식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은 중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타원과 원의 조합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② 광장에 놓은 것은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지, 옴팔로스를 배치한 것은 아니다. ③ 옴팔로스는 중심을 뜻하는 것이며, 캄피돌리오 광장에서는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확산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기마상에서 뻗어 나온 광장의 문양들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대칭성과 관련이 없다.

25.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는 광장이 기마상으로 인해 원으로 인식되면서 두 개의 초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심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두 개의 초점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옴팔로스가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원이 가진 집중성으로 인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 4문단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위계감,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지배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26.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원은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주변을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은 집중성을 강조하는 반면, ㉡는 확산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 집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은 어느 곳에 있는 중심의 기마상에 시선을 두게 되지만 ㉡는 원통의 벽면을 향하게 된다. ② ㉠은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형성되지만 ㉡는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이 없다. ④ ㉠은 중심이 강조되지만, ㉡는 둘레가 강조된다. ⑤ ㉠은 원의 집중성을, ㉡는 원의 확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7.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분할(分割)’은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이므로 ‘분할된’으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제조(製造)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형상을 이룸을 뜻하는 형성(形成)이나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작(製作)이 더 적절하다. ② 지적(指摘)은 꼭 집어서 가리키거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것을 뜻하는 지칭(指稱)이 더 적절하다. ③ 소진(消盡)은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는 소실(消失)이나 소멸(消滅)이 더 적절하다. ⑤ 기립(起立)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서는 것을 뜻한다. 문맥상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의 ‘위치(位置)’가 적절하다.

[28~29] 과학, ‘입체 지각’

지문해설 : 이 글은 사람이 입체를 지각하는 방식 중의 하나 단안 단서를 설명하고 있다. 양안 단서는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하여 얻어지는 것이고,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는 정보를 말한다. 한 눈으로 얻는 정보는 2차원이지만, ‘시각(視覺)의 차이, 직선 원근, 결 기울기, 운동 시차’ 등을 활용해서 입체 지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제] 단안 단서에 의한 입체 지각의 방법

28.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의 2문단에 의하면, 직선 원근은 단안 단서의 하나이므로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4문단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에서 일부 동물들은 단안 단서로만 입체 지각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 ‘단안 단서는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단안 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더라도’ 즉 단안 단서만을 활용할 수 있을 때에도 ‘경험을 통해’ 입체로 세계를 지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 ‘양쪽 눈에서 보내오는, 시차(視差)가 있는 유사한 상’이라는 구절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⑤ 4문단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다.’와 3문단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가 물체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를 연결지으면, 새가 머리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운동시차’를 얻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9. 현상에 대한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 다람쥐의 행동은 관찰자인 다람쥐가 운동할 때, 정지해 있는 여우와의 거리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운동시차를 이용해서 여우와의 거리를 파악한 행위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특히 머리의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양안 단서를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단안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가)에서 다람쥐의 행동은 양안 단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안 단서를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3문단 1행을 보면, ‘운동 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 정지한 물체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가 물체들까지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가다 창밖을 보면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멀리 있는 산은 거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를 통해 다람쥐에게서 여우가 멀리 있을수록 천천히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 6행에서 결 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단안 단서이므로 축구공의 크기 변화는 결 기울기로 볼 수 없다. ⑤ 2문단 2행에서 ‘시각의 차이’ 활용은 단안 요인이므로 눈 한쪽을 가려도 여전히 축구공이 커지는 것을 축구공이 다가오는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 생활독서, 선인들의 책임기

30. 독서에 대한 가치관 추론

정답해설 : (가)에서는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내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한 것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알려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도 철저하게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책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이야기는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읽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모두 없다. ② (가)에서는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면 자신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성인의 생각에 맞추라고 하고 있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나)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는 나타나 있지만 (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신의 독서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의 내용과 맞지 않고, 비판의 근거를 찾으라는 것은 (가), (나) 모두와 맞지 않다.

[31~45] 문학

[31~33] 고전시가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괴로움과 고통을 노래한 민요로, 경북 경산 지방에서 채집된 것을 현대어로 풀어서 기록한 것이다. 친정에 다니러 온 여인과 사촌 자매 사이의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반복,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당대 여인들의 시집살이 상황을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그려 냄으로써 힘든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

31.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사촌 자매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노동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노래는 감탄의 어조와 반성의 어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노래에서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어울리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노래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괴로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⑤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말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사촌 동생의 시집살이에

대한 물음에 친정에 다니러 온 형님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를 형님이 만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솔’, ‘열두 방’ 등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처리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호랑새’, ‘꾸중새’, ‘할림새’, ‘뽕족새’, ‘뽕중새’, ‘미련새’ 등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랜 기간 동안 며느리가 귀머거리나 장님, 병어리처럼 처신해야 함을 제시해 시집살이의 속박을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결혼 전의 아름다운 용모를 ‘배꽃 같은 얼굴’에 빗대고, 결혼 후의 험클어지고 쇠한 용모를 ‘호박꽃’에 빗대어 힘겨운 시집살이로 인한 용모의 변화를 한탄하고 있다.

3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는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이고, <보기>도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즉 [A]와 <보기>는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의 두 여인은 친척 사이이고, <보기>의 두 여인은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 등의 구절로 미루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A]의 사촌 형님과 <보기>의 ‘각시’가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 ‘동생’과 ‘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형님 온다’, ‘형님’, ‘이애’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으나, <보기>는 시어의 반복이 아니라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보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A]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4-37] 고전소설, 작가 미상, ‘조웅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군담 소설로,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조웅이 역적이두병을 처단하고 태자를 복위시켜 나라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웅적 활약상을 그린 영웅 일대기 형식을 취하면서도 일반적인 영웅 소설에 나타나는 신이한 출생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소설의 전반부는 조웅의 고행담과 애정담, 후반부는 조웅의 영웅적 무용담이 중심을 이루며 도술적 힘에 의한 영웅적 활약상과 함께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작품의 전면에 잘 나타나 있다.

[주제] 진충보국을 위한 영웅의 활약상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더니 이러구러 삼 년이 되었는데.’와 같이 사건을 압축해서 제시한 장면에서는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인물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에서는 사건이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는 모두 현실 속에서 일어난 장면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상상과 현실 사이의 대립은 찾을 수 없다. ③ [A]와 [B]에는 모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은 [A]와 [B]에서 모두 찾을 수 없다. ⑤ [A], [B]에는 모두 현실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공간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5.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강백’은 일부러 삼대를 흔들어 놓기 위해 두 형의 혼백에 대해 언급하며 ‘삼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선생’께 기약을 정하고 왔으므로 슬하를 잠깐 떠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웅이 신의보다 자식으로서의 도리에 이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웅은 삼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강백에게 삼대의 우편만을 공격할 것을 명하고, 자신도 우편만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삼대가 자신의 약점을 위장하여 조웅의 방심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조웅이 엎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크게 놀랐다고 하였으므로, 부인이 조웅의 죄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부인은 소송이 전에 드린 말씀을 이제야 증험한 줄을 아시나이까?”를 통해 월경 대사가 부인에게 조웅의 미래에 대해 미리 말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3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부인은 조웅과 장 소저의 결연이 천명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워 합리화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이 처한 형세의 어려움을 들어 예절을 차릴 수 없다는 점도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욕망보다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였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조웅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장 소저를 취하게 된 사연을 말하고 있다. ③ 대사가 웅을 데리고 삼 년에 걸쳐 신통한 술법을 의논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대사가 웅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조웅이 삼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용감하게 싸우는 장면을 통해 조웅의 지략과 용맹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삼대의 왼팔 밑에 날개가 있다는 것은 삼대가 왼손과 관련하여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37.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은 삼대의 죽음을 보고 적진이 크게 놀라 허둥지둥거리며 도망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몹시 놀라 뉘를 잃음을 뜻하는 혼비백산(魂飛魄散)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뛰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④ 분기탱천(憤氣撐天):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북받쳐 오름.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38~40]

[38~40] 현대시 - (가) 백석, ‘팔원-서행시초 3’ / (나) 하종오, ‘동승’

지문해설 : (가)는 ‘나이 어린 계집아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어린 계집아이의 비극적 운명을 통하여 식민지 현실과 민중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계집아이의 불확실한 행선지는 바로 식민지 치하의 우리 민족의 방향성을 상실한 삶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손잔등이 밟고랑처럼’, ‘새하얗게 얼은’, ‘텅 비인 차 안’ 등과 같은 구절은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추위를 뜻한다기보다는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담담한 어조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극성을 한층 두드러지게 한다.

[주제] 한 소녀의 삶을 통해 본 식민지 현실과 민중의 고난

(나)는 국철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연히 보게 된 경험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과 그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아시안 젊은 남녀의 행동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다가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편견에 사로잡혀 외국인들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았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그에 대한 반성

38. 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 손잔등이 밟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나)는 ‘서로 마주 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껏속말’, ‘번갈아 머리에 써 보고’, ‘번갈아 손바닥에 써 보는 저어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인간과 자연이 대비되고 있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성찰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는 화자가 자신의 일상을 반성하고 있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이것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부정적 현실은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이므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여유롭게 포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나)에서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지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는 계집아이를 내지인 주재소장 집의 식모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으므로, ㉠의 ‘유리창 밖’에 있는 ‘내지인 주재소장 같은 어른과 어린아이 둘’은 유리창 안의 ‘계집아이’와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육친과 이별하는 계집아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승합자동차’에 나이가 ‘어린’ 아이가 ‘하나’인 채로, 즉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계집아이에게 주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② ‘손잔등’이 ‘발고랑’처럼 터졌다는 것은 손잔등이 갈라졌다는 의미이므로 어린 나이임에도 노동에 시달렸음을 드러낸다. ③ ‘삼백오십 리’, ‘백오십 리’는 소녀가 가기에 매우 먼 거리를 뜻하므로 계집아이의 여정이 고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의 앞 행에는 ‘계집아이는 운다’고 되어 있으며 ㉡에는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고 했으므로 ‘눈을 씻는’ 행위는 결국 운다와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연민의 정서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저이들’은 ‘아시안 젊은 남녀’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이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이다. 모자를 하나 사서 서로 번갈아 써 보는 행동 등은 무관심의 표현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국철’을 타고 있는 화자의 시선은 처음에는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② ‘나’의 시선이 ‘천박한 호기심’이었다고 성찰하고 있으므로 이 행위가 <보기>에서 말한 가치 평가의 의미를 가졌다면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 ④ ‘나’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신의 시선에 가치 평가적 요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동승’은 차, 비행기 등을 함께 타는 행위를 뜻하므로 조화로운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1-43] 현대소설, 염상섭, '만세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동경 유학 중인 주인공이 동경을 출발하여 서울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전형적인 여로형 구조의 소설이다. 이인화로 대표되는 식민지 지식인의 시선으로 바라 본 조선의 실상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약하고 무기력했던 한 지식인의 의식이 조금씩 성장해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4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천대를 받아도 얻어 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조선 사람들의 잘못된 유행과 근본 정신은 생각지도 않고 선조의 산소 치레나 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업신여기며 쌀쌀하게 비웃는 '나'의 태도가 냉소적인 어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상징적 배경을 찾을 수 없다. ③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장면만 제시되고 있어 빈번한 장면 전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주어진 장면 속 사건 외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삽화 형식으로 나열된 인물들의 체험은 나타나 있지 않다.

42.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는 염려되는 것이었다.'를 통해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는 '나'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화장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다. ②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나'의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장돌뱅이가 '공동묘지 법'은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집터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이 장면 속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⑤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것은 지문에 나타난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 속에서 '나'는 '생활 철학'을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했다는 진술은 작품의 내용에 어긋나는 진술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는 생활 현실과 관련된 시속의 처세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시행 국어 B 정답 및 해설

고 있으므로, 생활의 표현을 통해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려고 한 작가의 주장을 엿볼 수 있다. ③ ‘나’는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제와 관료제의 껍질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삶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④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공동묘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생활의 흔적을 다루려고 한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다. ⑤ 일인칭 시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성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관심을 찾을 수 있다.

[44-45] 수필, 윤오영, ‘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과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고 있다.

[주제]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

4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수필은 봄은 젊은이의 것이라는 통념, 늙어서 봄을 맞이하면 앞으로 봄을 많이 못 볼까 슬프다는 통념 등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필은 흔히 일상적 소재를 취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개성적인 통찰이 중요한 장르로서, 이 작품에서도 봄에 대한 개성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분석이란 복잡한 대상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이 수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봄이나 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을 볼 수 없다. ③ 자연친화적인 수필이 흔하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연과 대화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④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45. 작가의 세계관,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겨울을 이겨 내고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 ‘동쪽 가지’를 예찬하며 같은 나무 한 등걸인데도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다고 말한다. 씩씩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를 가진 동쪽 가지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지만, 서쪽 가지는 눈보라 추운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해 죽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가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은 ‘과거’라는 시간 자체이지 ‘늙은이의 봄’만을 한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글쓴이는 봄을 바라보며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가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청춘 시절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젊은이의 봄은 훌쩍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겹겹의 봄이라고 말하며 노년의 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⑤ 이 수필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④ 08. ⑤ 09. ③ 10. ②
 11. ④ 12. ③ 13. ② 14. ⑤ 15. ⑤ 16. ① 17. ③ 18. ③ 19. ① 20. ②
 21. ③ 22. ⑤ 23. ② 24. ③ 25. ④ 26. ③ 27. ④ 28. ① 29. ④ 30. ④
 31. ② 32. ② 33. ① 34. ③ 35. ③ 36. ② 37. ①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④ 43. ① 44. ⑤ 45. ④

[1~5] 화법

[1~2]

1. 말하기 계획 평가

정답해설 : 지현의 ‘연못 말고 다른 사례를 ~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말아야.’로 보아 원리가 적용된 사례가 제시되기는 했지만,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경완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수미의 ‘이 현상의 원리를 설명해야겠어.’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지현의 ‘이 원리를 알아 두면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덧붙이면 좋겠어.’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지현의 ‘마무리할 때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 질문해서 확인해 보는 게 어때?’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수미의 발표를 보면 물이 어는 원리와 관련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발표에서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과학 시간에 ~ 배웠는데, 기억나시죠?’라는 발언으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런데 바로 뒤를 이어 ‘물은 4°C에서 0°C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작아집니다.’라는 발언으로 물이 어는 현상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발표에는 어떤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 발표에는 물이 어는 현상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실험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

3. 이어질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진행자가 종합해야 하는 댓글 내용은 ‘759, 남의 집을 기웃거림’, ‘758,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굴’, ‘757, 낙서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 써 주기’, ‘756, 벽화 보존에 대한 걱정’ 등이다. 여기서 759와 758은 사생활 보호, 757과 756은 벽화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모두 다룬 ④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댓글 756이 벽화의 보존에 관한 내용이지만 벽화의 훼손 실태나 그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 ②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효는 댓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진다. ③ 댓글 758의 전반부에 마을 주민이 화를 내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후반부에는 자신이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관련이 없다. ⑤ 소음 피해 최소화와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은 댓글 758의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다.

[4~5]

4.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의 기능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소연은 창완의 발화에 대해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라고 공감을 표현한 후, 창완의 마음에 어떤 장면이 와 닿았는지를 물음으로써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②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소연은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는 창완의 발화의 일부를 반복함으로써 창완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③ 이전 발화에서 창완이 말을 중단하자, 소연은 ㉡ ‘괜찮아, 말해 봐.’라고 창완이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④ ㉢에서 소연은 ‘부자간의 갈등이 ~ 인상적이었어’, ‘영화를 보면서 ~ 자꾸 떠오르더라고.’ 등 창완의 발화를 토대로 창완이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⑤ ㉣에서 소연은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라고 창완의 감정을 파악하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라며 창완에게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인 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공손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항이다. <보기>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표현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는 ‘제가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속상하셨죠?’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원인이 자신의 행위에 있다고 밝힌 후 ‘제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라고 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즉,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아버지가 우리 세대를 잘 모른다는 것과 아버지에게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는 ‘제가 불손하게 행동해서 놀라셨죠?’, ‘제가 건방지게 굴어서 당황하셨죠?’, ‘그래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건 죄송해요.’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자신에게 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취향을 몰라주신 게 화가 났다’, ‘아버지께서 심하게 혼내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자주 소리치고 화를 내셔서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며 자신이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아버지에게 찾으며 아버지에게 더 큰 부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6~10] 작문

6. 작문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가족’에 대한 글쓰기 과제를 부여 받고, 글쓴이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글쓴이는 작문 일지를 통해 구체적인 주제 정하기, 제재 연상하기, 예상 독자 설정하기, 개요 수정과 고쳐 쓰기 등을 통해 좋은 글이 완성되기 위한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작문 일지에는 ‘내 글을 읽을 반 친구들에게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고민하였다.’라고 하였으므로 예상 독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반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현을 다듬기도 하고, 쓴 내용을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계획한 글의 개요를 수정하기도 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글의 주제가 하나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피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생각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기로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족 여행, 어머니의 사랑, 우리 집, 영화, ……」 등을 무작정 떠올려 보고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로 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7~8]

7. 자료 수집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고등학생의 체험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④의 (가) 그래프에서 청소년 체험 활동의 유형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 종류가 다양화되지 못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그래프를 통해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체험 활동 참여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시간이 없어서’나 ‘비용이 부담되어서’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자료 해석은 적절하다. ③ (다)에서 체험활동이 ‘사회적 상호 작용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발달시킨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청소년의 체험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나)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에 전문가가 주장한 것처럼 국가와 자치 단체, 그리고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자료 활용은 적절하다.

8.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정답해설 : 홍보 문구 제작을 위해 제시된 조건은 첫째, 자료 (나)에 제시된 이유 즉, ‘시간, 비용, 정보, 필요 및 흥미’ 중 두 가지를 활용하라는 것과 둘째, 문답법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⑤의 경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진 후, ‘구청 홈페이지로 오세요.’라고 답하고 있어 문답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비용을 지원하는 재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에 제시된 이유 중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의 경우, ‘무료’와 ‘정보’라는 (나)의 이유 중 두 가지를 반영하고는 있으나,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의 경우, ‘~ 궁금하지 않으세요?’라고 묻고 그 답을 던지고 있으나, (나)에 제시된 이유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③의 경우, (나)에 제시된 이유 중에 ‘정보’와 관련된 이유 한 가지만 반영하고 있으며, 문답법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에 제시된 이유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홍보 문구의 내용도 청소년의 체험 활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9~10]

9. 작문 계획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기억력’에 대한 글을 써 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시험을 치를 때 공부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거나,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잊고 학교에 갔었던 상황 등 일상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즉 20초 동안 대상을 집중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제안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ㄱ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중 구체적인 문제 상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친숙한 대상에 비유한 표현을 찾기는 어렵다. ② ㄱ에서 언급하고 있는 친숙한 대상에 대한 비유를 찾기 어려우며, ㄴ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간의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④, ⑤ ㄴ에서 말하는 공간적 순서에 따른 설명을 찾기 어렵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글쓴이는 단어 수준에서부터 연결 관계와 호응,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고쳐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의 경우,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들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주어인 ‘전문가들은’을 고려하면 서술어인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그러므로’는 이유나 원인,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에 해당하는 ‘그렇다면’으로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③ ㉢의 ‘-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미이므로, 선택의 의미를 가지는 ‘-든’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의 ‘저장되어진다고’는 ‘-되다’와 ‘-어지다’의 피동형이 중첩되어 사용된 표현이므로 이를 피하여 ‘저장된다고’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은 글 전체의 내용인 기억력 향상과는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1~15] 문법

11. 음운 현상 이해,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제시된 사례들의 정확한 발음을 파악하여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단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제시된 8개의 사례는 각각 ‘부엌[부억], 간[간], 옷[온], 빗[빈], 달[달], 섬[섬], 앞[압], 창[창]’으로 발음된다. 정답은 ④로, ‘박’이 [박]으로, ‘밑’이 [민]으로 발음되는 현상 역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한다. ‘부엌[부억]’을 통해 ‘ㄱ’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과 ‘옷[온]’, ‘빗[빈]’을 통해 ‘ㄷ’이 음절 끝의 자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박]’, ‘밑[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사례로 적합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사례 중에서 ‘부엌’은 [부억]으로 발음되어 음절 끝의 자음이 ‘ㄱ’에서 ‘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 ② ‘부엌[부억]’, ‘앞[압]’은 거센소리(ㅋ, ㅍ)일 때 음절 끝 자음이 바뀐 경우이고 ‘달’, ‘섬’, ‘창’은 예사소리(ㄹ, ㅁ, ㅇ)일 때 음절 끝 자음이 바뀌지 않은 경우이지만, ‘옷[온]’, ‘빗[빈]’을 보면 예사소리(ㄴ, ㄷ)일 때에도 음절 끝 자음이 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은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③ ‘옷[온]’, ‘빗[빈]’을 통해 ‘ㄷ’으로도 바뀐 경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은 타당한 진술이 아니다. 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ㄱ(부억), ㄴ(간), ㄷ(옷, 빗), ㄹ(달), ㅁ(섬), ㅂ(앞), ㅇ(창)’이다. 따라서 이를 ‘ㄱ, ㄴ, ㄹ, ㅁ, ㅂ, ㅅ, ㅇ’라고 진술한 ㉤은 타당하지 않다.

12. 각 품사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형태는 같지만 품사는 다른 단어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여 이를 특정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보기 1>에서 ㉠의 ‘달리기’는 명사로서 관형어 ‘하는’의 수식을 받으며, ㉡의 ‘달리기’는 동사로서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는다. <보기 2>에서 ㉢과 품사가 같은 것, 즉 명사인 것은 ㉣와 ㉤인데, ㉣는 ‘추-’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현란한’의 수식을 받으며, ㉤는 ‘걸-’에 접미사 ‘-(으)ㄴ’이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 ‘학생들의’의 수식을 받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는 ‘웃-’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멋쩍게’의 수식을 받으며, ㉡는 ‘그리-’에 명사형 어미 ‘-(으)ㄴ’이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 ‘잘’의 수식을 받는다.

13. 사동사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문법적 현상에 대해 제시된 사례를 통해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②이다. ㉢과 ㉤의 A(주동문)에서는 서술어 ‘숨는다’와 ‘낮다’가 각각 ‘동생이’와 ‘실내 온도’라는 주어만을 필요로 함에 비해,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누나가’라는 주어에 더해 각각 ‘동생을’과 ‘실내 온도를’이라는 목적어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A에서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문장의 서술어가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 현상’을 가리키는데,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할 때는 한 자리 서술어, 주어 이외에 목적어, 부사어, 보어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두 자리 서술어, “형이 누나에게 선물을 주다.”의 ‘주다’처럼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를 필요로 할 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A(주동문)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는 ‘동생을’이라는 목적어로 바뀌었다. ㉤에서 A의 주어는 ‘동생이’인데, C에서는 ‘동생에게’라는 부사어로 바뀌었다. ③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가리키는데, ㉢과 ㉤의 A(주동문)와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모두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겹문장이 아니다. ④ ㉢ A의 서술어 ‘차다’는 타동사인데 B의 사례가 없음을 통해 ‘공을 차다’의 서술어 ‘차다’에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 A(주동문)의 서술어 ‘먹다’는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에서 ‘먹이다’라는 사동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⑤ ㉢ A(주동문)의 서술어 ‘낮다’는 형용사이고, ㉤의 A의 서술어 ‘차다’는 동사이다. 또한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도, ㉤의 B(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와 C(‘-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다.

14. 높임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우리말의 높임법인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의 개념 및 특징을 특정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에 쓰인 ‘모시다’는 ‘데리다’의 높임 표현으로 쓰였는데,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과 조사 등을 살려 단순화하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정도가 될 것인데, 이때 ‘모시다’는 목적어(객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내가) 이제 오는구나.”의 의미인데, 이때의 ‘-는구나’는 대화의 상대인 청자(동생)를 낮추기 위해 쓰인 종결 어미이다. 따라서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였다는 진술은 잘못이다. ② ㉣은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의 의미인데, 이때의 ‘계시다’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높임 표현이다.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다. ③ ㉤은 “(우리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얼른 나가자.”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아버지께’가 문장의 부사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이 아닌 ‘아버지에게, 아버지한테’를 상정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④ ㉥은 “아버지께서 너(를)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고 하셨어.”의 의미인데,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아버지께서’가 문장의 주어라는 점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께서’는 객체인 ‘아버지’가 아니라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쓰인 표현이다.

15.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특정 어휘에 대한 국어사전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정답은 ⑤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의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바래다’㉠이 아닌 바래다’㉡의 용례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다의어(多義語)는 둘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말하는데, 바라다’과 바래다’ 모두 각각 ㉢과 ㉣의 뜻을 지니기 때문에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국어사전에서 【 】 표시는 일반적으로 해당 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나타낸다. 바라다’과 바래다’㉠ 모두 【…을】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주어 이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바라다’은 ㉢ ‘(누가) 요행을 바라다.’, ㉣ ‘(누가) 돈을 바라다.’의 문형으로 쓰이고, 바래다’㉡ 역시 ‘(누가) 이불을 바래다.’의 문형으로 쓰이는 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에 쓰인 ‘*바래’는 바라다’㉠의 뜻을 지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바라다’의 ‘바라-’에 종결 어미 ‘-아’가 붙어 줄어든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제34항에서는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다’의 어간 ‘가-’에 ‘-아’가 어울릴 때 “*집

에 가아.”가 아니라 “집에 가.”로 적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 + -아’는 ‘바라’가 정확한 표현이다. ④ 국어사전에서 []는 일반적으로 발음 정보를 나타내는 데, 아래다¹의 발음이 [바:--]로 제시된 것으로 보아, 첫 음절 ‘바’를 장음(:)으로 발음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16~30] 독서

[16~18] 과학, ‘태양빛의 산란’

지문해설 : 이 글은 태양빛에 포함된 가시광선이 여러 빛깔로 나뉘게 되는 산란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란은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라,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으로 나뉘게 된다.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에 의해 하늘빛은 파랗게, 구름빛은 하얗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에 따른 산란의 원리와 유형

16. 글의 중심 내용

정답해설 : 글의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해야 한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산란의 개념을 제시한 후, 산란을 입자의 직경과 빛의 파장의 관계라는 원리에 따라 레일리 산란과 미 산란으로 구분했다. 2문단에서는 레일리 산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3문단에서는 미 산란의 구체적인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은 ‘산란의 원리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무지갯빛의 형성 원리는 1문단에서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므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③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는 1문단, 2문단, 3문단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지만,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므로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④ 3문단에서는 미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구름의 색을 미 산란의 구체적 사례로 들고 있다. 따라서 미 산란의 원리와 구름의 색은 3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기는 어렵다. ⑤ 1문단에서 가시광선의 종류와 파장의 관계가 언급되고, 2문단에서 가시광선의 종류와 산란의 세기가 언급되고 있지만, 모두 산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된 것이므로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이 되기 어렵다.

17. 내용 추론하기

정답해설 : 2문단에서 레일리 산란의 경우 ‘산란의 세기는 보랏빛이 가장 강하겠지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사람의 눈이 파란빛을 가장 잘 감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파란빛이 가시광선 중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하므로 진동수는 보랏빛이 가장 크고 붉은 빛이 가장 작다.’라고 했으므로 이 빛깔 사이에 들어 있는 파란빛은 보랏빛보다 진동수가 작다고 볼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흰색의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 붉은빛부터 보랏빛까지의 무지갯빛으로 분해된다.’라고 하였으므로, 프리즘으로 분해한 태양 빛을 다시 모으면 흰색이 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④ 2문단에서 레일리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네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고, 1문단에서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 반비례’한다고 하였으므로 산란의 세기는 진동수의 네제곱과 비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3문단의 8행 ‘대기가 없는 달과 달리 지구는 산란 효과에 의해 파란 하늘과 흰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이다.’로 미루어 보아 달의 하늘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와 같은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현상에 대한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보기>에 나타난 산란 현상을 지문의 내용에 비취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에서 비가 오기 전에는 ‘직경 10~20nm의 먼지 미립자가 균질하게 분포하였다’에서 먼지 미립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보다 작은 범위에 있다 따라서 먼지 미립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가 온 후는 ‘먼지 미립자가 관측되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에서는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이 뽕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이고, 흰 구름이 낮게 떠 있다고 하였고, 이때의 대기에서는 직경이 10,000nm 정도의 에어로졸이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의 지표 근처의 낮은 하늘에서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 범위를 초과한 에어로졸 입자에 의한 미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B 도시에서 낮은 하늘이 뽕연 안개처럼 흰색으로 보인 것은 미 산란 때문이겠군.’은 타당한 진술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A 도시에서 ‘비가 오기 전에 직경 10~20nm의 먼지 미립자가 균질하게 분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먼지 미립자의 직경이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78nm)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므로 먼지 미립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 하늘이 파랗게 보였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는 먼지 미립자가 제거되어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나서 더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④ B 도시의 높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낮은 하늘의 구름이 희게 보이는 것은 직경이 10,000nm 정도의 에어로졸 입자가 미 산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A 도시에 비가 온 후에는 ‘먼지 미립자가 관측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 ‘맑은 날에는 공기 입자에 의

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이때에는 공기 입자에 의한 레일리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도시의 낮은 하늘에서는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390~780nm)의 $1/10(39\sim78\text{nm})$ 범위를 초과한 에어로졸 입자가 분포하므로 미 산란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1] 기술, 플래시 메모리

지문해설 : 이 글은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플래시 메모리에서 1개의 셀은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데,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차 있으면 1, 비어 있으면 0의 상태가 된다. 이 정보를 읽을 때는 D(드레인) 쪽에 3V의 전압을 가해 주는데, 이때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흐르지 않고, 전자가 없으면 전자가 흐르게 된다. 이 전자의 흐름을 통해 셀의 값을 확인한다. 그리고 G(제어 게이트) 혹은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해 주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를 채우거나 없앨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쓰기과 지우기를 할 수 있다. 플래시 메모리는 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EPROM이 가진 장점과 전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 있는 EEPROM이 가진 장점을 취하였으며, 비휘발성 메모리이므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작동 원리

19.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1문단에서 메모리 셀이 그림과 같은 트랜지스터 한 개로 되어 있음을 밝힌 후 이를 바탕으로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읽기와 지우기, 쓰기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앞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에 언급되어 있으며, 사용 방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플래시 메모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기능에 대한 간단한 언급은 있으나 그것을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는 않았다. ④ 플래시 메모리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이나 새로운 방식에 관한 내용은 없다.

20. 글의 내용 재구성

정답해설 : 3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터널 절연체는 전류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절연체를 사용했을 경우 전류의 흐름을 항상 차단하기 때문에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를 채우거나 비우는 작업, 즉 데이터를 쓰거나 지우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D에 3V의 전압을 가하는 것은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 유무를 확인하기(데이터 읽기) 위한 것이다.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자가 없으면 흐르는 것이지 전자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데이터 지우기 과정에서 자외선에 칩을 노출시켜야 하는 것은 5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EPROM에 대한 설명이다. 플래시 메모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④ 5문단에서 EEPROM은 셀 하나당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반면 EPROM은 한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셀 면적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것은 EPROM이다. ⑤ 5문단에서 '전원을 꺼도 1이나 0의 상태가 유지되므로 비휘발성 메모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과 4문단에서 설명하듯 데이터의 저장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1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지워야 하는데, 이때는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마다 G에 0V,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가한다. <보기>에서 ㉠과 ㉡에 20V의 전압을 걸어 주는 것이다. 2단계로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1을 쓰려는 셀의 G에 20V, p형 반도체에 0V의 전압을 가한다. <보기>에서 ㉢에 20V의 전압을 걸어 주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p형 반도체에 20V의 전압을 걸면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p형 반도체로 이동하고, G에 20V의 전압을 걸면 p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1을 0으로 만들고, 0을 1로 만들기 위해 1단계에 ㉠과 2단계에 ㉢에 전압을 걸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3문단에서 '데이터 지우는 여러 개의 셀이 연결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블록에 포함된 모든 셀을 0으로 만들고 난 뒤 쓰기를 하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다.

[22-25] 예술, 캄피돌리오 광장

지문해설 : 이 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로마의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 구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광장의 타원형 공간 구성이 신성한 돌 움팔로스를 본뜬 것으로 세계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으며, 중앙에 있는 기마상으로 인해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형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제] 캄피돌리오 광장의 조형적 특성과 공간 구성의 의미

22.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광장의 중심인 기마상이 서 있는 곳의 별 장식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곳이 우주의 중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하나의 중심을 가진 원은 중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타원과 원의 조합에서 위상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② 광장에 놓은 것은 신성한 돌인 옴팔로스의 형태를 본뜬 것이지, 옴팔로스를 배치한 것은 아니다. ③ 옴팔로스는 중심을 뜻하는 것이며, 캄피돌리오 광장에서는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확산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1문단에서 기마상에서 뺀어 나온 광장의 문양들은 기하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비대칭성과 관련이 없다.

23.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는 광장이 기마상으로 인해 원으로 인식되면서 두 개의 초점이 사라지고 하나의 중심을 가진 공간으로 변모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두 개의 초점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세계의 중심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원이 가진 집중성으로 인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고대인들은 북극성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3, 4문단에서 주변을 압도하는 위계감,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지배자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24.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원은 중심을 향하는 집중성과 주변을 향하는 확산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은 집중성을 강조하는 반면, ㉡는 확산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가 집중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어느 곳에 있던 중심의 기마상에 시선을 두게 되지만 ㉡는 원통의 벽면을 향하게 된다. ② ㉠은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형성되지만 ㉡는 중심을 향하는 위계감이 없다. ④ ㉠은 중심이 강조되지만, ㉡는 둘레가 강조된다. ⑤ ㉠은 원의 집중성을, ㉡는 원의 확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5.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분할(分割)’은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④는 하늘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쪼갬다는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조(製造)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형상을 이룸을 뜻하는 형성(形成)이나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의미의 제작(製作)이 더 적절하다. ② 지적(指摘)은 꼭 집어서 가리키거나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한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것을 뜻하는 지칭(指稱)이 더 적절하다. ③ 소진(消盡)은 다 써서 없앤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사라져 없어짐을 뜻하는 소실(消失)이나 소멸(消滅)이

더 적절하다. ⑤ 기립(起立)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서는 것을 뜻한다. 문맥상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의 '위치(位置)'가 적절하다.

[26~27] 인문, '냉전의 기원에 대한 논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냉전의 기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냉전의 책임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전통주의', '수정주의', '탈수정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전통주의는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이 소련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수정주의는 전통주의를 비판하는 견해로, 냉전의 책임이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미국의 정책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탈수정주의는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의 주장을 절충한 견해로, 냉전의 책임을 어느 한 쪽이 아닌,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탈수정주의의 연구 성과는 무난해 보이지만,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 냉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세 가지 연구 결과

26.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수정주의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미국의 정책으로 냉전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통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해 자유 민주주의 세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에서 미국이 봉쇄 정책을 수행했다고 보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봉쇄 정책이 소련의 공격적 팽창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주장은 수정주의 견해가 아니라 전통주의 견해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소련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특히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하였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수정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의 책임이 미국 쪽에 있고, 미국의 정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이로 인해 냉전 책임론은 크게 후퇴하고 구체적인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절충적 성향을 가진 탈수정주의 시각은 역사적 현상의 중심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 자료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미국과 소련이 각기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하자, 양국은 상대방의 조치를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여 대응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국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게 된 것이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닌 양국이 추진한 정책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가)는 ㉠의 탈수정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미국이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봉쇄 정책을 폈더라면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 아래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소련이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동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수행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나)는 ㉡의 전통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는 세계 철강 총생산량이나 에너지 소비량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훨씬 앞서므로 국력 면에서 미국이 소련보다 압도적이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소련이 미국에 비해 국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적극적 팽창 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견해와 방향성이 같다. 따라서 (다)는 ㉢의 수정주의 견해와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28~29] 사회,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지문해설 : 이 글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요건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 효과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이런 요건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즉 원고에게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 그런데 공해 사건에서 인과 관계라는 요건은 입증이 어려워 문제가 된다. 더구나 관련 기업은 월등한 위치에서 쉽게 원인 조사를 할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만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해 소송에서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여전히 원고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지만,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어 인과 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있다.

[주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28.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소송에서는 손해 배상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요건들을 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특정한 사실의 발생을 주장하는 이에게 지도록 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위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인과 관계’이다. 따라서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성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한 요건들의 입증 책임은 부담이 덜한 쪽에 지우는데, 그 사람은 상

대방에게 불법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이다. ④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고의나 과실’을 포함한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의와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⑤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당사자가 부담하고, 입증 책임 당사자는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되는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입증 책임자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공해 소송에서 공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라는 요건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즉 <보기>에서 제시한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 2) 그 폐수 안에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이 들어 있었다. 3) 오염 물질의 농도가 안전 범위를 넘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입증되어야 인과 관계가 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지문에 진술된 것처럼 공해 소송에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증되었다고 보는 정도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보기>의 대법원은 세 가지 중에서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라는 것만 증명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을 인정하여 입증의 정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은 여전히 원고인 어민들에 있다. 따라서 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이 피고인 회사 쪽에 있다고 진술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입증해도 인과 관계를 인정한 것은 어민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려 한 것이다. ② 4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인과 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③ <보기>에서 대법원은 어민들이 ‘1) 방류된 폐수가 해류를 타고 양식장에 도달하였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인과 관계의 입증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 제시된 것처럼, 원고가 인과 관계를 입증하면 피고는 인과 관계의 성립을 방해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30] 생활독서, 독서 과정

30. 독서 방법의 파악

정답해설 : 마지막 문단에 ‘역사가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로군.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네.’ 부분을 통해 볼 때, 학생이 글쓴이의 관점을 확인하는 내용은 있지만,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메모하면서 책을 계속 읽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나는 역사책을 좋아하니까 ~’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45] 문학

[31~33] 현대시 - 김소월, '접동새'

지문해설 : 이 시는 설화에서 모티프를 가져와 보편적 정서인 한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슬피 우는 접동새를 보며 의붓어미의 시샘에 죽은 누이를 떠올리고 있다. 누이는 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죽은 후 접동새가 되어 떠돌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죽은 누이의 애절함과 누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과 슬픔을 바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주제] 현실의 비극적 삶을 초월한 혈육의 정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에서는 명령형 문장을 찾을 수 없다. '누나라고 불러 보랏'에서 '-랏'은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시의 주된 정서는 한으로서, 의붓어미의 시샘으로 인한 누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애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는 '진두강 가람 가', '진두강 앞마을' 등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고향이나 시골의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④ 이 시에서 행의 길이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같은 연에서도 상대적으로 길고 짧은 행이 교차되고 있다. ⑤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이라는 시구가 2연과 3연에서 반복되는데,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운다는 것과 그 이유를 결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시의 화자는 '누나'에 대해 시종일관 안타까움과 그리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이의 비극적 죽음 앞에서 연민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나'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3연에서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연에서는 '누나'가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울음이 비극적으로 죽은 '누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③ 3연에서는 2연의 '누나'가 의붓어미의 시샘 때문에 죽었다는 비극적 사연이 제시되어 있다. ④ 4연의 '오오 불설워'는 화자의 서러움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구절이다. '불설워'는 '몹시 서럽다'라는 뜻의 방언이다. 따라서 직설적으로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⑤ '우리'는 흔히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므로, 화자와 '누나'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김소월의 시에서는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한이 생긴다고 했다. 5연을 보면 죽어서도 동생들을 ‘차마’ 못 잊어, 밤이 깊어도 이 산 저 산을 옮겨가며 슬피 운다고 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체념적 상황에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한 ‘누나’의 한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샘’이 ‘시새움’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누나’가 의붓어미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시에서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산 저 산’ 떠도는 새의 모습은 동생들을 잊지 못하는 ‘누나’를 의미하므로 모든 희망을 버리고 방황하며 체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보기>에 따르면 체념하고 있을 때는 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④ ‘누나’가 ‘야삼경’에도 잠들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못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오래동생’과 이별하는 ‘누나’의 심경은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슬피’ 우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러한 것은 ‘누나’가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다.

[34~37] 현대소설 - 채만식, ‘미스터 방’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미국이라는 외세에 빌붙어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주인공 방삼복에 대한 희화화와 풍자를 통해, 해방 직후의 혼란스럽고 부패한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채만식의 소설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해방이 되어도 기뻐할 줄 모르던 신기료장수인 방삼복은 귀동냥으로 배운 서툰 영어로 우연히 미군의 통역을 해 주면서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코빼퐁이’라는 별명은 ‘미스터 방’이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되고, 미군의 세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으며 부를 축적하게 된다. 방삼복과 함께 이 소설의 또 다른 풍자의 대상인 백 주사는 전형적인 친일파로, 해방과 함께 몰락하게 되자 새로운 권력을 이용하여 일제 강점기 때 누렸던 기득권을 되찾고자 하는 인물이다. 시대의 격변기에 하루아침에 지위가 뒤바뀐 방삼복과 백 주사를 통해, 작가는 해방 직후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권력에 기생하며 득세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들과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지문에 출제된 부분은 방삼복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방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부분과 백 주사가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복수를 방삼복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다.

[주제]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상에 대한 풍자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주요 등장인물인 방삼복과 백 주사의 심리 상태는 물론, 해방을 맞이하여 자기의 이익에 따라 희비가 달라지는 방삼복의 작중 상황이나 백 주사가 예전의 부를 되찾기 위해 불쾌하지만 방삼복에게 비굴하게 처신하는 사건 등을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의 소설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 아니다. ②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로 등장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 아니다. ④ 지문 속에 회상과 관련된 장면은 없으며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이동하는 액자소설식 구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지문의 사건은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전개상의 입체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35.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에 신기료장수인 방삼복 혼자 값을 올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료를 파는 업자들도 값을 올려서 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만 올랐지, 자신이 얻는 소득은 예전과 비슷하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해방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인식 자체를 갖지 못한 방삼복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방삼복은 해방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를 수립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물론 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② ㉢은 순사가 없어져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한 치안 부재의 상황을 표현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방삼복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④ ㉣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 권력과 부를 누리던 과거의 영화는 사라지고 몰락하여 초라함을 느끼고 있는 백 주사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다. ⑤ ㉤은 갑자기 득세하여 미스터 방이 된 방삼복이 술을 먹으면서 생긴 버릇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혼란스러운 내면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36.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친일파로 일제에 기생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던 백 주사의 몰락을 가져온 해방의 시대 상황은 올바른 역사의 흐름이지, 개인을 억압하는 부당한 시대 변화로 볼 수 없으므로 ②는 올바른 감상 활동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해방된 사회에 대해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방삼복의 출세는 해방 직후의 사회의 혼란상을 통해 부정적 단면을 보여 주므로, 이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은 올바른 감상으로 볼 수 있다. ③ 백 주사가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상황을 반전시켜 옛날의 기득권을 되찾고자 미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방삼복

을 이용하려는 것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지 못한 부정적인 인물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④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독립을 기뻐했다가 다시 불리할 때는 해방의 상황을 욕하는 방삼복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이므로 이를 비판하는 활동은 올바른 감상이다. ⑤ 해방 전 자기가 권력을 누릴 때 대수롭지 않았던 존재였던 방삼복이 미군정 시대에 권력을 행세하는 존재가 되면서, 마음속으로는 불쾌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부탁하는 백주사의 이중적 태도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판적 감상이 가능하다.

37. 상황에 적절한 속담 적용

정답해설 : ④는 백주사가 방삼복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간 대상에게 분풀이를 하고 동시에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므로, 한 가지 일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됨을 의미하는 ‘뽕 먹고 알 먹는다.’가 이에 부합하는 속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 빈 외양간을 고치느라 수선을 떠나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④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자기도 상대방에게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말은 누구에게나 점잖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⑤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말 못하다가 뒤에 가서 불평하는 것으로, 화가 난 마음을 애매한 다른 곳에 옮겨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38~40] 고전시가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괴로움과 고통을 노래한 민요로, 경북 경산 지방에서 채집된 것을 현대어로 풀어서 기록한 것이다. 친정에 다니러 온 여인과 사촌 자매 사이의 대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장, 반복, 열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당대 여인들의 시집살이 상황을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그려 냄으로써 힘든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

38.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사촌 자매에게서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형님은 시집살이를 ‘개집살이’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고된 노동이나 시집 식구들을 대하는 어려움 등의 사례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충과 한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노래는 감탄의 어조와 반성의 어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주로 한탄의 어조를 느낄 수 있으며, 반성의 어조는 찾을 수 없다. ③ 이 노래에서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어울리게 하는 수미상관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이 노래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는 전개 방식을 찾을 수 없으며, 중심 화자(사촌 형님)의 심리도 특별한 변화 없이 괴로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⑤ 시집살이의 고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나 이를 내면과 대비하는 것은 아니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말로 볼 수 있다. 이 노래는 사촌 동생의 시집살이에 대한 물음에 친정에 다니러 온 형님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노래에서 사촌 동생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이를 형님이 만류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오 리 물’, ‘십 리 방아’, ‘아홉 솔’, ‘열두 방’ 등의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처리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호랑새’, ‘꾸중새’, ‘할림새’, ‘뽕족새’, ‘뽕중새’, ‘미련새’ 등 시집 식구들을 새에 비유하여 그들의 성격이나 그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오랜 기간 동안 며느리가 귀머거리나 장님, 병어리처럼 처신해야 함을 제시해 시집살이의 속박을 참고 견뎌야 하는 며느리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결혼 전의 아름다운 용모를 ‘배꽃 같은 얼굴’에 빗대고, 결혼 후의 형클어지고 쇠한 용모를 ‘호박꽃’에 빗대어 힘겨운 시집살이로 인한 용모의 변화를 한탄하고 있다.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는 사촌 형님과 사촌 동생이 주고받는 대화이고, <보기>도 두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이다. 즉 [A]와 <보기>는 두 여인의 대화체 형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A]의 두 여인은 친척 사이이고, <보기>의 두 여인은 ‘본 듯도 하구나’, ‘어와, 너로구나’ 등의 구절로 미루어 친분이 있는 사이로 짐작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A]의 사촌 형님과 <보기>의 ‘각시’가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인 ‘동생’과 ‘너’를 만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심정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형님 온다’, ‘형님’, ‘이애’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으나, <보기>는 시어의 반복이 아니라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A]와 <보기>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보기>는 특정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

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⑤ [A]에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서는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임금이 계시는 대궐을 빗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비유적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41~43] 고전소설 - 김만중, ‘구운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유배지에 있던 김만중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고전 소설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성진이라는 불제자가 원하던 부귀영화를 꿈속에서 이루지만 이것의 허망함을 깨닫고 다시 불교에 귀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현실-꿈-현실’이라는 액자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은 초월적 세계로, 꿈은 현실적 세계로 설정한 것이 특이하다. 세속적 욕망을 원하던 성진은 꿈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이루지만 이것이 결국 덧없음을 깨닫고 불교에 정진한다. 유교의 공명주의와 불교의 공(空) 사상, 도교의 신선 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주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4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랑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는 성진과 그 주변 환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것은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장면이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는 성진의 내적 독백이지만 이것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성진과 육관 대사의 대화가 있지만 이것을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구체적인 시대 상황이 설정되지 않고 있다. ⑤ 서술자가 개입하거나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42.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노승이 양소유에게 아직도 춘몽에서 깨지 못했다라고 하자, 양소유가 ‘사부는 어찌하면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라고 말하는 데에서 그가 꿈에서 깨어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소유가 팔 낭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성진의 말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육관 대사의 말 ‘어느 것이 거짓 것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성진의 생각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성진의 생각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의 ‘첫 번째 회의를 부정’은 성진이 아직 꿈속 삶(세속적 삶)을 살기 전의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회의를 부정’은 꿈속 삶의 세속적 가치관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회의를 부정’은 성진의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은 꿈속 삶(세속적 삶)이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를 부정’을 경험한 이후의 일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은 꿈속 삶으로 ‘첫 번째 회의를 부정’과 ‘두 번째 회의를 부정’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③ ㉡은 성진이 꿈속 삶에서 깨어난 후의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과 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육관 대사의 가르침이 있기 전이므로 ‘두 번째 회의를 부정’을 경험한 직후의 일이다. ④ ㉢은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가르침을 성진에게 주기 위해 비유한 것이므로 ‘세 번째 회의를 부정’ 단계의 핵심 내용을 보여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은 육관 대사의 참·거짓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깨닫지 못한 성진이 가르침을 달라는 내용이므로 ‘두 번째 회의를 부정’에서 ‘세 번째 회의를 부정’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44~45] 수필, 윤오영, ‘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과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고 있다.

[주제]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

4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수필은 봄은 젊은이의 것이라는 통념, 늙어서 봄을 맞이하면 앞으로 봄을 많이 못 볼까 슬프다는 통념 등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수필은 흔히 일상적 소재를 취하기는 하지만 작가의 개성적인 통찰이 중요한 장르로서, 이 작품에서도 봄에 대한 개성적인 통찰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② 분석이란 복잡한 대상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으로 이 수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봄이나 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작품을 볼 수 없다. ③ 자연친화적인 수필이 흔하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자연과 대화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④ 글쓴이의 주장을 일반화하기 위해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45. 작가의 세계관,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겨울을 이겨 내고 파릇파릇 싹이 움 돋기 시작한 ‘동쪽 가지’를 예찬하며 같은 나무 한 등걸인데도 한 가지는 살고 한 가지는 죽었다고 말한다. 싹싹하고 발랄한 ‘생의 의지’를 가진 동쪽 가지는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지만, 서쪽 가지는 눈보라 추운 속에서 자기를 살리지 못해 죽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생의 의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봄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글쓴이가 물의 속성에 비유한 것은 ‘과거’라는 시간 자체이지 ‘늙은이의 봄’만을 한정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글쓴이는 흐르는 세월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글쓴이는 봄을 바라보며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글쓴이가 과거를 ‘자랑스러운 때’로 추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청춘 시절의 봄으로 회귀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두에서 젊은이의 봄은 훌쩍이지만 늙은이의 봄은 겹겹의 봄이라고 말하며 노년의 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⑤ 이 수필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래 세상에 머물러 봄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귀한 게 아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①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① 12. ⑤ 13. ②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① 26. ④ 27. ③ 28. ③ 29. ⑤ 30. ⑤
 31. ② 32. ⑤ 33. ③ 34. ③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③ 40. ①
 41. ⑤ 42. ① 43. ③ 44. ③ 45. ④ 46. ② 47. ④ 48. ② 49. ④ 50. ②

[1-5] 듣기

1. 이제 음악과 함께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참 듣기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국악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은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 음악을 일반 대중들이 즐겨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창작곡입니다. 이 국악인들은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는데요, 먼저 전통 악기를 서양 악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연주하지 않았던 이질적인 악기들의 합주를 시도했는데요, 처음에는 악기 조율 체계부터 달라서 같은 음을 내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야금, 피리, 대금 등과 같은 전통 악기에 기타, 신시사이저 등의 서양 악기를 더해서, 전통 악기만을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국악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이들의 시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재즈, 가요, 록 음악 등 여러 장르와의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국악인들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악기들의 협연과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과감히 시도해서 국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이죠. 이 젊은 국악인들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제시된 강연에서는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한 젊은 국악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이질적인 악기들의 합주를 시도’했으며, ‘새로운 방식의 국악’을 위해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과감히 시도’했다. 따라서 이 강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으로는 젊은 국악인들이 보여 준 ‘실험 정신’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2.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교양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한글의 서체에 대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 수(남):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여): 요즘 한글 서체에 관심이 높은데요, 다양한 한글 서체의 뿌리가 되는 서체는 무엇인가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교 수(남): 예, 한글 서체의 뿌리는 문자를 창제할 당시의 모습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체입니다. 이 서체는 직선과 점 그리고 원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시죠. ‘사름’이란 글자와 ‘과’ 자를 볼까요? 모서리가 각이 진 직선과 동그란 점 보이시죠? ‘사’ 자와 ‘과’ 자는 모음 ‘ㅣ’와 같은 세로선이나 모음 ‘ㅡ’와 같은 가로선에 동그란 점이 결합되어 있죠. 또 ‘사름’의 ‘름’ 자에서처럼 단독으로 쓰인 동그란 점도 있습니다.

진행자(여): 예, 그런데 붓으로 각이 진 직선이나 동그란 점을 나타내기는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교 수(남):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한글 서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월인석보』에 벌써 그 변화가 보이는데요, 여러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음에 쓰인 동그란 점에서 나타납니다. 이 점은 ‘ㅡ’나 ‘ㅣ’와 결합할 때 동그란 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례본의 ‘사’ 자와 ‘과’ 자의 동그란 점들이 모두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진행자(여): 아, 그렇군요. 그럼 ‘사름’의 ‘름’ 자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인 점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 수(남): 예, 그 경우 역시 쓰기에 편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동그란 점이 붓으로 눌러 찍은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방송의 주된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최초의 서체가 『월인석보』에 이르러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음에 쓰인 동그란 점’에서 나타나는데, ‘사’ 자와 ‘과’ 자의 동그란 점들은 모두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되고, ‘름’ 자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인 점들은 ‘눌러 찍은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①의 경우, ‘사’ 자와 ‘과’ 자가 모두 짧은 선으로 나타났고, ‘름’ 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나타났으므로, 이것이 『월인석보』에 나타났을 동그란 점의 서체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사’ 자의 동그란 점이 짧은 선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과’ 자의 동그란 점이 짧은 선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인 원자시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똑딱거리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세어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원자의 진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이용하는 국제 원자시는 30만 년에 1초 정도밖에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하루 24시간은 지구 자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주기는 달의 인력 등에 의해 아주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원자시계로 측정되는 24시간과 지구의 자전 주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이 차이가 누적된다면 먼 미래에 아직 해는 뜨지도 않았는데 원자시계는 정오를 가리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시계의 시각에 때때로 1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지구 자전 주기와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그 1초를 윤초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예를 들면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가 된 후, 1초가 아니라 2초가 지난 뒤에 24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원자시가 도입된 1972년 이후 약 20여 차례 윤초가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학생의 발표에서 ‘원자시계로 측정되는 24시간과 지구의 자전 주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였으므로, ④의 ‘지구의 자전 주기와 원자시계의 24시간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발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장 정밀한 시계인 원자시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 ‘시계추의 움직임을 세어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원자의 진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1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지구 자전 주기와의 차이를 조정’, ‘그 1초를 윤초라고 합니다’ 등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5]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청소년 국제 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정책 담당자 분과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담당자(남): 네. 청소년 국제 교류란 청소년들이 외국과 인적, 문화적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진행자(여): 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한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남): 여기서 공동체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진행자(여):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류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당자(남): 고등학생들의 국제 학술 교류 행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상대국을 방문해 학술 교류뿐 아니라 홈스테이도 하고 현지 학교생활도 경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진행자(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자(남): 네, 저희도 그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 청소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행자(여):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혹시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담당자(남): 사실, 청소년 국제 교류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은 대상, 장소 등, 상황이 다양한데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교류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진행자(여): 네,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라디오 대담에 참석한 정책 담당자가 정책의 준비, 입안, 발표, 집행 등의 정책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 ‘정책의 추진 절차’는 이 대담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정책의 목적은 ~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에 ‘정책의 추진 목적’이 언급되어 있다. ② ‘고등학생들의 ~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에 ‘정책의 추진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④ ‘저희도 그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에 ‘정책에서 보완할 점’이 언급되어 있다. ⑤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후 부분에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라디오 대담의 진행자는 ‘정책에 대해 ~ 소개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등에서와 같이, 궁금한 점을 제시하며 정책 담당자의 추가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진행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기(②),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기(③), 논점을 환기시키기(④), 동일한 질문을 되풀이하기(⑤)와 같은 말하기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쇠뿔으로 (목재를) 결합하는 방법’과 ‘짜 맞춤 기법’의 차이를 비교한 내용에서 ‘조직의 화합’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㉔의 내용은 ‘짜 맞춤 기법을 통해 튼튼한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짜 맞춤 기법’의 장점은 목재 자체의 단단함이 아니라 재료의 결합 방식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관계 형성이나 합의를 강조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㉔의 내용은 적절하게 유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의 ‘쇠뿔으로 결합하는 방법’에서 ‘외부의 개입’을, ‘쉽고 간단’에서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에서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를 유추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와 ‘착안점’의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한 유추이다.

② ㉔의 ‘짜 맞춤 기법’은 ‘서로 모양을 맞추는’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내부의 합의’는 ‘견해를 주고받는’ 과정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③ ㉔의 ‘한번 결합된 목재들’은 ‘튼튼하게 맞물린다’는 내용에서, ‘내부의 합의를 이루어 낸 조직’은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④ ㉔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있다는 내용에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합의 방식’이 있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7. 비판적 사고(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의 자료는, 누수 현상의 원인이 대부분 노후 수도관의 부식 때문이며, 기존의 탐지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의 자료는, 센서를 부착하여 누수를 즉시 탐지하는 새로운 누수 탐지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④에 제시된 방안에는, 수도관에 센서를 일정하게 부착하지 않고 누수 지점에 센서를 부착한다고 한 점,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 지점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의 부식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나)와 (다)의 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이끌어 낸 내용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수돗물 누수 현황과 노후 수도관 비율’은 (가)의 자료에 소개되어 있고, ‘누수율 감소 대책’의 필요성은 (나)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② ‘현재의 누수 탐지 방법’이 갖는 ‘한계’는 (나)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③ ‘새로운 기술의 원리’와 이를 통한 누수 방지의 가능성은 (다)의 ‘진동의 형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여 탐지한다는 내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가)에는 수도관 누수의 현황이, (나)에는 기존 탐지 방식의 한계가, (다)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다루고 있으므로, 세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수도관 교체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누수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8. 비판적 사고(개요의 수정 및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Ⅰ-2(주민들의 참여율 저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②에서는 ‘(나) Ⅲ(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에 ‘생활 체육 참여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율 제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Ⅰ-1(~주민들의 무관심)’은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나)의 ‘Ⅱ(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의 하위 항목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다. ③ (가) ‘Ⅱ(생활 체육 활동의 중요성)’의 하위 항목들은 ‘(나) Ⅰ(생활 체육의 필요성)’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④ 예상 독자인 지방 자치 단체의 관계자를 고려하여 ‘(나) Ⅲ-2(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⑤ 정책 수립과 지원 요청이라는 이 글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Ⅳ’를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 도모’가 아닌 ‘정책 수립과 지원 촉구’로 분명하게 강조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신입 회원이 기타를 마련하기 어려울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 자리에는 ③의 ‘악보를 읽을 줄 모르시나요?’보다는 ‘기타를 마련하지 못할까 염려되시나요?’ 같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소리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자, ‘소리샘’이 어떤 동아리인지를 설명하는 다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샘이므로’보다는 ‘샘이라는 뜻으로’가 적절하다. ④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문단에서 문단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동아리의 활동 소개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셋째 문단을 둘째 문단과 맞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0. 창의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

정답해설 : ‘마음의 평안’을 느껴 보라고 권유한 부분은 첫째 조건(기타 연주가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족하고 있고, ‘두 가지의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은 둘째 조건(다른 동아리와의 차이점)을 충족하고 있으며,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라는 것은 셋째 조건(점층적 표현)을 충족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둘째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 ② 셋째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 ③ 첫째 조건(‘즐거움’)만 충족하고 있다. 둘째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다른 동아리처럼’), 셋째 조건의 경우, 점층적 표현 ‘오늘’, ‘내일’, ‘먼 미래’가 쓰이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다. ④ 첫째 조건(‘외롭고 우울한’, ‘알 수 없는 힘’)과 셋째 조건(‘동아리방을 넘어 학교 전체에’)을 충족하고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11. 어휘·어법(이형태)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형태’는 의미는 서로 같고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①의 ‘에’와 ‘에서’는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이형태로 볼 수 없다. ‘에’는 앞말에 붙어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에서’는 앞말에 붙어 출발점의 뜻을 갖게 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로/으로’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로’, 모음으로 끝날 때는 ‘로’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③ ‘나/이나’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④ ‘면/으면’은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면’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⑤ ‘아라/어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간의 끝이 ‘ㄱ, ㄴ’일 때는 ‘-아라’로, 어간의 끝이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는 ‘-어라’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12. 어휘·어법(반의어)

정답해설 : <보기>의 ‘시계가 서다/가다’, ‘서서/앉아서 보다’에서처럼, 다의어를 반의어로 바꾸어 쓸 때는 다의어의 여러 의미 중 해당 의미에 대응하는 반의어를 선택해야 한다. (가)에 들어갈 예문은 반의어 ‘넣다’와 짝을 이루는 ‘빼다’가 쓰인 ①(‘바람을 빼다/넣다’), ③(‘손을 빼다/넣다’), ⑤(‘경기에서 그를 빼다/넣다’)가 적절하다. 그런데 ①, ③, ⑤에서 (나)에 들어갈 말로 제시된 것 가운데, ‘적금을 빼다’의 ‘빼다’와 반의관계를 이루는 것은 ‘(적금을) 들다’뿐이다. **정답 ⑤**

[13-16] 고전 소설 - 작자미상, ‘금방울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남주인공 해룡과 여주인공 금령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혼인을 함으로써 전생의 인연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주인공 금령의 적극적인 활동과 애정 성취는 당시 여성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귀 획득과 신분 상승은 권력에서 소외된 피지배 계층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주인공의 고난과 시련은 이런 독자들의 고통 받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금방울전’과 유사한 작품으로 ‘김원전’이 있는데, ‘김원전’의 김원도 해룡과 같이 요괴를 죽이고 공주를 구출한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작품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장면은 막 씨가 금령을 낳고 처음에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결국 금령에 정이 들게 되는 부분과, 요상한 금령을 제압하고자 했던 장 공이 금령의 신통함 앞에서 의지를 접자 금령이 보은초로 장 공의 부인을 살리는 부분에 해당한다. 금령의 신이한 능력이 잘 드러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금령의 가치가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시련을 극복하고 혼사를 성취하는 금방울(금령)의 삶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1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A]에는 장 공이 뇌양에 온 후 부인이 병을 얻어 위독했으나 금령이 보은 초를 가져다 주자 살아나게 된 사건의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부인의 말을 통해 과거 난리 중에 아이를 잃고 한을 품은 채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A]는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금령에 대한 장 공 부부의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④ 특별한 배경 묘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등장인물은 장 공 부부와 금령, 그리고 집안사람들이며, 특별히 부정적인 인물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14.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장 공은 금령이 가져다준 보은초로 인해 부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뻐한다. 부인이 회복된 후에 장 공 부부는 막 씨를 찾아가 금령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금령을 아끼며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㉔의 ‘집’을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 ‘집’에서 막 씨와 장 공의 부인은 형제의 연을 맺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초막’은 ‘조그맣게 지은 초가의 막집’이라는 의미로 빈곤한 막 씨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② 막 씨가 금방울을 아궁이에 집어넣었는데, 그 곳에서 향기가 풍겨 나왔다는 것은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③ ‘정문’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으로, 막 씨의 효행을 널리 알려 막 씨를 본받을 만한 인물로 칭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금방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15.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주인공 금방울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내용으로 볼 때,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치는’ 것은 모두 금방울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로, 금방울에게는 시련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처음 금방울을 낳았을 때, 막 씨는 금방울이 해괴한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해치려고 하였다. ③ 금방울은 늘 막 씨 곁에 머물며 딸처럼 막 씨를 봉양하고 있다. ④ 제시된 행위들은 초월적인 행위들로,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⑤ 금방울이 가져온 보은초를 통해 장 공의 부인이 살아났으므로, 금방울은 장 공 부부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16. 사실적 사고(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은 ‘죽어도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장 공 부인이 아이를 잃어버린 일을 뼈에 사무치도록 한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을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각골통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겨우 살아남. ㉢ 사필귀정: 만사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7-20] 현대 소설-박태원, ‘천변 풍경’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청계천 변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열한 세태 소설로,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품이다. 우선 이 작품은 대도시인 서울을 배경으로 도시의 문화와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물질주의에 경도되어 가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도시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작가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 내용을 단편 소설 정도의 분량으로 나누어 총 50개의 절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 작가는 소년 창수의 눈으로 도시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영화적 촬영 기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서술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제] 1930년대 서울 중산층과 하층민의 삶과 애환

1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제시된 본문을 읽다보면, 삽표의 잦은 사용이 쉽게 눈에 띈다. 이 때 삽표는 여러 대상과 장면을 한꺼번에 이어서 서술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문장 안에서 삽표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와 장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창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내면을 모두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인물 간의 대화가 간혹 제시되긴 하지만, 이 대화는 도시에 처음 온 창수의 상황과 도시에 대한 창수의 심리를 보여주는 기능을 할 뿐 창수의 의식이 분열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제시된 본문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놀라는 창수의 모습이 부각된 부분으로,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8. 창의적 사고(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한다는 의미이다. 즉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의 현실과 관련지어 작품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관점으로 작품을 탐구하는 것은 청계천 주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려는 ⑤번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물의 의식과 행동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는 작품 내부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감상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② 작중 인물 간의 갈등에 주목하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속한다. ③ 작중 인물, 공간에 주목하며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④ 작중 인물의 외양, 인물의 성격 등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19. 추론적 사고(인물의 정서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은 창수 주위로 몰려든 서울 아이들로, 이 아이들은 창수를 시골 아이라고 놀리며 모욕감을 주고 있다. ㉡은 ‘서울 아이’들을 포함하면서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는 아이도 포함하고 있다. 즉 창수를 비웃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 아이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는 아이를 뜻한다. 그리고 ㉣은 이 소설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창수’이다.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서울 아이들 외에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던 아이’도 ‘창수를 비웃은 아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라고 말을 거는 것으로 볼 때, 그 아이는 ‘창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20.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도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의 화려함과 그 이면적 풍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시 소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본문의 내용을 감상할 때,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는 것은 대상에서 받는 느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작품 내의 흐름으로 볼 때, 창수는 도시의 현란한 모습에 신기해하고 있을 뿐, 아직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리 밑’은 거지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창수가 이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현란함에 휘둘려 도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서울 아이들은 놀라지도 않는 ‘자전거 종소리’에 놀라는 창수의 모습은 도시에 존재하는 생소한 것들에 대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창수의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④ 이발소 창 앞에 있던 아이가 건네오는 말에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은 창수의 위축된 심리를 드러내준다. ⑤ 도시의 모습에 황홀해하며 흥미를 느끼면서도 아버지를 따라 내려갔으면 하는 데서, 창수가 꿈과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21-24] 인문, ‘과학적 지식의 검증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귀납 논증의 장점과 한계를 밝히고, 귀납 논증에 기초한 과학적 지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포퍼의 주장을 제시한 글이다.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된 과학적 지식은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역 논증을 통해 반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된 과학적 지식이 성공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연역 논증을 통한 반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과학적 지식의 진위 여부를 논증하는 방법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그 이유를 귀납 논증에 의한 결론이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귀납 논증은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의 출현 가능성이라는 논리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것은 귀납 논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2. 추론적 사고(견해의 추리)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과학은 반증에 의해 발전된다고 언급한 것과, 4문단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퍼는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반증의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귀납 논증은 치밀한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더라도 거짓일 수 있으므로 반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성공적인 지식은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지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과학적 지식은 반증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므로 반증을 회피하는 것은 포퍼의 생각과 다른 견해이다. ⑤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되는 과학적 지식은 연역 논증에 의한 반증을 극복해야 성공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므로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으로 정당화하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3.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ㄱ), (ㄴ)에서 (ㄷ)이 도출되는 과정은 연역 논증이고, (가)에서 (나)를 도출하는 과정은 귀납 논증이다. 그런데 1문단에서 연역 논증은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귀납 논증은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ㄱ), (ㄴ)에서 (ㄷ)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귀납 논증은 전제인 (가)가 참이어도 이와 다른 새로운 사실의 존재 여하에 따라 결론인 (나)가 거짓이 될 수 있다. ② (ㄴ)과 (가)는 관찰한 사실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ㄴ)이 성립한다면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가)와 같은 전제가 아무리 많이 쌓인다 해도 또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이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없다. ⑤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과학적 지식은 (ㄱ)~(ㄷ)과 같은 연역 논증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24. 어휘(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의 의미이므로 ‘지식’을 주어로 한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는 반증들을 잘 참아낸다는 의미보다는 반증을 적극적으로 잘 ‘방어해’ 낸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씬’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② ‘실재’는 ‘실제로 존재함’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③ ‘입증’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⑤ ‘전무’는 ‘전혀 없음’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25-28] 예술, ‘영화적 재현과 만화적 재현’

지문해설 : 이 글은 만화와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만화는 정지된 이미지이고, 영화의 이미지는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만화에서의 움직임은 읽기라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만화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지만 영화의 이미지는 만화처럼 자유롭게 구현하기 어렵다. 만화의 이미지는 만화가 개인의 해석을 담아 독특한 시선과 솜씨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영화의 이미지는 카메라라는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기술적 익명성을 함축하고 있다. 영화의 이미지는 현실의 개입이 필연적이지만, 만화의 이미지는 외부적 현실의 개입이라는 외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주제] 만화의 이미지와 영화의 이미지의 차이점

2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의 첫 단락에는 영화와 만화가 ‘움직임의 유무’로 구별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만화는 공간이라는 차원만으로 제시되는 이미지인 반면 영화는 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간을 재현한 예술 장르라는 것이다. 사진에 결여되었던 사물의 운동이 영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①은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답이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만화는 물리적 시간의 부재를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영화에서는 이미지를 영사하는 속도가 일정하여 감상의 속도가 강제되지만, 만화에서는 각 칸에 대한 독자의 읽기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④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필름에 착상되는 사진적 원리에 따라 생산되는 것은 영화 이미지이다. ⑤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어 본질적으로 사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 되는 것은 영화 이미지이다.

26.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영화 이미지는 촬영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화의 이미지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영화에서는 촬영한 이미지들을 컴퓨터상에서 합성하거나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 특수 효과가 활용되는데, 이는 영화가 만화처럼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특수 효과는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이어져 있던 영화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으로 인해 제작 주체의 의도가 비교적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기존의 영화이다. ③ 촬영된 이미지를 다시 합성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⑤ ㉠은 영화에 만화적 상상력이 도입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7.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만화 표현을 통해 확인하고자 제시된 것이다. <보기>의 ㉠에 나오는 효과선은 속도감을 암시하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효과선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인물의 발 쪽에 ‘다다다’라는 글자가 크기를 점점 크게 하는 모양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는 요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효과선을 지우면 속도감에 대한 효과는 줄어들겠지만, ‘다다다’로 인해 속도감을 드러내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만화는 각 칸에 대한 독자의 읽기 시간이 다를 수 있다. ② ‘짜당’은 언어적 정보를 통해 인물이 넘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인물이 넘어진 그림은 ‘인물이 넘어졌구나.’를 드러내주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④ 인물의 얼굴과 몸의 형태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담겨 있는 ‘서명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⑤ 영화의 프레임은 변화가 없지만 <보기>의 ㉠부터 ㉢의 칸들은 모양도 크기도 각각 다르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28. 어휘·어법(합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은 합성어인 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가 원래 서로 담고 담길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주머니’는 ‘돈 따위를 넣으려고 형겅으로 만들어 끈을 꿰어 허리에 차게 된 물건’이라는 의미이므로, 이 안에는 돈이나 그와 유사한 것이 들어가게 된다. 또 ‘찌’는 추상적인 것으로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국’과 ‘그릇’의 합성어로, ‘국’은 ‘그릇’에 담길 수 있다. ② ‘기름’과 ‘통’의 합성어로, ‘기름’은 ‘통’에 담길 수 있다. ④ ‘물’과 ‘병’의 합성어로, ‘물’은 ‘병’에 담길 수 있다. ⑤ ‘쌀’과 ‘가마니’의 합성어로, ‘쌀’은 ‘가마니’에 담길 수 있다.

[29-31] 과학,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제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상 기체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보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는 이상 기체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체에 적용하면 맞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실제 기체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방정식은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학 연구의 절차를 잘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보정되는 과정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는 1문단에서, ③, ④는 2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30. 사실적 사고(두 대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부피가 V 인 용기 안에 있는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의 부피를 b 라 할 때,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 b 만큼 줄어든 $V-b$ 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기체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에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과 4문단을 통해 기체 상태 방정식이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을 통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한 것임을 알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분자의 자체 부피를 b 라고 설명했고, 4문단에서 b 는 기체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31.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나고, 반발력은 기체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A와 B는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하면서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작다는 것은 A가 B보다 분자 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A가 B보다 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데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지면 A, B 모두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분자 간 상호 작용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③ P2에서 P3 사이에서 A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작고 B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통해 A가 B보다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압력이 P3보다 높을 때는 이상 기체보다 A와 B 모두 그 부피가 크다는 것을 통해 A와 B 모두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압력에서 B의 부피가 더 크므로 B가 A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는 반발력 때문에 압력을 아무리 높여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35] 현대시

(가) 김수영, 「폭포」

지문해설 : 이 시는 ‘폭포’를 통해 시인이 지향하는 정신적 자세를 상징적으로 그린 시이다. 폭포의 의미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규정할 수 없는 물결’, ‘고매한 정신’ 등의 시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떨어진다’의 반복을 통해 그 내적 속성을 부여 받는다. ‘폭포’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떨어진다’는 부서짐과 직결되며, 이는 고통의 감내를 의미한다.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는 타협하지 않는 양심이며 굴종이나 무기력을 용납하지 않는 투철한 정신을 의미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곧은 소리’를 통해 이러한 폭포의 강직함과 의로움을 알 수 있으며, 다시 이 곧은 소리가 곧은 소리를 불러내는 정의의 확산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폭포는 ‘나타와 안정’을 뒤집으면서 높이와 폭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다. 시인은 부정적 현실 앞에서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주눅 들지 않고, 조금의 나태함과 개인적 편안함을 용납하지 않은 채 늘 변함없이 정의의 추구를 하는 태도를 지닌 존재를 그림으로써 자신과 동시대인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다.

[주제]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고매하고 정의로운 삶의 자세

(나)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11」

지문해설 : 이 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 발견한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시이다. 화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살아 있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흔들림으로써 튼튼해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이때 흔들림은 인간과 관련하여서는 슬픔이나 고독, 고통 등을 의미하게 된다. ‘수만의 잎’에서 알 수 있듯이 존재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생명과 성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빈 들’이라는 공간에서 바람에 의해 쓸리고 흔들리는 잎을 보며 인간의 삶도 그러함을, 그리하여 이러한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성숙해지는 삶의 의미

(다)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지문해설 : 이 시는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 고향을 떠나던 때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로 시작하여 ‘~에 있지 아니하고’로 끝나는 구조가 5번 반복된 후,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끝났다’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상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가을의 초가지붕, 여름날의 뒤란,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울리는 기적 소리,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웃고름, 눈물 흘리던 저녁 등의 핵심 소재들을 통해 화자는 고향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고 있으며, 마지막에서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를 통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

32. 추론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폭포’, ‘떨어진다’, ‘곧은 소리’ 등의 시어와 어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나)는 ‘살아 있는’, ‘흔들리면서’, ‘하나’ 등의 어구가 반복·변화되면서 ‘흔들림’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있지 아니하고’의 반복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환기하면서 시적 통일감을 얻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마지막 연에 ‘~있음을 피하지 마라’의 일상적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피하지 마라’가 먼저 나타난 도치가 사용되었다.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끝났다’, ‘남기며’로 표현되어 ‘~남기며 끝났다’의 문장 순서가 뒤바뀐 표현이 나온다. ② (가)와 (다)에 ‘-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나 명령적 어조는 활용되지 않았다. ③ 색채의 대조는 (다)의 ‘흰 옷자락’과 ‘파르라한 웃고름’에서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만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나타난다. ④ (가), (나), (다) 모두 ‘-다’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영탄법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33.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가)와 (나)의 작가인 김수영과 오규원의 시작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김수영과 오규원은 방법은 다르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시인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가)의 소리는 ‘폭포’의 소리로 화자는 이를 다시 ‘곧은 소리’라고 말한다. 이는 화자가 ‘고매한 정신’으로 비유했듯이 대상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초월한 대상이다. 한편 (나)의 ‘바람’은 잎을 흔드는 외적 요소로, 존재에게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존재를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존재가 이를 통해 살아 있음을 증명하며 성숙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어이기도 하다. ③에서는 ‘소리’와 ‘바람’을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리’와 ‘바람’은 두 작가에게 있어서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어로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매한 정신’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관련된 것으로, 대상의 위대성, 숭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바람이 잎을 휩쓸고 지나가며 헤집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오규원이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몸의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④ 흔들리는 잎을 보며,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흔들리면서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⑤ (가)의 ‘폭포’는 숭고함과 위대성을 가진 존재로 김수영이 추구하는 이상인 자유와 관련되며, (나)의 ‘잎’은 흔들림이라는 동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흔들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34.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다)는 다양한 소재들을 동원하여 고향의 모습을 환기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이다. 이때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라는 고향의 특정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순이 누나 역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순이 누나’ 이후에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기에, 시상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참새 떼 내려앉는’, ‘초가지붕’, ‘토란 잎’, ‘뒤란’, ‘추수 끝난 빈 들판’, ‘짚벼늘’ 등의 소재를 통해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② ‘웁자히 내려앉는’, ‘쿵쿵 울리며 가는’ 등에 청각적 이미지, ‘노오란 초가을’, ‘흰 옷자락’, ‘파르라한 웃고름’ 등에 시각적 이미지, ‘서늘하고 뜨거운 기적 소리’에 공감각적 이미지 가 사용되어 있다. ④ 시의 마지막 부분에 수레바퀴 자국을 뒤로 하고 고향 마을을 떠나던 때의 일을 그리고 있다. ⑤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 끝났다’를 통해 화자의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형상화해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더욱 부각하는 것이다.

35. 추론적 사고(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는 늘 변함없이 폭포의 '물결'이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지는 시행에서 이를 다시 '설 사이 없이'로 표현했으며, 이는 고매한 정신으로서의 폭포가 항상성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나타와 안정'은 폭포가 뒤집어 놓은 대상이다. 화자는 이 시에서 폭포를 긍정적 의미를 지닌,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 그런 고매한 정신인 폭포가 뒤집어 놓은 '나타와 안정'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와 연관되며, 화자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 '빈들'은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장소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고요 적막한 뒤란'은 화자가 회상하는 여름날의 고향집의 한 장면으로, 화자에게는 그리움의 장소이다. ㉤ '수레바퀴 자국'은 화자가 고향 마을 떠나던 때의 상황으로, 그 자국을 뒤로 하고 화자는 고향을 떠나게 된다. 따라서 화자에게 '수레바퀴 자국'은 고향 상실감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36-38] 언어, '용언의 어미에 대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용언의 문법적 기능이 용언의 어미에 의해 나타난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용언의 어미가 지닌 속성을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특히 어미의 특성을 조사나 접미사의 특성과 대비함으로써 그 속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용언의 어미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조사와 공통적이지만 대상의 앞에 오는 선행 요소가 독립적인가 아닌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 어미와 접미사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의 여부와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제] 용언의 어미가 지닌 문법적 특성

36. 사실적 사고(설명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용언의 어미를 중심 논의 대상으로 삼아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조사와 접미사를 활용하고 있다. 즉 중심 논의 대상인 어미와 다른 대상인 조사, 접미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러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어려운 개념들을 익숙한 개념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없다. 용언의 어미를 조사와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접미사와 비교하면서 병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된 부분은 없다. ④ 대상에 대한 이견이 대립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없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37. 추론적 사고(숨겨진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어미, 조사, 접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어미와 조사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어미는 항상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선행 요소인 어간 또한 자립할 수 없음에 비해, 조사와 함께 쓰이는 선행 요소는 독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미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어간과 어미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어간+어미’의 형태로 문장 성분이 된다. ③ 어미는 반드시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품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용언은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⑤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 반면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3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마음이 놓이네.’라고 할 때의 ‘놓이네’는 동사 어간 ‘놓-’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놓다’와 ‘놓이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나가는’이라는 용언은 ‘선우’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만났어’는 ‘만나-’, ‘-았-’, ‘-어’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들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병원에 가는 길’은 ‘병원 가는 길’로 써도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조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 예가 될 수 있다. ⑤ ‘걱정하고’라는 용언은 ‘걱정하-’라는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형태인데, ‘걱정하-’라는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를 결합시킬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42] 사회, ‘공적 연금의 실시 목적과 운영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국가가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와 그 운영 방식과 관련된 상반된 두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사적 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공공 부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제도를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기금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제도의 소득 재분배는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금을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보는 입장이다.

[주제] 공적 연금 제도의 실시 목적과 운영 방식의 쟁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39.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 제도와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적 연금, 공공 부조, 공적 연금 제도 등을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공적 연금 제도와 사적 연금은 병행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공공 부조가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가 납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공적 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40. 추론적 사고(입장의 비교 평가)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③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기금을 신탁 기금으로 규정한 법률을 바꾸는 데 찬성한다. ④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은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를 비판적으로 본다. ⑤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41.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가)와 (나)는 공적 연금 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불가피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이고, (나)는 고의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이다. 공적 연금 제도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키는 것은 사적 연금에서와 같은 역선택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하게 되면 (나)와 같이 고소득자들이 연금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역선택의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적 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경제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고용 불안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가 체납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② (나)는 고소득자들이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이므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③ (나)는 고소득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것이므로 공적 연금에서도 사적 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 (나)와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커질 수 있어 공적 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42. 어휘(사전적 의미)

정답해설 : ‘도모’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의 의미이다.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은 ‘도래(到來)’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①**

[43-45] 기술, ‘음성 인식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말이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의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행된다. 입력 패턴은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에 대응되도록 조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이 보여 주는 패턴 거리의 최솟값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단어로 추출하게 된다.

[주제] 음성 인식 기술의 실행 방법

4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말이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입력 패턴은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생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해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44. 추론적 사고(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4문단 및 5문단에서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하여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입력 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기준 패턴의 음소에 대응될 수 있는 개수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조합되는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2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그에 맞게 입력 패턴도 ‘음소 추정 구간’을 3개로 맞추게 되고, 특징 벡터는 음소 추정 구간마다 1개씩 추출하게 된다. ② 입력된 음성 신호가 세 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준 패턴의 음소 수가 3개 이므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음소는 일대일 대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패턴 거리는 1개가 된다. ④ 입력 패턴은 기준 패턴의 음소의 개수에 대응되도록 생성된다.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s_1 \ s_2 \sim s_3]$, $[s_1 \sim s_2 \ s_3]$ 의 두 음소 추정 구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배열에서 입력 패턴을 생성하게 되므로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 개수 또한 2개가 된다. ⑤ 5문단에서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6문단에서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를 모두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의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46-50] 갈래 복합

(가) 정철, ‘성산별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서하당과 식영정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성산(전남 담양군 창평에 있는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서사-본사-결사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사’에서는 김성원의 풍류와 식영정의 자연경관을 예찬했고, ‘본사’는 성산의 아름다움을 계절별로 노래한 것이다. ‘결사(結詞)’에서는 독서를 하며 지내는 산중생활과 뜬구름 같은 세상에 술과 거문고를 즐긴다며 진선(眞仙) 같은 생활의 즐거움을 읊었다. 표현 면에서는 한자어구를 많이 사용하고 고사의 인용이 많다.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사로 전원생활의 멋과 풍류를 그리고 있다.

[주제] 성산의 풍경 예찬 / 자연을 벗하며 한가롭게 사는 풍류적 삶

(나)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작품해설 : 이 시는 봄이 되면 남산에 놀러가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봄나들이를 거부하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남산에 다녀오게 된 일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시이다. 특이한 점은 화자와 다른 청자들의 대화 형식으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1·3·5연은 화자가 노래하는 반면, 나머지 연들은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다시 화자가 되어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이다. 화자는 친구들에게 봄나들이를 권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과거 급제를 위한 준비나 고단함 등을 이유로 화자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러자 화자는 친구들이야 가거나 말거나 혼자라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다른 인물들과의 의견 차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산수 유람을 권유하는 대화와 혼자라도 유람을 하겠다는 다짐

(다) 이양하, ‘신록예찬’

작품해설 : 이 글은 봄을 맞아 신록이 우거진 계절에 자연을 즐기면서 인간의 삶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대해 생각해 본 글이다. 출발 사이에 ‘나의 자리’라고 명명된 그루터기에 앉아 자연에 몰입하는 글쓴이는 사람을 떠나 와 조용한 자리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신록의 계절을 맞은 이때는 자연의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된 인간의 욕망과 비루함을 떠올리며 자연의 순수함을 닮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신록의 아름다움 예찬과 인간의 욕망 비판

46. 추론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불과 손, 주인을 등장시켜 자연을 벗하며 사는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와 대비하여 변화무쌍한 인심과 세상사의 험난함을 말하고 있다. 세속의 욕망을 벗어나 한가로운 자연에서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다)에서는 신록으로 싱그럽고 반짝이는 자연을 감상하면서 지위와 명예, 이익 등의 세속적 욕망으로 물든 사람들의 일을 떠올린다. 자연의 순수함과 무욕과 대비된 인간 삶의 욕망을 대비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책을 읽으면서 성현과 호걸의 삶과 인생의 무상함을 떠올리고 변화 많은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앞부분에 경치를 먼저 노래하고 그 후에 정서를 노래하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나)는 화자가 교체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각 수에서 화자들이 산수 유람과 관련한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에 선경후정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두 작품 모두에 화자의 애상적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표면에 드러난 시간적 배경은 없으며, 삶의 무상함이 아니라 산수를 구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다)의 시간적 배경은 봄으로, 화자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이기에 무상감과 거리가 멀다. ④ (가)~(다)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나)이다. (나)의 제1수에서 친구들끼리 과거에 남산에 구경 가기로 약속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전개에 따라 이런 기대와 약속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자는 아쉬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혼자라도 구경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47. 추론적 사고(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파악)

정답해설 : ‘손’과 ‘주인’이 어울려 거문고를 타며 풍입송을 즐기는 모습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로운 풍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것이기에, 화자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이 심화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한기’를 보며 역사적 인물들을 떠올려 생각해 보고 있다. ② 화자는 역사 속의 인물을 떠올리며 시대의 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 즉, 역사의 흥망에서 세상사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③ 고불이 박소리를 핑계로 세상에 나가지 않은 행동을 화자는 기개가 높은 품행으로 여기고 있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다. ⑤ 손은 이 골짜기의 신선이 바로 주인인가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주인의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삶이 신선의 삶과도 같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손이 주인의 삶을 흠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세사’는 세상일을 말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오던 내용을 통해 추리하면 고불이 거부했던 세속적 삶,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러한 세속의 일이 구름처럼 매우 빨리 변하여 예측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중시 급제’는 과거 급제를 말하는 것으로, 당대 선비들의 입신양명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산수 유람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사’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중시 급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산’은 화자가 봄나들이를 가고자 하는 공간으로 자연 친화의 공간이다. ③ ‘승유편’은 자연을 즐기는 일을 기록한 것이므로, ‘세사’와는 오히려 대비된다. ④ ‘창’은 몸이 고단하여 편안한 집에서 쉴 것이라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소재이다. ⑤ ‘양신 미경’은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를 뜻하는 것으로, ‘세사’와 대비되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9.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품 창작 배경과 시상 전개の特徴을 설명한 글이다. 제3수의 종장에는 복건 망혜의 소박한 차림으로 자연을 즐기다 돌아와 승유편을 지어 후세에 남기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므로,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의지적 자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관용어구가 사용되지도 않았다. 제4수의 초장은 벗이 함께 가든 아니든 남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은 봄나들이를 갈 것을 말하는 부분으로, 역시 엄숙한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다)의 시상이 서로 다른 인물의 대화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제1수와 제3수에서는 산수 유람의 약속을 지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화자가 나타나며, 이에 대해 제2수에서는 과거 급제를 이유로, 제4수에서는 고단함을 이유로 산수 유람의 청을 거절하는 친구들이 나타난다. ③ 제1수에서 화자는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데 어쩌리’라고 말하며 산수 유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제5수에서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⑤ 제4수의 중장과 종장은 몸이 고단하여 산수 유람을 거절하고 있는 친구가 편안한 집에서 자식들의 재물을 즐기며 지내는 것이 더 좋을지 말하는 부분이다. 방의 모습, 자식들의 재물을 즐기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50. 비판적 사고(어구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및 정서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신록이 황홀함과 기쁨을 준다고 말한 것이지, 자신이 고고하다고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하지 않았다. ‘고고함’은 세속을 떠난 선골의 자세를 말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신록’이 고고한 속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자리’는 솔밭 사이의 소나무 그루터기로,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명명해 주었다는 진술로 볼 때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홀로 와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자신에게 특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③ ‘기쁨의 노래’는 신록이 가득 한 계절에 글쓴이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비유한 것이다. ④ 2문단에서 글쓴이는 ‘사람 사이에 살고’라고 말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라고 말하고 있다. ⑤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볼 때, 글쓴이가 자연과 동화된 삶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③	06. ②	07. ②	08. ④	09. ①	10. ④
11. ①	12. ⑤	13. ⑤	14. ④	15. ⑤	16. ④	17. ④	18. ③	19. ②	20. ⑤
21. ⑤	22. ④	23. ②	24. ③	25. ①	26. ①	27. ③	28. ⑤	29. ②	30. ④
31. ⑤	32. ②	33. ①	34. ②	35. ③	36. ④	37. ⑤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⑤	43. ④	44. ④	45. ③	46. ④	47. ①	48. ②	49. ③	50. ③

[1-5] 듣기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전통 택견 발표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택견 보유자가 직접 나와서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멋진 모습을 보고 택견에 매력을 느껴 오늘 발표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택견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얼핏 보면 그냥 걷는 것처럼도 보이고 걸음에 율동을 가미한 것처럼도 보입니다. 굼실대거나 우쭐우쭐하면서 한자의 갈지자 형태로 걷는 모습이 무척 경쾌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상하좌우로 휘젓는 모습은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동작과 손동작이 굼실굼실, 능청능청, 우쭐우쭐 부드럽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치솟는 듯한 발차기로 이어질 때에는 보는 사람을 잔뜩 긴장하게 합니다. 택견의 멋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몸놀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실적 사고(핵심 정보를 통한 주제의 도출)

정답해설 : 발표자는 발표 주제가 ‘택견’이라고 말한 후, ‘택견의 움직임은 한마디로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어서 ‘굼실대거나 우쭐우쭐하면서 한자의 갈지자 형태로 걷는 모습’, ‘두 팔을 상하좌우로 휘젓는 모습’, ‘발동작과 손동작이 굼실굼실, 능청능청, 우쭐우쭐 부드럽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다가’, ‘보는 사람을 잔뜩 긴장하게 합니다.’라고 하며 구체적으로 택견의 동작을 소개한 후, ‘택견의 멋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몸놀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표의 주제는 ‘택견 동작의 멋’이라고 한 ②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⑤ 발표의 첫머리의 ‘오랜 시간 수련을 거친 택견 보유자가 직접 나와서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부분에서 택견 보유자가 언급되긴 했지만, 택견 보유자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2.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 너, 미술 과제 다 했니?

여: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찾기 말이야? 응. 마침 내가 읽고 있는 책에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라는 고대 그리스 화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

남: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 어떤 이야기야?

여: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뺐대. 그 소문을 들은 파라시우스가 자신의 실력도 그에 못지않다는 걸 보여 주려고 제옥시스를 초대 했다는 거야.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의 작업실에 가서 제옥시스의 그림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치우려는 순간, 커튼 역시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다는 이야기지.

남: 제옥시스가 파라시우스의 솜씨에 속아 넘어간 거구나. 난 신라 때 화가의 이야기를 찾았어. 너도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황룡사 벽에 소나무 그림을 그렸더니, 술개나 제비, 참새들이 보고 날아들다가 벽화에 부딪혀 떨어지곤 했다는 이야기 말이야. 술거라는 사람의 이야기지.

여: 두 이야기가 비슷한데.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림에 공통점이 있잖아.

2. 추론적 사고(공통점의 추리)

정답해설 : 그림과 관련된 이야기 찾기가 주제인 대화의 일부이다. 여학생은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라는 고대 그리스 화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제옥시스가 포도 그림을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 뺐으며, 파라시우스의 초대에 응한 제옥시스가 그림을 가리고 있던 커튼을 치우려는 순간 그 역시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남학생은 신라 시대의 화가 술거가 황룡사 벽에 그린 소나무 그림이 진짜일 줄 알고 각종 새들이 날아들다가 벽화에 부딪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이야기는 ‘실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에 관한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② 소재가 지닌 특징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림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에 대한 이야기이다. ④ 여학생은 고대 그리스 화가 제옥시스와 파라시우스의 그림을, 남학생은 신라 화가 술거의 그림을 소개하였으므로 동서양의 그림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림에 대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3. 이번에는 교양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표정 관리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표정을 통해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표정을 관리한다는 말은 감정을 드러내거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을 의도적으로 조절한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관계를 함께 분석해 보시죠.

첫 번째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학생은 친구와 화해하기 전의 불편한 감정이 완전히 풀리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을 친구에게 보여 주려고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이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기 위해 환하게 웃고 있군요.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고, 의도한 대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함께 볼까요? 운동 경기에서 힘겹게 승리한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더없이 기쁘고 감격스럽겠지요? 그런데 승부에 진 상대 선수를 배려해서 이 선수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어찌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경우 의도와 표정을 분석해 봅시다.

3. 비판적 사고(자료의 분석)

정답해설 : ‘감정을 표현하려는 의도와 얼굴에 드러난 표정의 관계’를 주제로 한 교양 강연이다. 첫 번째 자료는 친구와 다투었다가 화해하는 학생이 기쁜 표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한 경우를 분석한 내용이다. 이 학생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환하게 웃고 있는데 강연자는 이를 ‘감정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고, 의도한 대로 감정이 표정에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자료에서 이 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하여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상대 선수를 배려하여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의도’하지만 자신의 기쁜 ‘감정’을 자신도 모르게 미소로 표출하고 만다. 그러므로 의도는 기쁜 감정을 숨기려 하는 것이고, 표정은 자신도 모르게 기쁜 감정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④ 표정에는 의도와 다른 감정인 미소가 드러나지만(㉠), 의도는 기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5]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자책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출판 협회에서 김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부장님, 이제는 주변에서 종이책 대신 전자책을 읽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전자책의 출간이 얼마나 늘어났나요?

남: 저희 협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전자책 판매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전자책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저도 출퇴근 때 틈틈이 전자책을 읽습니다. 휴대나 보관이 편리한 것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소설을 읽는데요, 가장 많이 판매된 전자책은 어떤 분야의 책입니까?

남: 남자들은 자기 계발서를, 여자들은 소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분야의 책을 합하면 전체 전자책 매출의 2/3가 넘습니다. 반면 그 밖의 책들은 그리 많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책 출간이 일부 분야에 편중되다 보니 독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 전자책의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쇄하는 데 비용도 들지 않는데 가격은 종이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 그렇습니다. 현재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퍼센트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이책과 달리 재판매와 대여가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책의 가격은 현재보다 더 낮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출판사마다 전자책의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기로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참, 다소 뜻밖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어떤 연령층이 전자책을 가장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 그거야 전자 기기를 잘 다루는 20대가 아닐까요?

남: 재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만, 올해 전자책 시장의 최대 고객층은 30대였고, 두 번째가 40대였습니다. 20대는 그다음이고요. 이 결과는 전자 기기에 친숙한 것과 전자책을 즐겨 읽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여: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출판사마다 전자책의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하나의 기기로 모든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라는 남자의 발언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지만, 이는 전자책의 형식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기기의 종류를 소개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배 이상 전자책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는 남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출퇴근 때 틈틈이 읽을 수 있고, ‘휴대나 보관이 편리한 것이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 여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남자들은 자기 계발서를, 여자들은 소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한 남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전자책 시장의 최대 고객층은 30대이고, 두 번째가 40대, 20대가 그 다음이라고 말한 남자의 마지막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남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전자책 판매가 1.5배 늘었다고 했다. 두 번째 발언에서 남자들이 선호하는 자기 계발서와 여자들이 선호하는 소설이 전체 전자책 판매량의 2/3가 넘는다고 했으며, 세 번째 발언에서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에 이른다고 했고, 이어서 전자책의 최대 고객층이 30대→40대→20대 순이라고 했다. 즉 구체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의 70%에 이르는데, 전자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자 기기를 잘 다루는 20대가 전자책을 가장 많이 읽는 연령층일 거라는 여자의 추측과는 다른 결과를 남자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인 통념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며, 더구나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②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고 있는 쪽은 남자라기보다는 여자이다. ④ 남자는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낯선 개념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남자는 특정 연령대의 전자책 구매 특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특정 인물을 사례로 들지 않았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한 부분도 없다.

[6-12] 쓰기, 어휘 · 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옹기의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글을 쓰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유추해 내는 문제이다. 옹기 제작 과정의 각 단계에 비추어 한 편의 글이 제작되기까지 거쳐야 할 각 단계를 연상해 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보기>의 옹기 제작 과정에서는 ‘다른 자료를 수집하여 생성한 내용을 보완한다’라는 내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보기>에 다른 재질의 흙을 확보하여 이미 있는 옹기 재료를 보완한다는 성격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옹기를 만드는 목적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흙을 골라 채취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글쓰기의 목적에 적합한 글감을 선택한다’라는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③ 흙가래들을 쌓아 올려 서로 연결시키며 각 부분을 잘 연결하여 구조상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짜임새 있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는 글을 쓴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④ 전체적으로 살펴 울퉁불퉁한 곳을 매끄럽게 손질한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여 글을 다듬는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⑤ 다른 사람의 무늬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무늬만을 새겨 넣음으로써 개성을 살린다는 <보기>의 내용에서,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만의 문체를 살린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보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글의 주제와 글의 구성 단계를 고려하여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은 강사의 시범 보이기로 그치는 교육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그대로 두어도 상위 항목 '응급 처치 교육의 문제점'에 어울린다. 또한 'IV-2'는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두어도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에 어울린다. 따라서 상위 항목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위해 ㉠과 'IV-2'를 맞바꿈으로써 기존의 항목 배열에 변화를 주자고 한 ㉡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응급 처치'가 어떤 점에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내용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포괄하기 위해 ㉠을 '응급 처치의 의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III-2'는 '응급 처치 관련 교육 자료의 부족'이라는 문제점에 해당하므로, 'IV(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의 아래에 'III-2'와 대응하는 '응급 처치 교육 자료 확보 및 활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한 것은 적절하다. ④ '감염 방지를 위한 위생 교육 강화'는 상위 항목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방안'과 무관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글을 매듭짓는 단계에서 이전의 내용을 강조하는 '응급 처치 교육 활성화 촉구'로 ㉡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8. 비판적 사고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교내 학생 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에는 학생의 주된 고민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나)에는 학생들이 선호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담자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④의 경우, 이 두 자료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인식한다는 내용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는 친구를 가장 선호하는 상담자로 제시하고 있는 (나)의 자료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방안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학생들의 고민 내용이 학업-진로-외모 등의 순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학생들이 주로 고민하는 내용이 학업이나 진로라는 해석을 이끌어낸 ①은 적절하다. ② (나)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가 친구-선배-교사 순으로 제시되어 있고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상담자가 교사-선배-친구 순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자와 도움이 되는 상담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해석을 이끌어 낸 것은 적절하다. ③ (다)의 첫 번째 자료에서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상담이 일회적인 상담보다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있으므로, 이 자료를 지속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밝히는 데 활용하자고 한 방안은 적절하다. ⑤ (가)의 자료에서는 학업에 관해 고민하는 학생이 가장 많다는 내용을, (나)의 두 번째 자료에서는 선배가 학습 동기와 학습 방법에 관한 좋은 상담자라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글은 청산도, 그 중에서도 청산도의 구들장 논과 돌담길을 여행한 소감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제목인 ‘㉠ 청산도의 바다’는 글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나, ①과 같이 ‘청산도의 돌담’으로 바꾸어도 글 전체의 내용이 포괄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에서는 ‘구들장 논’을 ‘먼저’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상서리 돌담길’을 둘러보기로 했다는, 글쓴이의 여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의 둘째 문단은 상서리의 돌담길을, 셋째 문단은 구들장 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의 여정을 고려한다면, 두 문단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은 2문단에 포함된 문장이다. 문단이 바뀌는 것으로 혼동할 수 있으나,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의 내용은 상서리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에 관한 것인데, 이는 상서리 돌담길에 대한 문단의 중심 내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의 ‘돌로 평평하게 만든 바닥 위에’는 이전에 제시된 정보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므로, 반복되는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를 활용하여 ‘그 위에’로 간결하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의 서술어 ‘곳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없으므로, ‘청산도는’이라는 주어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구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내용상 친구의 행위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하며, 표현상 역설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④는 ‘~ 당신도 함께 하세요’라는 구절이 내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과거 속에 존재합니다’라는 구절이 표현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과거는 미래 속에 존재하고’라는 구절은 논리나 일상적인 어법으로는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와의 관계 속에서 과거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설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이지 않는 세상도 볼 수 있다’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지만, 내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② ‘우리도 힘을 보탬시다’가 내용 조건을 충족하나,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⑤ ‘당신이 돕는다면’에서 내용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역설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11. 어휘 · 어법 (준말의 용법 이해)

정답해설 : ‘파이다’는 ‘ㅏ’로 끝난 어간에 ‘-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보기>의 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명에 따라 ‘꽤다’와 같이 ‘ㄷ’로 줄여 적는 것이 적절하다. 같은 이유로 ‘파인’도 ‘팬’으로 적어야 한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꽤다’에서와 같은 ‘ㄷ’ 다음에 ‘-었-’이 결합하여 줄 경우 준 대로 적는다고 하였으므로, ‘꽤었다’를 준 대로 적은 것이 ‘꽤다’가 된다. 따라서 ‘꽤다’가 줄기 이전의 본말은 ‘꽤었다’이다. 정답 ①

12. 어휘·어법 (관용 표현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⑤의 ‘혀를 내두르다’는 ‘깜짝 놀라다’의 의미에 가까우며, ‘안쓰러워하다’의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혀를 내두르다’는 ‘몹시 놀라거나 어이없어서 말을 못하다.’의 의미이며, ‘안쓰러워하다.’는 ‘손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형편을 마음에 언짢고 가엾게 여기다’의 의미이다. 정답 ⑤

[오답파하기] ③ ‘발을 구르다’는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를 뜻한다. ④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손’과 동작의 특징을 나타내는 ‘재다(동작이 재빠르다.)’가 결합한 관용 표현 ‘손이 재다’는 ‘일 처리가 빠르다’는 뜻이다.

[13-16] 인문, ‘공자가 제안한 군자에 의한 정치’

지문해설 : 이 글은 공자가 제안한 예에 기반을 둔 정치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글로, ‘예’, ‘정명’, ‘군자’, ‘소인’, ‘성인’ 등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유학적 정치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를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공자는 군자를 정치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군자는 도덕적 수양과 실천을 통해 예를 행함으로써 백성들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존재이다. 또한 군자는 도덕적 본성을 완성한 인격자인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는 도덕적 수양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공자의 정치 제도는 춘추 시대라는 혼란한 사회를 도덕적 본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주제] 도덕적 수양을 실천하는 군자에 의한 정치

1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을 보면 정치에 있어서의 법과 형벌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만약 정치가 법과 형벌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강압적인 것으로 단지 형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지킬 뿐 도덕적 삶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이나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회적 관계에 적합한 도리를 행하고 있는지, 도덕적 규범으로서의 예를 실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법과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파하기] ① 1문단에 제후국들이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일삼던 시기라는 진술이 나온다. ② 4문단에서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면서 예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3문단에서 제시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극복하여 군자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예의 실천, 도덕적 수양 등의 유학적 정치 이념을 제시한 것이다. ③ 2문단에서 정명을 실천할 주체로서의 군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군자는 도덕적 수양을 할 뿐만 아니라 독서나 육예의 수련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14. 사실적 사고(개념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예’가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처지에서 자신의 도리를 행하는 정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각각의 역할에 맞는 도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군주는 군주의 예를, 신하는 신하의 예를, 부모와 자식 역시 각각 그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예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예는 신분적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각각의 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분적 평등 관계를 추구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 마지막에 진술되어 있다. ② 1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 춘추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제시하고 있다. ③ 1문단 세 번째 문장에 진술되어 있다. ⑤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예는 도덕적 본성을 규범화한 개인의 윤리 규범이기 때문에 사회 내의 모든 계층이나 개인은 그러한 도덕성을 요구받게 된다.

15.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의미 추리)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이어 5문단에서 군자의 요건으로 도덕적 수양과 학문적 소양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소인도 군자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얼마든지 군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ㄷ) 6문단에서 ‘성인’은 도덕적 수양이 더 필요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격자이며 군자는 수양을 통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덕적 본성을 완성하면 ‘성인’이며 아직 완성하지 못한 채 노력하는 존재는 군자라고 할 수 있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ㄱ.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는 존재는 ‘성인’이다. ㄴ. 완전한 인격체이며 유학에서 목표로 하는 대상은 ‘성인’이다.

16. 어휘 어법(문맥에 적절한 한자어의 파악)

정답해설 :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과 욕망에만 정신이 쏠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사로잡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곳으로 쏠리게 되다’의 의미이다. ‘매수’는 ‘금품이나 그 밖의 수단으로 남의 마음을 사서 자기편으로 만드는 일’의 의미로 사리사욕에 마음이 쏠린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합당’은 ‘어떤 기준, 조건, 용도, 도리 따위에 꼭 알맞음’을 의미한다. ② ‘의거’는 ‘어떤 힘을 빌려 의지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③ ‘지칭’은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는 일’의 의미이다. 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의 의미이다.

[17-19] 기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소개하고 있다.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은 감광 물질, 마스크, 레이저 빛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기판 위에 같은 모양의 패턴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은 빛을 받으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감광 물질을 반도체 기판 위에 바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판에 감광 물질을 바른 후에는 패턴이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감광 물질 위에 놓고 빛을 쏘여 준다. 그러면 빛을 받은 부분의 감광 물질만 화학적 성질이 변하게 된다. 그런 다음 현상액으로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마스크와 동일한 패턴이 반도체 기판 위에 만들어지게 된다. 반도체 기판의 집적도는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많이 만들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주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1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마스크 위에 빛을 쏘이면 마스크의 패턴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그림자가 반도체 기판 위의 감광 물질에 드리우게 되고, 마지막 공정에서 감광 물질을 제거하면 반도체 기판에는 마스크에 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마스크에 새겨진 패턴의 크기는 기판 위에 만들어지는 패턴의 크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파하기] ① 1문단에서 반도체 소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마스크라는 하나의 원판을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든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관화의 원판은 조각칼을 이용하여 만드는 데 비해, 포토리소그래피의 경우 마스크 패턴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짧은 파장의 광원에 반응하는 새로운 감광 물질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을 통해 빛의 파장에 따라 쓰이는 감광 물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보기>는 양성 감광 물질과 음성 감광 물질을 사용하여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두 번 수행하고 있다. 양성 감광 물질은 빛을 받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이고, 음성 감광 물질은 반대로 빛을 받지 않은 부분만을 현상액으로 제거할 때 사용하는 감광 물질이다. 사용된 감광 물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첫 번째 공정은 양성 감광 물질 위에 가운데 부분에만 넓게 패턴이 있는 마스크 A를 놓는 것이므로, 공정이 끝나면 ②의 그림과 같이 빛을 받지 않은 가운데 부분만 남고, 빛을 받은 양쪽 부분은 제거된다. 두 번째 공정은 첫 번째 공정에서 만들어진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반도체 기판 ②에 음성 감광 물질을 바른 후 그 위에 가운데 부분에만 좁게 패턴이 있는 마스크 B를 놓는 것이므로, 공정이 끝나면 빛을 받지 않은 가운데 부분만 사라지고, 빛을 받은 나머지 부분은 남게 된다. 따라서 <보기>의 두 공정을 모두 수행하고 나면, ③의 그림과 같이 반도체 기판 위에 바깥쪽의 양측과 가운데 부분만 제거된 패턴이 형성되게 된다. 정답 ③

19.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패턴의 크기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작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짧은 파장의 광원을 포토리소그래피에 이용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패턴의 크기를 줄여서 반도체 소자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감광 물질 없이 패턴을 만들 수 없다. ③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하나의 마스크 원판은 반도체 소자의 기판 위에 같은 모양의 패턴을 반복 복사하여 패턴을 대량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것으로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20-23]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

작품해설 : 봉건 사회를 배경으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다. 소재의 현실성, 배경의 향토성, 인물 성격의 창조성, 주제의 저항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문 소설의 백미(白眉)로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표면적으로는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을 그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20. 비판적 사고(서술상 특징의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부분에서는 서술보다는 인물 간의 대화가 중심적이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춘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있으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춘향의 말을 통해서 이몽룡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자신이 죽은 이후에 소망하는 것 등이 드러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춘향의 꿈은 춘향의 간절한 소망을 제시한 것으로 환상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제시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내용이다. ②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을 희화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 이몽룡이 자신을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마저 무너져 버린 춘향의 내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④ 우의적이란 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한다는 의미로, 제시된 부분에서 우의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소재도 등장하지 않는다.

21. 추론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춘향이 이몽룡에 대한 정절을 지킨 것은 당대 사회의 강요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춘향의 주체적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선산(先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으로,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자신의 시신을 ‘선산(先山)발치’에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춘향의 말로 보면 ㉠은 춘향이 죽어서라도 신분 상승을 이루겠다는 욕망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을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 의식이 투영된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제시문의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이란 표현을 통해 ㉠이 둘의 사랑이 싹튼, 추억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은 둘의 사랑이 싹튼 추억의 공간이므로, 춘향에게는 ‘나(춘향)의 혼백 위로하여’ 줄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곳에서 이몽룡에게 자신을 손수 염습하여 묻어 달라고 했으므로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④ 춘향은 이몽룡에게 ‘서방님 귀히 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일시도 둘라 말고’ 자신을 ㉠에 묻고, 자신의 묘에 ‘정절을 지키다 원통하게 죽은 춘향의 묘’라 새겨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은 정절을 지키다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공간이자, 이몽룡에 대한 정절의 보상으로 죽어서라도 신분 상승을 이뤄 내고 싶은 춘향의 욕망이 투영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22.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D]의 발화가 나타난 맥락을 볼 때, 춘향이는 옥에 갇혀서도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고 금의환향하여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한 딸의 바람과는 달리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에 대해 춘향 모친은 [D]를 통해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D]는 언어유희를 이용해 이몽룡을 비꼬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사또는 춘향 모친에게 말을 낮추고 있다. ②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몽룡의 목소리가 들리자 춘향이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있는 표현이다. ③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향이 자신의 모친을 염려하고 있는 표현이다. ⑤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오?’라는 말에서 어사또에 대한 믿음보다는 거지꼴로 돌아온 이몽룡에 대한 충격과 실망을 드러내고 있으며, 자문자답을 하고 있지도 않다.

23.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의 상황을 표현하기에는 ‘자나 깨나 잊지 못하다’라는 뜻의 ‘오매불망(寤寐不忘)’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寐不忘)’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병상련’은 같은 병자(病者)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處地)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同情)하고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③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이다. ④ ‘조변석개’는 일을 자주 뜯어고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⑤ ‘풍수지탄’은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24-26] 언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지문해설 :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과 그 과정을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을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라고 한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은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필요에 의해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를 만들겠다고 결정한다. 둘째, 수많은 단어 가운데 근거로 이용할 만한 단어들을 찾는다. 셋째, 수집한 단어들과 만들려는 단어의 개념과 형식을 비교하여 공통성을 포착하고, 이 때 근거로 삼을 단어를 확정한다. 넷째, 근거로 삼은 단어의 개념과 형식 관계를 적용해서 단어 형성을 완료한다.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므로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주제]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과 그 과정

24.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위 글은 단어 형성 방식 중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위 글을 통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 이외의 단어 형성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이란 기존 단어의 유사한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② 1문단의 ‘잉어빵’이나 3문단의 ‘종이공’은 유추에 의해 형성된 단어이다. ④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유추에 의한 단어의 형성은 필요에 의해 기존 단어를 본떠서 단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단어의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는 이론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⑤ 2문단에서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3문단에서 ‘종이공’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결혼반지’의 경우 반지 앞에 오는 말이 반지의 사용 목적인 반면, ‘금반지’는 반지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금반지’를 근거로 삼아 ‘수정으로 만든 반지’를 의미하는 ‘수정반지’라는 새로운 단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가 형성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닷물’의 경우 물 앞에 오는 말이 물이 흐르는 장소인 반면, ‘설탕물’은 물에 탄 재료이다. 그러므로 ‘인삼 가루를 탄 물’을 의미하는 ‘인삼물’은 ‘설탕물’을 근거로 형성된 단어이다.

③ ‘생일떡’의 경우 떡 앞에 오는 말이 떡의 사용 목적인 반면, ‘호박떡’은 떡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회갑을 기념하는 떡’을 의미하는 ‘회갑떡’은 ‘생일떡’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④ ‘겨울옷’의 경우 옷 앞에 오는 말이 옷을 입는 시기(계절)인 반면, ‘비단옷’은 옷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비닐로 만든 옷’을 의미하는 ‘비닐옷’은 ‘비단옷’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⑤ ‘유리잔’의 경우 잔 앞에 오는 말이 잔의 재료인 반면, ‘우유잔’은 잔의 용도이다. 그러므로 ‘돌로 만든 잔’을 의미하는 ‘돌잔’은 ‘유리잔’을 근거로 삼아 형성된 단어이다.

26. 추론적 사고(핵심 내용의 이해와 적용)

정답해설 : 2문단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새로 형성된 단어는 처음에는 신어(新語)로 다루어지지만, 이후에 널리 쓰이게 되면 국어사전에 등재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언중들은 ‘맑은탕’을 ‘싱건탕’보다 많이 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언중들이 많이 쓰는, 즉 널리 쓰이는 ‘맑은탕’이 ‘싱건탕’보다 사전에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싱건김치’는 국물이 맑은 김치이다. ‘싱건탕’ 또한 고춧가루를 넣지 않은 맑은 탕을 뜻하는 말로 일부에서 제안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둘 모두 국물이 맑다는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맑은탕’은 국물이 맑다는 점에 착안해서 ‘맑은국’에서 유추한 단어이다. ④ ‘싱건탕’은 ‘싱건김치’에서, ‘맑은탕’은 ‘맑은국’에서 유추한 단어들이다. ⑤ 언중들은 ‘싱겁다’라는 의미에 주목하여 ‘싱건탕’을 ‘맛이 짜지 않은 탕’으로 생각했다.

[27-30] 현대시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작품해설 : 이 시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갈등과 이상향에 대한 내적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제1연에서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 '방'에 누웠으나 자신의 '백골'이 따라와 함께 누워있다고 생각한다.

제2연에서 '어둔 방'은 고독하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열린 세계인 '우주'로 통하고 있으며 화자는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한다.

제3연에서는 자아가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현실적 자아('백골')와 역사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고민하는 이상적 자아('아름다운 혼')가 갈등을 일으킨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제4연에서 자아가 분열되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들려 온 '지조 높은 개'는 나약한 현실적 자아를 꾸짖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제5연에서 '어둠을 짓는(짓는)' 소리를 통해 진정한 '나'의 삶을 다짐하게 된다.

제6연에서는 '백골'을 떠나 새로운 이상 세계로 나아가려는 화자의 모습이 '가자'라는 청유문의 반복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의 정체성 회복과 자아분열의 극복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자아의 성찰을 통해 드러난 이상 세계에 대한 갈망

(나) 오세영, 「자화상·2」

작품해설 : 까마귀를 통해 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태도와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21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의미상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2행에서는 '까마귀'와 '까치'가 다름을 언급하고, 이어서 3~6행에서는 의연하면서도 고고한 까마귀의 모습을 통해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어서 7~11행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얼어붙은 지상'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굶어 죽더라도 '까치'같은 삶은 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2~16행에서는 '눈'이 내려 '저마다 하얗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허위 속에 덮여 있지만, 자신은 까마귀처럼 철저하게 본질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17~21행에서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검은 까마귀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시인인 화자는 검은 까마귀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성찰해보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직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제] 삶에 대한 성찰과 바람직한 삶의 다짐

(다) 김기택, 「멸치」

작품해설 : 생명의 소중함과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21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4행에서는 생명력을 잃기 전의 '딱딱한 멸치'가 본래 '물결'이었다고 말하며 생명력이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다니던 멸치의 본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5~13행에서는 멸치의 생명력을 뺏은 부정적인 힘을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으로 표상하고 있으며, 멸치의 생명력이 박탈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4~21행에서는 화자의 상상력을 통해 멸치의 본래적 생명력을 추측하고 있다. '딱딱한 멸치'의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상상하며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해서 반생명성과 폭력성을 의미하는 '고깃배'와 '그물'을 부수고 찢었던 것을 상상하며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생명 회복의 의지

27.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백골'이 있는 '어둔 방'과 '아름다운 혼'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지향하는 ‘또 다른 고향’의 공간 대비를 통해, (나)는 ‘까치’가 넘보는 ‘인가의 안마당’과 ‘까마귀’가 응시하는 ‘먼 지평선’의 공간 대비를 통해, (다)는 멸치가 생명력을 잃은 공간인 ‘건어물집’과 생명력이 있는 ‘바다’의 공간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영탄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② (가)의 ‘가자 가자’와 (다)의 ‘~것이다.’ 같은 시어의 반복은 있지만, (가),(나),(다) 모두 시행의 반복은 없다. ④ (가), (나), (다) 모두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다)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았다.

28. 추론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가)의 ‘방’은 현실 상황에 안주하려는 현실적 자아(‘백골’)와 함께 있는 곳이다. 즉, 부정적 자아를 발견하는 공간이므로 화자의 어두운 내면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나)의 ‘먼 지평선’은 까마귀가 응시하는 공간으로, 까치가 넘보는 ‘인가의 안마당’과 대비되는 공간이므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백골’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부정적 자아이며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화자의 내면 성찰이므로, ‘들여다보며’에서는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조 높은 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무력한 생활을 하는 ‘나’를 일깨우는 존재로,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한다. ③ (나)에서 ‘까마귀’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투영된 존재이므로, ‘형형한 눈’에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릴 수 있다. ④ (나)의 2행에서 ‘까마귀’와 ‘까치’가 다름을 말하고 있으며, 11행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9.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나)의 ‘눈’은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을 하게 한다. 이는 저마다의 본질을 가리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화자는 자신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까마귀’를 통해 투영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검어라.’를 통해 ‘눈’ 때문에 하얗게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눈’에서는 충만한 느낌을 얻을 수 없고, 화자는 ‘눈’으로 분장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삶이라 보는 것도 옳지 않다.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 화자의 순결한 정신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④ ‘눈은 내려’ 부분까지 의미를 확장하면 하강 이미지가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⑤ 화자는 ‘눈’이 내려 분장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30.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다) 시의 흐름으로 보아 [D]에서 화자는 상상력을 통해 멸치의 본래적 생명력을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D]가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는 멸치가 생명력을 잃기 전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바닷속을 유유히 흘러다니는 멸치의 자유로운 모습과 분위기가 나타나 있다. ② [B]의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은 멸치를 바다에서 끌어내 생명성을 잃게 하는 존재이므로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C]는 멸치가 잡혀서 생명력을 잃고 반찬으로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⑤ [E]는 멸치가 본래 지녔던 강인한 생명력을 환기하며, 그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31-34] 사회, ‘시대에 따른 놀이의 성격 변화’

지문해설 : 이 글은 시대가 지닌 특성에 따라 놀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글이다. 신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사회에서 놀이는 제의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며 연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는 생산성 극대화, 이익의 획득 등이 중시되면서 놀이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상품 소비를 통한 또 다른 이익 획득의 기회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놀이의 성격 변화는 놀이를 즐기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와 구경이나 소비 위주의 놀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던 것이 디지털 혁명을 겪으면서 자발적 참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마침 인터넷이 가진 쌍방향성이 이러한 놀이를 가능하게 하면서 참여자들 사이의 연대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놀이의 성격 변화를 보여주며 자본주의 사회의 놀이와 인터넷 시대의 놀이 방식의 차이를 대비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주제] 시대가 지닌 특성에 따른 놀이의 성격 및 방식의 변화

31. 사실적 사고(전개 방식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고대인에게 있어서의 놀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놀이, 디지털 혁명 이후 인터넷 시대의 놀이를 시대의 변화에 대한 서술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놀이’라는 중심 화제에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는 글로, 두 개념의 장단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필자의 관점만 제시될 뿐 다른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시대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놀이의 성격을 설명한 글로 경험적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3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고대 사회에서의 희생 제의는 자연을 훼손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으로, 이는 인간이 자신에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 훼손한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돌리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제의를 올리며 놀이를 즐겼다.'라는 진술이 있다. ③ 2문단 중간 이후를 보면 '휴식 시간마저도 대부분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진술이 나온다. ④ 3문단 첫 문장에 나와 있다. ⑤ 4문단의 셋째, 넷째 문장에 진술되어 있다.

3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 해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놀이를 즐기는 상황이다. 축구 경기 동영상 보는 것이기에 구경꾼의 입장으로 수동적 소비를 하는 경우이다. 쌍방향적 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도 해야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생산성 향상이나 이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회사가 근무 중의 개인의 놀이를 허용하는 것은 이 놀이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③ 축구에 직접 참가한 사례이다. ④ 경기장에 가기는 했으나 축구를 구경하는 것이기에 구경꾼의 입장이다. ⑤ 인터넷은 쌍방향 활동이 가능하기에 참여자들 사이의 연대감이 형성된다.

34. 어휘 어법(다의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바로'는 '다름이 아니라 곧'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앞의 단어를 받아 이를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쓰는 경우에 사용하기에 ②의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나라의 미래이다.'에서 '바로'와 동일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곧'의 의미이다. ③ '사리나 원리,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게'의 의미이다. ④ '도리, 법칙, 규정, 규격 따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의 의미이다. ⑤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의 의미이다.

[35-39] 갈래 복합

(가) 박인로(1561-1642), '누항사(陋巷詞)'

작품해설 : 조선 중기의 가사 작품이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 이전과 달라진 양반 사대부의 궁핍해진 삶의 실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누추한 거리(陋巷)'에서 겪고 있는 사대부의 삶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전기의 삶의 방식이 붕괴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삶의 모습이 좌우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대부로서의 권위도 보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을 통해, 양쪽 모두에서 소외된 양반 계층의 갈등과 괴로움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가난한 처지에 대해 진솔한 감정을 고백하면서도 대자연에 과묵히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며, 충효와 신의, 우애 등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시에 사대부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궁핍한 현실에 대한 어려움과 안빈낙도의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주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安貧樂道)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궁핍한 생활상

(나) 권구(1672-1749), ‘병산육곡(屏山六曲)’

작품해설 : 조선 후기 권구(1672-1749)가 지은 6수의 연시조 작품 가운데 제2수와 제4수이다. 작자인 권구의 고향 마을인 경상북도 안동의 풍천면 병산리에서 작품의 제목을 따왔다. 이 작품은 세상사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의 안분지족(安分知足)하겠다는 사대부의 삶을 그리고 있다. 퇴계 이황의 <도산육곡(陶山六曲)> 등 육가계(六歌系) 시조의 맥을 잇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安分知足)하고자 하는 사대부의 삶

(다) 김용준(1904-1967), ‘조어삼매(釣魚三昧)’

작품해설 : 1948년 『근원수필』에 수록된 수필 작품이다. 지은이가 낚싯대를 들고 나가 낚시를 하면서 일어난 일을 서술하고 있다. 해방 이후라는 혼란한 시대에 불안정한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괴로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현실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시선은 매우 직선적이고 예리하면서도 마음 속 울분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선비정신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의 말미에 ‘현명한 신사 잉어’ 등을 언급한 것은 맑고 고결하며 품격 있는 정신을 지향하는 작가의 내면 세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괴로움

35.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다)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인 ‘개구리’와 ‘방계’, ‘망둥이’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아무리 내 채주가 서툴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짝 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라는 표현에서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파하기]

- ① (가)에서는 풍자의 기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대상을 조롱하는 장면도 없다.
- ② (나)에서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는 내용은 작품의 실상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에서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와 서러운 정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두 작품이 선경후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두 작품 모두 삶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⑤ (나)와 (다)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 않다. 화자나 지은이의 감정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36. 비판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풍월강산’과 (나)의 ‘세간’은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다. 풍월강산이 세간(속세)과 대비되는 자연의 공간이라면, 세간은 세상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살아가는 현실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월강산과 세간이 모두 풍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먹을 것이 있어봤자 ‘죽’밖에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화자의 궁핍한 생활을 엿볼 수 있다. 겨우 ‘죽’을 먹거나 그도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궁핍한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 ② ‘무심한 백구’는 사심이 없는, 순진무구한 자연물의 표상이다. 흔히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무심’이라는 표현은 ‘무관심’이 아니라 사심이 없는 ‘순진무구함’을 일컫는다. ‘백구’는 순진무구한 존재를 표상한다.
- ③ ‘잉어’는 ‘개구리’나 ‘방개’, ‘망둥이’ 등과 대비되는 대상으로 고상하면서도 순결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날짐승이 의지할 곳을 잃은 상황에 번민하며, (다)의 화자는 자꾸만 들려오는 세간의 시비 소리에 번민한다.

37. 추론적 사고(작품의 서술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실제 역사 속 인물의 구체적 삶을 통해 인간의 삶은 누구나 공평한 것이어서 가난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백년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원헌’과 ‘석송’ 등의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상황으로 전환하고 있지는 않다. “~백년 살라.”와 같은 설의적 표현과 “~ 몇 해 살았나.”와 같은 의문형 표기만으로 대화상황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② <보기>의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공간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보기>의 내용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질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단서라고 하기에는 상황과 맥락에 적절하지 않고, 또한 인물간의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38.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 의 중장, “백구(白鷗)로 벗을 삼아 어조생애(漁釣生涯) 늘거가니”라는 표현은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니다. 자연과의 일체감은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천심절벽’을 통해 수직적 이미지를, ‘일대장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 수평적 이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미지를 제시하면서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③ 텅 빈 산중 떠가는 달의 형상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과 청각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④ “낙화광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라는 표현을 통해 드세게 불어대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세차게 흔들리고 꽃이 지는 형상을 제시하면서 어떤 나뭇가지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두견새의 처지를, “어느 가지 의지하리(의지할 곳이 없다.)”와 같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했다.

⑤ [B] 와 [C] 의 종장에서는 각각 “나는”과 “내곳” 등과 같이 화자가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다)의 화자는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꿈쩍달삭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와 같은 표현을 통해 세상에 대해 분노와 고뇌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반면 <보기>의 ‘어옹’은 그림의 제목인 ‘차가운 바위에서 물고기 낚시를 함’에서도 드러나듯, 세상사를 넘어서 홀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즐기며,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의 화자가 고기잡이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답답하고 비분강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낚시를 하는 것이지, 생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

③ (다)의 화자는 고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기>의 어옹 또한 물고기를 잡으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④ (다)의 화자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대상황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고, <보기>의 ‘어옹’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⑤ (다)의 화자와 <보기>의 ‘어옹’ 모두 자연 속에서 함께 풍류를 즐길 ‘벗’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40-43] 예술, ‘바실리카식 성당’

지문해설 : 바실리카식 성당의 구조를 설명하고,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4세기 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부분적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 시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평면은 초기에는 동서 방향으로 긴 직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바실리카식 성당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나르텍스로부터 네이브와 아일을 거쳐 앱스에 이르는 공간은 세속에서 신의 영역에 이르기까지의 위계를 보여 준다. 이후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적 공간인 트란셉트가 추가되어 열십자 모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양의 건물이 되었다. 바실리카식 성당은 외부에서 보면 기둥이나 창 등을 통해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 이는 신에 가까이 가려는 인간의 욕망이 표현된 것이다. 이처럼 바실리카식 성당은 기능적 공간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미의식을 표현한 종합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제] 바실리카식 성당의 구조와 종합예술로서의 성격

40.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바실리카 형식은 평면도상 긴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원래 시장이나 채판소와 같은 공공 건축물에 쓰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바실리카식 성당이 종교적 기능을 가진 로마 시대 건축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서양 건축 예술의 역사는 성당 건축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4세기경부터 출현한 바실리카식 성당은 이후 평면 형태의 부분적 변화를 겪었다. ④ 3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성직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었고, 이때부터 건물은 더욱 웅대하고 화려해졌다. ⑤ 4문단을 보면, 실내의 벽과 천장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 등을 담은 그림을 채워 넣었다고 하였다.

4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종교 의식이 확대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되었다고 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을 보면, 출입구와 현관이 있는 곳은 나르텍스이다. ② 2문단을 보면, 일반 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곳은 네이브이다. ④ 2문단을 보면, 복도로 활용되는 곳은 네이브 양 옆에 붙어 있는 아일이다. ⑤ 2문단을 보면, 신성한 제단이 있고 오직 성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앱스이다.

42.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파르테논 신전을, 위 글은 바실리카식 성당을 설명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간을 미의 원천으로 인식했는데, 이러한 미의식이 파르테논 신전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4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의 중세인들은 모든 미의 원천을 신이라고 보고 빛은 신의 속성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의식이 바실리카식 성당의 공간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파르테논 신전은 지붕에 신들의 조각을 새겨 넣었고, 바실리카식 성당 또한 출입구 쪽의 외벽과 기둥에 신이나 성인의 모습을 새겨 넣었다(4문단). ② 파르테논 신전은 수평선을 강조한 인상을 준 반면, 바실리카식 성당은 하늘을 향한 수직선이 강조된 인상을 준다(4문단). ③ 파르테논 신전은 건물 외부가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는 반면, 바실리카식 성당은 창을 통과한 빛이 다양한 색채로 건물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내부 공간에 퍼지도록 하였다(4문단). ④ 평면의 형태가 열십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트란셉트라는 공간이 추가된 바실리카식 성당이다(3문단).

43. 어휘(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해설: ‘위계’는 ‘위치나 지위의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편, ‘위엄’은 ‘존경할 만한 위세가 있어 점잖고 엄숙한 태도나 기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답 ④

[44-46] 과학,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기체의 운동과 관련된 맥스웰의 이론을 설명한 후에, 그것을 입증한 밀러와 쿠퍼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기체 분자는 다른 분자들과 매우 많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체 분자들이 갖는 다양한 속력 분포는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맥스웰은 기체의 속력은 온도와 분자의 질량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질량이 적을수록 기체 분자의 속력이 빨라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속력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분자 수 비율과 속력을 기준으로 한 그래프를 고안하였다. 밀러와 쿠퍼는 기체 분자들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실험 장치를 고안했는데, 이 실험 장치는 작은 틈이 있는 두 개의 원판을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하면서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기체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밀러와 쿠퍼는 이 실험에서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주제]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과 그것을 입증한 밀러와 쿠퍼의 실험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분자들이 충돌하게 되면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변할 수 있지만, 분자들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기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파하기] ① 1문단에서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 기체 분자의 속력이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기체 분자가 충돌하면 그 운동 방향과 속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자 하나의 정확한 운동 궤적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기체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가 충분히 먼 경우에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기체 분자들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모든 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설명된 기체 분자의 속력 분포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기체 분자의 속력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질량이 적을수록 빨라진다. 또한 기체 분자들의 속력이 빨라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납작해지고 넓어지며, 속력이 느려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뾰족해지고 좁아진다. 이를 <보기>에 적용해 보면, 질량이 가벼운 아르곤 분자는 크립톤 분자보다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은 727℃의 아르곤이 25℃의 아르곤보다 분자의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기체 분자의 속력은 727℃의 아르곤 > 25℃의 아르곤 > 크립톤 순으로 빠르기 때문에 가장 빠른 727℃의 아르곤은 가장 납작한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C, 25℃의 아르곤은 중간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B, 가장 느린 크립톤은 가장 뾰족한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A와 같은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46.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밀러와 쿠퍼의 실험 장치에서는 앞뒤로 두 개의 원판을 사용하는데, 두 번째 원판은 첫 번째 원판에 있는 틈과의 각도를 달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마지막 문단 ‘만일 첫 번째와 두 번째 틈 사이의 각도를 더 크게 만들면, 같은 회전 속력에서도 더 속력이 느린 분자들이 검출될 것이다.’에 설명된 바처럼, 두 회전 원판의 틈과 틈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 더 느린 분자들이 검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밀러와 쿠퍼의 실험은 기체 분자가 각기 다양한 속력을 갖는다는 맥스웰의 속력 분포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② 실험 장치는 첫 번째 원판에 입사된 기체 분자들 중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 것만 검출기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③ 첫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한 분자들의 속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한 속력 구간을 가진 분자들만 검출하기 위해 두 번째 원판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틈과 틈 사이의 각도를 고정하고 원판의 회전 속력을 느리게 하면 첫 번째 원판을 통과한 기체 분자들 중 느리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들만 두 번째 원판의 틈을 통과할 수 있게 된다.

[47-50] 현대 소설 - 김동리, ‘역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48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이다. ‘역마’는 ‘역마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만 하는 액운을 말한다. 이 작품에는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가 담겨 있다. 성기의 역마살은 외할아버지인 채 장수 영감과 아버지인 떠도는 중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성기의 엄마인 옥화는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동생인 계연과 아들인 성기를 이어 주는 일음을 깨닫고 계연을 떠나 보낸다. 옛 장수가 되어 휘파람을 불며 길을 떠나는 성기의 모습에서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편안함이 엿보인다. 이러한 성기의 삶은 운명을 극복하지 못한 패배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조화를 이룬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주제] 한국적 운명관에 순응하는 삶과 인간 구원의 문제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부터 이어지는 부분은 과거 장면이 삽입된 부분으로 사건의 요약적 서술과 옥화의 말을 통해 채 장수 영감과 옥화, 그리고 계연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동일한 공간을 배경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③ 옥화가 성기에게 그간의 숨겨진 사연을 말해 주는 부분에서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드러나긴 하지만,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④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이다. ⑤ 서술 속에 인물의 말이 문장 부호 없이 인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등장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독백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48. 비판적 사고(시점)

정답해설 : <보기>의 (가)는 작가를 대리하는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에 대해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나)는 작품 속 인물인 옥화가 자신에 대해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따라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된다면, ㉠에서 ‘어미’는 옥화 자신이므로 ‘나’로 서술되고,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은 그대로 표현되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④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나의 뼈만 남은 손’으로 쓰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며, ③과 ⑤는 1인칭 주인공인 옥화의 말이므로 ‘나는’으로 써야할 것을 ‘옥화는’, ‘엄마는’ 등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9.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⑥의 ‘유달리 맑게 갠’ ‘햇빛’과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우는 ‘뼈꾸기’는 계절적 변화를 알려 줌과 동시에,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함으로써 성기의 절망적인 심리가 변화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고운 햇빛’은 ‘저만치 가고 있는 향라 적삼’으로 표현된 계연을 잡지 못하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는 성기의 안타까움을 대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② ㉠의 ‘거의 울음이 다 된’ 계연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뼈꾸기 울음’과 어우러져 성기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④ ⑥의 ‘뼈꾸기’와 ‘화개 장터’가 시대적 상황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제시된 부분에는 작품의 배경이 된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⑥의 ‘또다시’ ‘햇빛이 젖어 흐르는’ ‘늘어진 버들가지’는 성기의 내적 갈등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50.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ㄱ에 따르면 전통적인 인물은 운명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이다. ㄴ에 따르면 현대인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존재이다. 대비적인 두 관점 중 ‘ㄴ에 따’라 「역마」의 인물들을 해석할 경우 ‘성기를 떠난 계연은

2013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③)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ㄱ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므로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② ㄱ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세상과 조화되는 것이므로 성기의 행동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다. ④ ㄴ에 따르면 「역마」의 인물들은 비합리적인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옥화가 명도의 말에 따르는 것이다. ⑤ ㄴ에 따르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운명에 따라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③ 03. ②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③ 09. ④ 10. ②
 11. ⑤ 12. ② 13. ④ 14. ① 15. ③ 16. ⑤ 17. ⑤ 18. ④ 19. ① 20. ⑤
 21. ② 22. ⑤ 23. ③ 24. ④ 25. ② 26. ③ 27. ③ 28. ① 29. ④ 30. ④
 31. ⑤ 32. ④ 33. ⑤ 34. ② 35. ⑤ 36. ⑤ 37. ① 38. ② 39. ③ 40. ②
 41. ③ 42. ① 43. ② 44. ① 45. ③ 46. ① 47. ① 48. ⑤ 49. ④ 50. ①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단어로 알아보는 삶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영어에서 위기를 뜻하는 단어 ‘crisis’는 ‘분리하다’라는 뜻의 그리스 어인 ‘크리네인(krinein)’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리네인은 본래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이 되는 병세의 변화를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본 것인데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동양에서는 위기(危機)를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합쳐진 것으로 해석하여,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합니다. 동양인들은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죠.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서양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진행자는 ‘위기’란 단어에 대한 서양인과 동양인의 인식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영어 ‘crisis’는 그리스어의 ‘분리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이는 회복과 죽음의 분기점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한자어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로 관점에 따라 위기가 기회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동서양의 지혜’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⑤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침착하게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나,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에서 ‘여유’를 이끌어낼 수 없다. ② 사리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과 중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요한 일을 해결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 ③ 타인의 충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다고 했을 뿐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자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다음 주에 동아리 발표회가 있잖아. 우리 동아리가 발표할 내용을 그림판으로 만들어 봤어. 이건 초안이니까 같이 보고, 고칠 내용을 찾아보자.

남학생 : 알았어. 발표 제목을 ‘우리 주변의 자생 식물’로 했네. 발표 내용에 비해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우리는 떡갈나무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제목은 ‘떡갈나무 식별법’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친구들이 떡갈나무에 대해 잘 모를 테니까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줘야 할 것 같아. 나도 떡갈나무가 참나뭇과에 속하는지 몰랐거든.

여학생 : 좋아.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넣자는 말이구나. 그런 다음 떡갈나무 식별법을 알려 주잔 말이지?

남학생 : 그래 맞아. 떡갈나무는 잎의 모양과 도토리 집의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떡갈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의 모양을 알 수 있게 그림을 넣은 건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떡갈나무를 식별할 때에는 잎 모양이 도토리 집 모양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림에도 잎이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 그림 밑에 있는 도토리 집 모양과 잎 모양에 관한 정보의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여학생 : 그거 좋겠다. 그리고 뭔가 흥미를 끌 수 있는 장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좋은 생각 없니?

남학생 : 글썄……, 발표 중에 퀴즈를 내서 집중력을 높이면 어때? 잎을 설명한 다음, 도토리 집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맞춰 보게 하자. 그러려면 그림판에서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려 놓아야겠어.

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은 그의 첫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가 참나뭇과에 속하는지를 몰랐던 자신의 경험을 들며 친구들에게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주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다른 참나무의 잎과 도토리 집 그림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남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발표 내용에 비해 범위가 너무 넓으니 제목을 ‘떡갈나무 식별법’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한다. ② 남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의 수종을 먼저 알려 주자고 제안하고, 여학생은 이를 떡갈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를 넣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④ 남학생은 자신의 두 번째 발언에서 떡갈나무 잎 모양보다 도토리 집 모양이 더 중요하므로 잎 모양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제시하자고 제안한다. ⑤ 남학생은 자신의 마지막 발언에서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도토리 집 모양의 이름을 가리고 퀴즈를 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3. 이번에는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학 단신입니다. 최근,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칩 위의 약국’, 또는 ‘휴대용 약국’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이름 그대로 컴퓨터 칩 위에, 약국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약물을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약물이 몸 안에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칩 위의 약국’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기로 약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것과 달리, 약물이 전달되는 시간과 양이 미리 프로그램된 칩을 환자의 몸 안에 심어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개발자의 말에 의하면, ‘칩 위의 약국’은 장기간에 걸쳐 적절한 양의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환자의 몸에 전달하기 때문에 투약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칩 위의 약국’을 몸에 지닌 환자들은 약물이 프로그램된 대로 정확하게 투여되기 때문에 언제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개발자는 또, 이 시스템이 각종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신호를 보내 약물이 방출되는 정확한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3.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뉴스의 첫 부분에서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스템이 각종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칩 위의 약국’은 처방된 약을 투입하는 역할만 할 뿐, 병을 진단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②는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뉴스의 첫머리에서 질병의 치료와 관련해 새로운 약물 전달 장치가 개발되었는데 이를 ‘칩 위의 약국’, 또는 ‘휴대용 약국’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칩 위의 약국’은 질병 치료와 관련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개발자의 말을 인용해 ‘칩 위의 약국’은 장기간에 걸쳐 적당량의 약물을 정해진 시간에 환자의 몸에 전달하기 때문에 투약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④ 프로그램된 대로 정확하게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 시간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다. ⑤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앞으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신호를 보내 약물이 방출되는 정확한 양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4~5] 이번에는 수업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시오.

교사(여) :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인터뷰 자료를 하나 들려 줄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효과음)

연구원(남) :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을 조사했는데요,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들이 이웃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관계 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세 영역의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관리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관계 지향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을 묻는 ‘사회적 협력’ 점수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중시한 ‘갈등 관리’ 영역은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나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와 실천력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효과음)

교사(여) :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에 대한 조사 결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소리가 한번 말해 볼래요?

학생(여) :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결과에 동의해요. 실제로 공부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힘들어요.

학생(남) : 우리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는 동의하기 힘들습니다. 봉사 활동이다 뭐다 해서, 매주 체험 활동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생(여) : 하지만 봉사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머리로만 아는데 몸으로 실천할 여유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보다 우리들은 나부터 먼저, 주변을 돌아보고 배운 지식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어요.

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결과 해석은 인터뷰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인터뷰에서 남자 연구원은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협력’은 낮고, ‘갈등 관리’는 높은 조사 결과를 두고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나 이해력은 뛰어나지만 실제로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와 실천력은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여학생은 연구원의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⑤는 ‘공동체 의식은 높지만 실천력은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부족'이라고 메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터뷰 첫머리에 나타난다. ② 청소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직접 밝히고 있으며, '관계 지향성', '사회적 협력', '갈등 관리' 점수를 분석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③ 공동체와 관련된 '관계 지향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능력과 관련된 '사회적 협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④ 갈등의 민주적 해결 절차와 관련한 지식을 중시한 '갈등 관리' 영역은 높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반응의 평가)

정답해설 : 여학생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식은 뛰어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남학생이 반박하자 두 번째 발언에서는 봉사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학생의 예를 들고 그 원인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할 여유와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현상을 들고 있다. 이어서 학교나 지역 사회, 청소년 스스로가 가져야 할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학생은 인터뷰 내용에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도 조사 목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② 인터뷰 내용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쪽은 남학생이다. ③ 새로운 관점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인터뷰에서 제시된 조사 결과와 조사 방법을 수용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다.

[6-12] 쓰기, 어휘 · 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탁구 대회 우승 비결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토론 대회 준비'에 관한 글의 내용을 연상해 내는 문제이다. 인터뷰 내용 가운데, 까다로운 강팀들의 전력을 분석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실력이 우수한 토론 팀들의 전력을 분석한다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②와 같이 약체로 판단되는 상대 팀의 전력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내용을 유추하는 것은 적절한 연상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속공을 잘하는 선수와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만나 찰떡궁합을 이루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서로의 장점이 만나 전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 팀을 꾸린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③ 강팀의 비디오를 분석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공략할 방안을 마련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상대 팀의 ~ 허점을 찾아내고 반박 자료를 준비한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④ 연습 경기를 통하여 작전을 검증하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모의 토론을 통해 ~ 실전 대응력을 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운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⑤ 감독님의 지적에 따라 연습 경기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집중 보완했다는 인터뷰 내용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모의 토론에서 발견된 미비점 보완에 주력한다'라는 내용을 연상해 낼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주제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글쓰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④에서는 (가)와 (다)를 활용하여 '성별 격차를 ~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편견의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가)에는 성별 고용의 실태만 제시되어 있고 (다)에서 언급한 정책에는 사회적 편견에 관한 것이 빠져 있어 (가)와 (다)는 그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나)에서 여성 취업 장애의 요인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고 있는 것은 '사회적 편견'이 아니라 '육아 부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자료에서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의 고용률보다 크게 높고 최근 20년간 그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나)에 여성 취업 장애 요인이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불평등한 근로 여건'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글에서 활용할 때 '가정, 사회, 직장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③ (다)의 자료에 선진국에서 여성들이 직장가 가정의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나)에서 '육아 부담'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고, (다)에서 정부의 '보육 서비스' 정책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보완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개요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IV-1에 제시된 방안(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고려한다면, ㉠의 자리에는 기존의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시간 확대'는 문제점에 해당하지도 않고, IV-1에서 제시된 방안과 어울리는 문제점으로 보기도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청소년기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은 주제('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라는 주제와 연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는 방안은 적절하다. ② 상위 항목(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방과 후 활동의 참여도'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도'로 고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④ III-3('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비용 부담 과중')을 고려하여 IV('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방안')의 하위 항목을 추가할 때,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⑤ '교과 내용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의 내용은 주제('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III-2('방과 후 문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부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학생 요구에 기반한 다양한 방과 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 수정하자는 방안은 적절하다.

9. 비판적 사고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㉞의 말줄임표 자리에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생략된 내용을 넣는다면, 빛 공해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낀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빛 공해의 심각성을 다루는 앞 문장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사진작가의 능력이 대단하게 느껴졌다’라는 내용을 말줄임표 자리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진전을 다녀온 의도와 감상 내용을 고려한다면 ‘사진전’을 ‘빛 공해 사진전’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② ‘결맞다’는 ‘두 편이 잘 어울리다’를 뜻하는 형용사이며, 형용사는 동사와 달리 현재의 뜻을 담고 있는 ‘-는’을 결합시킬 수 없다(예 : 좋은(×), 착하는(×), 아름답는(×)). ③ ㉞의 앞 문장에서는 빛 공해를 정의하고 ㉞에서는 빛 공해의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㉞의 앞 문장과 ㉞은 연결하여 한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제기하다(의견이나 문제를 내어놓다.)’는 문맥(표어를~)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㉞의 자리에 ‘제출하다(문안(文案)이나 의견, 법안(法案) 따위를 내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10. 창의적 사고(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②의 표어는 ‘당신이 불을 끄면’으로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한숨 쉬는 나무들’, ‘미소 짓는 나무들’과 같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 ~나무들, ~면 ~나무들’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③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표현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도 않다. ④ 빛 공해 줄이기와 무관한 내용의 표어이다. ⑤ 빛 공해의 문제점만 제시되어 있을 뿐 빛 공해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11. 어휘·어법 (완곡어법의 표현)

정답해설 : ⑤의 ‘주다’는 ‘~에/에게 ~을 주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지혜에게’는 문장 구조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빌리다’는 ‘~에서/에게서 ~을 빌리다’의 문장 구조로 실현되므로 ‘친구에게’도 필수적 부사어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비슷하다’는 ‘~과 비슷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이것과’는 필수적 부사어이나, ‘보다’는 ‘~을/를 보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② ‘이탈하다’는 ‘~에서 이탈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궤도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이나, ‘만나다’는 ‘~을/를 만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③ ‘잡다’는 ‘~을/를 잡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몽둥이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며, ‘삼다’는 ‘~을 ~으로 삼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사위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④ ‘적합하다’는 ‘~에/에게 적합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벼농사에'는 필수적 부사어이며, '방문하다'는 '(어떤 사람이 나 장소)에 방문하다'의 문장을 이루므로 '오후에'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다.

12. 어휘·어법 (파생어 형성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덧대다'의 뜻은 '대어 놓은 것 위에 겹쳐 대다.'이며, '덧-'의 의미는 '겹쳐'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치뜨다(눈을 위쪽으로 뜨다)'의 '치-'는 '위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③ '들끓다(한곳에 여럿이 많이 모여 수선스럽게 움직이다)'의 '들-'은 '마구', '몹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④ '되감다(도로 감거나 다시 감다.)'의 '되-'는 '도로', '다시'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⑤ '휘젓다(골고루 섞이도록 마구 젓다)'의 '휘-'는 '마구'로 풀어 표현할 수 있다.

[13-18] 시가 복합

(가) 한용운, 「알 수 없어요」

지문해설 : 이 시는 모두 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자는 다양한 자연 현상을 통해 '누구'가 그 배후에 있음을 표현하고, 이 모든 자연 현상을 만들어낸 존재(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을 차분한 목소리로 읊고 있다. 1행부터 5행까지는 이러한 자연현상과 그 현상을 보면 생각나게 되는 '누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 반복되어 드러나면서 진리를 향한 화자의 끝없는 관심과 의문이 드러난다.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도 '누구'의 발자취이고,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자연현상을 보며 생각에 잠기던 화자는 6연에 이르러 이러한 절대자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약한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진리의 궁극을 추구하고자 하는 구도 정신

(나) 장석남, 「배를 매며」

지문해설 : 이 시의 화자는 갑자기 다가온 사랑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1연에서 사랑이라는 경험은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뱃줄이 날아와서 그 뱃줄을 잡아다 배를 맨 경험과 비슷하다. 2연에서는 배를 매는 경험과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경험이 어떤 식으로 비슷한지를 보여 준다. 사랑이란 '뉘 놓고 앉았다가', '어찌 할 수 없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연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바다 위에 구름, 빛, 시간과 함께 떠 있는 배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4연, 5연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지듯, 사랑도 그런 것에 다름 아님을 깨닫게 되며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다. 결국 이 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 본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다) 정철, 「사미인곡」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이 50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물러나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우거(寓居)할 때 지은 가사 작품으로 송강의 대표작이다. 우리말 구사가 뛰어나며 표현이 세련되어 가사 문학의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임금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연군지사’의 하나로서,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한 여인이 사랑하는 임과 헤어져서 그리워하는 마음에 빗대어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의 시상 전개는 춘, 하, 추, 동 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점점 깊어 가는 화자의 그리움과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제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 임에 대한 알뜰한 정성, 임의 선정(善政)에 대한 갈망, 임에 대한 염려와 고독함 등의 내용이 차례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연군의 정)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에는 오동잎,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등의 다양한 소재가 등장하는데 이 소재들은 모두 절대자의 모습을 느끼게 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뜻한다. (나)에서는 배와 그 배가 던지는 밧줄, 이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행위 등이 사랑을 키우는 과정 및 사랑의 속성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에서는 매화, 옷, 청광, 양춘 등이 임금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자연물에 인격적인 속성이 부여하고 있으나, 자연물을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② (가), (나)에는 대화체가 드러나지 않고, (다)에서는 매화에 말을 건넨 부분이 대화체에 해당한다. 독백체는 (가)의 뒷부분과 (다)의 일부에만 나타나지만, (다)에서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색채어를 통해 시의 분위기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는 것은 (다)이다. ‘백옥함’, ‘청광’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검은 구름’, ‘푸른 하늘’과 같이 색채어가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하지는 않는다. (나)에는 색채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가 구사되어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특성은 (나)에서만 나타난다. (나)의 ‘털썩’이 이에 해당한다. (가)에는 ‘구비구비’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14. 추론적 사고(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가장 큰 표현상의 특징은 유사한 문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 이런 표현은 다양한 자연현상 어디서나 절대자의 존재를 느끼게 한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사랑이 시작되고, 커가는 과정을 배를 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내면에서 외부 세계로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③ (나)에는 뚜렷한 시상 전환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가)의 경우는 1~5행은 임의 다양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6행은 이러한 임(진리)을 향한 구도 정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시상이 바뀌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자연현상을 가져와 주제를 표현하고 있으나, (가)의 경우 자연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절대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의 경우 사랑을 자연과 관련해 빗댄 것이지 상황과 자연현상의 '대비'로 볼 수는 없다. ⑤ (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 않다.

15.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에서 한용운의 시를 '절대자'의 존재를 탐구하며 구도자로서 자기를 정립, 극복하는 시라고 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해당 시 구절을 이해하도록 한다. ③의 ㉔'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로 마무리되며 절대자의 숨결로 느껴지고 있으므로, '절대자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㉑'누구의 발자취'는 절대자의 존재 방식을 알려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㉒'무서운 검은 구름'은 '푸른 하늘'과 대조적이며, 절대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푸른 하늘'을 가리고 있으므로 화자와 절대자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④ ㉓'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는 '저녁놀'의 모습으로, 무한 공간에 걸쳐 있는 절대자의 면모로 이해 가능하다. ⑤ ㉔'약한 등불'은 구도자로서의 자신을 정립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으로 볼 수 있다.

16.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배를 매면' 구름, 빛, 시간이 함께 매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고백하고,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알았다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랑의 속성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화된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즉 사랑이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게 됨을 의미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한 행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랑의 덧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 ③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은 이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2연에 밝혀졌다. ④ 해당 내용을 통해 사랑의 운명적 면모가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17. 비판적 사고(핵심어의 비교 및 감상)

정답해설 : (나)의 ‘부듯가’와 (다)의 ‘수막’을 비교하여 그 뜻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나)의 ‘부듯가’는 배가 들어오고 그 줄이 매이는 곳으로, 이 시에서 이 과정을 통해 화자는 사랑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다)의 ‘수막’은 적막하고 비어 있어, 님이 떠나고 난 뒤 부재를 실감하게 되는 공간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부듯가’에서 반복되는 시련을 찾을 수 없으며, ‘수막’은 도피의 공간이 아니다. ② ‘부듯가’는 나와 사랑하는 이의 개인적 공간이지 공동체적 공간이 아니다. ‘수막’은 님이 더 이상 없는 곳으로 개인적 공간이다. ③ ‘수막’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현재적 공간이나, ‘부듯가’는 회귀하고 싶은 과거의 공간이라 볼 수 없다. ④ ‘수막’은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공간이나, ‘부듯가’는 누군가가 누구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보기보다는 사랑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18.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다)의 내용 및 주요 소재의 의미를 신하의 연군 지정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추운 날씨에 ‘초가 처마’에 비친 해는 임에게 드리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그리움이지, 임금의 은혜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옷’은 신하의 정성과 그리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지상의 화자와 천상의 ‘달, 별’은 군신 간 수직적 관계의 반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신하인 화자가 ‘청광’을 보내고자 하는 대상은 ‘임금’이 맞다. ⑤ 차가운 ‘앙금’으로 신하된 외로운 처지를 표현한 것은 군신 관계를 남녀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2] 인문, ‘개념사란 무엇인가’

지문해설 : 이 글은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 지은 ‘역사’라는 책의 제목이 어떤 어원으로부터 나온 말인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사 연구의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이다.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을 쓰기 이전에는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스’처럼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신화와 전설, 종교적인 이야기가 과거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수단이었지만, 헤로도토스는 신화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직접 확인, 탐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하여 역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역사’가 등장한 이후 과거의 사건은 단순히 지난 옛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훈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일부 역사가들은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독자를 감동시키는데 몰두한 나머지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15세기 이후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된 이후 객관적 역사 서술의 태도는 다시 중시되었다.

[주제]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후대에 남긴 영향과 역사 서술에 있어서 객관적 역사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서술의 중요성

1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 중 상당수가 수사학적 역사 서술에 몰두하였고, 이 흐름이 중세 시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긴 했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이 이어진 것은 아니다.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 15세기 이후 수사학적 역사 서술이 역사 서술의 장에서 퇴출되어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헤로도토스는 과거의 사건을 직접 확인, 탐구하여 인과적 형식으로 서술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는 그의 책 ‘역사’에서도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사실적으로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③ 첫 번째 단락에서 ‘histor’가 원래 ‘목격자’, ‘증인’을 의미하는 법정 용어라 설명하고 있다. ④ 세 번째 단락을 통해 사람들이 역사를 ‘삶의 학교’로 인식한 것은 과거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이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⑤ 세 번째 단락의 앞 부분을 통해 역사 서술의 효용성이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에게 교훈을 주는데 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20. 추론적 사고(외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역사 서술에서 교훈성을 강조하는 측은 역사가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여 후세인에게 교훈을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설득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화려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주어 설득력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가)의 ‘폴리비오스’나 (다)의 ‘투키디데스’는 모두 설득력 있게 과거사를 전달하는 것을 정확성과 객관성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필라르코스는 독자에게 동정심을 일으키고 과장된 묘사로 감동을 주려 했기 때문에 수사학적 역사 서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② 거울이 가진 성질을 왜곡이나 채색 없이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는 정확성과 객관성의 관점에서 역사 서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③ 과거사가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순환 사관에 해당한다. ④ 폴리비오스나 루키아노스는 모두 정확성과 객관성의 관점에서 과거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서술의 태도로 보았다.

21. 비판적 사고(비판의 적절성)

정답해설 : 객관적 서술 태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기술된 것이 아니라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형태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리아스’가 객관적 서술 태도를 배제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일리아스’는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읊은 서사시이므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서술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③ 트로이 전쟁을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서술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실제 확인하지 않고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서술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④ ‘일리아스’를 통해 호메로스는 전쟁이 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신화적 세계관은 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함을 알 수 있다. ⑤ 과거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22. 어휘 · 어법(합성어의 구성 방식)

정답해설 : ‘앞세운’의 기본형은 ‘앞세우다’인데, 이는 ‘앞’이라는 부사어와 ‘세우다’라는 서술어가 결합한 형식이다. ‘남다르다’의 경우 이와 마찬가지로 ‘남과 다르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합성어인데 ‘남’이 부사어로 ‘다르다’가 서술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땀이 들다’의 의미이므로 ‘주어 + 서술어’이다. ② ‘빛을 내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 서술어’이다. ③ ‘힘을 쓰다’의 의미이므로 ‘목적어 + 서술어’이다. ④ ‘그늘이 지다’의 의미이므로 ‘주어 + 서술어’이다.

[23-25] 과학, ‘식물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 과정과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식물이 토양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 잎으로 전달되는 과정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식물 내부에서 물의 이동은 ‘증산-응집력-장력’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수분 퍼텐셜의 변화 양상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되게 된다.

[주제] 수분 퍼텐셜에 따른 식물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 원리

2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식물이 기공을 여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기공이 열리면 잎의 표피에 있는 물이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게 된다. 따라서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지만 물이 손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고 언급되어 있다. ② 4문단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④ 2문단에 기공을 통해 물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긴다고 언급되어 있다. ⑤ 2문단에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올라간다고 언급되어 있다.

24.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물의 이동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토양 > 뿌리 > 줄기 > 잎 > 대기 순으로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물이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하게 되고(㉠),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하게 되며(㉡),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 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잎의 수분 퍼텐셜보다 대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기 때문에 물이 잎에서 대기로 빠져나가게 된다. 따라서 ㉠은 적절하지 않다.

25. 추론적 사고(정보 도식화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식물은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게 된다. 식물은 일출부터 일몰 순간까지 기공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공이 열려 있다는 것은 식물에서 증산 작용이 일어나 물이 이동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식물에서의 물의 이동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물의 이동이 시작되는 일출 순간에 잎의 수분 퍼텐셜은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고, 일몰 순간 또한 잎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은 양상을 띠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④ 잎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높다는 것은 물의 이동이 잎에서 토양으로 거꾸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이 0이므로 잎이 물과 같은 수분 퍼텐셜을 보인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일출 순간 잎의 기공이 열리면서 식물 내부에서는 물이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일출 순간 잎의 수분 퍼텐셜과 토양의 수분 퍼텐셜이 같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은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6-29] 현대 소설 - 황석영, ‘가객(歌客)’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인 거지 ‘나(깨꾸쇠)’가, 온갖 시련을 겪은 후에 진정한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 가객 ‘수추’의 이야기를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담담하면서도 신비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전달하고 있다. 작품은 ‘수추’가 죽은 후 ‘나’가 그를 그리워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를 만나고 그가 죽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역순행적 구성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70년대와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이 작품은 자기 예술의 완성에만 집착하던 예술가가 어떻게 민중 예술가로 거듭나는가, 또한 독재 권력은 왜 이러한 예술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어느 날 마을을 찾아든 ‘수추’는 신묘한 노래를 부르지만 그의 추한 외모를 혐오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마을 사람들을 피해 강 건너편으로 간다. 강 건너편에서 ‘수추’는 예술의 완성에만 골몰하며 모든 것을 미워했던 뒤틀린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노래를 통해 타인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수추의 노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며 그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런 ‘수추’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마을의 최고 부자 ‘장자’는 ‘수추’를 가두고 그의 혀를 잘라 버리지만, 그의 노래는 끝까지 살아남아 마을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진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수추’의 죽음을 믿지 않으며, ‘나’ 또한 수추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주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도달하게 된 진정한 예술의 경지

26.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가)는 작품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관찰자의 관점에서 수추와 마을사람들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으나, (나)는 작품 외적 서술자가 수추의 내면 심리까지 직접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시점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는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다. ② 저자의 사람들이 수추의 노래를 듣고 모였다가 그의 흉한 얼굴을 보고 흠어진 것과 강 건너편에서 동물들이 그러했던 것은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는 있으나,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서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미워할수록 그의 얼굴은 추악하게 떠올랐다.’,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을 만났다.’ 등을 통해 수추의 내면 변화가 표정의 변화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가)에서는 서술자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7. 비판적 사고(갈등의 파악)

정답해설 : 수추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지만 그의 흉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후 강 건너편에서 시냇물에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보며 괴로워한다. 이를 통해 (가)와, (나)의 전반부에서 수추가 그의 예술과 용모의 괴리감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환희와 해방감을 느끼게 되므로 이러한 내적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한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의 전반부에 보이는 수추의 갈등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내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④ (가)에서가 아니라 (나)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가 두드러진다. ⑤ 저자 사람들과 짐승들은 수추의 노래에 매혹되어 모여든 것이므로 모여든 이유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

28.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 ㉡은 모두 수추가 자신의 모습을 비취 봄으로써 자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매개물이다. ㉠을 통해서는 음률을 완성한 자신의 모습이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음을 확인했고, ㉡을 통해서는 노래에 대한 집착을 벗어난 자신의 환희에 찬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모두 ㉠, ㉡의 ‘시냇물’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29.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언급한 예술가, 작품, 수용자는 제시문에서 각각 수추, 그의 노래, ‘나’를 포함한 저자 사람들에 대응한다. 그러나 제시된 부분에서 수추의 노래 속에 당대 사회의 모습이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으며~저자를 따뜻하게 답히는 것만 같았다.’에서 ‘나’가 수추의 노래 그 자체에 자극받아 수추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만 일어섰는가?~박살 내 버리고 싶었다.’에서 수추의 노래가 저자 사람들을 매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돈을 내놓도록 하는 것을 보고 ‘나’가 그의 노래가 가진 힘에 부러움과 시샘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객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그 추한 얼굴에 씩씩 사그라지고 말았다.’에서 저자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의 노래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수추의 흉한 얼굴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수추가 음률의 완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얼굴은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음악과 그의 용모 사이의 괴리감으로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33] 예술, ‘이차 프레임의 기능’

지문해설 : 이 글은 이차 프레임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차 프레임은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로, ‘안에 있는 프레임’을 일컫는 말이다. 이차 프레임의 일반적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이차 프레임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현대에 이룰수록 시각 매체의 작가들은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여러 시도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주제] 이차 프레임의 개념과 기능

30.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3문단에서는 이차 프레임이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기도 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차 프레임 내부의 인물과 외부의 인물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 글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 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함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프레임 내 프레임이 많을수록 화면이 다층적으로 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이차 프레임 내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③ 3문단에서 이차 프레임은 시각적으로 내부의 대상을 외부와 분리하는데, 이는 곧잘 심리적 단절로 이어짐을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카메라는 이차 프레임으로 사용된 창을 비추어 한 이야기의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의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옴을 언급하고 있다.

31.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는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집 <미국인들>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을 통해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인물을 이중 프레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차 프레임은 ‘문, 창, 기둥, 거울’ 등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용하여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 행인이 들고 있는 ‘원형의 빈 액자 틀’로 바꾸게 되면 ㉡로 인한 이차 프레임은 없어지지만, ‘원형의 빈 액자 틀’로 인한 이차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는 프레임 안에 만들어진 프레임이므로, 이로 인해 화면이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화면이 평면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② 사진 속 공간의 폐쇄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문이나 창을 봉쇄함으로써 이차 프레임이 그 기능을 상실할 때이다. ③ ㉡로 인해 창 테두리 외부의 풍경이 아니라 내부의 인물에 시선이 유도되고 있다. 인물을 창으로 에워쌌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④ ㉡가 없다면 ㉡ 안의 인물은 작품 내 존재감이 현재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차 프레임이 대상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반쯤 열린 창틈’ 역시 영화에서는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쯤 열린 창틈’은 ‘한 가족의 행복’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는 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면 안의 직사각형 틀에서 팔과 다리가 빠져나와 있는 인물의 모습은 이차 프레임 내의 대상이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② 주인공이 속한 공간의 문이나 창이 항상 닫혀 있는 것은 문이나 창을 봉쇄하여 이차 프레임으로서의 기능을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상실시킨 것이다. ③ 문 안에 있는 대상을 실체가 불분명한 물체의 이미지로 처리한 것은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이차 프레임의 범례에서 벗어나게 것이다. ⑤ 차창을 안개로 줄곧 뿌옇게 보이게 한 것은 이차 프레임 내부 이미지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이차 프레임의 범례를 벗어나게 한 것이다.

33. 어휘 어법(바꾸어 쓸 수 있는 어휘 파악)

정답해설 : ‘조성(造成)되다’는 주어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분위기가 정세 따위가 만들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성(形成)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결성(結成)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의미이다. ② ‘구성(構成)되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③ ‘변성(變成)되다’는 ‘변하여 다르게 되다.’라는 의미이다. ④ ‘숙성(熟成)되다’는 ‘충분히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다.

[34-37] 고전 소설 - 작자 미상, ‘임진록’

작품해설 : 임진왜란을 소재로 하여 쓰인 이 작품은 당시의 국제 정세 및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서 전쟁의 발생 과정과 전쟁 중에 활약한 장수들의 활약상을 작품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임진왜란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으로 바꿔 놓음으로써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정신적 위안을 얻고 민족의 정기를 고취하려 하였다. 전쟁 승리의 과정을 한두 명의 영웅에 의한 승리로 그리지 않고, 수많은 의병장, 명장들을 순차적으로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애국적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싸워 나가는 것을 보여준 것은 임란 이후 각성된 민중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후반부로 사명당이 왜왕을 도술의 힘으로 압도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부분이다.

[주제] 임진왜란의 치욕에 대한 정신적 위안 및 민족의식 고취

34.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한 부분은 없고, 주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명당과 왜왕의 갈등은 사명당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③ ‘벽력 소리 진동하며~물에 빠져 죽는 자 수를 아지 못하되’ 등에서 과장된 비유를 통해 상황의 급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④ 사명당이 도술을 부리는 부분에서 전기적 요소를 통해 비현실적 장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명당과 송정의 대립은 사명당의 일방적인 징벌로 간단히 마무리되는 반면, 국외에서 벌어지는 사명당과 왜왕의 대립은 수차례 반복되면서 상대적으로 갈등과 긴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장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5. 비판적 사고(인물 간 갈등의 파악)

정답해설 : ‘조정에 사람이 무수하거늘~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는 송정의 말과 ‘네 벼슬이 비록~국법을 엄히 하라’는 사명당의 말에서 사명당은 자신이 임금의 명을 받은 사신(명분)이며, 대사마대장군(직위)이라는 점을, 송정은 자신의 신분(옥당)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하인’은 사명당이 온다는 소식을 전달했을 뿐 둘 사이의 오해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둘의 갈등을 외교적 문제의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사대부의 사회적 소임이 아니라 봉명 사신을 대하는 지방관으로서의 도리에 관한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 ④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신념의 충돌은 드러나지 않는다.

36.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명당 개인의 활약상을 보인 것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기>를 참고한 감상으로 볼 수도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역사적으로 패한 전쟁인 왜란의 수치를 왜를 철저히 응징하는 사명당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로 바꿈으로써 민중들이 받은 고통을 정신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신이한 능력을 지닌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지방관의 도리에~화를 면치 못하리로다’는 하인의 말을 통해 어리석은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④ 압도적인 힘으로 왜왕을 수차례 굴복시키는 이야기 전개는 전란으로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설정이라 볼 수 있다.

37.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은 왜왕이 마지못해 항복하는 상황이므로 ‘싫은 일을 억지로 마지못하여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울며 겨자 먹기’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스스로 요구하거나 알려주어 억지로 대접을 받는다는 말. ③ 아이가 울려고 할 때 뺨을 치면 울음이 크게 터진다는 뜻으로, 일이 틀어져 가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충동하여 더욱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함을 이르는 말. ⑤ 변변찮거나 하찮은 사람이 신분이 귀하게 되어 아니꼽게 큰소리를 친다는 말.

[38-40] 극(희곡) - 윤대성, ‘출세기’

지문해설 : “나는 이 작품을 매스컴의 역기능을 주제로 하여 매스컴에 의해 조작되는 인기, 그 인기에 영합하는 대중, 그로 인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성에 초점을 맞춰 집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필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이 작품은 상업주의에 물든 매스컴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1967년에 실제 발생했던 광부 매몰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무너진 갯에서 16일 동안을 견딘 끝에 극적으로 구출된 광부 김창호가 온갖 방송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 유명인사가 되어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에 빠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상품성이 떨어지자 주인공은 언론의 철저한 버림을 받고 절망한다는 줄거리를 지닌 희곡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사건을 부풀려 관심을 한껏 증폭시키다가 효용성이 상실되면 가차 없이 버리는 자본주의 속물적 생리를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극적으로 구출된 직후 어리둥절한 김창호의 모습과 심리, 이를 이용하려는 주변 인물들(홍 기자, 소장, 비서관, 주치의)의 반응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다.

[주제] 대중 매체에 의한 인간의 상품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38. 비판적 사고(극 전개상의 특징)

정답해설 : 아무것도 모르는 김창호의 행동과, 그를 대단한 존재로 부각시켜 어떤 이익을 도모하려는 주변 인물들의 행동이 대조되는 면이 있으나, 김창호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기자1, 기자2, 홍 기자, 소장, 비서관, 주치의가 모두 사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특히 홍 기자의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존엄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발화에서 ‘사고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갱구 입구 필름, 인터셉트된 구경꾼의 얼굴들. 손을 흔들며 웃어대는 필름들.’에서, 인명이 구조 되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과 대비되는 구경꾼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10. 사무소와 갯내’에서 ‘사무소’와 ‘갯내’라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시에 보여 주며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9. 현장’에서 홍 기자의 ‘이 방송은 여성의 미를 창조하는 몽셀 느그르 화장품 제공입니다.’와, 비서관의 ‘뭐 부족한 거 없습니까?’ 등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대사’를 확인할 수 있다. ‘10. 사무소와 갯내’의 ‘김창호 씨, 나 신난다 비서관입니다.’에서 ‘작위적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황과 맞지 않음으로 인해 관객이 극중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극적 긴장감을 이완(바짝 조였던 정신이 풀려 늦추어짐.)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9. 추론적 사고(등장인물의 성격 파악)

정답해설 : ‘9. 현장’의 ‘비서관, 소장의 안내로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메라에 포즈를 취한다.’에서 ‘현장에 등장하면서 비서관이 언론을 의식’하는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9. 현장’의 다섯 번째 홍 기자의 대사인 ‘이런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뜻으로도 꼭 살아 나와야겠습니다. (감격해서) 생명은 존엄한 것입니다.’와, ‘14. 가지 회견 석상’의 ‘김창호 씨, 우리 기사단을 대표해서 김창호 씨의 생환을 환영하는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바입니다.’ 등은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9. 현장’에서 홍 기자의 인터뷰에 망설임 없이 응하는 장면을 고려하면, 소장은 취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재 활동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9. 현장’의 기자1, 기자2, 홍 기자 모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14. 기자 회견 석상’에서 주치의는 김창호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0.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은 갇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김창호가 매몰된 갯에서 구조된 이후를 뜻하고, ㉡의 ‘전 국민에게 김창호 씨를 알려야 합니다.’라는 주치의의 인식이 담긴 대사는, 주인공이 앞으로 유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에는 주인공이 ㉠을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기운 없이) 감사합니다.)는 자신이 구출될 것이라는 비서관의 말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인사일 뿐이다. 즉 주인공은 ㉠에 대해서도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를 확신하는 주인공의 기대’는 적절하지 않다. ③ ㉤은 구출된 직후에, 주인공이 괴로운 상황을 견디는 장면이므로 ‘주人公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주인공이 왜 인터뷰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에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주인공이 영문도 모른 채 주인공이 억지로 국민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에 ‘㉠을 계기로 ㉢에 이르고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1-43] 언어, ‘국어의 2인칭 대명사’

지문해설 : 이 글은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즉,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등과 같은 2인칭 대명사의 쓰임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또한 아주 높임의 대상자에게는 2인칭 대명사 대신 존대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는 경우가 있으며,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이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국어의 2인칭 대명사의 종류와 특징

4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는 ‘너’, ‘너희’, ‘자네’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문단에서 예사 낮춤 말인 ‘자네’가 ‘너’보다는 상대를 높이는 말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에 높임의 등급 구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위 글에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명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대명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우리’는 1인칭 대명사이다. ②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당신’이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에게 ‘임자’라는 대명사를 쓰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에 따라 2인칭 대명사의 쓰임이 달라짐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 중 ‘너희’는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 곧 2인칭 복수를 지칭할 때 사용함을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42.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2인칭 대명사는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를 때에 사용한다. <보기>는 ‘한 상무’와 ‘김 부장’의 대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은 ‘김 부장’의 말을 듣고 있는 ‘한 상무’를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와 듣는 이인 ‘김 부장’ 이외의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는 말하는 이인 ‘한 상무’ 자신과 듣는 이인 ‘김 부장’을 모두 가리키는 말로, 1인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④ ㉣는 ‘고모’와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⑤ ㉤는 말하는 이인 ‘고모’와 듣는 이인 ‘한 상무’의 대화에서 언급한 제3의 인물로, 3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4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과 ㉡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칭을 나타내고 있다. ㉡의 ‘자기’ 역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이고 있다. 즉, ㉡의 앞 문장에서 ‘자기’는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뒤 문장에서 ‘자기’는 ‘학생’을 가리키는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너’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 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③ ‘자네’는 모두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④ 앞 문장에서 ‘그대’는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뒤 문장에서 ‘그대’는 상대방을 친근하게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⑤ ‘여러분’은 모두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었

다.

[44-46] 기술, ‘디스크 스케줄링의 네 가지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처리하는 네 가지 디스크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FCFS 스케줄링은 입출력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SSTF 스케줄링은 헤드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트랙에 있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또한 SCAN 스케줄링은 디스크의 양쪽 끝을 오가는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대로, LOOK 스케줄링은 요청된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를 헤드가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주제] 디스크 스케줄링의 종류에 따른 데이터 처리 순서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하드 디스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해 놓고 헤드를 통해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섹터의 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드 디스크에 일정한 수의 섹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탐색 시간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므로 헤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③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4개의 디스크 스케줄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대기 시간은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므로 대기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 접근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가)는 헤드가 ‘53 → 37 → 14 → 98 → 122 → 183’ 순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는 SSTF 스케줄링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53 → 98 → 122 → 183 → 37 → 14’ 순서로 헤드가 양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그 경로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헤드가 트랙의 끝인 199까지 가지 않고 요청된 트랙의 최댓값인 183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 따라서 (나)는 LOOK 스케줄링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46. 추론적 사고(추론 내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탐색 시간은 헤드의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각 스케줄링에서 헤드의 이동 거리를 계산해 비교해 보면 ①의 판단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인 ‘200, 100, 50, 25’라고 가정해 보자. SSTF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스케줄링은 헤드의 위치와 가까운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LOOK 스케줄링은 현재의 헤드 위치인 0에서 최댓값인 200으로 이동하는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두 스케줄링 방식에서 소요되는 헤드의 이동 거리 즉,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00 → 100 → 50 → 25'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SSTF 스케줄링은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보다 크다.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LOOK 스케줄링 또한 트랙의 최댓값인 200으로 가는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므로, FCFS 스케줄링은 요청이 들어온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SCAN 스케줄링 또한 헤드가 가장 바깥으로 이동하는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FCFS 스케줄링과 SCAN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⑤ 트랙 번호의 끝이 200이라고 할 때, SCAN 스케줄링은 헤드의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고, LOOK 스케줄링 또한 최댓값인 200번 트랙으로 가는 이동 경로 순서인 '0 → 25 → 50 → 100 → 200' 순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SCAN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47-50] 사회, '대의 민주주의의 딜레마'

지문해설 : 이 글은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른 경우에 누구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글이다. '명령적 위임 방식'이란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자유 위임 방식'이란, 국회의원이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국민은 국회의원 선출권을 통해 국회의원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기도 하지만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주제] '명령적 위임 방식'과 '자유 위임 방식'의 장점과 단점과 이에 대한 보완 방

안

47. 사실적 사고(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해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의 관계에 대해 ‘명령적 위임 방식’과 ‘자유 위임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견해가 시간적 순서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명령적 위임 방식의 장점과 단점이 역으로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단점과 장점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두 견해는 국민과 대표자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⑤ 두 견해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소개하고 있을 뿐 어느 특정 견해를 지지하거나 특정 견해에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글이 아니다.

4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상황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될 경우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 법안에 찬성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하더라도 지역구 주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는 것이 명령적 위임 방식이다. ②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더라도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명령적 위임 방식이다. 기권 하는 것 역시 지역구 주민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것이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선거 공약에 따라 지역구 주민의 의사로 당선이 되었지만, 이후의 활동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에 해당한다. ④ 소속 정당의 당론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자유 위임 방식이다.

49.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것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하는 ‘자유 위임 방식’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직접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유 위임 방식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② 개별적 사안에 대해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다. ③ 명령적 위임 방식을 도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즉 국민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점이 국민이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⑤ 자유 위임 방식에서 국민과

2013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도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0. 어휘 · 어법(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근거를 찾으면’에서의 ‘찾으면’은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실마리를 찾다’의 ‘찾다’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원상태를 회복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잃거나 빼앗기거나 맡기거나 빌려 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거나 사람을 만나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거나 그 사람을 만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어떤 것을 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01. ③ 02. ④ 03. ① 04. ④ 05. ① 06. ③ 07. ⑤ 08. ④ 09. ③ 10. ①
 11. ④ 12. ② 13. ⑤ 14. ② 15. ② 16. ⑤ 17. ④ 18. ⑤ 19. ① 20. ④
 21. ③ 22. ⑤ 23. ③ 24. ② 25. ③ 26. ⑤ 27. ② 28. ① 29. ② 30. ①
 31. ⑤ 32. ③ 33. ④ 34. ⑤ 35. ③ 36. ⑤ 37. ③ 38. ② 39. ④ 40. ②
 41. ② 42. ① 43. ③ 44. ④ 45. ④ 46. ① 47. ⑤ 48. ① 49. ⑤ 50. ①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가곡 「보리밭」을 듣고 계신데요, 오늘의 주제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선사시대부터 재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에도 보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주몽’의 어머니 ‘유화’가 보리 씨앗을 비둘기 목에 달아 주몽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모작으로 보리를 경작해서 효과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보리가 주식이 아니다 보니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보리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보리는 쌀에 비해 칼슘, 철, 인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섬유소도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보리는 새삼 환영받는 곡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리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공 식품의 재료에서 동물용 사료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보리밭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보리는 참 쓸모가 많은 작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사실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대본에 의하면, 예전에는 지금보다 보리를 많이 재배했었다. 그것은 보리를 경작하면 이모작으로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씹는 느낌과 맛이 좋아 보리를 주요 곡물로 많이 재배했다는 설명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삼국유사에 보리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② 예전에는 이모작으로 보리를 경작해서 효과적으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④ 보리는 쌀에 비해 칼슘, 철, 인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섬유소도 몇 배나 더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리가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보리는 가공 식품의 재료에서 동물용 사료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보리밭을 조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도 있다. 이를 통해 보리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2. 다음은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선 시대의 모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볼까요? 드라마 촬영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앞쪽에 두 사람이 있군요.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오른쪽에, 윗부분이 잘린 원뿔 모양의 모자가 보이나요? 전모라고 합니다. 부녀자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던 외출용 모자인데, 대나무로 삿갓 모양의 테두리를 만들고 여기에 종이를 발랐습니다. 무늬가 화려하죠?

맨 왼쪽 남자가 쓴 것은 패랭이입니다. 정수리 모양이 둥근 패랭이는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어 만들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썼는데 보부상들은 목화송이를 큼직하게 엮어서 쓰기도 했죠.

화면 중앙에 나란히 서 있는 세 남자를 볼까요? 이 사람들이 쓴 모자는 모두 양반들이 주로 쓰던 것입니다. 그중, 가운데 사람이 쓴 모자는 유건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 베나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유건은 주로 유생들이 성균관 같은 학교나 집 안에서 썼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쓴 것은 탕건입니다.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아 마치 계단처럼 턱이 진 형태죠? 탕건은 유건과 달리 말의 갈기나 꼬리털인 말총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사람 중 오른쪽 남자가 쓰고 있는 모자는 갓입니다. 갓은 머리를 덮는 부분과 둥근 형태의 차양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나무와 말총을 주재료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탕건만을 쓰고, 외출할 때는 갓을 썼지요.

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남성들이 쓰며, 양반들이 쓰는 것으로 말총을 재료로 삼아 만드는 모자에는 탕건과 갓이 있다. 그런데 탕건은 집에서 쓰는 것이고 갓은 외출할 때 쓰는 것이다. 따라서 ‘외출할 때 쓰나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아니요’에 해당하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탕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갓은 남성 양반이 쓰는 모자 중 말총으로 만든 것이나 외출할 때 쓰는 것이다. ② 유건은 남성 양반이 쓰는 모자 중 검은색 베나 모시로 만든 것이다. ③ 전모는 부녀자들이 햇빛을 가리기 위해 쓰던 외출용 모자이다. ⑤ 신분이 낮은 남자들이 쓴 모자이며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서 만들었다.

3. 다음은 대담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이 시간에는 과학 기술 평론가 박 선생님을 모시고 적정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 : 네, 안녕하십니까?

여 : 먼저, 적정 기술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남 : 네, 적정 기술은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다수를 위한 기술입니다. 주로 가난한 나라나 저소득층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 지역의 환경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과 문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 : 예를 하나 들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남 : 큐드럼(Q-Drum)이라는 물통이 있습니다.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아프리카의 시골 주민들을 위해 개발한 것이죠. 지름이 50cm 정도 되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떠올려 보세요.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를 관통하여 줄이 걸려 있습니다. 물통을 손에 들거나 머리에 이는 대신 줄을 이용해 굴리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한 여성이나 어린이도 손쉽게 운반할 수 있죠.

여 :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소박하군요.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남 : 네, 지세이버(G-saver)라는 것도 있습니다. 몽골은 겨울철 기온이 낮아 난방이 중요한데요, 지세이버는 기존 난로 위에 부착하는 소형 기기로 열을 오래 지속시켜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설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연료 소모량을 40% 정도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오염 물질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 : 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적정 기술은 _____.

3. 추론적 사고(이어질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남자의 두 번째 말에서 적정기술이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며,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다수를 위한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정 기술이 지역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첨단 기술로부터 소외된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이므로 첨단 과학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적정 기술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술이다. ④ 적정 기술은 가난한 나라나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기술이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적정 기술은 전 세계인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도록 돕는 기술이다.

[4~5] 다음은 대화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 오늘 신문 봤어? '리더는 성과로 말한다'라는 특집 기사가 났더라. 역시 뛰어난 리더가 되려면 성과가 중요한 것 같아.

남 : 당연히 성과도 중요하지. 하지만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

여 : 그게 무슨 말이야?

남 : 너도 알다시피, 연극 경연 대회에서 우리 동아리가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연습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단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결국 그만둔 단원도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있었잖아. 우리 동아리 회장이 진정으로 뛰어난 리더였다면, 단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었을 거야.

여 : 글썄……. 나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덕분에 역대 어느 회장도 이룩하지 못한 성과를 낼 수 있어서, 우리 모두 기뻐했잖아. 그런데 합창반을 봐. 단원들 의견을 일일이 듣다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지역 대회에 나가지도 못했어. 이런 합창반 반장을 뛰어난 리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남 : 그것은 합창반 반장이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야.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해. 그리고 구성원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

여 : 단원들이 연습 과정에서 불만이 생긴다면, 나중에 적절하게 보상하면 되잖아!

남 : 아니지, 그러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 심지어는 부당한 요구조차 정당화될 수 있어.

여 : 너의 말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면 뛰어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남 : 그뿐 아니라 뛰어난 리더는 리더 자신보다도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해.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더라야, 헌신하고 봉사하는 리더도 될 수 있거든.

4. 사실적 사고(입장의 파악)

정답해설 : 남자는 뛰어난 리더의 조건으로,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구성원을 존중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며, 자신보다 단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함으로써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면 된다는 내용은 여학생의 견해이며, 남학생은 그렇게 하면 부당한 요구조차 정당화될 수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남학생은 구성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연극 경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단원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결국 그만둔 단원도 있다는 실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학생도 주장을 제시하는 데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합창반의 실제 사례를 들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객관적인 자료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③ 여학생이 신문의 특집 기사를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남학생과 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학생 모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말하기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여학생은 남학생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학생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진술이 모호하지도 않다. ⑤ 남학생은 여학생의 주장에 반박을 하며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학생은 마지막에 남학생의 견해를 정리해서 묻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학생의 견해를 수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것은 아니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지역 봉사 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과학 교실에서 학습 도우미로 활동했던 것을 과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과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봉사 활동으로 인한 부수 효과이지 이를 목적으로 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과학자가 되어 이웃과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싶다는 내용이 가장 첫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슈바이처 박사를 들면서 지식이나 능력을 남과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초등학교 과학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이 친형처럼 잘 따라 주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다는 내용과 입원 중에 같은 병동에서 새 친구들을 여럿 사귀었다는 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붙임성이 좋다고 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고 1 때 많이 아파서 한 달 동안이나 입원했지만 이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았다는 점,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삶과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겼다는 내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7. 창의적 사고 (개요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나. 불신 풍조의 확산으로 사회적 소통 단절’은 상위 항목인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회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거짓말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하위항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가.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 심리’는 ‘[1회] 거짓말의 심리적 동기’의 하위 항목에 해당한다. ‘사실 은폐와 위증’은 거짓말을 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1. 우리 사회의 거짓말 양상’의 하위 항목으로 적절하다. ② ‘1-라. 근절되지 않는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은 우리 사회의 거짓말이 아니므로, ‘거짓말이 넘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살피는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다. ③ [2회]의 작성 계획을 보면, 사례를 제시한 후 원인을 밝혀야 한다.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 ‘1-나’를 보면 루머와 흑색선전이 있다. 이처럼 루머와 흑색선전이 만연하는 것은 ‘신뢰성 없는 정보가 쉽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에 ‘신뢰성 없는 정보가 쉽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3-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부족'은 거짓말이 성행하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므로 '2'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8. 비판적 사고(글감 활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헌책 교환 행사가 정착되었을 때 지역 주민의 새 책 구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글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글감에는 주민들이 헌책을 쉽게 버리게 되는 이유, 헌책 활용 사례, 헌책 활용을 통해 부수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 등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주제는 '우리 지역의 헌책 교환하기 행사를 활성화하자'이다. 이 주제로 지역 관청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예상 독자로 삼아 글을 써야 한다. 지역 주민이 많이 봐야 글감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관청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지역 주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지역 주민들이 헌책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③ 글감에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헌책 베풀시장이 지역 명물이 된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유럽에 각양각색의 헌책 마을이 곳곳에 있으며, 문화적 명소가 된 곳도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의 문화적 위상 제고를 기대 효과로 제시할 수 있다.

9. 비판적 사고 (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꽃살문에서 꽃문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이다. 꽃살문의 꽃문양이 지닌 의미는 네 번째 단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네 번째 단락에서 꽃살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살문을 부분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의 조건에 의하면 글의 서두에서 내소사의 역사를 소개해야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도록 첫째 문단에 '내소사의 창건과 변모 과정'을 추가해야 한다. ② 둘째 문단은 꽃살문을 부분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셋째 문단은 꽃살문을 전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런데 조건에는 꽃살문 묘사를 전체에서 부분으로 하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맞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은 모란의 꽃말인데, 이는 꽃살문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는 문단의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⑤ 사진을 꽃살문이 잘 드러난 것으로 바꾸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심 소재의 사진을 첨부한다는 <보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10. 비판적 사고(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A]에 들어가는 내용은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감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상이어야 하며 관용 표현과 의인법을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①이다. ①에서는 내소사의 꽃살문이 마음속에 품은 뜻을 내게 말해 주었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의인법에 활용된 예이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관용 표현도 사용하여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내소사 꽃살문의 꽃문양들이 화려한 외모를 뽐내고 있었다는 것은 의인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화려한 외모’라는 내용은 앞서 제시된 글로부터 알 수 있는 글쓰이의 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글쓰이는 꽃살문의 특징으로 소박하고 단아함을 제시하고 있다. ③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감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인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④ 내소사의 꽃살문이 현대인들을 엄숙하게 꾸짖고 있었다고 하여 의인법을 활용하였으나 관용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였으나 의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11. 어휘·어법 (언어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무거운 침묵’의 특징으로 고정된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고정된 형식이라는 것은 ‘무거운’과 ‘침묵’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다른 말로 대체가 안 되며 앞뒤 순서를 바꾸면 부자연스럽거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여 주는 예는 ④의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이다. ‘뜨거운’ 대신에 ‘차가운’을 쓰면 ‘차가운 눈물’이 되는데 이는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차가운 목소리’는 사용하지만 ‘차가운 눈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물’도 다른 말로 대체가 되지 않는다. ‘새파란’도 ‘파란’ 등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젊음이’도 ‘어린이’ 등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뜨거운 눈물’과 ‘새파란 젊음이’가 ‘무거운 침묵’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말들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꽃다운 나이’에서 ‘나이’는 ‘외모’ 등으로 대체된다. ‘높다란 나무’에서 ‘나무’도 ‘건물’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진정한 친구’에서 ‘진정한’은 ‘착한’ 등으로 대체된다. ‘친구’도 ‘우정’ 등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씻누런 들판’에서 ‘씻누런’도 ‘파란’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③ ‘차가운 공기’에서 ‘차가운’ 대신에 ‘뜨거운’을 쓸 수도 있고 ‘공기’ 대신에 ‘물’을 쓸 수도 있다. ‘막다른 골목’의 ‘막다른’도 ‘예쁜’ 등으로 대체된다. ⑤ ‘팽팽한 대결’에서 ‘대결’은 ‘싸움’, ‘관계’ 등으로 대체된다. ‘가벼운 발걸음’에서도 ‘가벼운’은 ‘무거운’으로 ‘발걸음’은 ‘목소리’ 등으로 대체된다.

12. 어휘·어법 (연결어미의 쓰임 이해)

정답해설 : ㄱ을 보면 ‘-(으)면서’는 평서문과 어울리고 있으며, ㄴ을 보면 명령형, 청유형, 의문형 등과 어울리고 있다. 따라서 ‘-(으)면서’가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ㄱ의 ‘쳤으면서’와 ㄴ의 ‘나섰자’에는 공통적으로 ‘-었-’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가 사용되면 ‘-(으)면서’나 ‘-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③ ㄴ은 ‘동수가’와 ‘비가’로 앞뒤 부분의 주어가 달라 문장이 자연스럽다. 그런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데 ㄷ을 보면 앞뒤 부분의 주어가 같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④ ㄹ을 보면 ‘-(으)면서’는 ‘상냥하다’는 형용사와 어울리고 있다. 이 경우 상냥하면서 동시에 차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냥하고 차분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⑤ ㄴ의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는 ‘-(으)면서’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13-16] 현대소설 - 이태준, ‘돌다리’

작품해설 : 물질적 가치관에 젖어 농토를 팔아 병원을 확장하려 하는 아들과 땅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 사이의 갈등을 통해 땅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한 작품이다.

[주제] : 금전적 가치를 숭상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 비판

13. 사실적 사고(사건의 발생순서 파악)

정답해설 : 사건의 발생순서는 ‘어머니가 창섭을 맞이하다 → 창섭이 아버지에게 계획을 말하다 → 아버지가 다시 개울가로 나가다 → 장정들이 다릿돌을 놓다 →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버지가 점심상을 받다’이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향을 찾아가는 창섭의 심리와 처지(땅을 팔자고 할 수밖에 없는 창섭의 처지)를 서술함. 2. 고향집에 도착한 창섭이 어머니와 대화하고, 이를 보고 개울에서 집으로 들어오시는 아버지. 3.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함. 4. 아버지가 창섭의 이야기를 다 듣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그리고 장정들이 다릿돌을 놓고 있는 현장을 가보기 위해 다시 개울로 나감. 5.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창섭에게 땅을 팔 수 없는 이유와 땅에 대한 신념을 밝힘.

14.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

정답해설 : 서두 부분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을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와, 지문 끝 부분의 아버지의 발화를 통해 ‘완고한 아버지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창섭은 자아로서의 논리를 통해 세계(아버지)와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을 뿐 ‘해소하는 인물’로는 볼 수 없다. ③ [A] 부분의 ‘지금 시국이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의 일’을 통해 창섭이 ‘세계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들은 것일 뿐 그러한 세계를 ‘고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창섭과 어머니의 대립과 갈등, 갈등을 조정하는 아버지의 역할도 이 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서울루! 제발 아이들하구 한데서 살아봤음 원이 없겠다.’는, 손자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내는 것일 뿐 어머니가 ‘자신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아와 갈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5.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와 장면의 서사 기능 파악)

정답해설 : [A]는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는 창섭의 발화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는 병원 확장 계획과 땅을 팔아 부모님을 모시려는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창섭의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생긴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아버지 소유의 땅을 팔아 자신의 병원을 확장하려는 계획 자체가 창섭이 이해관계에 얽매인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창섭’은 적절하지 않다. ③ 시국 탓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땅을 팔아야 하는 근거로 든 것일 뿐이므로 이를 ‘현실을 대하는 태도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창섭이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사려는 건물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므로 이를 창섭의 ‘배려심 많음’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창섭의 말투가 드러나려면 장면을 직접 제시하는 대화가 더 적절한데 [A]는 창섭이 한 말을 작가가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고, 창섭의 말투가 아니라 창섭이 한 말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말투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추론적 사고(공간의 서사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로 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인물이므로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두루 퍼져 있는 당시의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땅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② ‘넌 그 다리서 고기를 잡던 생각두 안 나니?’,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고, 내가 천잘 끼구 그 다리루 글 읽으러 댕겼다.’를 통해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추억과 애환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곤 한다. ④ ‘장소애의 의미’란 땅이 ‘천지만물의 근거’, ‘조상들과 그 땅의 인연’이라는 아버지의 발화를 말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7-20] 인문,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비트겐슈타인이 “논리 철학 논고”에서 주장한 ‘그림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그는 이 이론을 통해 언어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 말하고, 언어에서의 명제와 세계에서의 사태가 각각 대응한다고 말한다. 이때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따라서 명제 역시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며,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은 실제 일어난 것의 여부에 달려 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다. 결국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은 의미 없는 명제라고 말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형이상학적 철학에 대해 비판한다.

【주제】 그림 이론을 통한 비트겐슈타인의 기존 철학에 대한 비판

17.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비트겐슈타인은 ‘그림 이론’을 통해 세계와 언어의 관계를 규명한다. 세계에 속하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명제라는 것이다. 이때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랬을 경우에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④의 경우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모두를 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러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모두가 참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마지막을 보면,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을 철학의 과제로 삼았다는 진술이 있다. ②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논고”가 논리실증주의와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1문단에 진술되어 있으며, 2문단을 보면 이 책에서 그가 주장한 것이 ‘그림 이론’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명제와 대응하는 세계의 요소가 ‘사태’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다. ⑤ 4문단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제 등과 관련된 논의는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에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1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 없는 명제’는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을 가리킨다. ⑤의 명제는 경험적 세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바람직한 삶’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험적 세계에 대한 언급으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② 과학의 법칙으로 경험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사태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③ 실존했던 인물의 탄생 시기와 지역을 언급한 것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다. ④ ‘우리 반 학생’이라는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헌혈’이라는 구체적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19. 사실적 사고(의미 관계의 파악)

정답해설 : ㉠과 ㉡은 그림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이때 ‘모형’은 ‘언어’로, 실제 사건은 ‘세계’로 바꿀 수가 있다. 또한 언어는 ‘명제’로 구체화되며, 세계는 ‘사태’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의 연결도 ㉠과 ㉡의 관계에 해당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의 ‘논리적 그림’은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명제 중에서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를 비트겐슈타인은 구분한 것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따라서 ㄷ의 관계는 상하의 논리 관계에 속한 것으로, ㉠과 ㉡관계와는 다르다. ㄴ의 형이상학적 주체는 경험할 수 없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기에 경험적 세계와는 대립된 것이다.

20. 비판적 사고(핵심 논리에 따른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는 비트겐슈타인의 말로, 그는 “논리 철학 논고”를 이해한 사람은 그 내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로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문을 보면, 그는 의미 있는 명제는 실재하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내용을 연결시키면, 결국 “논리 철학 논고”는 경험 가능한 사태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의 책은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넘어서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비트겐슈타인이 내세웠던 철학의 과제는 언어에 대한 분석이므로, “논리 철학 논고”가 이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다. ②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를 다룬 이 책은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아니다. 또한 만약 객관적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언급이라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일어나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사태이다. 이때의 사태를 언급한 명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④의 답지는 ‘실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라고 진술하고 있어 앞뒤의 진술 내용이 모순이 된다. ⑤ ㉠은 형이상학적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21-24] 기술 ‘이어폰으로 소리의 공간감을 구현하는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만든 기술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청각 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단서를 이용해 음원의 위치를 지각한다. 우선, 음원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가 나타나서 수평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또 고주파음의 경우 장애물 역할을 하는 머리로 인해 ‘소리 그늘’ 현상이 나타나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내는 데 활용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으로 인해 소리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차이도 느끼게 만든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이어폰에서는 스테레오 음악을 구현해 내고 있다.

[주제] 이어폰으로 공간감을 구현하는 원리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둘째 문단 참조. “음원의 위치는 소리가 오는 수평·수직 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를 이용하여 지각”하는데, 이 음원의 위치를 지각하는 “정확도는 음원의 위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와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음원의 위치를 지각하는 것은 방향과 거리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내는 기관이다.(2문단) ② 사람의 청각체계는 두 귀 사이, 그리고 각 귀와 머리 측면 사이의 상호 작용 등의 단서들을 이용하여 음원의 위치를 알아낸다.(2문단) ④ ‘소리 그늘’, 즉 음원의 반대쪽 귀에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은 머리 때문에 반대쪽 귀에 소리가 잘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4문단) ⑤ 머리 측면과 귓바퀴의 굴곡에 의해 소리가 반사되면 간접 작용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생겨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진다.(5문단)

22.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소리 그늘’ 현상은 주로 고주파의 대역에서 일어난다. 저주파의 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리 그늘’ 현상은 주로 고주파 음원의 수평 방향 파악에 중요한 단서가 되며 저주파 음원에서는 ‘소리 그늘’을 활용하기가 어렵다.(4문단)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두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을 감지하면, 음원의 수평 방향을 알아낼 수 있다. 음원까지의 거리가 아니다.(3문단) ② 음원의 공간감은 음원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문단의 질문에 이어진 둘째 문단이 음원의 위치를 지각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소리의 크기는 공간감을 느끼게 하지만, 주파수 분포는 공간감과 무관하다. “사람의 귀는 주파수 분포를 감지하여 음원의 종류를 알아내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③ 음원의 수평 방향은 두 귀에 도착하는 순서, 시간 차이 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리가 울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소리가 좌우로 시차를 두고 들리게 되기 때문에 음원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반사된 소리들은 상호 작용에 의해 ‘간접’까지 이루어져 주파수 분포의 변형이 나타난다.(5문단) ④ 귓바퀴의 굴곡은 음원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도착 순서와 시간 차이, ‘소리 그늘 현상’등을 활용하여도 음원의 수평 방향은 지각할 수 있다.

23. 추론적 사고(원리의 적용)

정답해설 : 같은 소리가 두 귀에 들리는 시간 차이는 음원의 수평 방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은 ‘발 바로 아래에서 나는 소리’는 귀의 수직 방향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시간차를 이용한 소리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소리의 크기는 거리와 관계가 깊다.(2문단) ㉡는 멀어지는 소리이므로 크기와 관련이 깊다. ② 머리 위의 수직 방향에서 나는 소리는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1000Hz 이상의 소리를 고음이라고 하고, 그 이하를 저음이라고 한다. 오른쪽인 수평 방향을 감지하게 하도록 시차를 두고 있다. ⑤ ㉢ 유리잔 깨지는 소리는 ‘소리 그늘’ 효과가 생기는 고주파 음원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24. 어휘 어법(문맥에 맞는 적절한 한자어의 파악)

정답해설 : ‘치중(置重)하다’는 ‘어떤 것에 특히 중점을 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은 중점을 두어 강조한 것이 아니고 위치가 한 쪽으로 쏠린 것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현상이지 어떤 강조된 의미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음악을 듣는 것이므로 ‘청취(聽取)’라고 바꾸어도 무방하다. ③ ‘파악(把握)하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알아내다’라는 뜻이다. ④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발생하다’를 써도 된다. ⑤ 소리의 크기와 관련된 어휘이므로 소리의 크기나 양이 감소하다로 바꾸어 써도 된다.

[25-28] 고전소설 - 박지원, ‘호질’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당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이면을 폭로함으로써 당대 사회의 위선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학자와 열녀로 이름이 있는 이들이 보이는 가식적인 행태를 통해 인간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지배층의 위선에 대해 비판하고자 하는데, 범이라는 존재를 내세움으로써 작가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특징을 지닌다.

[주제] : 선비의 위선적 의식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에 대한 비판

25. 추론적 사고(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다)는 북곽 선생을 여우가 둔갑한 존재로 여기고 그 북곽 선생(여우)를 잡아 죽이려는 장면인데 이로 인해 (라)에서 다섯 아들이 북곽 선생을 붙잡으려고 방을 급습하고 간신히 도망치는 북곽 선생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가)와 (나)에는 모두 인물 간의 대립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나)와 (다)는 모두 대화 중심으로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④ (라)와 (마) 모두 갈등이 나타나 있을 뿐 ‘갈등 해결’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마)와 (가)는 구조면에서 유사한 점이 나타나 있지 않다.

26. 비판적 사고(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뿐만 아니라 이 글 전체에는 북곽 선생의 ‘성찰’은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의 ㉠(밤)과 ②의 ㉡(방)은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명성과는 달리 욕망을 드러내는 시간이므로 두 인물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 ‘북곽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시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구덩이)는 옷을 더럽힌다는 의미와 북곽 선생이 불순하게 되었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아침)은 농부에게 허위적 모습을 보이는 북곽 선생의 태도를 드러내고 이는 사람들이나 호랑이에게 보이는 위선적 태도와 동일선상에 있는 모습이므로 ‘재확인하는 시간’이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27. 추론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는 위선적이고 허위적인 복곽 선생이 그려져 있을 뿐, 부를 이용하여 벼슬을 얻었다는 정보를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여우가 사람 시늉을 한다는 것은 복곽 선생이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그림자를 감추다’는 것은 허위적 모습과 아부하는 태도(치부)를 감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애교를 부린다는 것을 복곽 선생이 호랑이에게 비굴하게 구는 태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⑤ 여우는 복곽 선생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를 잡아 죽이자는 말은 복곽 선생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는 것으로 복곽 선생이 봉변을 당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8. 사실적 사고(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정답해설 : 자화자찬은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랑함’을 나타내는 말인데 (라)~(바)에는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감언이설’은 ‘남의 비위에 맞도록 꾸민 달콤한 말과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인데 이는 (마)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맞추어 일을 알맞게 처리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라), (마), (바)에 두루 나타나 있다. ④ ‘대경실색’은 ‘크게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변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다섯 아들이 덮치는 장면과 호랑이를 만나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⑤ 전전긍긍은 ‘매우 두려워 조심함’을 뜻하는 말인데, 이러한 태도는 (마)와 (바)에서 호랑이를 대하는 복곽 선생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29-30] 사회, ‘외부성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

지문해설 : 이 글은 경제학에서의 ‘외부성’을 설명한 후, 이러한 외부성이 사회 전체로 보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별 경제 주체는 이기적 경제 활동을 추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 역시도 비용이 드는 것이기에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제] 외부성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비효율성과 이의 해결 방안

29.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외부성은 제3자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인데, 두 경우 모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익을 준다고 해서 비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②**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둘째 문장을 보면,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 이는 개별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③ 4문단 첫 문장에서 전통적 경제학에서의 해결 방안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 2문단 처음을 보면, 사회 전체로 보아 이익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효율성이 충족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이며, 비효율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을 보면, 외부성은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부성'이라고 볼 수 없다.

30. 추론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의 사례는 외부성으로 인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즉, 공장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해진다. 이 경우, 생산량을 이윤 극대화하는 양보다 줄이게 되면 공장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크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답 ①

[31-36] 시가복합

(가) 박재구, 「구두 한 결례의 시」

작품해설 : 이 시는 고향에 다녀온 화자가 자신의 낡은 구두와 관련하여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이미 다녀온 고향의 풍경을 나타내면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 들린다.',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저문 고향의 강물소리를 들려준다.'와 같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고향의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펼쳐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작품에 드러난 계절적 배경은 '겨울 보리', '살얼음', '영하속' 등으로 보아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문턱이다. 낡은 구두를 신고 고향을 다녀온 뒤에 화자는 고향의 모습을 구두에 묻혀 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묻혀온 고향의 모습을 출렁거리는 강물소리로 떠올리고 있다. 즉 시각과 청각 등 다양한 감각 외에 구두에 강물소리가 묻어 있다는 등 공감각적인 표현까지 사용되어 한층 다양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물의 '출렁출렁' 소리가 신발의 '덜그럭덜그럭' 소리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참신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독특하고 인상적인 표현으로 평가된다.

[주제] 고향을 다녀온 뒤에 떠올리는 고향의 이미지

(나) 김동환, 「산 넘어 남촌에는」

작품해설 : 이 시는 봄이 오는 '남촌'을 배경으로 하여,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부드럽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때 '산 너머 남촌'은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를 상징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전개되는데, 첫 번째 부분인 1, 2 연에서는 남촌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풍요로움과 흥겨움, 그리고 화자의 상상 속에 아름답게 존재하는 남촌의 자연에서 느끼는 다정함과 평화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3연에 이르러서는 남촌에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노래하며 화자의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운 생각에 재에 오르니’라는 구절은 바로 남촌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시행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남촌에 대한 매우 친밀한 느낌을 품고 있는 것은 그 곳이 매우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 남촌에 임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따뜻한 내용들을 7.5조 3음보의 운율에 담아 노래함으로써 민요풍의 느낌을 준다. 그리고 시 전체적으로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봄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표현되는 것도 특징이다.

[주제] 이상 세계에 대한 그리움

(다)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작품해설 :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지은이 이광명은 10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독자로 자랐다. 영조가 즉위한 후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극심할 때에 이광명의 백부인 이진유도 그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는데, 결국 당쟁에서 패한 백부 이진유가 의금부에서 죽게 되자 집안이 급격히 기울고 많은 종형제들의 벼슬자리가 모두 끊기는 비운을 맛보게 되었다. 이런 당쟁의 살벌한 현장을 지켜본 이광명은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 강화도에 내려와 살았다. 그러나 을해사옥의 여파로 백부 이진유에게 역률이 추가로 시행되는 불행이 생기고, 이 여파로 이광명 또한 사촌 형제들과 더불어 유배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광명은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를 갔으며, 그곳에서 멀리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작품을 지었다.

[주제] 유배지에서 보내는 애절한 사모곡

31. 사실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세 개 작품에 대한 각각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작품에 드러나는 속성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가)에서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보는 내용의 작품인데, 구두라는 중심 소재부터 고향의 풍경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제재들까지 대부분 친숙한 사물들이 활용되고 있다. (나)도 한가로운 시골의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달래, 보리, 실개천 등 여러 제재들을 활용하고 있고, (다) 또한 달이라는 전통적이고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 작품은 모두 친숙한 사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친숙한 사물들을 활용하여 (가)에서는 고향을, (나)에서는 남촌을, (다)에서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세 작품의 공통점은 친숙한 사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현실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② 대조적인 소재를 연속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시적 긴장감을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③ 세 작품 모두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긴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세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④ 일상생활의 제재들이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 작품 모두 이에 대한 관찰을 통해 교훈을 얻어내는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3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고향에 다녀온 뒤 고향의 찰랑거리는 ‘강물 소리’를 떠올리고 있다. 이 ‘강물 소리’는 현재 화자가 있는 곳과 화자의 고향을 심리적으로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화자는 고향에 대한 애뜻한 정서를 강물 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강물 소리’는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노래’는 화자가 듣고 있는 것으로,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랑의 노래를 의미한다. 이는 남촌에 있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이’라는 표현이 ‘조용히, 편안히’라는 의미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임과 남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겨울 보리를 의미하지만, (나)에서는 오월의 보리를 의미한다. ② (가)의 꿈은 화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다)의 꿈은 잠자면서 꾸는 것으로 어머니를 만나 뵙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④ (다)의 추풍은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으로 동경하는 세계와의 매개와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구름은 화자의 시야를 가리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고, (다)의 ‘구름’은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33. 사실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남촌이라는 이상 세계를 설정하고 그곳에 대한 그리움을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다. (나)의 1연과 2연에서는 새로운 소재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유사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3연에 이르러서야 다소 어조가 달라지고 부분이 나옴 뿐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찰랑찰랑’으로 표현되던 강물의 이미지가 ‘덜그럭덜그럭’이라는 구두의 이미지로 이어지면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③ (가)는 하나의 연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고향을 떠난 현실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⑤ (나)는 1연과 2연에서 대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제재 및 시어의 선택을 통해 작품 전체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34.창의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하이데거의 철학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준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보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항 유형이다.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지닌 표면적인 의미 외에 사물 속에 내재하는 의미까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를 감상할 때, 고향을 다녀온 화자가 자신의 낡은 구두를 보면서 새삼 고향에 대한 여러 상념들을 떠올리는 것은 고향에 대해 무심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고향을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낡은 구두에는 고향에 대한 지속적인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는 ⑤에 적절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의 분위기로 볼 때, 봄을 맞는 기쁨보다는 지난 일, 두고 온 곳에 대한 애틀함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구두와 자신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구두를 통한 새로운 인식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구두를 구체적인 사물로 인식하여 도구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구두가 자신의 삶과 유사하게 그려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판적 견해가 드러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고향의 익숙한 모습을 제시하면서 구두가 초면이라는 의미는 이 구두가 이토록 낡을 때까지 고향에 들른 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 고향에 매우 오랜만에 왔다는 것을 뜻한다.

35.사실적 사고(작품의 구조 파악)

정답해설 : (나)는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으로, 반복과 대구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1연과 2연은 매우 유사한 형식을 지니고 있어 운율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연에 이르러서는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강한 형식적인 요소가 다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작품 감상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주고 단조로운 느낌을 약화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그러므로 ③에서 각 연의 세 번째 연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내용은 <3>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적절한 서술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 <2>, <3>의 구성이 모두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은 2행씩 배열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② 똑 같은 구절로 시작되는 형식은 작품에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고, 작품이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느낌을 준다. ④ 1연과 2연은 대구의 사용과 반복적인 형식 등이 매우 유사하지만, 3연에서는 앞부분에서 강조된 특징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변화된 형태를 드러낸다. ⑤ <1>과 <2>의 각 2연은 두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행의 문장 구조가 같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36.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다)는 멀리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절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마음은 늘 어머니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꿈속에서는 늘 어머니 계신 곳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뵙고 있지만, 화자의 현실은 지극한 그리움만 안고 있을 뿐이다. 이 때, 흐르는 ‘내’와 창가에서 노닐고 있는 ‘새’는 어머니에게 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와 ‘새’는 화자의 지극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함축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해’는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산’은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장애이다. ② ‘해’는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③ ‘달’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④ ‘산’은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장애이고, ‘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37-39] 희곡 - 함세덕, ‘산허구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에 “조선문학”에 발표한 함세덕의 처녀작으로,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산허구리’는 ‘복조’의 죽음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사실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그려 내어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쪽 다리를 바다에 빼앗기고 두 아들, 사위마저 바다에 빼앗긴 채 폐인이 된 ‘노어부’, 노어부의 아내로 큰 아들과 사위를 잃은 슬픔을 미처 추스르기도 전에 둘째 아들 복조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실성해가는 ‘처’, 노어부 부부의 큰딸로 남편을 바다에 빼앗기고 도적질로 연명하는 ‘분 어미’, 그리고 형제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둘째 딸 복실이와 셋째 아들 석이 등 복조의 죽음을 계기로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펼쳐지는 내용의 비극성은 완결된 비극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산허구리’는 1930년대 극 장르의 확립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식을 잃은 절절한 슬픔에 정신줄이 오락가락 하는 처의 행동과 가족 전체를 내리누르고 있는 비극적 삶으로 인한 무거운 분위기 등은 이 극이 관객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작품으로 기억되는 데 일조를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완결된 비극적 구조의 형식적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극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소극적 현실 인식으로 일관하여 작가 의식의 허약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주제] 어촌 마을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

3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각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희곡에서는 대사와 동작을 통해 작품의 내용이 전개되므로, 내용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파악은 물론 인물들이 각각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윤 첨지’는 덩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스킷한 연배의 동질감을 보여주면서 자식을 잃은 노어부의 슬픔에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노어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격한 감정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애쓰게 살아왔지만 고생만 평생 했고 남는 것이 없다는 한탄을 담은 노어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 노어부가 윤 첨지에게 동의를 구할 때 윤 첨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노어부의 말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다. 말이 없는 행동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데, 윤 첨지의 행동은 동의, 공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복조’와 ‘복실’은 친형제이다. 석이가 복실에게 누나라고 하고, 죽은 복조를 보고 작은 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석이’는 복조의 죽음에 대해 큰 슬픔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런 단계를 지나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④ ‘분 어미’의 친정이 어디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복실’은 어린 시절을 행복하기만 했다고 여기고 있지 않다. 이는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라는 말로 드러나는데, 매우 궁핍하게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추론적 사고(특정 제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복조의 시체를 찾아 동네 사람들이 이를 복조의 집으로 옮겨 온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복조의 송장을 운반해올 때 물이 똑똑 떨어진다는 것은 복조의 송장을 물가에서 찾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복조의 송장이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끼어 있었다는 동리 사람의 말은 이런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정보가 상반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리 사람들이 물이 똑똑 떨어지는 복조의 송장을 들고 오는 것은, 복조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시각적 효과로 드러낸다. ③ 무대 밖으로 나간 처의 소리가 계속 들리게 설정함으로써 처가 계속 웃고, 울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④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동작을 전달해주는 내용이므로, 관객들이 이전에 일어났던 처의 행동과 관련하여 전달 내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⑤ 먼동이 튼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39.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의 흐름 속에서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팽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재이다. 일단 비극적 현실 앞에서 표출되는 노어부의 분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노어부와 처의 불안정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처와 노어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내게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깡이’가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깡이는 노어부가 가지고 무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노어부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② 깡이는 죽은 복조와 관련이 있으므로 노어부가 깡이를 가지고 들어오자 처는 아들 생각으로 그것을 빼앗게 된다. 이는 처가 노어부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③ 처는 깡이를 잡아 뺏고 노어부는 그것을 다시 뺏으려다가 멈추고 하는 행동을 통해, 처와 노어부의 충돌의 매개가 되고 있다. ⑤ 깡이에 대한 집착은 죽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관객들은 처의 행동을 통해 아들을 잃은 처의 허망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처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연민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40-42] 언어 ‘한글의 표음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중국의 운서가 택한 ‘반절법’이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 대응이 아니어서 중국의 한자음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한 반면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에서 한글은 일종의 발음 기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표음 문자인 한글의 유용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의 표음성을 ‘발음 기호’와 혼동하면 안 된다. 한글은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현 환경이 다른 음성이어도 국어 화자들에게는 동일한 말소리로 인식되는 경우, 이를 표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음소적 차원의 표기를 따른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한글은 표음성의 원리를 위해 ‘정확한 발음을 적는 것’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표기법을 택하고 있다.

[주제] 표음문자인 한글의 음소적 특성

40.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사성통해』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반절법으로 한자의 발음을 표기한 것은 중국의 운서이다.(2문단)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였다. 이를 반절법이라고 불렀다.(1문단) ③ 『사성통해』

조선 시대 역관들은 중국의 운서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성통해』를 이용하여 학습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중국의 한자음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한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 ④ 사성 통해에서 ‘東’의 발음을 한글 [동]으로 표시하였는데, 이는 한글을 발음 기호처럼 활용한 것이다.(2문단) ⑤ 이상적인 발음 기호에 요구되는 것은 발음과 기호의 완벽한 일대일 대응이다. 한글이 그런 이상적인 발음기호가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3문단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41.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중국의 운서는 두 개의 한자를 이용해 한자음을 표현한다.(1문단) 그러므로 두 개의 발음이 나는 한자는 4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고 3개의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6개의 한자를 이용하면 표현이 가능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반절법’은 한자를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표시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발음을 알지 못하면 초성과 중·종성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알고자 하는 한자의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③ ‘東’(동)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다른 한자를 사용하였으며, ‘東’이 다른 한자들의 발음 표시에 사용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자가 발음 표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수단이 되기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東’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 “‘德’과 ‘紅’ 대신에 다른 한자들이 사용될 수 있었”다는 말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1문단) 일관성이 없어서 학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⑤ 한 글자의 발음을 알기 위해 하나의 발음 기호를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음을 조합해야 하므로 학습하는 데 불편했을 것이다.

42. 추리적 사고(원리의 적용)

정답해설 : [고궁이 크다]에서 같은 음으로 표시된 ‘고’의 ‘ㄱ’과 ‘궁’의 ‘ㄱ’이 B에서는 무성음 [k]와 유성음[g]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한글은 음소적인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4문단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한글은 무성음 [k]와 유성음[g]의 다른 소리를 같은 음자인 ‘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음성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지 않고 음소적 차원에서 말소리를 적는다고 한다. ③ “출현 환경이 다른 어두의 [p]와 모음 사이의 [b]”에서 출현 환경은 어두와 모음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무성음 [k]는 어두에서 소리나고 유성음[g]는 모음 사이에서 소리가 나고 있으므로 출현 환경이 다르다. ④ ‘고궁이 크다’에서 ‘궁’의 ‘ㅇ’은 ‘[ŋ]’으로 ‘이’의 ‘ㅇ’은 무음 ‘∅’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발음과 기호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았다. ⑤ B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기한 것이 아니라 발음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음성적 차원의 표기이다. 반면 A는 음소적 차원의 표기이므로 B가 표음성이 낮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3-46] 예술, ‘바로크 시대 음악, 정서론과 음형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서양 음악 중, 바로크 음악의 과제와 그 해결을 모색하는 흐름을 소개하는 글이다.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한 기악은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성악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서론에서는 한 곡에 하나의 지배적인 정서가 실려야 청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락의 고저, 휴지, 단절 등의 연주 방식의 중요성을 주장하였으며, 마테존은 음조와 특정 정서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연결하고,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하여 가락, 리듬, 화성 등의 형식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후 한슬리크는 음들의 단순한 결합을 통해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제] 바로크 음악의 과제와 해결을 위한 노력

43. 사실적 사고(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바로크 시대 음악의 전개를 서술하고 있다.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한 기악이 바로크 시대에 들어와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시대적 배경으로 보여준 후, 당시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기악이 어떻게 일정한 의미를 담아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즉, 당시의 음악적 과제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악가들의 노력을 살피고 있다. 정서론과 음형론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을 통해 기악이 의미를 담아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부어마이스터나 마테존, 한슬리크 등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음악 이론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한 것은 아니다. ② 비유적인 예가 아니라, 실제의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④ 정서론과 음형론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론의 다양한 분화 과정은 아니다. 특히 정서론의 경우에는 다양성을 찾기 어렵다. ⑤ 문답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44.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을 보면, 마테존은 성악곡인 아리아를 분석하면서, 마치 기악곡인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형식에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④에서는 ‘가사의 의미와 악곡의 전개 방식들의 관계’라고 서술되어 있어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 처음에 악기의 발달, 다양한 장르 형성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 처음에서 정서론과 음형론이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기악 음악에 적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③ 3문단 마지막에서 부어마이스터는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쉬거나 음들이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가사로 표현되는 언어와 음악의 기법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⑤ 5문단 마지막에서 한슬리크는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4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보기>는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기법과 가사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지문에서 진술된 내용과 연결하여 해석하면 된다. ④의 온칩표는 ‘아무 말 없네’라는 가사의 뒤에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를 부어마이스터의 견해와 연결하면 가사의 뜻에 맞춰 ‘아무 말 없음’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고 할 수 있다. 지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말의 장단’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마테존에 따르면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하는 것이다. ②
 음들이 딱딱 끊어지는 스타카토는 가사의 뜻에 맞춰 ‘떨어지는 눈물’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열리는 신의 하늘’이라는 가사에 맞춰 음을 점점 올라가게 하
 고 있다. ⑤ 다장조로의 조바뀜은 ‘환희’라는 가사 내용에 맞추어 기쁨의 정서와 관련
 된 음조로 변화시킨 것이다.

46. 어휘(문맥에 적합한 어휘의 파악)

정답해설 : 연주 방식과 관련된 어휘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손가락으로 가야금을 연주
 하는 것은 ‘현악기의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다’의 의미를 지닌 ‘튕기’가 적절하며, 채
 로 장구를 연주하는 것은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의 의미를 지
 닌 ‘치기’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치기’는 A가 아닌 B에 적절하다. ‘켜기’는 ‘현악기의 줄을 활 따위로
 문질러 소리를 내다’의 의미이다. B는 장구이기에 현악기가 아니어서 적절하지 않으
 며, A의 경우에도 활 등의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타기’는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의 의미로, A에 들어갈 수 있다. ‘통
 기기’는 ‘기타, 하프 따위의 현을 당겼다 놓아 소리가 나게 하다’의 의미여서 B에 적
 절하지 않다. ④ ‘켜기’는 A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드리다’는 ‘소리가 나도록 잇따라
 치거나 때리다’의 의미로, B에 사용할 수 있다. ⑤ ‘통기기’는 A에 사용할 수 있으나
 ‘타기’는 B에 사용할 수 없다.

[47-50] 과학 ‘불확정성의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물체를 보는 일은 ‘대상에 부딪쳐 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인데, 이는 작은 교란
 이어서 ‘책을 읽거나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일’에서는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그러나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고도의 측정 기술
 로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이다.

‘전자’와 같은 소립자를 ‘보기’ 위해서는 전자에 빛을 쏘아 충돌시킨 후 튕겨 나오
 는 광양자를 관측해야 한다. 그런데, 광양자의 충돌로도 전자는 교란이 일어나 정확한
 운동량을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운동량이 가장 작은 빛인 긴 파장의 빛을 전자에
 충돌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자의 위치 측정이 부정확해진다. 반대로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 짧은 파장의 빛을 쏘면 광양자의 충돌로 인해 전자는 속도
 가 크게 변하게 되어 전자의 운동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소립자의
 세계에서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확
 정성의 원리이다.

[주제]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원리

47.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광양자의 운동량이 크면 안 된다. 운동량이 큰 빛, 즉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하면 광양자와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운동량을 측정한 값이 부정확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문단에 정리된 내용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 시킨다고 했다.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라도 전자는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 ② 물리학자들은 측정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측정에 교란이 되는 요소를 극복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2문단) ③ 4문단을 보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속도가 높아질수록 운동량이 커진다. 즉 속도에 운동량은 비례한다. ④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리면 야구공에 광양자가 충돌하지만 그 때의 교란은 미미한 것이다.’라는 2문단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8.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물리학자들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면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측정 오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자를 보는 것’은 소립자를 측정하는 것이기에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시켜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전자의 충돌 위치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전자를 ‘보기’ 위해서는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 시킨 후 튕겨 나오는 광양자를 관측해야 한다. ③ 대상이 작긴 하지만, 광양자를 이용하면 감지할 수 있다. 즉 측정할 수 있다. ④ 전자는 책과 달리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의 해석 여부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관계가 없다. ⑤ 책을 보는 경우와 전자를 보는 것은 모두 대상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하여 이루어진다.

49. 추론적 사고(과학적 원리의 적용)

정답해설 :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한다는 것은 5문단을 보면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킨다는 뜻이다. 이는 전자의 운동량에는 영향을 덜 미치지만 전자의 위치 측정을 부정확하게 만든다.(5문단) 그러므로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면, ㉠에 나타난 전자의 위치 측정은 더 부정확하게 된다. 측정 오차 범위가 커지게 된다는 뜻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전자에 일정한 빛을 쏜 후에 측정한 값이다. 그러므로 광양자에 의한 교란이 일어난 후의 값이다. ②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된다. 운동량이 주어졌으므로 질량을 알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는 일정한 파장의 빛을 쏘아서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 있다. 오차 범위를 ㉠보다 줄일 수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홀수형 기준)

없다고 했으므로 ㉞는 최소 오차인 셈이다. ④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이 부정확하게 되므로,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없다.

50. 어휘(사전적 의미)

정답해설 : ‘측정’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재거나,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여 잴다는 의미이다. ①의 ‘잡다’는 ‘어떤 수나 가치 따위를 기준으로 세우다.’의 뜻으로 쓰였다. **정답①**

[오답피하기] ② ‘(수확량을) 대강 어림잡아 헤아려보니’의 의미, 양을 측정한다는 뜻이다. ③ ‘(바지 길이를) 자 따위의 계기를 이용하여 그 정도를 알아보다’, 즉 길이를 측정한다는 뜻이다. ④ ‘가늠하다’는 ‘어림잡아 헤아리다’의 뜻이므로 여기서는 ‘넓이를 어림잡아 측정해 본다’는 의미로 쓰였다. ⑤ ‘대강 짐작으로 헤아려 보다’의 뜻으로 ‘건물의 높이를 대강 짐작해서 측정해 보았다’는 의미이다.

01. ⑤	02. ③	03. ①	04. ②	05. ④	06. ②	07. ①	08. ②	09. ⑤	10. ③
11. ①	12. ⑤	13. ①	14. ③	15. ④	16. ⑤	17. ①	18. ②	19. ①	20. ④
21. ③	22. ④	23. ③	24. ③	25. ②	26. ④	27. ①	28. ①	29. ④	30. ⑤
31. ⑤	32. ④	33. ⑤	34. ④	35. ⑤	36. ⑤	37. ③	38. ②	39. ④	40. ③
41. ③	42. ③	43. ②	44. ④	45. ③	46. ①	47. ③	48. ②	49. ①	50. ②

[1-5] 듣기

1.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이 고을에는 논밭이 워낙 적어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고을 관아에서는 양식을 나누어 주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원님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양식을 그냥 줄 수 없네. 저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사람에게만 양식을 품삯으로 주겠네.”

일이 시작되었지만, 황무지를 밭으로 일구는 일은 고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품삯으로 받는 양식도 그리 많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하나, 둘 일을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전들은 양식을 그냥 나눠 주자고도 말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내게도 생각이 있단네.” 하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밭을 일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황무지는 밭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마지막까지 남아 일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간 품삯을 좀 박하게 주었지? 남은 품삯은 지금 주겠네. 바로 저 밭 일세. 저 밭은 이제 자네들 것이네.” 하며 그 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굶주리는 사람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양식을 생산할 농토가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당장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양식을 나누어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의 도움(양식)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농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⑤가 이 이야기의 교훈으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② 원님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을 시켜 밭이 일구어지자 이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행동은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준 것이다. 원님이 밭을 일구기 전까지의 정책, 즉 양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일을 도움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③ 원님이 아무에게나 밭을 나누어주지 않고 황무지를 개간한 백성들에게만 나누어주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답지이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2. 이번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교사: 그래 은영아. 뭔데?

학생: 자연 현상은 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사: 그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저기 국기 게양대를 한번 볼래? 깃발이 펄럭이지? 저 깃발은 바람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때 바람은 원인이 되고 깃발의 움직임은 결과가 되지. 이렇게 외부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물리적 인과 관계라고 하는 거야.

학생: 아, 그렇군요. 그럼, 사람의 행동도 물리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있나요?

교사: 사람의 행동은 물리적 인과 관계보다는 목적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때가 많아.

학생: 목적론적 관계는 또 뭔데요?

교사: 음, 예를 들어 볼까? 은영이 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던데, 왜지?

학생: 앞으로 역사학자가 되고 싶어서요.

교사: 그렇구나.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때 역사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은영이 네가 세운 목적이고, 그 목적은 바로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의 이유가 되는 거지. 이런 것이 목적론적 관계야. 너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세운 목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겠니? 그럼 이제, 깃발의 움직임과 같은 자연 현상과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겠지?

학생: 예, 선생님. 깃발은 바람이라는 외부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지만, 사람의 경우는 ()

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교사와 학생의 대화에서 교사는 외부의 물리적 원인(바람)에 의해서 어떤 결과(깃발의 펄럭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 인과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목적(역사학자가 되고 싶다)이 행동(열심히 공부한다)의 이유가 되는 것을 목적론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물리적 인과 관계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반드시 나타남에 비해, 목적론적 관계에서는 목적에 따라 행동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자연 현상과 인간의 행동이 다른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생(은영)은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물리적 인과 관계를 요약하고 있으므로 이어지는 내용은 목적론적 관계에 대한 요약이어야 한다. 목적론적 관계를 요약할 때에는 ‘선택’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하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③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외부적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인과 관계를 요약하는데 더 어울린다. ② 인간은 물리적 인과 관계가 아니라 목적론적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④ 목적론적 관계는 목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⑤ 교사는 목적의 자발적 변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금부터 과학 전시실에 있는 ‘에코스피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이 우주에 진출하면 외부와 격리된 우주 기지 내부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식량과 산소 등을 지구에서 계속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항공 우주국의 과학자들은 우주 기지 내에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족적 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생태계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스스로 유지되는 환경 모형을 만들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의 한 부부가 유리공처럼 생긴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 전시실에 있는 ‘에코스피어’입니다. 이 밀폐된 유리공 속에는 ‘바다’에 해당하는 물과 ‘땅’에 해당하는 자갈과 모래, 그리고 ‘생물’에 해당하는 바닷말, 작은 새우,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대기’에 해당하는 공기도 있습니다. 이 유리공의 외부에서 빛의 양과 온도를 적절히 조절해 주면 바닷말이 자라면서 산소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새우는 이 바닷말과 산소로 살아가고, 새우의 배설물은 자갈과 모래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바닷말의 양분이 됩니다.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 ‘에코스피어’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태 순환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지구에서 우주 기지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모형이 아니라 우주 기지 내에서 식량과 산소를 생산하고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족적 시스템에 대한 환경 모형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과학자들이 우주 기지 내에서 자족적 환경 모형을 만들어 연구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의 한 부부가 만든 상품이 에코스피어이다. ④ 에코스피어는 밀폐된 유리공인데 이 속에는 ‘바다’에 해당하는 물, ‘땅’에 해당하는 자갈과 모래, ‘생물’에 해당하는 바닷말, 작은 새우, 미생물, ‘대기’에 해당하는 공기가 들어있다. ⑤ 에코스피어의 생태계는 빛의 양이 적절하지 않거나 온도가 맞지 않으면 생태 순환의 균형이 깨져 그 속의 생태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5]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 여기는 김준근 풍속화전이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관입니다. 오늘은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신 한국미술관 관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김준근은 어떤 화가입니까?

남: 네, 김준근은 개화기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궁중 화가는 아니었고요, 평민 출신 화가로 추측됩니다. 이 화가의 특이한 점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작품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확인된 작품만 해도 1,200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전시되는 그림들은 그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 아, 예. 국내의 한 대학에 새로 기증된 그림 140여 점도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김준근의 그림이 해외로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 개화기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 선교사나 외교관들은 조선의 풍속을 자신들의 나라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김준근이 그린 풍속화가 외국인들의 요구에 맞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귀국할 때, 김준근의 그림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가게 된 것이고요.

여: 그런 이유라면 사진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열린 비숍 여사의 사진전에서 개화기 조선의 풍속을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이면 충분했을 텐데, 왜 굳이 그림이었을까요?

남: 사진보다는 김준근의 그림이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충족해 주었을 겁니다. 방아로 곡식을 찧고 있는 장면을 그린 이 포스터를 보세요. 만약 외국인들이 이 방아를 사진으로만 보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을 통해 방아가 무엇을 하는 도구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림이 사진보다 조선인의 모습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셈이지요.

여: 예, 정말 그렇겠네요. 사극을 제작할 때, 당시 사회상을 재현하기 위해 풍속화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김준근의 그림도 그런가요?

남: 그렇습니다. 사실 김준근의 그림을 처음으로 주목했던 국내 학자들은 민속학자들이었어요. 개화기 조선인들의 관혼상제나 세시풍속 등을 그의 그림 속에서 찾아냈던 것이지요.

여: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이 포스터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겠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4.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국내에서 김준근의 그림에 주목했던 학자들은 민속학자들이다. 개화기 조선인들의 관혼상제나 세시풍속을 그림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관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장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국미술관’에서 김준근 풍속화전을 연 이유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김준근은 민속학자가 아니며, 김준근의 그림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이 민속학자이다. ③ 김준근은 궁중 화가는 아니고 평민 출신 화가로 추측된다. ④ 김준근은 풍속화가이며 국내보다 해외에 작품이 더 많이 남아 있다. ⑤ 풍속화가 사진보다 더 선명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시대를 고발한 그림이 아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김준근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대학에 기증한 김준근의 그림 140여 점도 미국에서 온 것으로 들었다.’, 개화기 조선의 찍은 사진을 보았고, 풍속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사극을 제작할 때 풍속화를 참고한다고 들었다.’ 등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⑤ 여자가 말한 내용이 개인적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술관장의 설명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6-12] 쓰기, 어휘 · 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동차의 각 요소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내는 문제이다. 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줄이는 액셀과 브레이크에서는 동아리의 활동의 일처리 속도를 적절하게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다. ②에서는 필요한 경우 동아리 대표가 주위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하고 있는데, ‘브레이크와 액셀’을 외부의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동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늦춘다는 기능에서 외부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유추해 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자동차의 주행에 필요한 동력을 공급하는 자동차 엔진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 대표가 동아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③ 계획한 경로에 따라 주행 방향을 조정하는 핸들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에 맞추어 활동 방향을 조정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④ 지속적인 회전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바퀴의 주된 기능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동아리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⑤ 야간 주행을 위한 시야 확보를 해 주는 전조등의 주된 기능에서, 동아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아리 대표의 역할을 유추해 낼 수 있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7.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내용과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시구를 창작하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자신도 모르게 시구를 떠올리게 한 것은 도보 여행에서 발견한 ‘그 모습’이며, ‘그 모습’은 가을 바람에 잔잔한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과 바람에 흔들리는 친구처럼 반가운 코스모스의 모습이다. ①은 ‘노란 벼’와 ‘미소 짓는 코스모스’를 언급하여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첫째와 둘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미소 짓는 코스모스’와 ‘정겨운 그(코스모스)의 마음’으로 볼 때, 의인법이 활용되었으며, ‘나도 몰래 끌렸네 정겨운 그의 마음에’는 ‘정겨운 그의 마음에 나도 몰래 끌렸네’를 도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 번째 조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되고 계절감도 드러나며 도치법도 사용(반가움~미소)되었다. 하지만 ‘반가움’은 글쓴이가 풍경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며 의인법은 쓰이지 않았다. ③ ‘붉은 꽃들의 향연’은 벼와 코스모스의 ‘그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며, 명사구로 종결되는 시행들은 도치법의 표현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 바람은’은 ‘바람은 나에게 더 넓어지라고 하네’를 도치한 시구라고 할 수 있으며, 바람이 나에게 말을 한다는 발상은 의인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구를 떠올리게 한 벼와 코스모스의 풍경과는 긴밀하게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반가운 친구와 함께 걷는’은 일기의 앞부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며, ‘반가운 친구’를 의인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떠한) 길에서 (무엇을) 보았네’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진 시행에서는 도치법이 쓰이지 않았다.

8.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에서 맥락에 따라 숫자가 되기도 하고 한글이 되기도 하고, 알파벳이나 도형이 되기도 하는 것은 ‘우리는’이 아니라 “○”는’이다. 필요한 문장 성분 즉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을 갖추고 있는 문장에 적합하지 않은 문장 성분 ‘우리가’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한 ㉡의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되어-’와 ‘-지’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쓰였으므로, ‘이해될’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맥락의 발견을 통해서 글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글에서 ‘예상 독자의 파악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정확한 대상에 대한 이해’는 ‘대상’이 정확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정확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이해’로 ‘정확한’의 성분을 옮겨서 수식 관계와 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맥락을 통한 읽기가 즐거우므로 맥락 읽기에 대해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는 의미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접속 표현을 ‘그러나’에서 ‘그래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9. 비판적 사고 (내용 생성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㉔의 내용은 인터넷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비중이 높다는 내용과 인터넷 홍보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가)-2는 33.3%가 인터넷에서 여행 정보를 얻는다는 내용이고, (다)는 극단 자체의 해외 홍보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므로, (가)-2와 (다)를 ㉔과 연결한 ⑤가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㉔은 ‘공연 상품의 경제적 효과’와 ‘외국인의 공연 관람 실태’를 고려한 내용인데, (가)-1은 외국인 방문 기간의 활동 내용에 관한 자료이고, (다)는 극단 자체의 한계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② ㉔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가)-2는 여행 정보를 얻은 곳에 관한 자료이고 (나)는 성공적인 공연 사례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③ ㉔은 ‘대사가 많은 공연’에 필요한 요소에 대한 내용인데, (다)의 자료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요소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④ ㉔은 제작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가)-1은 외국인의 방문 활동, (가)-2는 외국인 정보 획득 경로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다.

10.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상품화 과정에서의 세금 감면’은 세금을 매기는 주체인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내용의 논리적 전개를 고려하여 항목을 옮겨야 한다면, ‘공연 관계자 차원’의 개선 방안이 아닌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의 아래에 옮겨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용 상설 공연장의 확보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㉔을 참고한다면, ‘전용 상설 공연장 부족’이라는 항목을 ‘문제점 분석’의 아래에 둘 수 있다. ② ‘공연의 볼거리 부족’은 그 내용으로 볼 때 ‘단조로운 공연 내용’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공연의 ‘상품화’라는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연 내용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⑤ 정부의 인터넷 홍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㉔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홍보에 관한 여론 조사 실시’라는 내용보다는 ‘인터넷 홍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1. 어휘·어법 (완곡어법의 표현)

정답해설 :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을 완곡어법이라고 하는데, <보기>에서는 문장의 형태뿐 아니라 어휘 사용을 통해서도 완곡어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①의 경우 ‘이 편지 부쳐 주세요’라는 기존의 표현에 ‘좀’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이 편지 좀 부쳐 주세요’라는 완곡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늘’은 일시적이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강화된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③ ‘영’은 ‘없다’를 강조하는 표현이며,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내지는 않는다. ④ ‘죽’은 ‘들이켜라’의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이므로 완곡어법을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⑤ ‘더’는 비교 표현으로 쓰였고, 완곡어법의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12. 어휘·어법 (파생어 형성 과정의 이해)

정답해설 : ㉔의 ‘읽다’와 ‘읽히다’는 둘 다 동사이다. ‘읽다’가 ‘누가 무엇을 읽다’의 능동문에 쓰이고, ‘읽히다’가 ‘무엇이 누구에게 읽히다’의 피동문에 쓰임으로써 문장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품사가 달라 지지는 않으므로 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㉔과 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㉔에는 ‘읽다’와 ‘읽히다’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㉔ ‘멋’과 ‘멋’에서 파생된 ‘멋쟁이’는 둘 다 명사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㉔ ‘파랗다’와 ‘파랗다’에서 파생된 ‘새파랗다’는 둘 다 형용사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㉔ 동사 ‘지우다’에서 파생된 ‘지우개’는 명사이므로 ㉔에 해당한다. ㉔ ‘열다’가 쓰이는 문장(‘누가 무엇을 열다’)과 ‘열리다’가 쓰이는 문장(무엇이 누구에 의해 열리다)은 그 구조가 다르므로 ㉔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13-16] 현대 소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1959년 발표된 소설로, 전쟁이 한 마을 공동체와 개인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근찬의 다른 작품이 그렇듯이 이 작품에서도 전쟁을 다루되 전쟁의 실상이나 전개 그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공동체와 개인이 겪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은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고 주인공 배(裴)삼바우는 나룻배로 손님들을 태워 나르는 사람이다. 전쟁의 광풍은 이렇게 외진 곳의 청년들까지 전쟁터로 끌고 가는데, 배삼바우의 아들 용팔이, 양생원의 외동아들 천달이, 모랑댁의 아들 두칠이가 그들이다. 모랑댁의 아들 두칠이가 가장 먼저 흉측한 얼굴로 부상을 입고 돌아오고, 외동아들 천달이는 전사 통지와 함께 유골함에 담겨 돌아온다. 남은 것은 삼바우의 아들 용팔이인데,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배삼바우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나룻배의 사공으로서 배삼바우가 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저항은 ‘양복 입은’ 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나룻배에 태워 나르기를 거부하는 일뿐이다. 나룻배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든 것이었지, 자식들 데려가라고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 행위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전쟁의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 수는 없었던 배삼바우의 유일한 몸부림이다. 제시된 지문은 동네에 양생원의 외동아들 두칠이가 전사해서 유골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주제] 전쟁의 부당한 폭력성에 대한 고발

1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이 작품은 뱃사공 배삼바우와 우체부의 대화, 대열이와 그 가족의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 동네 청년의 죽음을 대하는 두칠이의 독백 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㉔**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② ‘마을’에서 일어난 일과 인물들의 대화를 서술하고 있으나, 사건의 객관적 전개와 별도로 일어나는 서술자나 작중 인물의 자유로운 의식의 흐름 기법은 쓰이지 않았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과 교차되어 서술되지는 않고 있다. ④ 배삼바우의 심리를 알고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루 언급하는 서술자는 교체되지 않고 있고,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건이 도입되고 있지도 않다. ⑤ 작중 인물 가운데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없다.

14.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낮의 마을은 ‘난데없는 곡성’에 발각 뒤집혔고,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송송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자식을 잃은 양 생원 댁의 슬픔은 낮에서 밤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밤’을 불길한 일이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암시하는 복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집배원의 ‘빨간 자전거’는 ‘천달’의 전사 소식을 전해 주고 있으므로 마을 밖의 소식을 전해 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천달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의 좌절로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읍내’는 ‘천달’의 유골을 담은 ‘상자’를 갖고 오는 곳이므로,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공간이다. ⑤ 무섭게 저물어 가는 ‘별건’ 황혼은 천달의 유골 상자를 안고 돌아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5. 비판적 사고(독자 반응의 적절성)

정답해설 : [A]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대열이’는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읍내에 가는 이유를 묻는 대화이다. 가족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순진한 인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어른들에게 사정을 묻고,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그런 사정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대화는 작중 상황이 갖는 비극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말이 없는 어른들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로 비판의 대상으로 서술되지 않았다. ② 어른들이 말을 하지 못한 것은 어린이에게 전쟁의 잔혹함을 알려줄 수 없어서이지 권위적인 성격 때문인 것은 아니다. ③ 어른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으므로, 어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지속적으로 질문하는 아이의 모습을 작중의 슬픔을 심화하는 기능을 하며, 작중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16.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언급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은, ‘두철이’를 가리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킨다. ‘두칠’이는 흥측한 얼굴을 하고 동네 사람들의 슬픔을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알곳은 웃음’을 짓고, ‘얼굴을 실룩’거린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 ⑤는 적절한 감상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군수의 편지’는 ‘천달’의 죽음을 알리는 편지이고, ‘유골 상자’는 천달의 죽음을 구체화한 사물이므로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다. ② 하나만 남은 두칠의 눈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런 사실은 전쟁의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할 수 있다. ③ ‘보통이지’라는 말은 전쟁에서 그런 죽음이 보통이라는 말이므로, 천달의 유골을 보면서 두칠에게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난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나루터가 들끓’었다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천달’의 죽음에 슬퍼하는 행위를 보여 주었다는 뜻이므로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고 본 감상은 적절하다.

[17-20] 인문, ‘진리 판단에 대한 여러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진리나 참에 대한 판단을 다루는 여러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대응설은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과 일치할 때 그 주장이 진리라고 말한다. 정합설에서는 어떤 판단이 기존의 지식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 실용설에서는 결과의 유용성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처럼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이론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이론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동원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에서 바라보는 진리 판단 기준

17. 사실적 사고(내용 전개방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이 글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세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대응설, 정합설, 실용설 등의 세 이론의 핵심 개념을 설명한 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대응설의 경우 네모난 책상에 대한 판단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합설은 뉴턴의 역학에 기준을 둔 판단을, 실용설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의 창의력 향상이라는 판단을 사례로 들어 진리 판단에 대한 각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기존의 여러 이론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세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③ 구체적 현상이 지닌 원인을 분석하는 글이 아니라, 여러 이론을 소개하는 글이다. ④ 여러 이론을 소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천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다양한 이론이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핵심 개념을 설명할 뿐 변증법적 절충은 아니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18. 논리적 사고(숨겨진 전제의 파악)

정답해설 : 대응설에서는 사실과 판단의 일치 여부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 이때 대응설은 어떤 판단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를 인간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의 다음 문장이 이를 보충해주는 문장으로, 인간은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외적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바탕으로 다른 판단과의 일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의 전제 문장은 인간의 사실 판단 능력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인간은 감각을 통해 외적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지식이나 판단이 항상 참이면 진리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이론 자체가 불필요한 것이 된다. ③ 전체를 알면 부분을 알 수 있기에,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과는 무관한 진술이다. ④ 인간들 각자가 서로 다른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진술로, 이에 따르면 인간 각자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대상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역시 ㉠과는 무관한 진술이다. ⑤ 감각적 지각 능력을 통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어떤 판단 내용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대응설이다. 진리 판단 기준에 대한 것이지, 대상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19.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는 ‘화석이 유기체에서 기원했다.’라는 판단에 대한 스테노의 의견이다. 스테노는 관찰을 통해 상어의 이빨과 설석 화석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그러한 판단 내용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기에, 대응설에 근거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는 당시 지질학자들의 판단을 묻고 있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새로운 판단)에 대해 지질학자들은 통설(기존의 이론 체계)을 근거로 틀렸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이론 체계와의 정합성을 중시하는 정합설의 관점이다. **정답 ①**

20. 비판적 사고(정보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실용설은 어떤 판단의 진위를 반별하기 위해서 실제 행동을 통한 결과의 유용성에 주목한다. 그런데 ㉣의 답지는 실용설을 비판하면서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존재의 실체 확인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있다. 감각으로 확인 불가능한 존재의 진리 판단 여부에 대한 것은 감각과 관찰, 사실과의 일치를 중시한 대응설과 관련된 진술이다. 즉, ㉣는 대응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실용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대응설은 경험을 통한 사실의 확인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학이나 논리학에서의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명제의 참/거짓 판별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② 정합설은 기존의 이론 체계가 서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기에 적절한 문제 제기이다. ③ 기존의 지식 체계를 중시한 정합설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지식 체계의 진리 여부 판단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⑤ 실제 행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동 결과의 유용성으로 판단하는 실용설의 경우, 유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양하고 주관적일 수 있기에 진리 자체도 상대적이 될 문제가 존재한다.

[21-23] 과학, ‘데카르트 좌표계의 수학적 의의’

지문해설 : 이 글은 데카르트가 제안한 좌표가 수학 분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도형을 다루는 수학은 기하학이었다. 고대 그리스 이래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데카르트 좌표계를 이용하면 직선, 원, 타원 등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로부터 기하학과 대수학이 연결되어 근대적인 수학 발전의 토대가 된 해석 기하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주제] 데카르트 좌표계가 수학에 미친 영향

21.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고대 그리스 이래로 기하학은 자명한 명제인 공리에서 출발하여 증명을 통해 새로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방법으로 도형을 다루는 것은 까다로웠지만,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좌표 개념은 데카르트가 생각해 낸 것으로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좌표 개념을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술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 각각에서 파리가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알면 파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평면 위의 도형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x, y)는 원의 방정식 $x^2 + y^2 = 5^2$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데카르트의 발견은 좌표를 이용하여 모든 기하학적 형태를 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어떤 물체가 움직인 경로’는 기하학적 형태의 일종이고, ‘좌표’는 수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2. 추론적 사고(주장의 근거 파악)

정답해설 : ①은 데카르트가 수학 분야에서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는 주장이므로, 근거는 수학 분야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 기존의 기하학은 증명을 통해 정리들을 발견해 가는 연역적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도형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좌표 개념을 도입하여 여러 가지 도형을 대수학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데카르트가 수학 분야에 업적을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남긴 것은 기하학적 문제를 대수학적 방법으로 풀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③ 고대 그리스 이래로 사용해 왔던 방법이다.

23. 창의적 사고(다른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사무실의 호수를 사무실의 8개 꼭짓점 중 원점에서 가장 먼 꼭짓점의 좌표를 세 자리의 수로 만들어 정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무실의 호수가 단순히 원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 축의 좌표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사무실까지의 거리에 따라 사무실의 호수가 정해진다고 진술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데카르트 좌표계는 직교하는 직선들이 만드는 좌표계인데, 이를 3차원으로 확장하려면 두 평면에 수직으로 원점을 지나도록 또 하나의 축을 세우면 된다. 즉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건물이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서로 직교하는 세 평면에 좌표를 만든 것과 같다. ② 사무실 호수를 정할 때 백의 자릿수를 사무실 층으로 설정한다고 하였다. ④ 사무실의 호수는 세 자리인데, 백의 자릿수는 해당 층으로, 십의 자릿수는 북쪽 좌표로, 일의 자릿수는 서쪽 좌표로 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A 사무실은 5층에, 북쪽 좌표는 3, 서쪽 좌표는 3이므로 좌표는 (5, 3, 3)이 된다. ⑤ 두 사무실의 벽면이 맞닿아 있다는 것은 세 개의 좌표 중 두 개는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벽면이 맞닿아 있는 두 사무실은 호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수 중에서 두 개가 같다.

[24-27] 예술, '영화적 관습의 유동성'

지문해설 : 이 글은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인 '영화적 관습'에 관하여 설명한 글이다.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으며, 우리는 영화가 현실의 복잡성을 똑같이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영화 역시 굳이 그러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이렇게 관객과 감독 사이에 맺어진 암묵적 합의를 '영화적 관습'이라 하는데, 이는 영화사 초기에 확립되어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한다. 관객은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영화적 관습을 익히고, 감독은 그것을 활용하여 관객에게 친숙함을 제공한다. 프랑스의 누벨바그 감독들은 고전적인 영화 관습을 파괴하면서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하여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였고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관습 비틀기가 수시로 일어난다. 이렇듯 파괴된 관습이 반복된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로 보아 영화적 관습은 고정된 규범일 수 없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영화적 관습의 특성

24.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상업 영화에서도 부분적인 영화적 관습 비틀기가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이루어진다는 점을 추리할 수 있으나, 영화적 관습은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고정된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추리할 수 없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영화적 관습은 영화사 초기부터 확립되어 온 산물로, 관객과 감독의 소통을 돕는다. ② 영화 속 내용은 실제 현실과 같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영화의 재현 방식에 반응해서 영화 속 내용을 현실처럼 보는 데에 동의한다. ④ 반복적인 영화 관람 행위를 통해 관객은 영화적 관습을 익힌다. ⑤ 파괴된 영화적 관습이 반복되다 보면, 즉 새로운 재현 방식이 시도되고 그것이 수용되다 보면 그것은 또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화적 관습은 변화하게 된다.

25.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 추리)

정답해설 : ㉠은 예컨대 악당의 죽음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악당을 다시 살려 내어 갈등을 또 한 번 증폭하는 식으로 관객의 기대 심리를 역이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③ ㉡은 자기만족적이고 독창적인 미학적 성취를 위해 영화의 고전적인 관습을 파괴하며 영화의 현대성을 주도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다는 것, 관객에게 오락적 쾌감을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는 것은 알 수 없다. ④ ㉢과 ㉠ 모두 관습적인 재현 방식에 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에 비해 그것이 부분적으로 행해졌다는 특징이 있다. ⑤ ㉢과 ㉠ 모두 전통적인 영화적 관습에 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への 적용)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영화에서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거나 연인이 이별하는 장면에서 작중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절한 음악이 삽입되기도 한다. 그러나 ㉡에서 제시된 아이들의 노랫소리는 그 다음에 입구가 닫히는 장면이 이어진다는 것으로 볼 때, 작중 현실에 존재하는 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이 차에 탄 뒤 바로 다음 장면에서 목적지에 내리는 것과 같은 우연적 사건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는다. ② 극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사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③ 우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유발하는 현장감과 정서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⑤ 우리는 이야기의 비본질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영화상의 생략을 기꺼이 수용한다.

27. 어휘(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의’(異議)라는 말은 다른 의견이나 논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의를 달다/이의를 제기하다/이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과 같이 사용된다.

정답 ①

[28-30] 언어, '중간 언어와 언어 습득'

지문해설 : 이 글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중간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L2(L1을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처음 습득한 언어)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 이 중간 언어의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며,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L1이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L2를 배우는 학습자 간에 불완전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중간 언어가 같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습득한 L2 규칙을 활용해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L2 학습자가 생성하기 마련인 오류는 많은 경우 L1의 부정적인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L1이나 L2의 어느 규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중간 언어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그리고 L2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유아의 언어는 두 언어 이상이 혼종된 언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간 언어와 다르며,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한다. 반면에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 발달할 수 없으며 발달 정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크다.

[주제] 중간 언어의 존재가 언어 습득에서 시사하는 바

28.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내용에 의하면 중간 언어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간 언어는 L2의 습득 과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간 언어는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를 의미한다. ③ 랑그란 동일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 규칙의 총체이다.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한다. ④ 하나의 동일한 랑그를 가진 L2 학습자 집단을 상징할 수 없는 반면, 한 언어 내의 서로 다른 방언 화자들은 동일한 랑그를 공유한다. 따라서 중간 언어 간의 이질성은 한 언어 내의 방언 간의 이질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⑤ L2 학습자의 중간 언어는 L2가 모국어인 화자의 언어로까지 발달할 수 없다.

29. 사실적 사고(세부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에서 L2 학습 기간과 오류 양상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우리는 L2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서의 학습자의 중간 언어 체계와 L2의 습득 정도를 알 수 있다. ②⑤ L2 습득 과정에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서 나타나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L2의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오류는 L2 습득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다.

30. 추리적 사고(다른 상황에의 적용)

정답해설 : ㉠은 L2를 목표로 발달해 가고, ㉡는 성인의 언어로까지 발달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 ㉡는 발달의 목표가 되는 언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L2를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L1도 L2도 아니면서 L1과 L2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로, L1과 L2가 혼종된 언어이고, ㉡는 여러 언어의 특성이 혼합되었다는 점에서 혼종된 언어에 해당한다. ② ㉡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휘의 수가 늘어나고 문법도 정교해지는 변화를 보였는데, ㉠ 역시 그 체계는 L2에 비해 단순하지만 L2를 목표로 발달해 간다. ③ ㉡는 초기에 어순이 불안정하고 어휘의 수가 적으며 문법도 단순하다는 특징을 지니는데, ㉠ 역시 성인의 언어에 비해 단순하다. ④ ㉡는 이주민들의 언어라는 점에서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L1을 습득한 후에 배운 언어라고 말할 수 없다.

[31-34] 현대시

(가) 박남수, 「새 1」

지문해설 : 이 시는 번호가 부여된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에서는 ‘노래’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의 노래와 ‘사랑’이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의 사랑을 언급하며 ‘새’의 순수성을 언급한다. 화자는 이러한 새에 대해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에서도 ‘새’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서 3에서는 이러한 ‘새’를 잡기 위해 ‘포수’는 총을 쏘지만 결국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잡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결국 이 작품은 새의 순수하고 천진한 아름다움을 노래한 뒤, 그것은 파괴적이고 불순한 인간 문명으로는 얻을 수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이면에는 순수한 가치에 대한 옹호와 추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시를 인식의 주체(포수, 인간)가 대상(새, 자연)의 본질을 인식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본질 인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순수한 가치의 옹호와 추구 / 본질의 순수성과 그것에 도달하기의 어려움 /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비정함

(나)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지문해설 :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준어 ‘그릇’을 어머니는 ‘그룩’이라고 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삶에 대한 경건성과 시인으로서의 자세를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20행으로 구성된 이 시는 의미상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3행에서는 ‘그릇’을 ‘그룩’이라 부르는 어머니를 언급하고, 이어서 4~8행에서는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말 속에는 편안함(‘편안한 수평’)과 따뜻함(‘체온처럼 따뜻했다’)이 담겨있다고 한다. 9~16행에서 ‘그릇’과 ‘그룩’은 차이가 있는데, ‘그릇’은 내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전에서 찾은 것이지만, ‘그룩’은 어머니가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말한다. 17~20행에서는 어머니처럼 정성과 사랑을 쏟지 않은 채 시를 쓰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결국 시인인 화자는 어머니의 언어인 ‘그룩’과 같이 삶이 녹아있고, 따뜻한 사랑이 담긴 언어로 살아있는 시를 쓰고 싶다는 성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제] 삶에 대한 정성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긴 시를 써야 한다는 자기 반성.

(다)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지문해설 : 시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연 구분 없이 총 15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행은 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노래(운율)와 이야기(가사)가 결합된 것이 시라는 것이다. 또, 여기서 ‘심장’은 감성(感性)과, ‘뇌수’는 이성(理性)과 관련된 시어이다. 즉 시인은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시를 좋은 시로 생각하고 있다. 2~7행은 처용설화를 통해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한다. ‘노래’는 귀신을 감복시키지만,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진다는 것이다. 8~11행에서 화자는 현대를 악보(‘노래’)가 사라진 시대로, ‘노래’를 ‘은밀히’ 말 속에 끼워 넣는 현실로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12~15행에서는 ‘뇌수’(이성)와 ‘심장’(감성)이 긴밀히 조화를 이루는 시를 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31.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새’와 ‘포수’, ‘한 덩이 낱’과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를 대비시켜 인간의 비정성, 비순순성 : 새의 순수성, 혹은 인식에 대한 노력 : 인식의 실패를 노래하고 있다. (나)는 어머니의 ‘그룩’과 나의 ‘그릇’을 대비하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도 ‘심장’(감성)과 ‘뇌수’(이성)을 대비시켜 시의 본질을 노래하고 있다. 결국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대비’를 통해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 모두 시간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나 시행이 없다. ② (가)에는 ‘~ 줄도 모르면서’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지만, (나)와 (다)에는 동일한 구절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 (나), (다) 모두 역설적이라고 볼 만한 표현이 없다. ④ (가), (나), (다) 모두 ‘-다’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영탄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32. 추론적 사고(표현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의 ㉔는 의미상 (나)의 ‘그릇’에 대응한다. 즉, (나)의 ‘그릇’이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객관적이고 삶의 체취가 묻어 있지 않은 말인 것처럼, <보기>의 ㉔도 단지 천자문에 올라있는 글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은 ㉓이다. 또한 (다)의 ㉔도 ‘목청’(감정)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문맥상 ㉔과 가깝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㉑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 단순한 배경이나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다. ㉒은 문맥적 의미상 ㉔와 대조된다. ㉔은 ‘목청’이 제거된 ‘이야기’와 결합하는 ‘새로운 노래’이므로 단순한 글자로서의 ‘천(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33.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가)는 ‘새’와 ‘포수’를 대비하여 자연의 순수를 파괴하는 문명의 폭력성, 혹은 본질을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등을 노래하고 있다. (나)는 삶에 대한 정성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지 않은 채 시를 쓰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가)가 지향하는 상황이 ‘자연’이나 ‘대상의 본질’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환상 세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더욱이 (나)에는 환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새’가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고 한 이면에는 이와 대비되는 ‘포수’(인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 의식은 ‘포수’가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라는 표현에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② 어머니가 ‘그릇’을 ‘그룩’이라고 부르는 일상의 사건에서 발상을 얻고 있다. ③ (나)는 연 구분을 하지 않은 20행 짜리 단연시인데 반해 (가)는 숫자를 이용하여 뚜렷이 연 구분을 하고 있다. ④ (가)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반면, (나)는 어머니와 대비되는 ‘나’가 뚜렷이 드러난다.

34.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다) 시의 흐름으로 보아 [D]의 ‘심장의 박동’은 ‘감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D]는 말에 감성을 불어넣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그릇’이 사전에 등재된 ‘죽은 단어’라면, ‘그룩’은 ‘어머니’의 삶에서 창조된 ‘살아있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그룩’이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그릇’은 ‘나’가 국어사전에서 ‘발견’한 것이라면, ‘그룩’은 ‘어머니’가 삶을 통해 ‘만드신’ 말이다. 즉 ‘그룩’이 더 창조적이다. ③ [C]를 시(이야기)와 음악(노래)가 분리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⑤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는 감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처의 원인이 ‘노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E]는 ‘뇌수’와 ‘심장’, ‘이야기’와 ‘노래’, ‘감성’과 ‘이성’이 긴밀히 결합된 시를 써야한다는 내용이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35-37] 사회, '가격 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지문해설 : 이 글은 재화의 가격 결정과 관련한 여러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일반 재화의 경우,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자원의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배분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재화가 아닌, 공익 서비스의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게 되면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공익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나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이 필요하지만, 두 방법 모두 문제를 지니고 있다. 가격 결정과 관련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동원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공익 서비스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이 지닌 문제점 또한 설명하고 있다.

[주제] 일반 재화와 공익 서비스 가격 결정의 차이

3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는 공익 서비스와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 평균 비용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해당 사업자의 손실을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⑤의 답지는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고 되어 있다. ② 1문단에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고 되어 있다. ③ 2문단 처음 부분을 보면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나와 있다. 즉,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부분은 두 재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④ 4문단에 공익 서비스 기업의 손해를 해소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다.

36. 추론적 사고(시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은 한계 비용 수준의 가격, ㉡는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이다. 한계 비용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사회 전체 차원의 만족도가 커지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지문에 설명되어 있으며, 이와 달리 평균 비용 수준의 가격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한계 비용 수준의 가격 결정은 수돗물과 같은 공익 서비스의 경우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가 손실을 본다고 되어 있다. ② [A]를 보면 톤당 한계 비용이 1달러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적절하다. ③ 4문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진다고 되어 있다. ④ [A]를 보면 평균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 것이므로 한계 비용과의 격차가 줄어들음을 추리할 수 있다.

37. 어휘 어법(문맥에 적절한 한자어의 파악)

정답해설 : ‘추정하다’는 ‘추측하여 판정함’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문맥을 살펴보면 ‘공익 서비스의 경우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따져서 생각하면’의 의미이므로 효율성을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다’의 의미를 지닌 ‘고려하다’ 정도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투입’은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넣음.’의 의미이다. ② ‘초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함.’의 의미이다. ④ ‘지급’은 ‘돈이나 물품 따위를 정하여진 몫만큼 내줌.’의 의미이다. ⑤ ‘감소’는 ‘양이나 수치가 줄. 또는 양이나 수치를 줄임.’의 의미이다.

[38-42] 갈래 복합

(가) 이용휴, ‘수려기’

작품해설 : ‘따르며 살리라’라는 의미인 ‘수려’라는 이름을 붙인 집에 대한 글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가를 설명한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먼저 사람은 아무것도 따르지 않은 채 혼자 가만히 앉아 평생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하며, 무엇인가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다. 다만 ‘따름’의 기준이 시대나 국가, 각자의 천성과 사명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유추의 사용이나 권위 있는 인물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글로, 글쓴이의 가치관이 명료하게 전달되고 있다.

[주제]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

(나) 작자 미상, ‘텐동어미화전가’

작품해설 :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장편 가사로, ‘화전가’의 일반적 구성처럼 놀이를 가는 흥겨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놀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중간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화전가와 달리 청춘과부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자 화자가 텐동어미로 바뀌면서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청춘과부에게 들려주어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지문은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며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괴롭고 어려운 삶의 애환을 달관과 긍정으로 극복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제] 텐동어미의 기구한 인생과 긍정적인 삶의 자세

(다) 이황, ‘도산십이곡’

작품해설 : 작가가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연시조로 학문에 열중하면서 사물을 대할 때 일어나는 감흥과 수양의 경지를 읊은 것이다.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졌으며, 작자 자신이 전6곡(前六曲)을 언지(言志), 후6곡(後六曲)을 언학(言學)이라 하였다. 언지(言志)는 도산 서원 주변의 자연 경관을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언학(言學)은 학문 수양에 정진하는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보잘 것 없는 인간이 끊임 없는 수양을 통해 자연의 영원성을 닮아갈 수 있다는 발상은 작가의 도학자적인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자연에서 사는 삶의 기쁨과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

38.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를, (나)에서는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며 살아가는 자세를, (다)에서는 자연 친화와 학문 수양을 추구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즉, 세 작품은 모두 화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문에 대한 관점은 부단한 학문 수양의 의지를 드러낸 (다)에만 나타난다. ③ 대상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는 (가)~(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④ (다)는 자연애와 학문 수양을 아우르는 화자의 이상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가)~(다) 어디에서도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가)~(다)는 모두 현실을 기반으로 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심리를 찾을 수 없다.

39. 비판적 사고(작품의 서술 및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4]에서 두 번에 걸쳐 글쓴이가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한 것은 아니다. [4]에서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이치를 따라야 하는 것과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법칙에 부합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③ 우 임금도 방문하는 나라의 풍속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복식을 바꾸고, 공자도 사냥한 짐승을 서로 비교하는 노나라 관례를 따른 사례를 제시하여 관습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⑤ 이 글에서는 따름의 대상이 다른 것, 관습을 따르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많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등 따름의 여러 측면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40. 추론적 사고(시적 대상의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텐동어미는 수심에 차 앉아서 슬피 우는 청춘과부에게 깨달음을 주어 수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화전놀이를 즐기게 만들고 있다. 이는 청춘과부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이므로, 텐동어미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텐동어미가 계획성 있는 삶을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팔청춘 이내 마음 봄 춘 자로 부쳐 보고 / 화용월태 이내 얼굴 꽃 화자로 부쳐 두고 / 술술 나는 긴 한숨은 세류춘풍 부쳐 두고’를 볼 때 텐동어미와 일행들은 이미 화전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④ 청춘과부가 자연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무감각해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청춘과부는 텐동어미의 충고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인식을 바꾸는 것이지, 가난이 내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고 믿게 된 것은 아니다.

4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의 초장에서는 영원히 푸르름을 간직하는 ‘청산’을 예찬했고, 중장에서는 이와 대구를 이루어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유수’의 영원성을 예찬했다. 그리고 종장에서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빗대어 끊임없이 학문을 수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만고상청(萬古常靑)하리라’라는 구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는 전반적으로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② [A]는 인물의 독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④ [B]에 ‘그치지 아니하고’라는 의문형 어구가 나타나지만 반복은 아니며, 화자도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지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A]와 [B]에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42.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㉞은 텐동어미가 청춘과부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따져 팔자를 한탄하지 말고 운명에 순응하라고 충고하는 말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기서의 ‘바람’은 풀을 흔들리게 하는 자연 현상으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간의 운명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각자의 경로대로 움직이는 수많은 별은 다양한 시대나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④ ‘사람 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텐동어미는 ‘마음 심 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 잡으면’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사람 눈’은 성숙한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⑤ (다)의 화자는 천석고황(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성벽)에 빠진 채 자연 속에 묻혀 달관한 삶의 모습을 보이며 만족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43-46] 고전 소설

서유영, '육미당기'

작품해설 :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달리 작자가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에 독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널리 읽혔던 인기 소설이다. 치밀한 구성과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 소설은 신라 태자 김소선의 일대기를 다룬 것으로, 김소선이 중국에서 용맹을 떨친 후 일본 원정을 하여 항복을 받아 낸다는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구약(救藥) 모티프와 형제간의 갈등, 선과 악의 갈등이 주축을 이루고, 후반부에서는 남녀 결연과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문의 내용은 세력가인 배연령의 아들 배득량이 백 소저와 혼인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한 백 소부(백문현)가 곤경에 처하는 부분이다.

[주제] 신라 태자 김 소선의 영웅적 일생

43. 비판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배득량이 백 소저와 혼인하고자 하나 소저의 아버지인 백 소부가 이를 반대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배연령이 간계를 부려 백 소부는 애주 참군으로 강등되어 압송당하게 된다. 즉 백 소저 개인의 혼사 문제가 백씨 가문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딸(백 소저)의 결혼에 백 소부가 관여하고, 아들(배득량)의 간청에 배연령이 억지로 혼인을 이루려 애쓰는 것으로 볼 때 배우자의 선택에 부모가 개입하고 있다. ③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닌 권세가 강하고 약함에 따라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④ 대신들 간에 다툼은 나타나지 않으며, 백 소부에 대한 처리로 볼 때 천자의 권위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⑤ 간신 배연령이 황보박을 부추켜 백 소부를 무고하는 상황은 나타나나, 간신들이 오랑캐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랑캐와 결탁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백 소부를 무고한 말일 뿐이다.

44.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은 김소선의 시에 대한 화답으로 백 소저가 지은 것으로, 두 남녀 사이의 혼약을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백 소부가 김소선에게 시를 주며 맹약을 잊지 말라고 한 것은 혼약이 이루어졌음을 당부하는 것이지, 김소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다.

정답 ④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오답피하기] ① 서로의 마음을 담은 시를 주고받아 혼약을 맺은 것이므로, 김소선과 백 소저의 관계는 긴밀해졌다고 볼 수 있다. ② 두 번째 수의 내용을 통해 백 소저가 강직하고 지조 있는 성품임을 알 수 있다. ③ ‘시의 격이 빼어나고 아름다우니 가히 소선의 시와 더불어 백중(伯仲)이 될 만하다. 만일 남자였다면 마땅히 장원 급제하리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백 소부가 ‘시참’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복선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배연령의 참소로 백 소부가 고난을 겪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4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석 시량은 ‘아름다운 옥을 구덩이에 버리고 상서로운 난새를 까막까치의 짝으로 삼음과 같으니’라는 비유를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아름다운 옥’과 ‘상서로운 난새’는 백 소저를 빗댄 것이고, ‘까막까치’는 눈먼 김소선을 빗댄 것으로, 백 소부의 성품을 미화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석 시량은 ‘아름답고 어진 생질녀’라고 하며 백 소저의 용모와 인품을 치켜세우고 있다. ② 석 시량은 ‘눈 먼 폐인’이나 ‘까막까치’ 등의 표현을 통해 김소선을 깎아 내리고 있다. ④ 석 시량은 ‘지금 배 승상은 가장 천자의 총애를 입어 위세와 복록을 이루어 그 권세가 두려울 만하거늘’이라고 말하며 배연령의 위세를 두려워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그 호의를 저버려서는 안 될지라.’라고 말하며 그에 편승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바라건대 다시 깊이 헤아려 뒷날 크게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6.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적용)

정답해설 : 배연령이 공부 좌시랑 황보박을 사주하여 백 소부(백문현)가 오랑캐와 결탁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무고하자 천자는 크게 노하여 백 소부를 장차 죽이려 했으므로, 백 소부가 ‘백척간두(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좌고우면’은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다. 황보박은 배연령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 뿐, 배연령과 천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다. ③ ‘막역지우’는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 의하면 백 소부와 배연령은 친한 친구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된 것이다. ④ ‘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청혼을 거절당한 배연령이 분노하여 백 소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배득량이 아버지인 배연령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행동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동병상련’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은 백 소저이다.

[47-50] 기술, ‘디지털 피아노 작동 원리와 소리의 저장 과정’

지문해설 : 이 글은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와 건반의 소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피아노는 건반의 움직임에 따라 내장된 컴퓨터가 해당 건반의 소리를 재생하는 악기이다. 건반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로 감지한다. 이 중에서 한 개는 건반의 눌림을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내장 컴퓨터의 CPU는 이를 통해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나머지 두 개의 센서는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CPU는 이를 통해 음의 크기를 조절한다. 한편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각 건반의 소리는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거쳐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된다. 샘플링이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샘플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자화란 샘플링을 통해 얻은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건반의 소리는 이런 샘플링과 양자화 과정을 통해 변환된 부호의 형태로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것이다.

[주제]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원리와 건반의 소리가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는 과정

47.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각 건반에는 3개의 센서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작동하는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을 감지하고, 나머지 두 개의 센서는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그런데 각 센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한다. 즉 건반의 눌림 동작과 세기는 동시에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감지는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각 건반의 소리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되어 내장 컴퓨터의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각 건반마다 설치된 3개의 센서가 감지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샘플링은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양자화 표는 일반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소리의 최대 변화 폭을 일정한 수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 이진수로 표현되는 부호를 일대일로 대응시켜 할당한 표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진술은 결국 양자화 구간을 이진수로 표현된 부호로 일대일 대응시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양자화 구간마다 할당된 이진수 부호는 같을 수 없다.

48. 추론적 사고(도식화를 통한 원리의 이해)

정답해설 : 각 건반에는 3개의 센서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 건반의 눌림 동작과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그러면 내장 컴퓨터의 CPU는 감지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오고 소리의 크기를 조절

2012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한다. 따라서 ㉞가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이라고 한 ㉠은 적절하지 않다. ‘샘플링된 소리의 측정값’은 디지털 피아노의 작동 과정이 아니라, 건반의 소리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녹음할 때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얻은 소리 파동의 모양을 수치화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각 건반에 있는 3개의 센서는 건반의 눌림 동작과 건반을 누르는 세기를 감지한다. 이때 건반을 누르는 세기는 건반이 움직이는 속도를 이용하여 감지한다. ③ 건반의 센서로부터 건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CPU는 해당 건반에 대응하는 소리 데이터를 저장 장치로부터 읽어 온다. ④ 건반의 센서로부터 건반을 누르는 세기가 감지되면 CPU는 음의 크기가 적절하도록 소리 데이터를 처리하여 DAC로 보낸다. ⑤ DAC는 CPU가 보낸 소리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49. 추론적 사고(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소리 파동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파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매 구간마다 파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것을 샘플링이라 한다.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가 짧아질수록 생성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진다. 즉 데이터의 개수는 소리 파동의 모양과는 관련이 없고 샘플링 주기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5문단의 ‘자릿수가 늘어나면 양자화 구간의 간격이 좁아져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5문단의 ‘양자화 구간의 개수는 부호에 사용되는 이진수의 자릿수에 의해 결정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의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얻어진 측정값을 양자화 표를 이용해 디지털 부호로 바꾸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이때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주기라고 하는데, 이 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음질이 좋아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 어휘 · 어법(어휘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은 ㉡을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고, ㉢은 ㉣라는 집합에서 하나의 개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날개’는 ‘비행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고, ‘복숭아’는 ‘과일’이라는 집합에서 하나의 개체에 해당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와 B 어느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A가 적절하지 않다. ④ B가 적절하지 않다. ⑤ A가 적절하지 않다.

1.②	2.③	3.②	4.③	5.①	6.⑤	7.②	8.④	9.①	10.③
11.⑤	12.③	13.④	14.①	15.②	16.④	17.④	18.③	19.③	20.⑤
21.②	22.③	23.⑤	24.②	25.④	26.⑤	27.③	28.⑤	29.①	30.④
31.④	32.①	33.②	34.⑤	35.⑤	36.④	37.④	38.③	39.②	40.①
41.③	42.⑤	43.①	44.③	45.②	46.①	47.⑤	48.③	49.②	50.④

[1-5] 듣기

1.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분 고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고 힘들게 생각될 때 '궁즉통(窮則通)'을 떠올려 보세요. 궁즉통은 『주역』에 나오는 말로 궁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궁즉통에서 궁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말합니다.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통입니다.

궁즉통, 아무리 궁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통한다는 점에서 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즉통의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화자는 <주역>에 나오는 한자어 궁즉통(窮則通)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궁'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이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또, 힘들더라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괴로워하는 친구에게 이 방송을 들려주기에 적합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이라는 내용은 있으나 핵심은 아니며, 더욱이 자만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③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추리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기심과 배려심으로 추리할 만한 내용이 없다. ⑤ 방송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이 중심이다. 더욱이 성과 이후의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2.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3차원 입체 영상이 나오는 3D 영화나 3D 텔레비전에 대해 들어 본 적 있으시죠? 1920년대 초에 이미 상업용 3D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 3D 영상 기술은 역사가 꽤 오래된 것이지요. 오늘은 평면인 화면을 입체로 느끼게 하는 이 3D 영상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의 두 눈은 약 6cm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망막에 맺히는 영상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를 시차라고 하는데, 사람의 뇌는 시차가 있는 두 영상을 하나로 융합해 입체감이 있는 영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3D 영상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실현하려면 먼저, 왼쪽 눈을 위한 영상과 오른쪽 눈을 위한 영상, 다시 말해 시차를 고려한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오른쪽 눈을 위한 영상은 오른쪽 눈으로만, 왼쪽 눈을 위한 영상은 왼쪽 눈으로만 보게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눈처럼 간격을 띄운 두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같은 대상을 촬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 각각 다른 영상은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3D 텔레비전에 많이 사용되는 셔터 방식과 필터 방식의 원리가 조금 다른데요, 셔터 방식의 경우에는 화면에 각각의 눈을 위한 영상이 번갈아 표시될 때, 3D 안경의 액정이 좌우 교대로 개폐되면서 각각의 눈이 두 영상을 번갈아 보게 합니다. 필터 방식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내면, 3D 안경이 각각의 눈에 맞는 영상만 걸러서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차가 있는 평면 영상을 실제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2.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강연 중간 부분의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눈처럼 간격을 띄운 두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같은 대상을 촬영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때, 3D 영상을 만들 때에는 시간을 두고 두 번 촬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강연의 첫 부분에 ‘1920년대 초에 이미 상업용 3D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라는 언급이 있다. ② 사람의 뇌는 시차가 있는 두 영상을 하나로 융합해 입체감 있는 영상으로 파악하게 된다고 했다. ④ 강연의 끝 부분에서, 셔터 방식은 각각의 눈을 위한 영상이 번갈아 표시되고, 3D 안경의 액정이 좌우 교대로 개폐되면서 각각의 눈이 두 영상을 번갈아 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마찬가지로 강연의 끝 부분에서, 필터 방식의 경우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내면 3D 안경이 이를 걸러서 각각의 눈에 맞는 영상만 보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학 생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고등학교 신문반 학생입니다.
- 교 수 : 예, 안녕하세요.
- 학 생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신문 특집 기사로 '스포츠마케팅'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스포츠마케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 수 : 스포츠마케팅은 기업이 스포츠 팀을 운영하거나 선수 또는 대회를 후원해서 기업이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국내외의 우수 기업들이 유명한 스포츠 팀이나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마케팅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 학 생 : 그럼 월드컵 경기 때 기업들이 길거리 용원을 후원한 것도 스포츠마케팅이라 볼 수 있을까요?
- 교 수 :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죠. 그 덕분에 대학에서도 스포츠마케팅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 학 생 : 네. 스포츠마케팅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 교 수 : 워낙 공부할 분야가 다양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포츠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교과목들을 배웁니다.
- 학 생 :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 교 수 : 스포츠마케팅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어요.
- 학 생 :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추론적 사고(정보 조직하기)

정답해설 : 인터뷰에서 스포츠마케팅의 문제점을 이끌어낼 만한 내용은 교수의 마지막 발언, 즉 '스포츠마케팅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가 유일하다. 그러나 이 발언은 우리나라 스포츠마케팅의 현황을 언급하는 내용이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인터뷰 첫머리에서 '스포츠마케팅은~기업이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③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서 '하지만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

다고 볼 수 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④ ‘국내외의 우수 기업들이 유명한 스포츠 팀이나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마케팅의 사례’라는 언급이 있다. 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스포츠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교과목들을 배웁니다.’라는 설명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4~5. 이번에는 학급 회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의 장: 학급 여행지 선정 투표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제안이 있어,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제안자(남학생): 지금처럼 3개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곳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1순위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지 하나를 탈락시킨 후, 이 사람들의 2순위 표를 나머지 두 후보지에 1순위로 투표한 것처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의 장: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자(여학생):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 학생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새로 1순위가 된 2순위 표와 처음의 1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1순위 표가 가장 많았던 후보지가 탈락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의 장: 제안자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자: 물론 1순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지요. 만약 다수결 방식으로 할 경우, 우리 반 30명의 학생 중 심지어 11명의 외사로 여행지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도 투표 방식으로 하면 학생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자: 선호도 투표 방식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1, 2, 3순위 표의 가치에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제안자: 그러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1, 2, 3순위를 적어서 내는 것은 그대로 하고, 대신 순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후, 그 점수의 합계로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대자: 음……, 그렇게 하면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겠네요.

의 장: 수정 제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사실적 사고(발언 내용의 이해)

정답해설 : 제안자인 남학생은 다수결 방식의 경우 1위를 차지한 의견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 1순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서 제안자가 소수의견의 반영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3개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곳이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선호도 투표 방식은 1순위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지 하나를 탈락시킨 후, 이 사람들의 2순위 표를 나머지 두 후보지에 1순위로 투표한 것처럼 합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반대자인 여학생은 선호도 투표의 경우 새로 1순위가 된 2순위 표와 처음의 1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져, 처음에 1순위 표가 가장 많았던 후보지가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선호도 투표 방식의 장점에 동의하지만 1, 2, 3순위 표의 가치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제안자인 남학생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후, 그 점수의 합계로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제안하고 있다.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반대자인 여학생은 첫 발언에서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 학생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라며 시작하고 있다. 두 번째 발언에서도 ‘선호도 투표 방식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30명 중 11명의 의사로 여행지가 결정되는 사례를 구체적인 통계자료로 본다 하더라도 이 발언은 제안자인 남학생이 한 것이다. ⑤ 반대자인 여학생은 선호도 투표 방식의 경우 1순위 표와 2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 다른 대상에 빗대서 말하지는 않았다.

[6-12] 쓰기, 어휘·어법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민속놀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일의 수행 원리를 유추해내는 문제이다. ⑤에서는 난이도에 따라 일을 분류하여 단계별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연 날리기’와 ‘팽이치기’에서 착안한 내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오히려 팽이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팽이를 치면 팽이가 더 잘 돌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용하면 연을 띄우기가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이 놓인 상황을 활용하면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정확한’ 순간에 제기를 차야 하고, 널에서 뛰어오르는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② ‘상대에 따라’ 널을 구르는 힘을 달리하고, 상승할 때와 하강할 때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상황에 적합한 수행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③ 그네가 ‘느려지면 (그네의 발판에) 힘을 주’어 구르고, 팽이가 ‘천천히 돌면’ 역시 힘을 주어 채찍질을 한다는 착안점에 근거하여, 진행 과정을 살펴 일(발판 구르기, 채찍질)의 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④ 연을 반복하여 다루면 연의 조정이 쉬워지고, 제기차기를 연습하면 능숙하게 제기를 찰 수 있다는 착안점에 근거할 때, 꾸준히 노력하면 일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다.

7. 비판적 사고 (구상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보기>의 발표 계획에서는 김홍도의 화풍을 ‘당대의 사회 풍속’ 또는 당시의 ‘시대적 특징’을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②에서는 김홍도의 작품을 현대 미술 작품과의 관련성이나 현대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구상의 계획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프리젠테이션의 주제가 ‘당대의 사회 풍속을 해학적으로 그려 낸 김홍도의 화풍’이므로, ‘해학으로 시대를 그려 낸 김홍도의 화풍’이라는 제목은 주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김홍도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와 신문의 기사문을 활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자는 계획이 반영되었다. ④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작품에서 느낀 ‘재미’와 실제 씨름을 관람하였을 때 느낀 ‘즐거움’을 관련지어 설명한다고 하였으므로, 발표자의 경험과 작품을 연계하여 표현하자는 계획이 반영되었다. ⑤ 당대 사회의 모습이 김홍도의 그림에 표현된 양상을 설명한다는 내용은 시대적 특징과 관련하여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작품의 소재와 기법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에는 ‘화풍의 특징’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8. 비판적 사고(개요 수정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자료 2>는 우유 팩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고, <자료 3>은 우유 팩 재활용 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 두 자료에서 ‘폐기물 자원 활용을 위한 유통 체계 개선’이라는 내용을 이끌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료 1>은 서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우유 팩 재활용률이 매우 낮고, 우유 팩의 재활용률은 일반 폐지에 비해서도 낮다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우유 팩 재활용률의 상황을 서구와 우리나라, 일반 폐지와 우유 팩 차원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면, 우유 팩이 충분히 재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② <자료 2>는 우유 팩의 양쪽에 붙어 있는 ‘폴리에틸렌

필름'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우유팩 재활용 실태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외에 환경오염적 측면도 제시하여 주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수 있다. ③ <자료 3>은 '재생지 품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우유 팩 재활용에 대한 의식 부족'을 '우유 팩 재생지 품질에 대한 ~ 부정적 인식'으로 수정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 ⑤ 단순히 '요약 및 전망'으로 제시하지 않고,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환경 자원 보존'으로 제시하면 본론을 요약(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하고 전망을 제시(환경 자원 보존)할 수 있다.

9. 창의적 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글쓰기)

정답해설 : 우유 팩을 재활용한 내용이 '나무', 더 나아가 '지구'를 살린다는 ①의 내용은 '우유 팩 재활용 활성화'라는 주제가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표현하고 있고, '나무' → '지구'의 단계로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첫째 조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우유팩이 '나무를 지키고', '나무'가 '지구를 살'릴 것이라는 표현 방식은 <보기>의 둘째 조건에 제시된 비유법(의인법도 비유법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우리가 살린 우유 팩 나무를 지키고'에 쓰인 통사 구조가 다음 행에도 반복되어 쓰인 표현은 <보기>의 둘째 조건에 제시된 대구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비유와 대구의 표현이 쓰였으나, 우유 팩 재활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점층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③ 우유 팩 재활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므로 첫째 조건에 어긋나고, 비유만 쓰이고 대구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둘째 조건에 어긋난다. ④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둘째 조건 중에서도 비유의 표현 방법만 활용되었다. ⑤ 우유 팩 재활용의 효과가 점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둘째 조건 가운데 비유의 표현 방법이 쓰이지 않았다.

10. 비판적 사고(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㉔의 앞뒤 문장은 둘 다 여름철 감기의 예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문장은 '나열' 또는 '추가'의 관계로 이어지므로, '또한'이라는 접속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는 원인과 결과를 각각 나타내는 문장 사이에 들어가기에 적합하며, ㉔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여름철 감기'라는 화제를 다루는 문단에서 '감기'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무엇인지 진술한 문장은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되어-'와 '-지는'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쓰였으므로, '노출되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열이나 기침을 할 때에는'에서 '기침을 하다'는 호응이 되지만, '열'은 '하다'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열이 나거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소량(少量)'의 '소(少)'는 '조금씩'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조금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어휘 · 어법 (반의어의 유형)

정답해설 :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이라는 의미 차원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지므로, <보기>에서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 반의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반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달라야 한다고 했으므로, 공통 의미 요소만 갖고 있으면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의 ‘처녀’와 ‘총각’은 ‘성별’의 의미 요소가 다르지만, ‘손녀’와 ‘할아버지’는 ‘성별’과 ‘연령(세대)’의 의미 요소가 다르다. 단 둘 이상의 의미 요소가 다르므로 반의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선배’가 아닌 사람에는 ‘동기생’도 있고 ‘후배’도 있으므로, ‘선배’와 ‘후배’를 모순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길다’와 ‘짧다’는 그 사이에 중간 등급이 있는 반의 관계라고 하였으므로, ‘길지 않다’를 ‘짧다’와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어휘 · 어법 (‘들’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의 ‘-들’은 셀 수 있는 명사 ‘아이’에 붙어 ‘아이’에 복수의 뜻을 더하고 있다. ㉡이 들어 있는 문장의 생략된 주어는 ‘어머니’이고, ‘어머니’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이므로, ㉢의 ‘-들’은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들’은 ‘부사어(어서)’에 붙어 ‘어서 오세요’의 주어가 손님 1과 2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의 ‘들’은 ‘부사어(밖에서)’에 붙어 ‘밖에서 마시다’의 주어가 손님 1과 2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④ ㉣의 ‘나와서들’에서는 ‘들’에 ‘연결어미(-아서)’가 결합되어, 나와서 인사하는 주체가 영희와 철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의 ‘들’은 ‘부사어(많이)’에 붙어, ‘많이 크다’의 주체가 영희와 철수, 복수임을 나타내고 있다.

[13-15] 인문, ‘밀이 제안한 일치법과 차이법’

지문해설 : 이 글은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존 스튜어트 밀이 제안했던 ‘일치법’과 ‘차이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치법은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때,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한편 차이법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일치법과 차이법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선행하는 요소들이 더 이상 없는지, 드러나지 않은 요소는 없는지, 누락시킨 요소들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우연히 선후 관계로 일어난 현상과, 하나의 원인이 야기한 두 가지 현상을 인과 관계와 구별해야 한다.

[주제]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13.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일치법은 같은 결과가 발생한 여러 경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⑤를 보면 20명의 아기들이 ‘신장 결석’이라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신장 결석에 걸린 20명의 아기들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인 ‘A사의 분유’를 찾아 이것을 ‘신장 결석’의 원인으로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일치법의 사례로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일치법으로 ‘두꺼비의 울음’이 ‘장대비’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대비’가 내리는 여러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두꺼비의 울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만 제시되어 있어 ‘두꺼비의 울음’이 여러 상황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② 일치법으로 ‘열’이 ‘붉은 반점’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붉은 반점’이 나는 여러 경우에 공통적으로 ‘열’이라는 요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 하나의 경우만 제시되어 있어 ‘열’이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③ 일치법으로 ‘커피’가 ‘불면’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면’이 되는 여러 상황에 ‘커피’라는 요소가 공통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불면’하는 날 저녁에만 커피를 마셨다고 하였기 때문에, ‘커피’는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과의 차이가 되고 있다. ④ 일치법으로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가 ‘학력 하락’의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력 하락’이 되는 여러 경우에 공통적으로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라는 요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컴퓨터 게임 시간의 증가’가 ‘학력 하락’에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인지 판단할 수 없다.

14. 추론적 사고(정보 도식화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차이법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를 비교하여, 선행하는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를 찾아 그것을 원인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차이법을 도식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 즉 ‘X’와 ‘-X’가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결과가 나타난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 유일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X’와 ‘-X’의 사례가 있으면서, 두 사례의 유일한 차이(a)가 있는 ①이 차이법을 적절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결과가 나타난 사례(X)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X)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두 사례의 선행된 요소의 차이는 ‘a, c, d, e, f’가 되어 a가 유일한 차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 ③ 결과가 나타난 사례(X)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X)가 모두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는 선행하는 요소들의 유일한 차이가 아니라 공통된 요소이다. ④ 결과가 나타난 첫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 b, e 세 개나 된다. 또한 결과가 나타난 두 번째 사

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가 아니다. ⑤ 결과가 나타난 첫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가 아니라 c이다. 또한 결과가 나타난 두 번째 사례와 나타나지 않은 사례의 선행 요소의 차이는 a와 f 두 개나 된다.

15. 비판적 사고(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문제에서 ‘㉠에 유의하여 [가]의 판단을 검토할 때’라고 했으므로, ‘선행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 누락된 요소 또는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는 없는지’를 고려해서 [가]의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함께 먹은 음식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와 같은 진술은 ㉠과 관련이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학생들의 건강 상태’는 ‘선행하는 요소’ 가운데 검토해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③ ‘잊어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음식’은 ‘인식하지 못해 누락시킨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④ ‘돼지고기를 담은 그릇’은 ‘밝혀진 요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요소’에 해당한다. ⑤ ‘다른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지만 그 사실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학생’은 ‘누락시킨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한 내용이다.

[16~18] 사회, ‘혁신의 공간적 확산’

지문해설 : 이 글은 혁신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혁신의 확산은 시공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의 3단계로 공간 확산 과정을 거친다. 혁신의 공간적 확산은 전염 확산과 계층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염 확산은 인접 효과에 의해 나타나고 계층 확산은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아울러 혁신의 수용자 수는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한 후 결국 포화 상태에 이르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 혁신 확산의 단계와 특성

16. 추론적 사고(글의 세부 내용 추리)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혁신의 수용자 수는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포화 상태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보인다. 따라서 수용자 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혁신 수용자는 혁신을 수용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네 집단으로 나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 수용자가 혁신을 수용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계층 효과에 따른 계층 확산으로 인해 규모가 큰 도시에서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규모가 혁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것을 보고 수용하는 ‘다수의 후기 수용자’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꺼려서 한참 지나서야 한참 지나서야 혁신을 수용하는 ‘소수의 지각자’는 소극적인 수용자들이라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심화·포화기에는 최초 발생원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혁신의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므로 심화·포화기에는 수용률은 거리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7. 추론적 사고(구체적인 사례에 적용)

정답해설 : 새로운 여행 상품의 예약이 폭주한 이유는 여행사의 ‘인터넷 광고’보다 ‘텔레비전 광고’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광고’와 ‘텔레비전 광고’ 두 가지는 모두 대중 매체로 인한 것이므로 ㉠의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은 ‘미용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미용사들의 지역 모임’이, ②는 ‘경제 뉴스’보다 ‘직장 동료들’이, ③은 ‘신문 광고’보다 ‘직거래 구매자들의 입소문’이, ⑤는 ‘라디오 광고’보다 ‘손님들의 호평’이 확산에 더 큰 영향을 준 요인이므로 ㉠의 ‘대중 매체’보다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확산에 더 큰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8. 비판적 사고(구체적 사례의 타당성 판단)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계층 확산은 도시 규모가 클수록 혁신 확산이 잘 이루어지는 계층 효과에 의해 나타나며, 규모가 큰 도시로부터 그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로 혁신이 전파되는 양상을 띤다. 그러므로 거대 도시에서 유행하는 최신 패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도시로 전파된 것은 계층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ㄴ) 또한 1문단에서 혁신의 공간 확산은 발생기, 확산기, 심화·포화기를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화기를 대도시의 부유층만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발생기로, 어디서나 전화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심화·포화기로 ‘전화기’의 확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ㄷ) 따라서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사례는 ㄴ, ㄷ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1문단에서 혁신의 확산은 특정 지역이나 사회 집단의 문화나 기술, 아이디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른 지역 또는 사회 집단으로 전파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매년 같은 내용의 기획 전시를 하는 것은 이러한 시공간적인 전파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혁신 확산의 예로 볼 수 없다.(ㄱ) 3문단에서 혁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혁신 수용자는 소수의 혁신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트북 컴퓨터가 처음 시장에 나오자마자 이를 구입한 사람은 전기 수용자가 아니라 소수의 혁신자라고 해야 한다.(ㄹ)

[19-24] 시가 복합

(가) 김동명, ‘파초’

작품해설 : 원산지인 ‘남국’을 떠나 추운 곳에서 가련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파초에

화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여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견디어 내려는 태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파초와 화자는 ‘조국’을 떠나 ‘겨울’을 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화자가 파초를 바라보는 시선은 연민, 위안, 동류의식과 연대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파초를 부르는 호칭이 ‘너’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다는 점, 화자가 파초를 향해 하는 행위의 변화 등에서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창작 연대를 감안할 때, ‘겨울’은 일제 치하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고난과 시련의 현실을 견디어 나가려는 태도

(나) 김광균, ‘수철리’

작품해설 :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은 화자가 느끼는 감회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무덤 옆 밤나무의 여윈 가지, 노을에 젖은 비석,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 등의 이미지를 통해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배경으로 깔린 ‘노을’과 ‘황혼’은 이러한 비애의 분위기와 조응하고 있다. 여윈 ‘흰나비’는 ‘무형한 공중에 체온이 꺼져 버린’ 누이의 모습을 연상시키는데, 화자는 누이의 영혼이 ‘갈 길을 못 찾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면서도 이제는 누이가 다시 ‘함박꽃’처럼 눈을 뜰 수 없다는 인식으로 비애와 서러움에 젖고 있다.

[주제]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낀 감회

(다) 윤선도, ‘견희요’

작가인 고산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연시조이다. 제1수에서는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고, 제2수에서는 자신의 결백함에 대한 하소연이, 제3수에서는 임금을 향한 변함 없는 충성심이, 제4수에서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리고 제5수에서는 충(忠)과 효(孝)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표출되어 있다.

[주제] 임금에 대한 변함 없는 충성심

19. 비판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의 무덤을 찾아 누이동생을 추억한다. 그러나 누이동생은 ‘무형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흙 속에 묻혀 있으며, 나죽-히 불러도 ‘함박꽃처럼’ 다시 눈을 뜰 수 없다.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적 갈림길에서 화자는 서러움에 젖어 있는 것이다. (다)에서 북방에 유배중인 화자는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하지만 ‘길고 긴’ 뉘, ‘멀고 먼’ 물로 표상되는 아버지와 거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로 인한 안타까운 그리움을 ‘울고 가는 외기러기’의 형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오답파하기] ① (가)는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 내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

으며, (나)에는 죽은 누이동생의 무덤에서 느끼는 감회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반대되는 이상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찾기도 어렵다. ② (가)에서 파초를 통해 자연의 섭리를 깨닫지는 않고 있으며, (다)시는 자연의 섭리와는 관련이 없다. ④ (나)에서는 대립적 가치를 찾기 어려우며, (가)와 (다)에서는 대립적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된다기보다는 화자의 마음이 정점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⑤ (가)~(다) 모두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20. 추론적 사고(화자의 태도 추리)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조국을 떠나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와 ‘꿈’에 젖어 있는 파초에서 연민과 동류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샘물을 길어 발등에 부어주기도 하고, 밤에는 머리맡에 있게 한다. 이러한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화자는 파초에게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말한다. 이는 ‘겨울밤’으로 상징되는 현실 상황을 함께 견디려는 태도를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부정적 현실 상황의 변화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누이동생의 ‘비인 묘지’에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가 있을 뿐, 그 묘지 위에 별들이 무엇을 속삭였는지 모른다.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을 뜰 것’ 같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알기에 ‘서러운 생각’에 사무치고 있다. 누이동생의 죽음이라는 현실 상황은 변화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화적’은 ‘상대를 용서하고 사이 좋게 지내는’의 뜻을 가진 말이다. (가)에서 상대를 용서하는 태도는 찾을 수 없다. (나)에 ‘독단적’인 태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단정적’은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의 뜻을 가진 말이다. (가)에서 화자가 대상(파초)를 향해 보이는 태도는 연민, 동질감, 일체감, 유대 등이므로 이러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나)에 나타나는 공허감, 적막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분명하지는 않다. ③ (가)에서 대상과의 관계 단절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나)에서는 화자가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관계 형성’을 열망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절대적 거리감에서 화자의 비관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역시 분명하지는 않다. ‘낙천적’은 ‘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의 의미로, (가)에서 낙천적 태도를 읽을 수는 없다.

21.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및 효과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소낙비’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파초’의 정열을 나타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으며, ‘샘물’을 ‘발등에 붓는다’는 화자가 파초에 대해 갖는 연민을 드러내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B]에서 ‘울어 예는 시내’는 ‘임 향한 내 뜻’과 정서를 구체화하는 감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B]를 문답 형식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대상인 ‘시내’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정서, 의지의 투영으로 보아야 한다. ③ ④ ⑤ 대구, 반어적 표현, 어조 변화는 두 부분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에서 화자가 파초의 발등에 물을 부어주거나, 자신의 머리맡에 있게 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파초를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초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연민과 동류의식이다. 파초는 화자에게 모성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돌봐주어야 대상이자 연민의 대상, 자신과 동일시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에서 ‘머리맡에 있게 한다’는 구절은, ‘조국을 떠났다’, ‘밤이 차다’로 보아 파초를 돌보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② ‘즐거 너를 위해 종이 되’고 싶다는 구절에서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화자는 ‘파초’를 위해 샘물을 길어 발등에 붓고, 차가운 밤에는 머리맡에 있게 하며, 즐겨 종이 되고자 한다. 이는 화자가 파초에서 느끼는 연민과 동류의식, 일체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감정과 의식은 마지막 연의 ‘우리’라는 표현으로 집약된다. 그러기에 화자는 ‘차가운 겨울밤’으로 상징되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우리의 겨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3.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동생의 가슴 우’에 내리는 ‘비’, 쌓이는 ‘눈’과 ‘이마 위에서’ 속삭이는 별은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죽음의 적막함과 공허감을 상기하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지를 찾기는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그것이 없을 때보다 시어가 가지는 느낌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② 누이동생 무덤 옆의 ‘밤나무’는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원 가지’를 내져는다. 이러한 밤나무의 형상은 무덤 주변의 적막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③ ‘흰나비처럼 여원 모습’에 이어진 ‘어느 무형한 공중으로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라는 구절로 보아 ‘흰나비’는 ‘누이동생’을 연상시키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④ 화자는 누이의 무덤 옆에서 누이를 떠올리고 있다.

24. 창의적 사고(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구조 및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2수로 보아, 망령된 ‘내 일’은 ‘임 위한 탓’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종장에서 보듯이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3수의 ‘내 뜻’은 ‘임 향한’ 것이기에, ‘내 일’을 ‘내 뜻’에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내 일’을 두고 ‘아무가’ 임에게 이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길고 긴’ 뉘, ‘멀

고 먼' 물로 인해 화자가 그리워하는 '아버이'가 계시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공간임이 드러난다. ④ 제4수의 '뜻'의 대상은 '아버이'이다. 제5수에서 화자는 '임금을 잊으면 귀 불효인가 여기노라'하여 '효'의 대상을 임금으로 확대하고 있다.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임금에 대한 '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제1수와 관련하여 보면, 임금을 향해 '내 몸의 해울 일'만을 닦고 닦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5-28] 현대소설 - 오영수, '화산택이'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52년에 발표된 소설로 전통적인 가족애가 근대화로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점을 시골에 사는 어머니(화산택이)와 도시에 사는 아들과의 갈등과 소재의 대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메산골에 사는 화산택이는 버리고 멀리 도시에서 도망을 하는 작은아들을 찾아온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화산택이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 아들은 화산택이에게 고무신을 주고는 신고 온 짚신을 갖다버린다. 저녁을 먹을 때는 화산택이가 밥이 적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밥을 퍼주지만 아들은 역정을 내며 화를 낸다. 그리고 화산택이가 아들이 좋아하는 꿀밤떡을 어렵게 갖고 왔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너덧 살 된 손녀는 한 입 씹고는 뱉어버린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화산택이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일찍 자라고 한다. 잠이 오지 않아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치다꺼리다가 참아왔던 뒤를 보기 위해 집밖으로 나온다. 그러나 뒷간을 찾지 못한 화산택이는 새벽에 치울 심산으로 할 수 없이 담 밑에다 뒤를 본다. 그런데 아침에 뒤를 갖다버린 쓰레기통에서 화산택은 꿀밤떡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본다. 화산택은 결국 아들집을 떠나 자신이 살던 시골로 되돌아온다.

[주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붕괴되어가는 가족애

25. 사실적 사고(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화산택이는 아들을 위해 귀한 꿀밤떡을 해왔지만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일찍 자라고 한다. 이런 아들에 대한 화산택이의 심정은 '자꾸만 쓸쓸했다. 뭇을 쥐었다가 놓친 것처럼 마음이 허전했다. 이러한 심정은 "자식도 강보에 자식이지, 쫓쫓' 돌아눕는다.'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화산택이는 수더분한 색시에게 장가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하는 아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화산택이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아들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들은 손 끝에 짚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로 보아, 화산택이가 고무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② 지문에는 꿀밤떡을 내뱉는 손녀에 대한 화산택이의 반응이 제시되지 않았다. ③ 화산택이의 '저거 조면(자기네들끼리 좋으면) 그만이지'로 보

아, 화산택이가 며느리를 나무라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⑤ ‘화산택이는 어서 날이 새면 싶었다. 잠도 안 오거니와 아까부터 뒤가 마려운 것을 참아 왔기 때문이다.’로 보아, 화산택이가 시골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서 날이 빨리 새기를 바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6. 추리적 사고(장면이 갖는 기능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A]는 화산택이가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을 상상한 것으로, 이곳에서 화산택이는 큰아들 내외와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고 있다. 화산택이가 이런 상황을 상상한 것은 작은아들의 집에서는 그런 가족애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산택이는 큰아들 내외와 살고 있는 상황과 작은아들 내외와 함께 있는 현재 상황을 대비하여 자신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없다. ② [A]는 화산택이가 자신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일들을 상상한 것으로, 배경이 환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도 허구성이 강조된 것이 아니다. ③ [A]는 화산택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내적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건의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④ [A]는 화산택이의 상상으로 사건이 병치된 것은 아니다.

27. 추론적 사고(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서술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서술자가 서술할 때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지, 아니면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는지를 구별하라는 것이다. ㉞은 적산집에는 뒷간이 밖에 없다는 사실을 서술한 것으로 서술자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㉟은 화산택이의 심정을 서술한 것으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② ㉠은 화산택이가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는 서술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④ ㉡은 화산택이의 심정을 서술한 것으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⑤ ㉢은 화산택이가 아침에 뒷간을 찾아보아도 못 찾았다는 서술로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이다.

28. 비판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이 문제는 <보기>에 제시된 것처럼, 소재들이 ‘시골(자연)과 도시(문명)’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영위되는 삶의 양식의 대비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수채’는 집안에서 버린 물이 집 밖으로 나가도록 만든 시설로, 도시의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시골의 뒷간과 대비되는 사물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짚세기’는 화산택이가 시골에서 신던 것이고, ‘고무신’은 도시에서 작은아들이 준 것이다. ② ‘초가집’은 화산택이의 시골집이고, ‘적산집’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이다. ③ ‘토벽’은 화산택이의 초가집 벽이고, ‘횃가루 벽’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 벽이다. ④ ‘갈자리 방’은 화산택이의 시골집 방이고, ‘다다미방’은 작은아들의 도시 집 방이다.

[29-32] 기술, ‘진공관과 트랜지스터’

지문해설 : 2극 진공관과 3극 진공관의 구조 및 원리를 설명한 후, 진공관의 문제점을 극복한 트랜지스터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극 진공관은 유리관, 필라멘트, 금속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판에 (+)전압 또는 (-)전압을 걸어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흐르지 않게 한다.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과 달리 그리드라는 전극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드는 전류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진공관은 부피가 크고, 유리관이 깨지기 쉬우며, 예열이 필요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트랜지스터이다. 트랜지스터는 잉여전자를 이용하는 n형 반도체와 정공을 이용하는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진공관과 트랜지스터의 구조 및 원리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해설 : 트랜지스터의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다. pnp 혹은 npn 접합 소자로 불리는 트랜지스터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pnp나 npn 구조로 3개를 접합해 만든 것이다. 여기서 가운데 위치한 n형이나 p형 반도체는 진공관의 그리드처럼 증폭 기능을 담당한다. 즉 pnp 접합 소자에서는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를 사용해 전류를 증폭한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에서 진공관의 개발이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의 출현 및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③ 플레밍은 에디슨이 우연히 진공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한 것을 토대로 2극 진공관을 발명하였다. 3극 진공관은 2극 진공관이 발명된 이후에 개발된 것이다. ④ 4문단에서 pn 접합 소자가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정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진공관 내부의 필라멘트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된다고 하고 있다.

30. 추론적 이해(시각 자료를 통한 정보의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잉여 전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n형 반도체에 해당하고, (나)는 정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p형 반도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 (나), (가)를 차례로 접합하면 npn 접합 소자가 된다. npn 접합 소자는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증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가)에서 잉여전자는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순수한 규소는 원자의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인 최외각 전자가 4개이며 최외각 전자들은 원자에 속박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기 힘들다. ③ (가)는 최외각 전자

가 5개인 비소를 규소에 소량 첨가해 만든 n형 반도체이다. ⑤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한 후 n형에 (-)전압을, p형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른다.

31.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해설 : 진공관은 부피가 컸으며, 유리관은 깨지기 쉬웠고, 필라멘트는 예열이 필요하고 끊어지기도 쉬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해 만든 트랜지스터이다. 따라서 ‘반도체 소자를 적용한 보청기’도 기존의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에 비해 부피가 작아졌으며, 유리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예열도 필요 없어졌다.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것은 ‘진공관을 사용한 보청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 진공관을 사용하면 진공관이 유리였기 때문에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반도체는 필라멘트가 없기 때문에 예열이 필요 없다. ② 반도체는 진공관에 비해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다. ③ 트랜지스터의 가운데 위치한 반도체가 진공관의 그리드와 같은 역할을 해 트랜지스터는 증폭 기능을 한다. ⑤ 규소나 게르마늄에 불순물을 첨가해야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32. 어휘·어법(어휘의 의미 이해)

정답 해설 : ㉠의 ‘토대’는 ‘어떤 사물이나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와 밑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토대’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기초, 기틀, 바탕, 발판’ 등은 적절하나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33-36] 예술, ‘연주 개념의 역사적 변천’

지문 해설 :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연주의 의미에 대해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18세기에는 당시 유행하던 영향미학에 따라 음악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감정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겨졌으며, 그에 따라 연주란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악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 들어 바뀌었다. 형식에 의한 음악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연주자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재구성하여 표현하고자 했다. 연주가 해석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세기에 들어 변화했다. 음악의 전문화 현상에 영향을 받아 연주자들의 독자성이 강조되면서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주제] 시대에 따라 변화된 연주의 의미

33. 비판적 사고(내용 전개 방식의 파악)

정답 해설 : 이 글은 연주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연주라는 중심 개념의 변천을 역사적 관점에서 개관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연주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기존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시대에 따른 연주의 의미 변화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어 시대에 따른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연주의 효용성을 예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연주의 의미가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뿐,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4. 추론적 사고(정보의 추리)

정답 해설 : ㉠은 ‘18세기의 연주’를 의미한다. 18세기에는 음악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객관적 감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그에 따라 연주는 연주자가 소리를 통해 작곡자가 의도한 ‘내용’인 객관적 감정을 청중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연주자가 자신의 주관에 따라 작품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② 작곡자와 연주자가 뚜렷이 분리된 것도 20세에 들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③ 작품의 형식에 의한 아름다움의 의미들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시기는 19세기이다. ④ 형식을 강조한 아름다움은 19세기 음악의 특징이다.

35.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해설 : 20세기에는 연주자의 주관적 감정에 의한 작품의 해석이 중요해졌다. 그에 따라 작곡자의 작품은 연주자에 의해 재창조되었다. 연주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작품이 본래의 악곡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문맥적으로 ㉠은 바로 연주자의 개성에 따른 주관적 해석에 의해 작품이 새롭게 지니게 된 의미를 뜻한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예는 ⑤이다. ⑤에서는 연주자가 자신의 개성에 따라 베토벤의 <월광>의 빠르기와 섬여림에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관객에게 전달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던 것은 18세기의 경향이다. ② 작품이 지닌 형식의 아름다움이 강조된 것은 19세기 음악의 특징이다. 또한 곡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연주자의 주관적 해석과는 관련이 없는 감상이다. ③ 작품의 주제 선율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작품이 본래 지닌 내용이 충실하게 관객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은 작품이 본래 지닌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작품의 효용에 초점을 맞추어 감상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36. 어휘·어법(사전적 의미의 이해)

정답 해설 : ‘향유’는 ‘누리어 가짐’이란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데, ‘혼자서 독차지하여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혼자서 독차지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은 ‘독점’이다.

정답 ④

[37-39] 드라마 극본 - 김영현, 「대장금」

작품해설 : 이 글은 조선 역사상 최초로 임금의 여주치의로 활약했던 의녀 대장금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대장금’의 극본이다. 수라간에서 요리를 하던 대장금은 궁궐에서 쫓겨났다가 의녀가 되어 돌아와 임금과 인연을 맺게 되고 ‘대장금’이라는 칭호도 받게 된다. 장금의 부모가 만나는 내용에서부터 드라마가 시작되어 장금의 탄생, 수난, 업적 등으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

37. 작품의 종합적 감상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S# 29~30’에서 최 상궁이 보쌈을 당해 끌려 온 박 나인의 죄를 추궁하고 있고, 이 때 기미 상궁과 나인들 예닐곱명, 최 나인 등이 최 상궁을 보좌하고 있다. ‘S# 50’에서의 한 나인의 발언으로 보아 박 나인은 ‘남자와 통정’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게 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최 상궁의 수하인 한 나인은 박 나인의 목숨을 염려하며 애태우고 있고, 천수는 천수대로 박 나인으로 하여금 토약질을 하게 하여 목숨을 살리려 애쓰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박 나인을 중심으로 할 때, 최 상궁과 박 나인은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있고, 박 나인과 한 나인, 그리고 천수는 우호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최 상궁, 박 나인, 한 나인, 천수 등의 대사에서는 주로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암시적이고 비유적인 대사들이 활용되고 있다고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S# 48’과 ‘S# 50’에 회상 장면이 나온다. ③, ⑤ 지문에 제시된 장면들의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그런데 ‘S# 29’, ‘S# 30’은 죄인을 엄하게 추궁하는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이고, ‘S# 47’은 사약을 받은 박 나인이 토약질을 하는 장면이며, ‘S# 48~51’ 장면은 매우 침통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즈넉한(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나 갈등 해결과 거리가 멀다.

38. 소재의 가능 파악

‘S# 50’에서 한 나인은 ‘네가 남자와 통정했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여 박 나인의 결백을 믿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그것은 심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앞부분의 ‘나도 일의 전모는 알 수 없으나’라는 내용으로 보아 구체적인 증거물에 근거한 생각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S# 48’의 ‘네가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구나. 살았느냐, 명이야…….’, ‘S# 49’의 ‘혹, 죽었거든 나를 용서치 말며 혹, 살았거든 내 말을 들어다오.’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② ‘S# 50’의 한 나인의 ‘목소리’를 참조하면 박 나인이 최 상궁에게 추궁당하는 죄

목은 ‘남자와 통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S# 48’의 ‘부자탕은 감두탕이나 녹두로 해독할 수 있다는 네 말이 떠올랐다.’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다.

⑤ ‘S# 30’에서 몹시 불안한 몸짓으로 ‘주변을 살피며 재빨리 술병 안에 무언가를 넣는’ 한 나인의 태도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S# 48’의 내용으로 보아 그 ‘무언가’는 박 나인이 받아먹은 부자탕을 ‘해독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9. 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보기>에서, ‘인물의 권위나 위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는’ 촬영 기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S# 30’은 ‘최고 상궁’이 바닥에 꿇려져 있는 박 나인을 내려다보며 추상같이 죄를 추궁하는 장면이므로 박 나인의 시각에 맞추어 ‘최고 상궁’의 모습을 올려 찍으면 그 위세가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 ㉡, ㉢, ㉣의 인물들은 그 권위나 위세를 내세울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다.

[40-43] 고전소설 - 작가 미상, ‘심청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이다. 판소리계 소설이란 몇 개의 근원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가 만들어지고, 이 판소리 대본을 소설로 정착시킨 형태의 소설을 말한다. 이 작품도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인신공희(人身供犧) 설화, 효녀 지은 설화 등을 근원설화로 하여 만들어진 판소리 ‘심청가’가 소설로 정착된 것이다.

제시된 부분은 심청이 인당수에 뛰어든 후 수궁에 머무는 장면이다. 구체적으로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수궁 사람들에 의해 심청이 정중하게 대접받는 장면 - 인당수에 뛰어들기 전 심청을 돌보아주었던 장 승상 댁 부인이 심청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배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 어머니인 옥진 부인이 수궁으로 찾아와 모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 도화동 사람들이 심청을 불쌍히 여겨 비석을 세우는 장면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제] 부모에 대한 효도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제시된 장면에서 대표적인 초월적 인물은 옥황상제와 천상의 광한전에 사는 옥진 부인이다. 옥황상제는 심청의 어머니인 옥진 부인이 수궁으로 와 심청을 만나는 것을 허락한다. 옥진 부인이 심청과 이별하면서 ‘그러나 오늘날 나를 다시 이별하고 너의 부친을 다시 만날 줄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와 ‘후에 다시 만나 줄 길 날이 있으리라’라고 하여 심청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대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나 내용이 없으며, 더욱이 이 부

분은 현실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다. ③ 두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장면은 간결한 문체가 아니다. 또 각각 다른 네 개의 사건이 나타날 뿐 사건 전개에 속도감을 주는 요소는 없다. ④ 장 승상 댁 부인의 배위에서의 제사 장면이나 도화동 사람들이 심청을 위한 비석을 세우는 장면 등에서 긴박한 분위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⑤ 어머니인 옥진 부인과의 대화 장면은 있으나 독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심청이나 옥진 부인, 장 승상 댁 부인 등의 내면 갈등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41.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해설 : ㉠은 장 승상 댁 부인이 심청을 위해 제사를 지낸 후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는 장 승상 댁 부인의 정성에 대한 하늘의 감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장 승상 댁 부인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족자에 물이 흐르고 검게 변하면 심청이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면 누군가에 의해 살아났는가며 의혹을 품는 것으로 보아 심청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소재이다. ② 강가에 나가 배를 타고 그 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심청의 혼백이 와서 흠향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아 장 승상 댁 부인에게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④ 제시문의 첫 부분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사해 용왕들이 극진히 심청을 대접하는 것, 또, 얼굴도 모르고 있었던 어머니를 만나고 또 그림으로써 아버지를 다시 만날 것을 알게 되는 것 보아 수궁은 심청의 효성(아버지를 위해 제물로 인당수에 뛰어듦)이 보상 받는 공간이다. ⑤ 옥진 부인이 이승에서 끼었던 옥지환을 심청이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딸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4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판각(板刻), 쉽게 말해 책을 찍은 곳이 서울이면 ‘경판본(京板本)’, 완산, 즉 지금의 전주이면 완판본(完板本)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안성에서 찍은 안성본(安城本)이 있다. <보기>는 경판본에는 없는 대목이 갖는 효과나 의미를 언급하고 있고, 답지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감상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옥진 부인은 남편과 이승 사람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 심청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예고 등을 말하고 있지 남편인 심 봉사의 어리석은 행위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광한전의 옥진 부인은 용왕이 겁을 내고 수궁이 긴장할 정도로 지위나 지체가 높은 인물이다. 심청을 이러한 인물의 딸로 설정함으로써 심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② 장 승상 댁 부인의 제문(祭文)에 ‘어찌 아니 슬플쏘냐.’나, 기러기와 어선들의 행위 묘사 부분 등에서 슬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③ ‘봄 풀에 해마다 한이 가없네.’라는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신이 이승에서 사용했던 ‘옥지환’과 매듭 등을 심청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부분에

혈연의 친밀감이 드러난다.

43. 추론적 사고(사자성어의 활용)

정답해설 : ㉠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지금까지 살아 온 15년 내내 한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각골통한(刻骨痛恨)이 ㉠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한자 성어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물아일체(物我一體)’는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을 뜻한다. ③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한다. ④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한다. ⑤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44-46] 언어, 한국어 경어법

지문해설 : 한국어에는 비슷한 의미를 갖지만 경어법 면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표현들이 많다. 이 글은 명제적 의미는 유사하나 경어법 면에서 다른 ‘감사하다’와 ‘고맙다’, 비슷한 의미 기능으로 쓰이지만 어휘적 의미의 차이로 경어법이 다른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예로 들어 경어법에 영향을 미치는 힘과 거리의 요인을 분석한 글이다.

44. 정보의 개괄적 확인

이 글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대화 참가자들 간의 ‘서열’, ‘친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을 들었다. 성별에 따라 높임 표현의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은 글 속에 나와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 피하기] ① ‘연세’, ‘생신’, ‘진지’가 ‘나이’, ‘생일’, ‘밥’보다 높임 표현으로 쓰이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친분이 높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고 하였다. ⑤ 글 전반을 통해 한국어의 높임법은 대화 상대가 누구인가, 또는 상황의 격식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사례의 적절성 판단

㉠은 고유어 ‘나이’보다 한자어 ‘연세(年歲)’가 더 높은 말임을 보여 주는 사례로, ‘이-치아(齒牙)’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둘 다 한자어인데 후자인 ‘생신’이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사망(死亡)-별세(別世)’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은 ‘밥’과 ‘진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인 ‘진지’

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말로 통용되는데, ‘자다-주무시다’의 경우가 동일한 유형이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의 ‘말’과 ‘말씀’은 둘 다 고유어인데 후자가 높임의 정도가 더 큰 경우이다. ③ ㉡의 ‘따님’은 한자어가 아니다. ④ ㉢의 ‘어머니’는 한자어가 아니다. ㉣의 ‘서점’은 ‘책방’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⑤ ㉤의 ‘내의’가 ‘속옷’보다 높임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의 ‘빈곤하다’ 역시 ‘가난하다’보다 높임의 정도가 큰 표현이 아니다.

46.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서열상 상위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하위자에게 사과나 부탁을 할 때 쓰는 말이다. ①의 경우에도 화자인 ‘시장’ 입장에서 볼 때 ‘과장’은 하위자에 해당하므로 ‘미안하다’는 말을 쓸 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비록 상위자이지만 대화 내용으로 보아 친한 사이로 보이므로 ‘미안하다’의 쓰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③ 회의석상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평소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사석에서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고 한 마지막 문단의 내용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④ 하위자인 부장은 상위자인 사장에게 ‘죄송하다’를, 상위자인 사장은 하위자인 부장에게 ‘미안하다’를 썼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⑤ ‘죄송하다’는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지 않으므로 가까운 친구에게 사과하는 말로는 부적절하다.

[47~50] 과학, ‘운동할 때 작용하는 운동생리학적 원리’

지문해설 : 이 글은 운동을 할 때 작용하는 운동생리학적 원리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하는데, 운동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섬유는 지근섬유와 속근섬유로 나뉜다. 지근섬유로 구성된 운동 단위는 속근섬유로 구성된 운동 단위에 비해 근섬유가 적다.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띠고,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속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축력과 빠른 수축 속도, 낮은 피로 저항력을 지닌다. 따라서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필요한 운동에,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폭발적인 순발력이 필요한 운동에 적합하다. 또한 운동 강도가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갈수록 지근섬유, a형 속근섬유, b형 속근섬유가 차례로 추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제]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특성으로 알아 본 운동생리학적 원리

47. 사실적 사고(글의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지근섬유는 하나의 운동신경에 10~180개 정도가 연결되고, 속근섬유는 300~800개 정도가 연결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운동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 수는 속근섬유가 지근섬유보다 많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하나의 운동 신경과 이에 지배되는 근섬유들을 운동 단위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속근섬유는 미오글로빈의 함량이 적어 흰색을 띤다고 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다리 근육을 포함한 골격근은 수많은 근섬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근섬유들은 운동 신경의 자극에 의해 수축된다고 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하나의 운동 신경에 연결되는 근섬유가 많을수록 근육의 수축력이 증가한다고 하고 있다.

48. 비판적 사고(정보를 활용한 시각 자료의 분석적 이해)

정답해설 : ‘크기의 원리’에 따르면,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운동을 할 때 운동 단위는 크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원된다. 이 원리에 따라 운동 강도가 저장도에서 고강도로 높아질수록 작은 크기의 운동 단위를 가지는 지근섬유에, 추가적으로 a형 속근섬유, b형 속근섬유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잘 표현한 것은 ‘운동 강도’가 커질수록 ‘근섬유 사용 비율’이 지근섬유에 속근섬유가 계속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는 ③번이다.

정답 ③

49. 추론적 사고(구체적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해설 : 운동선수 A, B, C의 장딴지 근육의 운동 단위 수는 같다고 하였으므로, 운동 단위를 100이라고 가정하면 세 선수의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비는 80:20, 50:50, 20:80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에 따르면, 지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축력과 느린 수축 속도, 높은 피로 저항력을 띠고,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속근섬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축력과 빠른 수축 속도, 낮은 피로 저항력을 띤다. 따라서 속근섬유의 비율이 C에 비해 낮은 B는 C에 비하여 장딴지 근육의 수축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B보다 지근섬유의 비율이 높으므로 B보다 장딴지 근육의 피로 저항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C는 A보다 속근섬유 비율이 높으므로 근육의 수축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에 따르면, 속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이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운동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속근섬유 비율이 가장 높은 C가 100m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에 따르면, 지근섬유 비율이 높은 사람은 지구력이 강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운동에 적합하다고 하였으므로 지근섬유 비율이 가장 높은 A가 마라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50. 어휘·어법(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노력이나 부담 따위가 적게’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④번이다. 이때 ‘가벼운 운동’과 ‘가벼운 활동’ 등은 노력이나 부담이 적은 운동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무게가 일반적이거나 기준이 되는 대상의 것보다 적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② ‘주머니가 가볍다’는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다’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다. ③ ‘생각이나 언어, 행동이 침착하지 못하거나 진득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⑤ 주로 ‘가볍게’의 꼴로 쓰여 ‘정도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이다.